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The 6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ies and Literature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s

2025. 10. 23.(목) 10:00 ~ 18:00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주최·주관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후원 | 통일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 | 유네스코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The 6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ies and Literature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s



차례 | Contents

01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 **개요** 6
- **일정표** 7
- **환영의 글** 8

02 1부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남북한 사전 비교

기조강연 1 • **한국의 국어사전 편찬 현황과 사전학의 과제** – 남북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 12
도원영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기조강연 2 • **중국에서의 조선말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 28
김철준 |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1 • **남북한 사전의 방언** 42
한성우 |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1 김정태 | 충남대학교 교수

발표 2 • **남북한 사전의 속구조와 《겨레말큰사전》** – 뜻풀이를 중심으로 – 60
변영수 | 겨레말큰사전 부장

토론 2 김병문 | 연세대학교 부교수

발표 3 •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84
이준환 |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 3 최현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발표 4 • **일본의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교육** – 학습자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 110
김민수 | 도카이대학교 준교수

토론 4 강남욱 | 성균관대학교 교수

03 2부 : 토착어의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

기조강연 3
• **소설에서의 토착어 사용** 150
최시한 |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기조강연 4
• **현대시에 쓰인 토착어의 의미와 가치** 160
이경수 | 중앙대학교 교수

작가와 대화
• **토착어로 문학하기** 174
도종환 | 시인
사랑방 아주머니
깊은 가을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정지아 | 소설가
『아버지의 해방일지』 부분

제6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01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 개요
- 일정표
- 환영의 글

개요 | Overview

행사명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0:00~18:00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주최·주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후 원	통일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 력	유네스코
주 제	1부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남북한 사전 비교 2부 : 토착어의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

일정표 | Timetable

시간	내용	연사	국가
개회식 사회 :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사무처장			
10:00–10:20	개회 선언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사무처장	한국
	영상 축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국
10:20–10:30	장내 정리		
1부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남북한 사전 비교 좌장 :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			
10:40–11:10	기조강연 1: 한국의 국어사전 편찬 현황과 사전학의 과제 – 남북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	**도원영**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한국
11:10–11:40	기조강연 2: 중국에서의 조선말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	**김철준**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11:40–13:00	오찬		
13:00–13:30	남북한 사전의 방언	**한성우**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
13:30–13:40	토론	**김정태**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
13:40–14:10	남북한 사전의 속구조와 《겨레말큰사전》 – 뜻풀이를 중심으로 –	**변영수** 겨레말큰사전 부장	한국
14:10–14:20	토론	**김병문** 연세대학교 부교수	한국
14:20–14:50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이준환**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
14:50–15:00	토론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한국
15:00–15:30	일본의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교육 – 학습자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	**김민수** 일본 도카이대학교 준교수	일본
15:30–15:40	토론	**강남욱**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
15:40–16:00	휴식 및 장내 정리		
2부 : 토착어의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 사회 : **노지영** 문학평론가			
16:00–16:30	기조강연 3: 소설에서의 토착어 사용	**최시한**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16:30–17:00	기조강연 4: 현대시에 쓰인 토착어의 의미와 가치	**이경수**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
17:00–18:00	작가와 대화 (현장 참가자 등 질의응답)	**도종환** 시인, **정지아** 소설가	한국
18:00	폐회 선언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사무처장	한국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환영의 글

안녕하십니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주제로 하는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한 사전과 중국, 일본의 한국어 사전 비교 연구를 통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해외 동포어를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방향을 모색하고, 시와 소설에 쓰인 토착어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법으로서 토착어로 문학하기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UN이 제창한 세계 토착어 10년(IDIL, 2022~2032)에 적극 동참하고 유네스코의 언어 다양성 보존 노력에 함께 하며, 국제사회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일동

Welcoming Remarks

Greetings.

The Gyeoremalkeunsajeon Committee, together with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is pleased to host the **6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ies and Literature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

In this forum, we seek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ompiling the Gyeoremalkeunsajeon (Great Korean Dictionary)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n dictionaries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Korean dictionaries published in China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since division, to bring together in a comprehensive compilation the languages of the South, the North, and overseas Korean compatriots. The forum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writing literature in indigenous languages as a means of ensuring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cademic discussions on indigenous words found in poetry and novels and through dialogue with writers.

While actively engaging i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ecade of Indigenous Languages (IDIL, 2022–2032)** and joining UNESCO's efforts to safeguard linguistic diversity, this annual forum is held with the aim of enlisting support and consensus for the compilation of the Gyeoremalkeunsajeon (Great Korean Dictionary). We kindly ask for your valued participation to grace this forum with your presence.

Members of the **Gyeoremalkeunsajeon Committee**

제6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02

1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남북한 사전 비교

최경봉 | 원광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1
- **한국의 국어사전 편찬 현황과 사전학의 과제** – 남북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
  도원영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기조강연 2
- **중국에서의 조선말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
  김철준 |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1
- **남북한 사전의 방언**
  한성우 |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1
김정태 | 충남대학교 교수

발표 2
- **남북한 사전의 속구조와 《겨레말큰사전》** – 뜻풀이를 중심으로 –
  변영수 | 겨레말큰사전 부장

토론 2
김병문 | 연세대학교 부교수

발표 3
-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이준환 |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 3
최현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발표 4
- **일본의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교육** – 학습자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
  김민수 | 도카이대학교 준교수

토론 4
강남욱 | 성균관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연사 약력



도 원 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 소장

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편찬위원회 위원

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정보보완심의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남북의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 위원

- 『국어사전학 개론』(공저), 『한국어 어휘론』(공저), 『디지털 시대의 사전』(공저) 등

기조강연 1

한국의 국어사전 편찬 현황과 사전학의 과제

- 남북 언어 통합의 관점에서 -

도원영 | 고려대학교

1. 머리말

남북은 1945년 이전까지 완전한 민족 공동체로 함께 살다가 분단 이후 정치·사회가 분리되었고, 이제 80년이 흘러 골육지정(骨肉之情)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거리낌 없이 소통이 가능한 언어 공동체로 묶여 있다. 이는 남북의 언어 통합이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남북 공동 사전의 편찬은 남북 언어 통합의 길을 닦는 실천적 과업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교류의 단절로 인해 2016년부터 공동 편찬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동회의가 언제 속개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흐르고 통하던 것이 막혔을 때, 물꼬를 틔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흐트러진 이랑을 다듬고 농기구를 정비하거나 좋은 씨앗을 마련하는 일, 저수지를 넓히고 새로운 밭을 일구는 일을 해야 한다. 국어사전 편찬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그간 국어사전 편찬자들과 사전학계가 이루어 낸 성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말뭉치를 활용하면서 편찬된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키우고 한계를 메우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을 비롯하여 대학 기관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등이 웹을 통해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 사전은 모두 대규모 언어 자료, 즉 말뭉치와 사전 편찬 도구를 활용하여 편찬되었다. 풍부한 표제어, 이론적 근거와 용법에 기반한 문법 정보, 상세한 의미 기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이용자, 연구자,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유용한 공구서로 기능하고 있다. 어휘 지식정보 자원으로서 사전은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고급 데이터로서도 활용될 만큼 산업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언어 자원으로 구축한 말뭉치와 디지털 편찬 도구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 사전에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내용, 누락된 정보, 일관되지 못한 기술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지금보다 앞선 시기의 우리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세 사전 모두 20세기 후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집필되고 수정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화기와 대한제국기,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언어 정보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국어사에서 현대 국어의 시기로 보지만 지금의 언중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먼 과거여서 당시의 의미나 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1945년 이전은 남과 북이 정치·사회·문화 공동체로 살아왔던 시기여서 이때의 언어는 남북의 개별 사전에서도 겨레말큰사전에서도 기술의 대상이 되며, 이때의 언어 자료는 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자료가 된다.

20세기 전후 자료가 참조 자원으로 지원된다면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정보 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가장 인색하게 기술되어 온 비표준형 표제어에 대해서도[1] 적절한 풀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은 규범적·교육적 텍스트이면서도 공동체의 문화가 녹아 있는 경험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언어 현실의 다양한 양상을 담는 일은 사전의 주요한 역할이다. 남북의 언어 통합에서도 규범성과 통일성, 단일화보다 다양성과 소통성을 중요히 여기는 인식이 공유되어 왔다. 유현경(2021)에서는 남북한 언어가 가지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남북이 각각 선택한 어휘, 의미, 표기법을 모두 수록하여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 기반의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사전학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 사전 편찬 자원과 도구를 확충함으로써 국어사전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밝힌 뒤 향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사전학이 주목해야 할 연구 과제에 대해 학계의 주요 논의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전의 미래가 불투명한 디지털 전환기에 지속 가능한 사전 편찬, 지속 가능한 사전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말뭉치 기반 국어사전의 현황

2.1. 말뭉치 기반 사전의 성과

우리는 국어사전 편찬의 오랜 경험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1911-1914),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조선어사전》(1938)은 근대 한국어를 수록하고 있다. 체계와 규모를 갖춘 《큰 사전》(1947-1957)을 비롯하여 《국어대사전》(1961), 《새우리말큰사전》(1975) 등이 해방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국어대사전 시대를 일구었다.[2] 한글 맞춤법이 1988년 개정 고시되면서 1991년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2년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이 출간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말뭉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와 대학연구소 주도의 사전 편찬 작업이 추진된바,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국어대사전》(199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이 출판되었다. 2000년대 웹 환경의 발전과 디지털 자원 공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적 투자가 상호 작용을 한 결과 포털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어사전을 언제 어디서든지 쓰고 있다.

이 절에서는 웹 서비스 중인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자. 포털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웹 서비스되고 있는 사전은 아래와 같다.

사전명	표제어	출간/수정	활용 자료 시기	사이트
연세한국어사전	5만	1998	20세기 중후반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43만	1999/2025	20세기 중후반~	국립국어원, 네이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40만	2009/2025	20세기 중후반~	네이버, 다음

위의 세 사전은 모두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현대 국어 주석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 빈도에 따른 표제어 선정과 의미 기술,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 정보의 기술을 이루어 디지털 정보 자원을 활용한 국어사전 시대를 열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말뭉치 기반의 사전 편찬 작업을[3] 전면적으로 시작한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은 4천3백만 어절

1) 이는 우리말의 규범을 세우고 표준어를 결정해야 했던 초창기 사전 편찬자들이 선택했던 기술 방식을 그대로 이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도원영(2023:3)에서는 지역어, 사회 방언을 다채로운 우리말로 인식하고 인정한 지 오래되었으나, 국어사전이 표준형 표제어로 보내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은 1982년에 수정증보판, 1994년에 전면개정판을 낼 때까지 32쇄를 거듭하였다.

3) 남기심·김한샘(2017:25-26)에서는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을 다시 분류하였는데, 말뭉치에서 용례를 인용한 《표대》를 말뭉치 기반 사전으로, 거시 구조 구성과 미시 구조 기술에 전반적으로 활용한 《연세》와 《고려대》를 말뭉치 중심 사전으로 보았다.

규모의 말뭉치에서 빈도 높은 어휘 5만 개를 추출하고 언어 정보를 정밀하게 기술하여 국어사전의 수준을 높였다. 용언에 대한 문법 정보를 격틀과 부류 정보를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형성소'를 설정하여 기존의 품사 정보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였다. 조사와 어미류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하나의 표제어에 배분한 미시 구조 기술량이 당대 국어사전 중에서 가장 많다. 1998년에 출간된 이후 포털 사이트 드림위즈를 통해 서비스되었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1999년에 출간된《표준국어대사전》(이하《표준》)은 12종의 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를 검토하여 당대 널리 쓰이는 표준어를 중심으로 방언, 옛말, 북한어까지 수록한 포괄적 사전이자 규범 사전이다. 2001년에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2002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6년에 개정판을 웹 사전으로 개통하였다. 당시 51만 항목에 이르러 한국어의 어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였다. 2019년 규범 사전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방언, 옛말, 북한어 9만 항목을《우리말샘》으로 이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자체 사전 검색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고려대》)은 1억 1천 어절의 세종 말뭉치 등을 활용하여 언어 정보를 추출하고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고빈도 비표준형 표제어를 상당수 수록하고 실제 쓰이는 어법을 반영하였으며, 파생 용언류를 부표제어가 아닌 주표제어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고유어 용언의 활용형 2만 항목을 표제어로 수록한 유일한 사전이다. 자체 검색 사이트가 없고 포털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이들 사전이 거둔 성과는 사전 편찬 자원과 디지털 편찬 도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4]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에서는 '연세 말뭉치 1~9'를 구축하고 용례 검색기 '말씀'을 개발하여 사전 편찬에 활용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사전 내용은 원고 검색기인 '말모이'를 개발하여 최종 원고 편집 과정에서 쓰였다.[5]

국립국어원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을 주관하여 현대 국어 말뭉치, 역사 말뭉치, 구어 말뭉치 등을 구축하고 여러 편찬 도구를 개발, 배포하였다. 현대 국어의 경우 형태 의미 주석 말뭉치도 구축함으로써 편찬 작업과 학술 연구에 기여하였다. 2013년 언어정보나눔터를 통해 말뭉치 외에도 전자사전, 각종 언어 정보 프로그램, 용어사전 등이 서비스되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한국어 말모둠 1'를 구축하고 용례 검색기 CETConc를 개발하였다. 사전 편찬을 위해 세종 말뭉치 외 민속 코퍼스, 문학 코퍼스, 한자어 코퍼스를 따로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1998년 기존 사전 검색기 3종을 개발하였다.《금성판 국어대사전》,《우리말 큰사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 기능을 갖춘 'LEX', 유의어·반의어 사전과 백과사전을 각각 검색할 수 있었던 'SAY', 'SEE' 등이 편찬자에게 제공되었다. 1999년에는 편찬실에서 집필한 원고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 'LAKR'를 개발하였다. 2007년에 사전 편집기 '두루미'를 개발하여 대사전 집필, 교열,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루미는 편집 작업 외에도 용례 검색기, 기존 사전 검색기, 데이터 관리 기능까지 통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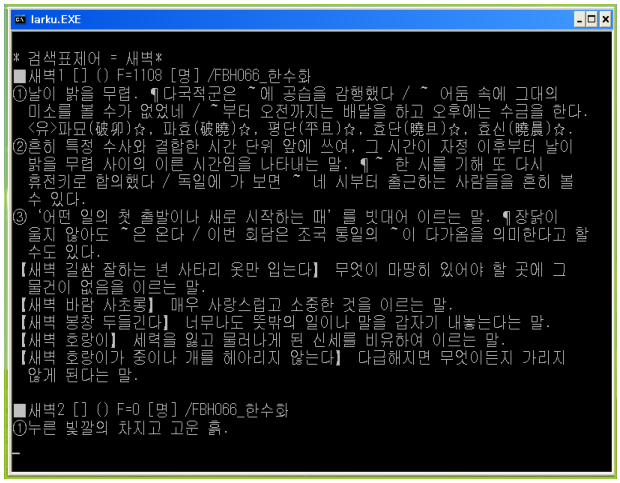
여러 기관에 공유된 도구가 있다. 2003년에 개발된 '통합사전검색기', 일명 '짱구사전'은 여러 종의 국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도 연동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검색기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공식화되면서 2006년부터 여러 기관의 국어사전 편찬자에게 공유되어 널리 쓰였다.[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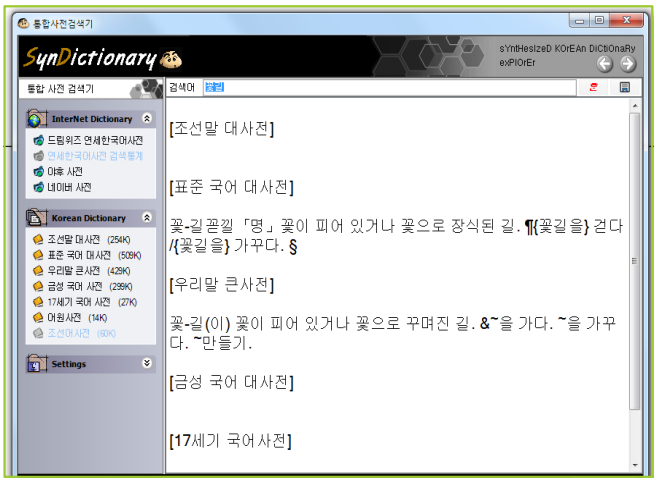
4) 앞서 언급한 남기심·김한샘(2017)에서는《연세》의 사례를, 홍종선·도원영(2013)에서는《고려대》의 사례를 다루었다. 남길임(2005)에서는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사전편찬사를 구분하고 말뭉치를 활용한《연세》와《표대》,《연세초등국어사전》과《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5) 최준호·안의정(2005:137-138)에 따르면 사전 편집기인 '말꾸러미'는《연세현대한국어사전》편찬 시에 개발되었다.

6) 최준호(2013)에서는《겨레말큰사전》편찬 도구로 기존 사전 검색기, 용례 검색기, 집필 관리 도구, 원고 집필기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소개한 바 있다.



[그림 1. LARK(1999)]



[그림 2. 통합사전검색기(2006)]

이러한 편찬 도구는 표제어 선정, 빈도 확인, 의미 및 용례 추출, 관련어 분석 등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구성하고 기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단순 교정에서부터 계열어 간의 불일치 정보를 추출하여 수정할 수 있어서 정보 오류를 개선할 수 있었다.

2.2. 말뭉치 기반 사전의 한계

이들 사전은 21세기에 웹을 통해 공개되었다. 가장 먼저 2000년에 《연세》는 드림위즈에, 《표준》은 2002년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2011년에 시작되었다. 벌써 십수 년에서 20여 년이 지났다. 언어가 변했고 언어에 투영된 언중의 인식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사전 이용자의 수준과 요구도 높아졌다. 지금의 시선으로 사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수정할 곳이 곳곳에 보인다. 예를 들어 아래 '생생하다'의 원어 정보를 살펴보자.

(1)

생생-하다 ①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생기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2025》
생생하다[生生-] 1. 식물이 아주 기운이 넘치게 살아 있다.~	《연세한국어사전, 1998》
생생하다[±生生-하_다] 형 ①(어떤 대상이) 힘이나 기운이 왕성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25》
생생-하다형 ①상하지 않고 성하다. 〈큰〉쌩쌩하다. 〈작〉싱싱하다.	《우리말큰사전, 1992》
생생-하다[生生-] 형 ①썩거나 디르지않아 성하고 싱싱하다.	《조선말대사전,1992,2017》
생생-하다[生生-]형 ①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성하다.	《금성판국어대사전, 1991》
생생-하다[生生-]형생기가왕성하다.	《새우리말큰사전, 1974》
생생-하다 [生生-] 형 생기가 왕성하다.	《국어대사전, 1961》
생생-하다[生生-] 형 생기가 왕성하다.(센말: 쌩쌩하다.〈싱싱하다).	《큰 사전, 1947-1957》
생생-하다 生生.①생기가 있다. ②음식이 잘 익지 않다. ③싱싱하다.	《조선어사전, 1938》
生生 生氣おうせい	《조선어사전, 1920》
싱싱ᄒᆞ다 生生(날)(날) To be fresh; to be new; to be well kept	《한영자전, 1911》
싱싱ᄒᆞ다 生生 êtrefreis, vif.	《한불자전, 1880》

《표준》과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고유어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다른 사전들은 한자 어근을 가진 혼종어로 보았다.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게일의 《한영자전》, 리델의 《한불자전》과 같은 초창기 사전에서도 그러하다. 현재 남북 언어 통합의 기준이 되는 남한의 《표준》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이하 《조대》)에서 '생생하다'의 기원을 달리 보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제어에 대해 정확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자료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사전이 활용한 말뭉치의 텍스트가 대부분 20세기 중반 이후에 발행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기, 19세기 후반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7)]

(2)

사전명	표제어	출간/수정	활용 자료 시기	사이트
큰사전	14.2만	1947-1957	20세기 전반기	한글학회, 국립국어원
수정 정보 조선어사전	9.5만	1941	20세기 전반기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134만	2016/2025	20세기 중후반~ *어휘 역사 정보 수록	국립국어원, 네이버, 다음

현재 국립국어원의 근현대 한국어사전 플랫폼을 통해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한글학회의 《큰사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에 가야 볼 수 있는 자료를 웹으로 쉽게 이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말샘》에는 약 5천 항목의 어휘 역사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말 기초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가 통시적으로 변화한 내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 2023년부터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근대 한국어에 대한 정보가 보강될 예정이다. 다만, 역사 정보는 어휘의 통시적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어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찬 작업의 참고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아래 예는 의미 기술에서 근대 한국어에 대한 참고 자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3)

백수 [白手]명①…=맨손. ¶왜병의 독한 칼날은 {백수로} 항전하는 송 부사의 작은집 금섬의목에도 잔인한 칼을 꽂았다. ≪박종화, 임진왜란≫②…=백수건달. 《표준국어대사전, 2025》

백수[白手] ①한푼도없는 처지에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❷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백수[白手]=맨손. 《우리말큰사전, 1992》

백수[白手] ①살갗이 흰 손.②=맨손②.||~ 처지, ~를 탄식하는 창백한 얼굴. 《조선말대사전,1992,2017》

'백수'의 경우 《표준》과 《조대》는 모두 '빈손', '맨손'의 의미를 공통되게 제시하고 있다.[8)] 반면 《조대》에서는 '살갗이 흰 손'을 1번 의미로 두었는데, 다른 사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의미이다. 그런데 관련 자료에서 '살갗이 흰 손'을 뜻하는 예문과 맥락 정보를 찾을 수 있다.

(4)

백수노동자(白手勞働者) 1920년 잡지『공제』에 소개한 단어로 손이 흰 노동자, 즉 화이트칼라를 뜻하는 것으로, 정신 노동자라는 어휘가 일반화되기 전에 사용된 것임.

7) 세종 말뭉치의 소설 장르에는 홍명희, 한설야, 이기영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 언어로 쓰인 '꿈', '고향', '임꺽정', '황혼' 등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인용례로 실려 있다.

8) '맨손'의 의미로 널리 쓰인 것은 한자어 '적수(赤手)', '공수(空手)'로, 유의 관계에 있다.

설명: 勞働者는手가黑하나室內의文筆勞働者卽賣文勞働者는手가白하다는意味.(노동자는 손이 검으나 실내의 문필 노동자,즉 매문 노동자는 손이 희다는 의미) 출전: 若水, 通俗流行語, 共濟, 朝鮮勞働共濟會《한국 근대 신어 데이터베이스》

(4)의《한국 근대 신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백수노동자'가 1920~30년대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에 관한 용어가 유입되면서 생성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20년대 김기진의 시 '백수의 탄식'에서도 '백수'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용례에서 확인되는 의미를 끝까지 추적한다면《조대》의 ①번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사전에서 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한정된 시기의 제한된 어법으로 보고 배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9)]

핵심은『공제』와 같은 근대 잡지 말뭉치나 문학 말뭉치가 편찬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한국 근대 신어 데이터베이스》는 한중연 토대 사업의 결과물로,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로 찾아가면 볼 수 있다.[10)] '한국 근대 잡지 코퍼스'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다.[11)] 그러나 찾기 어려운 곳에 있거나 자료 규모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적 지원과 학계의 적극적 연구가 필요하다.

3. 국어사전 편찬의 방향성

3.1. 오늘의 상황

앞에서 말뭉치 활용 사전의 성과와 한계를 살핀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다.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 지금 사전, 사전 편찬, 사전학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기에 있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공개되면서 관련 산업이 사회, 경제, 문화를 바꾸고 있다. 사전 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웹 사전이 고정적인 틀 안에 있다 보니 사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번역기, 유튜브, SNS 등이 사전의 기능을 해 왔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AI 편찬자가 등장하여 신어나 유행어 기술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어휘 지식정보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편찬의 앞날을 예측해서 발을 내딛는 일은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 정보의 부정확, 부적절, 부재와 같은 문제를 줄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찬 자원과 도구를 확충해야 한다.

3.2. 편찬 내용의 개선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할 일은 첫째,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전은 표제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참조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술 내용은 정확해야 한다. 집필 완료된 내용에서 오류를 찾아 수정하기, 부족하거나 부재한 정보를 메우고 채우기 등의 실천적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모든 미시 구조에 대해 걸쳐 이루어진다.

둘째는 다양성을 담는 일이다. 그간 한정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보수적으로 규정된 지침에 따르다 보니 기술 대상에 대한 다채로운 언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참고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기, 특히 비표준적·비규범적 용법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해 주기, 사용역별 신어나 신의미를 포착해서 추가하기 등의 작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고려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전문 자료를 통해 국어사전에서 기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통 문화와 관련된 한자어를 들 수 있다. 도원영(2025: 126-127)에서는 '상실(上室)'에 대응하는 '하실(下室)', 균여전 서문에 나오는 '누언(陋言)' 등에 대해 전문 사전, 한자어 말뭉치 등을 참고하여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한국 근대 신어 DB》의 주소는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3101이다.

11) 한림대가 구축한 기초 데이터를 가공하여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잡지 종수가 16종이며 전체 규모는 1천만 어절 정도이다.『한국잡지 100년』의 한국 주요 잡지 목록〈1896~1953〉에 따르면 총 855종에 이른다.

(5) 백수

백수[白手]①한푼도 없는 처지에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❷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손…
※ 이 말은 중국 고전에서부터 '백(白)'이 '없다'의 의미를 지녀 '(무엇이 없는) 빈손(으로), (무엇을 잡지 않은) 맨손(으로)' 정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878년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가 '노동자와 흰 손(Чернорабочийи белоручка)'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흰 손'을 '일을 하지 않는 부르주아 지식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20년대 우리나라에도 투르게네프의 영향을 받아 '흰 손'에 대응하는 한자어인 '백수(白手)'를 사용하는 문학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빈손, 맨손'의의미를 지닌 전통적 용법의 '백수(白手)'와 '흰 손'의 의미를 지닌 '백수(白手)'가 명확히 구별되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없다'의 의미를 지닌 '백(白)'의 전통적인 용법이 더 일반적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흰 손'을 뜻하는 새로운 용법의 '백수'에도 전통적 용법이 해석을 요구받게 되면서 '백(白)'을 '없다'의 의미로 재해석하게 되었고, '흰 손'만을 뜻하던 '백수'를 오늘날과 같이 '직업이 없는 사람, 무직(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백수'의 경우 어휘 역사 정보를 부가하였다. 중국어에서부터 유래된 기원과 우리말에서 수용, 변화한 과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12)]

(6) 흉칙하다

흉칙하다[형] '흉측하다(凶測--)'에서 '測'의 음을 '칙'으로 잘못 적은 말.
※흉악망측하다(凶惡罔測--)가 줄어든 '흉측하다'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흉칙하다'는 1920년대 신문 자료에서도 나올 정도로 널리 쓰였다.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測'은 '측'으로만 읽힌다. 다만, '測'의 통용자로 '則'이 쓰이기도 하여 '칙'으로도 읽히는 '則'의 영향을 받아 '흉칙하다'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알타리무

알타리무[명] 크기가 작고 잔뿌리가 많은 무인 총각무(總角-)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표준어 규정〉 제3장 제2절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총각무'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알타리무'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표준어와 방언 표제어에 대해 표준어로 보내는 가표제어 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올바른 어법과 관련지어 직접 뜻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6)의 '흉칙하다'에서는 한자음과 관련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7)의 '알타리무'는 표준어 규정에 제시된 비표준어이지만, 이미 《농업용어사전》과 학술 자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표준어라는 정보를 뜻풀이에서 삭제하고 부가 정보란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쓰고 있는 어법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을 통해 어휘에 대한 정보성과 소통성을 높일 수 있다.

3.3. 편찬 자원의 확충

편찬 자원의 확충은 지속 가능한 사전학이라는 관점에서 좀더 구체화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사전학이란 콜만(2016)과 푸에르테스-올리베라(2024)[13)]에서 제안한 ICT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사전 편찬과 사전학의 미래를

12) '백수'의 의미와 어휘 역사를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 박주원 외(2025)의 '백수의 언어문화사 시고'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13) 콜만(2016)에서는 네덜란드 온라인 사전(ANW) 프로젝트를 전망하면서 디지털 전환, 데이터와 시스템의 재사용, 협업,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포괄하였다. 푸에르테스 올리베라(2024)에서는 챗 GPT의 등장으로 사전 편찬의 실천 과정에서 기술적 혁신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사전 편찬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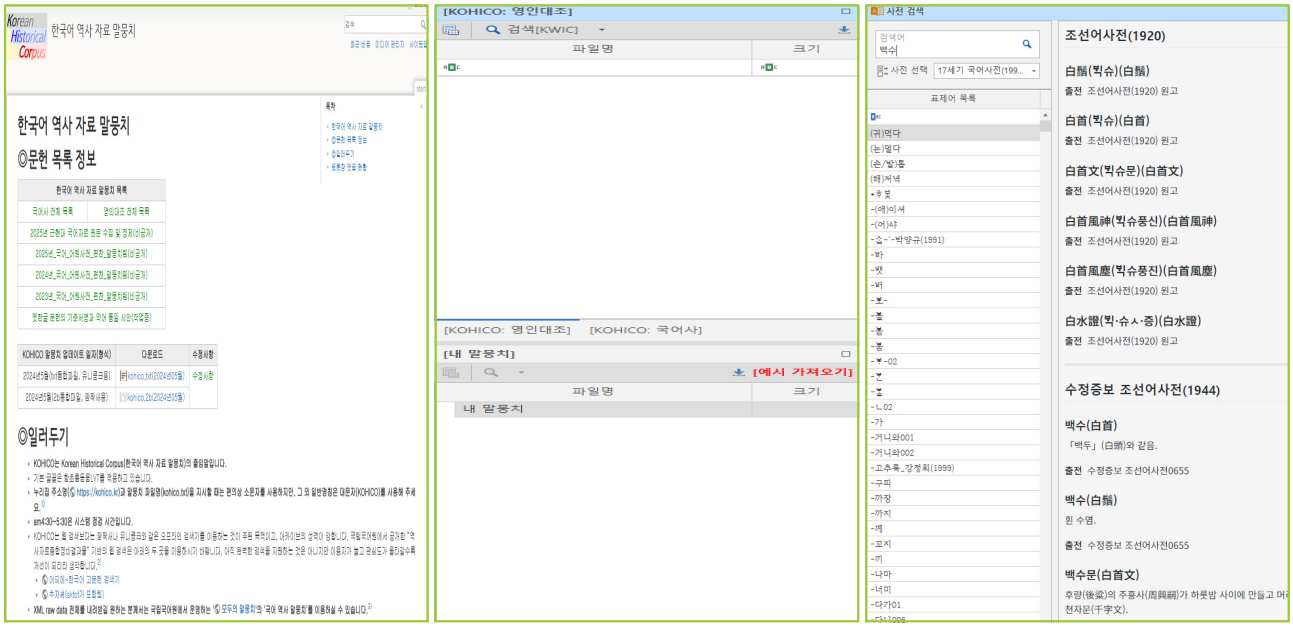
이끌어갈 이론적, 실천적 접근 방식을 말한다. 사전 편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 재사용과 시스템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사전학적 생산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방법론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관 간 협업과 공유, 개방적 접근(open access) 구조화 데이터 제공, 사전편찬 지식과 경험의 축적과 공유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천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미 한국은 지속 가능한 사전학, 지속 가능한 사전 편찬을 위해 정부와 대학, 개인 연구자가 참여하고 공헌해 왔다. 말뭉치, 검색기, 시스템을 공유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자원의 재사용과 공유를 하고 있다.[14] 이제 편찬 자원의 범위를 넓히고 개별 도구를 통합하여 사용성을 개선한다면 사전 내용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사전 자체의 효용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현대 한국어 사전 DB를 추가 구축하고 기구축 근대어 말뭉치, 국어사 말뭉치를 통합하고 보충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개발하여 공유하는 일이다. 또한 편찬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원문·번역문·이미지 서비스, 옛글자·이체자 인식, 음성·동영상 연동, 통계·의미망 생성 등과 같은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어어원사전 편찬 작업에서 말뭉치 검색기와 사전 검색기가 통합된 툴을 쓰고 있다. 향후《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KOHICO)》,《깜짝새》,《통합사전검색기》를 통합하고 거기에 사전 편집기가 결합된 시스템이 나와서 오픈API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지능형 한국어 개화기 사전》를 되살리는 일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간행된 이언어 대역 사전 중 한불자전, 한영사전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웹에서 서비스하였는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원과 도구가 재가동되거나 기존 사전에 결합되어 확장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전 편찬의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림 3. 말뭉치+용례 검색기+사전 검색기]

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는 연세 말뭉치를 분야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도 세종-민연 말뭉치 외 8억 4천만 어절 규모의 '물결21' 코퍼스, 동아일보 코퍼스, 한국 근대 잡지 코퍼스를 공개하고 있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편집기,《중한·한중 사전》편집기,《고려대 한한중사전》편집기의 속구조를 기관과 연구소, 포털사에 공개하여 편찬 도구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통합사전검색기》도 개인 연구자가 개발하여 배포한 것이다.《한국어 역사 말뭉치》는 개인 연구자가 개발, 운영하면서 관련 연구자가 함께 구축하고 정비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4. 국어사전학의 과제

앞서 오늘의 상황에서 국어사전 편찬 방향을 내용 정보의 개선과 편찬 자원의 확충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전학에서 논의해야 할 연구 주제는 최근의 연구 흐름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우선 내용 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주요 사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나아가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표준》, 《연세》, 《고려대》는 학술 연구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생산하였다. 최정도(2009)에서는 《표준》의 표제항 제시 방법에 대하여, 차재은(2023)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와 한글 맞춤법의 불일치 문제를 표제항과 활용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태룡(2012)에서는 품사 통용에 대하여, 서정호(2017)에서는 고유어 접두사에 대하여, 한영균(2006)에서는 용례를, 하영동(2019)에서는 프랑스어 차용어 기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표준》에 대한 정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표제어부터 미시 구조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 적용의 결과가 학계에 발표되고 있다.[15)]

《연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기황(2007, 2010)에서는 어휘 네트워크와 뜻풀이문 패턴을 분석하였고, 김한샘(2000, 2001)에서는 명사의 어휘 의미를 대상으로 의미망 구축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이후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의 편찬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다룬 논의가 상당수 발표되었다.

《고려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도원영·박주원의 (2011)에 총 12편의 논문을 통해 다루어졌다. 이 외에도 홍종선·김양진(2009)에서는 접사 선정 기준에 대해, 조지연 외(2018)에서는 용언 활용형 표제어의 처리에 대하여, 함향 외(2020)에서는 한자어의 형태 구조 분석에 대해, 정은진·허인영(2023)에서는 어원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와 실제 처리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말뭉치 기반 사전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는, 유현경(2012)에서 언어사전의 특징에 대해 《연세》와 《고려대》를, 조남호·노명희(2022)에서 《표준》과 《고려대》의 접미사를 비교 검토하였다. 김선혜(2024)에서는 《표준》, 《연세》, 《고려대》의 용언을 대상으로 논항 정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사전의 내용 정보를 개신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사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둘째, 근현대 우리말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말 규범과 국어사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와 현대의 접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경봉(2024)에서는 우리말 어문규범화에서 등장했던 어문규범안과 국어사전의 내용상 차이를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규범 간 길항으로 설명하였다. 안예리(2025)에서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에 나타난 근대 한국어의 표기 변이를 관찰하고 규범화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또한 어휘사적 연구 성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사전의 어휘 역사 정보, 어원 정보를 밝히는 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휘사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도재학(2018)의 '관광(觀光), 여채려(2020)의 '자두[紫桃]', 마원걸(2021)의 '휴지(休紙), 김진우(2022)의 '옆'과 '옆구리', 전한솔(2024)의 '댕기'와 '대님', 마원걸 외(2024)의 '기별(奇別)', 박주원 외(2025)의 '백수(白手)', 정은진(2025)의 '과자(菓子)' 등등 관련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셋째, 남북 언어의 통합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남북 언어 통합에서 유연한 태도를 강조한 연구로는 이관규(2016), 정희창(2020)를 들 수 있다. 어문 규범의 대해 단일화나 형식적 통일이 아닌 일상생활의 소통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병문(2019)에서도 단일 표준어, 단일 문법의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변종과 문법 체계를 병기·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언어 정책을 파악하여 북측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전영선 외(2019)에서는 대중매

15) 김종희(2024)에서는 규범 정보에 대하여, 이준환(2024)의 한자어 속음의 양상, 이성우(2024)의 고유 명사, 이소미(2024)의 발음 정보, 김지혜(2022)에서는 《표준》의 수정 보완 내용에 대한 메타 분석을, 정희창(2023)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성 해석을 국어정책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준희 외(2024)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제시 방안에 대하여, 박우진 외(2025)에서는 의성의태어 의미를 분석하였고 정희창(2025)에서는 합성어 처리 문제를, 김지윤 외(2025)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지식 체계와 유형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체를 활용한 언어 교양 사업에 대해, 전영선(2024)에서는 '평양문화어'의 정치적 함의에 대하여, 최효정 외(2024)는 최근 언어 통제 상황에 대해, 소신애(2024)에서는 북한 문화어의 방언 수용 양상에 대하여, 정유남 외(2020)는 『노동신문』의 이념적 어휘에 대하여, 이수정(2016)에서는 북한 속어에 나타난 북한 주민의 마음에 대하여 다루었다. 북한의 신어, 신의미, 사용역에 따른 다양한 변이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남북 용어 대비 연구도 유의미하다. 엄태경(2021)에서는 문법 용어에 대하여, 민지원 외(2022)에선는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해 중국 조선어 규정까지 비교하였다. 김지혜(2023)에서는 외국 국가명 표기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오세진 외(2016)에서는 남북 체육 기초용어에 대해, 최효정(2022)에서는 《표준》과 《조선말대사전》의 경제 분야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용주 외(2023)에서는 특수교육 용어를 중심으로, 도원영 외(2025)에서는 감염학 용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편찬 자원의 확충과 관련한 연구 주제로 첫째, 근현대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 사전의 사전학적 연구를 통해 참조 자원의 목록과 DB 구조의 설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병근(1977, 1986), 김민수(1983)의 《말모이》, 이지영(2011)의 《선화신사전》과 《조선어사전》(1920) 비교, 황용주(2014)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이유원(2021, 2024)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유춘동(2021)의 《조선말 큰사전》, 한용운(2019)의 《큰사전》 등의 연구가 있다. 안예리(2021), 이준환(2022), 정동경(2022)은 게일의 《한영자전》을, 이은령(2010, 2014)은 《한불자전》을 분석하였다.

둘째, 근대 한국어 말뭉치, 국어사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연구이다. 허재영(2013)에서는 근대어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래호(2023ㄱ)에서는 근대 국어 말뭉치 현황, 김진해(2023)에서는 개화기 국어 말뭉치, 허인영(2023)에서는 국어사 말뭉치 등에 대해, 김진해(2008), 이민우·김진해(2016)에서는 활자본 고소설 말뭉치에 대하여, 이래호(2023ㄴ)에서는 언간 말뭉치의 현황과 보완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박재연·김영(2015)에서는 한중 어문학 관련 기초 자료를 활용한 경험을 《고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셋째, 코퍼스 구축 방법론, 편찬 시스템의 개발과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운호(2005)에서는 종이사전의 정보를 관계형 어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연세》를 사례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수진(2025)에서는 온용어 플랫폼의 기능과 오픈 API 기능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 데이터 재사용 기술, 자동화 도구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분야는 데이터 과학 전공자와의 협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전 이용자 연구가 좀더 중요해졌다. 사전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 분석, 활용 방식 분석을 통해 편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희창(2023)에서는 《표준》의 개편에서 필요한 요건으로 사용자와의 소통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장경식 외(2024)는 사전 편찬 시 표준 독자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편찬 전략을 세운 사례를 다루었다. 남길임(2023)에서는 사전에 누락된 미등재 의미 단위를 사전에 등재하는 데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의미 단위의 유형에 따른 사용자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용자가 집필에 참여하는 오픈형 사전이 향후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위진(2018)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이용 양상을, 김경(2018), 이은경(2021)은 네이버 오픈 사전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참여 주제와 동기 등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AI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 한다. 지속가능한 사전 편찬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술적 혁신 결과를 편찬 작업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I 편찬자를 국어사전 편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AI 편찬자의 집필 결과를 평가하는 벤치마크 연구도 필요하다. 유세인(2025)에서는 신어 표제어에 대해 생성형 AI가 사전의 미시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세인·남신혜(2025)에서는 생성형 AI의 신어에 대한 사전 항목 자동 생성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5. 맺음말

앞에서 말뭉치 기반 사전이 성취한 결과를 무엇인지 검토한 뒤 연구 기반의 편찬 작업과 편찬 자원의 지원을 통한 성과였음을 밝혔다. 이에 그간 축적해 온 사전 편찬의 토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사전에 담기 위해 근현대 한국어 사전 자료와 근현대 한국어 말뭉치를 추가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전학의 관점에서 자원의 재사용, 공유와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시도할 만한 사례를 제안해 보았다.

정치·사회·문화 공동체였던 남북은 1945년을 기점으로 분단됨으로써 서로 다른 언어 정책과 사전 편찬의 길을 가게 되었다. 각기 다른 정치사회체제 속에서 각자의 사전을 편찬해 온 바, 함께 해 온 과거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편찬 자원을 구축하여 남북이 함께 사용하는 날을 기대한다. 학계는 현대 국어와 연계된 근대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해야 하며, 아울러 1945년 전후 남북의 언어 변화가 시작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언어문화의 다양성으로 해석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윤희. 2020. “1930년 전후 불경기와 경제·노동 관련 어휘: 조선인 발행 잡지의 어휘 소개란을중심으로.” 『인문연구』91, 223-260.
김지혜. 2023. “남북의 외래어 표기 비교 연구 -외국 국가명 표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99, 11-41.
남기심·김한샘. 2017. “말뭉치 활용 한국어사전 편찬의 실제--『연세한국어사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30, 7-36.
남길임. 2005.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동향과 지향 방향-최근 30년간의 사전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16, 75-98.
남길임. 2023. “‘의미 단위’의 사전 기술을 위한 사전 사용자 인식 조사.” 『언어사실과 관점』59, 189-216.
도원영. 2013. “다매체 시대의 사전 편찬과 편집기.” 『한국사전학』 21, 88-107.
도원영. 2023. “시대 변화에 따른 사전 의미 기술의 실제와 방향성.” 『한국어의미학회 제52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도원영. 2025. “한국 한문고전 용어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지향점.” 『민족문화』 69, 117-146.
박재연·김영. 2015. “한중 어문학 관련 기초 자료 활용을 통한 사전편찬 연구 —『고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18, 41-88.
박주원 외. 2025. "‘백수(白手)’의 언어문화사 시고.” 『우리어문연구』82, 277-314.
안예리. 2025. “『조선어사전』(1938)을 통해 본 근대 한국어의 표기 변이와 규범화.” 『제16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논문집』.
이은경. 2021. “이용자 참여사전의 발전 -주제&참여동기 분석 및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준환. 2018. “사전 편찬을 통해 본 리극로(李克魯)의 독립운동사적 위상과 냉전적 해석 굴레의 탈피.” 『배달말』63, 75-112.
이지영. 2011. “朝鮮語硏究會 編『鮮和新辭典』에 대한 고찰: 朝鮮總督府 編『朝鮮語辭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유현경. 2021. “남북 언어 통합 사전으로서의 『겨레말큰사전』.” 『언어사실과 관점』 53, 5-30.
유현경·남길임. 2009. 『한국어 사전편찬학 개론』. 한국문화사.
유춘동. 2021. “『조선말 큰사전』에 수록된 고소설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 『근대서지』23, 639-652.
이관규. 2016. “남북한 어문 정책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176, 63-90.
정희창. 2020. “남북 어문 규범의 단일성과 다양성 -표준어 맞춤법, 문화어 맞춤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84, 147-166.
조남호. 2022. “국어사전 편찬의 어제와 오늘.”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36.
최경봉. 2024. “100여 년의 언어 변화와 규범-어문규범안과 국어사전의 길항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학』109, 203-243.
최운호. "한국어 사전의 논리적 구조분석과 변환 -연세 한국어사전을 대상으로-."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4.- (2004): 51-76.
최준호·안의정. 2005. “달라진 말꾸러미2 (사전 편찬 도구)의 특징에 대하여.” 『언어사실과관점』14, 137-154.
한성우. 2014. “국어관 변화와 국어 연구 대상의 확장.” 『우리말 글』 60, 1-25.
홍종선 외. 2009.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
홍종선·도원영. 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Colman, A. 2016. “Sustainable lexic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9-2, 139-158.
Fuertes-Olivera, P.A. 2024. “Using ChatGPT and Reusing Data for Lexicographic Purposes.” *Lexikos* 34-1, 123-140.

참고 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5.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
국립국어원. 2025. ≪온용어≫. https://kli.korean.go.kr/term/bbs/indexServiceInfo.do.
국립국어원. 2025.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립국어원. 2025.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국어원. 2025. ≪근현대 국어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modern/main.
김민수 외. 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신기철·신용철. 1974.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25.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한글학회. 1947-1957. ≪큰사전≫. https://hangeul.or.kr/homepage/custom/koreanbig.

참고 사이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5. 코퍼스 분석 도구. http://corpus.korea.ac.kr/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25.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
https://ilis.yonsei.ac.kr/corpu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Dictionary Compilation and the Tasks of Lexicograph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Language Integration

Doh, Won Young | Korea University

Abstract

Prior to 1945, the North and South formed a single national community; since the divisio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have separated, and over the past eighty years, even the bonds of kinship (骨肉之情) have gradually faded. Nevertheless, Korean-language speakers on both sides remain bound as a single linguistic community capable of seamless communication—this enduring mutual intelligibility provides the strongest evidence for the feasibility of Korean language integration.

However, the prolonged chill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suspension of exchanges have made it impossible, since 2016, to conduct joint discussions on grammar or to collaborate in dictionary compilation. When once-flowing channels are blocked and reopening them seems unlikely, it becomes crucial not only to explore new openings but also to expand linguistic data repositories, develop new areas of research, and secure reliable language resources. In the absence of direct collaboration on lexicographic planning and orthographic standards, South Korea must devise an independent strategy to consolidate its dictionary infrastructure and secure core linguistic assets. Such a strategy should build on the achievements of existing national and academic dictionaries while addressing areas that remain underdeveloped or unexplored.

At present,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the Urimalsaem online service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long with academic dictionaries from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are widely used. These dictionaries have been compiled using large-scale linguistic corpora and advanced compilation systems, but they focus primarily on modern Korean from the late twentieth century to the present. Consequently, descriptions of Korean as used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are often insufficient or inaccurate. Although this period lies within living memory for older generations, it is distant for middle-aged and younger speakers, underscoring the need to strengthen lexicographic coverage of this era. Above all, because the North and South shared a single ethnolinguistic and political community before 1945, linguistic resources from this period should serve as core data for future joint lexicographic endeavors. This will enrich and diversify dictionary entries and enhance their historical accurac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n dictionary services and ongoing compilation and revision projects, and assesses the state of foundational linguistic resources used in lexicographic work. It then proposes direc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dictionaries and outlines corresponding tasks for Korean lexicography to address existing issues and limitations. Through these efforts, the study seeks to strengthen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language integration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olid lexicographic foundation in preparation for the eventual moment of linguistic unification.

기조강연 연사 약력



김 철 준

중국 연변대학교 외국어학원 교수

현) 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 서부프로젝트 담당

전)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대학 학장, 조한문학대학 학장, 언어연구소 소장

- 〈길림성 제9기 교육교학우수성과상 1등상〉, 〈길림성 제10기 사회과학우수성과상 1등상〉, 〈길림성 사회과학연합회 제5차 우수성과상〉 수상
- 『'유해'류 문헌의 한-조어휘 연구』, 『〈화어류초〉의 근대한어 연구』, 『조선왕조한어학습서 〈역어유해〉의 근대한어 연구』 등 집필

기조강연 2

중국에서의 조선말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

김철준 | 연변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는 언어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적·학문적 기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언어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과 같다. 사전은 이러한 언어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단순한 단어 목록을 넘어, 한 민족의 정신이 녹아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사전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문헌을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용되는 수많은 전문 용어와 신조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다롱이' 같은 신종 인터넷 용어는 사전에 기록될 때 비로소 언어 체계 안에 자리 잡게 되며, '갑분싸' 같은 일상어 역시 사전을 통해 그 쓰임과 뉘앙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사전은 언어의 변화를 포착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표준어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의 혼란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사전학 연구는 전통적인 종이 사전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언어 자료 체계를 모색한다.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처리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사전 데이터는 단순한 뜻풀이 이상으로 문맥과 문화적 배경까지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어의 사용 빈도나 의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언어가 사회적 현상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연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코로나'라는 단어가 질병명에서 시작해 경제·사회적 현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사전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사전 편찬과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언어를 통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다. 고대 중국의 『설문해자』에서부터 오늘날의 위키낱말사전에 이르기까지, 사전은 단어를 모으는 작업을 넘어 인류의 지혜를 한데 묶는 연결고리였다. 특히 글로벌화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현시대에는 다국어 사전의 개발이나 장애인을 고려한 접근성 연구 등 사전학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지 결정하는 살아있는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조선말사전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식의 다리이자 미래 중한 교류의 인프라로, 언어 보존, 국제 소통, 학문 융합이라는 삼중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이 작업은 다민족 사회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한중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살아있는 문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선말 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는 단순한 언어 도구를 넘어 중한 문화교류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다민족 사회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핵심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중국 조선어 사전 편찬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한 다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92년~1995년에 출판한 『조선말사전』과 2023년에 출판한 『조선말대사전』을 간단히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사전학 연구 성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중국 조선어 사전 편찬 현황 분석 (1980~2024)

2.1 주요 조선어 사전 편찬 현황

전명	편찬자/기관	출판사	출판년도	유형
조선말소사전	연변력사언어연구소	민족출판사	1980	일반어휘
조선말속담사전	김기종	연변대학출판사	1981	속담
조선말한자어성구소사전	김기종 등	료녕인민출판사	1982	한자 성구
조선말의성의태어분류사전	연변언어연구소	연변인민출판사	1982	의성어/의태어
조선말반의어사전	연변언어연구소	연변인민출판사	1984	반의어
조선말맞춤법사전	문창덕 등	료녕민족출판사	1985	표기법
조선말어휘규법편람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연변인민출판사	1988	어휘 규범
체육용어사전	송천식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1	전문 용어
조선말새말사전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료녕민족출판사	1991	신조어
조선말성구사전	최경남 등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	성구
조선말사전(1)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연변인민출판사	1992	종합사전
조선어방언사전	리윤규 등	연변인민출판사	1992	방언
조선말속담분류사전	현금석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3	속담
조선말사전(2-3)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연변인민출판사	1995	종합사전
조선어표준발음법사전	전병선	연변인민출판사	1999	발음
섞갈리기 쉬운 조선말사전	최경남 등	흑룡강민족출판사	1999	오용 예방
세계인명번역사전	중국조어사정위원회	연변인민출판사	2003	번역
최신한중사용외래어사전	홍윤선 등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	외래어
“류해”류어휘사전	김철준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7	어휘사
한조세계지명록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연변인민출판사	2009	지명
중한사전	전명길 등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대역사전
중·조·한·일·영 생물학용어대역사전	김광수	인민출판사	2012	전문 용어
조선말대사전	김광수 등	연변인민출판사	2023	종합대사전

2.2 중국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전 단계와 공헌

중국 조선어 사전 편찬은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쳤다. 1980~1991년은 기초 어휘 정립과 분야별 사전 태동기로, 『조선말소사전』(1980)이 기틀을 마련했고, 『의성의태어분류사전』(1982), 『속담사전』(1981) 등 특수 어휘 사전이 등장했다. 연변 학계와 출판사가 주도해 조선어의 학술·문화적 위상을 공고히 했다.

1992~2000년대 초는 표준화·규범화 단계로, 『조선말사전』(1992~1995) 등 종합 사전이 언어 체계성을 강화했고, 『맞춤법사전』(1985), 『표준발음법사전』(1999) 등이 교육·공문서 표준을 제공했다.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언어 통일성을 확보했다.

2000년대 이후는 국제화·디지털 시대로, 『중한사전』(2012), 『세계인명번역사전』(2003) 등 다국어 사전이 편찬되고, 2023년 『조선말대사전』이 발간되며 디지털 시대 대응력을 강화했다. AI 기반 주석 시스템, 남북 언어 비교 연구 등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사전 편찬 주체는 학술 기관(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지역 출판사(료녕·흑룡강 민족출판사), 교육 출판사(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등으로, 학문적 엄밀성, 지역적 다양성, 교육 연계성을 확보했다.

중국 조선어 사전 편찬은 “어휘 정리→표준화→국제 소통” 3단계를 거쳤으나, 온라인 플랫폼 연계 동적 업데이트, 남북 어휘 차이 비교 프레임워크, 중한 공동 동아시아 언어 데이터베이스 확장 등 향후 과제가 남아있다.

3. 『조선말사전』(1992)과 『조선말대사전』(2023)의 비교

3.1 사전[1]의 성격의 비교

공통점은 대상이 모두 조선족, 표준어휘를 기본으로 하며, 과학적 뜻풀이를 제공한다. 차이점은 편찬 배경 및 과정에서 사전은 새로운 유형임을 강조하고, 대사전은 발전 과정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함을 강조한다. 수록 내용은 사전은 15만여 개의 표준어휘, 대사전은 특히 개혁개방 이후 특수한 올림말을 수록한다.

3.2 올림말 선택원칙 비교

공통점은 먼저, 둘 다 현대 조선족의 언어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어휘를 기본으로 사전 올림말을 선택했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올림말로 선택하고 있다. 셋째, 어근적 단어가 동명사가 아닌 경우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경우, 따로 올림말로 잡기로 명시했다. 넷째, 조선말의 문법 특성을 고려하여 접사를 독립적인 올림말로 선택하였다.

차이점은 첫째, 올림말 선택 기준의 세부성에서, 사전은 올림말 선택에 대한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였고, 대사전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서술되었다. 둘째, 올림말 종류에서, 사전은 고유 명사, 고어,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대사전은 새로운 한자어휘, 풍부한 고유어, 옛스러운 우리말 어휘부류, 조한문 혼용체의 각종 자료들과 도서, 신문, 잡지들에서 쓰인 어휘들 등을 올림말로 선택하였다.

3.3 올림말 배렬의 비교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 다 조선어 자모순(가나다라순)을 기본 배렬 원칙으로 삼는다. 둘째, 동음이의어는 각각 따로 올리고 어깨번호를 달아 배렬하며, 품사 순서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차례도 유사하다. 셋째, 한자어는 단어 첫머리 한자를 기준으로 한자 획수가 적은 것부터 배렬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 동사 배렬에서 사전은 별도 규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사전은 ‘-하다’, ‘-되다’형 동사를 올림말 뜻풀이 뒤에 배렬한다. 둘째, 단어결합 배렬은 사전이 별도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대사전은 첫 단어 올림말 항목에서 뜻풀이 뒤에 한 글자 들여 배렬한다. 셋째, 성구, 속담 배렬에서 표기 기호와 위치, 자모순에 대한 설명이 대사전이 보다 상세하다. 넷째, 동음이의어 토의 배렬에서 사전은 순서를 정해놓았지만 대사전은 별도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섯째, 말소리 고려 여부와 방언 지역명칭 배렬에 대해서도 대사전은 명시하고 있다.

3.4 발음표시 비교

공통점은 첫째, 목적이 발음표시를 통해 올림말의 실제 발음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발음을 돕는 것이다. 둘째, 발음표시 위치는 올림말 뒤에 특정 표기 방식으로 하며, 사전은 〔〕, 대사전은 [ ] 안에 표시한다. 셋째, 발음표시 대상은 단어 내 어음동화,

1) 『조선말사전』을 사전, 『조선말대사전』을 대사전이라 한다.

된소리, 거센소리, 소리 변화, 둘 받침 발음 변화, 수자나 다른 문자 포함 경우 등이다.

차이점은 첫째, 발음표시 규범 근거가 다르다. 사전은 동북3성조선어문사업 제1차 실무회의에서 토의 채택된「조선말표준발음법」을, 대사전은『조선말규범집』의「조선말표준발음법」을 따른다. 둘째, 발음표시 상세 경우에 차이가 있다. 사전은 절음현상에도 발음표시를 하고 문법적 특성 표시와는 별도로 발음표시를 다룬다. 대사전은 한자어, 형태부, 단어결합 등에서의 발음 변화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발음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명시한다. 셋째, 발음표시 방식의 세부 차이가 있다. 사전은 별도 표기 방식을 언급하지 않는 반면, 대사전은 발음이 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로 표기한다. 또한 대사전은 둘 받침 발음과 단어 끝 받침 발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어 사전보다 더욱 상세하다.

3.5 문법적 특성의 표시 비교

공통점은 품사소속 표시와 불완전명사, 자동사, 타동사 표시에 있다. 둘 다 올림말의 품사소속을 특정 략호로 표시하며, 접두사, 접미사, 토는 이음표 '-'를 붙여 어근이나 어간에 붙어 쓰임을 나타낸다. 불완전명사, 자동사, 타동사 구별은 품사표시 뒤에 특정 표기를 추가해 표시한다.

차이점은 첫째, 품사표시 방식의 상세도가 다르다. 사전은 기본적인 품사만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는 뜻풀이 뒤에 품사전성으로 보여준다. 대사전은 원칙상 하나의 품사표시를 주되, 일부 경우 품사의 다용성을 상세히 표시한다. 둘째, 품사표시 제외 대상이 다르다. 사전은 관련 언급이 없지만, 대사전은 한 글자 안에 들여다 배렬한 올림말, 공고한 단어결합 및 성구,1415 속담에는 품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셋째, 용언의 어간과 토 어우러짐 표시에 차이가 있다. 사전은 대표적인 형태를 ( )안에 보여주고, 대사전은 어음전환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그 대표적인 형태를 ( ) 안에 넣어 보여준다. 넷째, 특수변화형태 표시도 다르다. 사전은 언급이 없지만, 대사전은 특수한 변화형태가 있는 동사는 ( ) 안에 형태를 밝히며, 합성동사는 구태여 밝히지 않는다.

3.6 올림말 뜻풀이 비교

공통점은 뜻풀이의 간결성, 전문성, 현대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의성 처리 시 본의를 앞에 놓고 풀이하되, 본의가 소극화되면 전의 뒤에 놓는다. 말체·글체 단어는 (말체)·(글체)로 특성을 밝힌다.

차이점은 첫째, 뜻풀이 상세성이 다르다. 사전은 상세 지침과 특정 상황에서의 단어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사전은 기본원칙과 일반준칙을 설명하며 간략하게 언급한다. 둘째, 사회정치용어 처리가 다르다. 사전은 특별 언급이 없지만, 대사전은 본질적 내용을 풀이한 뒤 보충풀이를 덧붙인다. 셋째, 고사와 유래 처리에 차이가 있다. 사전은 특별 언급이 없는 반면, 대사전은 고사, 유래와 의미적 근거를 밝힌다. 넷째, 뜻풀이 방식이 다르다. 사전은 구체적 예시와 방법을 제시하고, 뜻갈래가 복잡할 때 Ⅰ, Ⅱ, Ⅲ…으로 갈라준다. 대사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동의어는 '='표시로 련계를 지어준다. 다섯째, 전제와 특성에 대한 서술이 다르다. 사전은 필요한 전제를 달아주는 반면, 대사전은 풀이문장 앞뒤에 필요한 전제나 특성에 대한 서술을 달아준다.

3.7 용례와 출처 비교

공통점은 첫째, 용례 목적이 단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사전은 뜻풀이 이해와 조응관계 밝히기, 대사전은 뜻과 쓰임법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용례를 제시한다. 둘째, 용례는 례구와 례문으로 분류 제시한다. 셋째, 의성의태어 등 어음전환 단어에 참고를 제공한다.

차이점은 첫째, 용례 제시 빈도가 다르다. 사전은 필요할 때 제시하지만, 대사전은 많이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용례 부호 사용에 차이가 있다. 사전은 부호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사전은 례구 앞에 '‖', 례문 앞에 첫 번째는 '|', 두 번째부터는 '／',

례구에서 올림말과 같은 형태는 '~'로 표시한다. 셋째, 참고 제시 위치가 다르다. 사전은 〔참고: ○○○〕란에 넣고, 대사전은 뜻풀이 뒤끝에 참고를 덧붙인다. 넷째, 참고 제시 원칙이 다르다. 사전은 기본형에만 참고를 넣고, 대사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참고] 표식을 붙인다. 다섯째, 출처 제시 여부가 다르다. 사전은 언급이 없고, 대사전은 례문 출처를 문학예술작품 등에 한해 밝히고 신문, 잡지는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략호와 부호의 비교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략호와 부호는 용어의 품사, 전문 분야, 외래어 등 정보를 간략 표기하고, 뜻풀이나 례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둘째, 략호는 품사, 전문 분야, 외래어 관련 략호로 구성된다. 품사 략호는 감동사, 명사, 동사 등을 표시하고, 전문 분야 략호는 건설, 경제, 문학 등 분야를 나타내며, 외래어 략호는 다양한 외국어를 표기한다. 셋째, 부호는 례문, 뜻풀이, 동의어, 반의어 등 간 관계를 나타낸다.

차이점은 첫째, 략호 세부 구성이 다르다. 품사 략호에서 사전은 감동사, 관형사, 동사 등을 〔〕로 표시하고, 자동사, 타동사 등은 (자), (타) 등 괄호를 추가로 사용한다. 대사전은 [ ]와 ( )를 사용해 [감], [명] 등으로 기본 품사를 표시하고, (자), (타) 등은 [ ] 안에 함께 넣는다. 전문 분야, 외래어 략호에서 사전은 (( ))로 건설, 경제, 문학 등을 표시하지만, 대사전은 외국어를 직접 표기한다. 둘째, 부호 종류와 기능이 다르다. 례문 관련 부호에서 사전은 ‘ ‖ ’를 례구 앞에, ‘ | ’를 례문 앞에 사용하고, 대사전은 ‘ ‖ ’, ‘ | ’, ‘ ／ ’ 등을 사용한다. 셋째, 뜻풀이 관련 부호가 다르다. 사전은 D를 뜻의 색깔 풀이 앞에, :를 뜻풀이하지 않는 올림말 뒤에 사용하고, 대사전은 D, :를 다르게 사용하며, (=) 등 사전에 없는 부호가 있다. 넷째, 동의어, 반의어 관련 부호가 다르다. 사전은 ⇒,=, ↔를 동의어, 반의어 앞에 사용하지만, 대사전은 ⇒는 없다. 다섯째, 기타 부호가 다르다. 사전은 ⇒, ~ 등의 부호가 있고, 대사전은 *, △, ☞ 등 사전에 없는 부호가 있다.

3.9 자모 배렬의 비교

공통점은 자음과 모음 배렬이다. 자음 배렬에서 기본 자음 ㄱ~ㅎ과 겹자음 ㄲ, ㄸ, ㅃ, ㅆ, ㅉ 순서가 같다. 모음 배렬에서 기본 모음 ㅏ~ㅣ와 복모음 ㅐ, ㅒ, ㅔ, ㅖ 순서도 일치한다.

차이점은 첫째, 받침 표기가 다르다. 사전은 받침 자모를 ( ) 안에 표기하고 ㅇ만 명시, 나머지는 자음 목록에 포함하지만, 대사전은 받침을 별도로 분류하여 ㄱ~ㅎ, ㄲ~ㅄ, ㅆ로 나열한다. 둘째, 복모음 ㅘ, ㅝ, ㅙ, ㅞ, ㅚ, ㅟ 배렬이 다르다. 셋째, 맞춤법 관련 내용이 다르다. 사전은 맞춤법 언급이 없고, 대사전은 맞춤법 설명과『조선말규범집』을 따른다고 명시한다. 이외 대사전은 한자어, 외래어 표시 원칙과 어휘적 특성 표시에 대해 설명한다.

3.10 구체적인 올림말 비교

이 부분에서는 ㄱ로 시작되는 어휘로부터 ‘가귀하다’ 즉 ‘가나’ 앞의 어휘까지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여 사전과 대사전의 어휘 개수와 올림말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휘 개수 비교

사전에는 126개의 어휘가 실렸으나 대사전에는 364개의 어휘가 실렸다.

2) 올림말 뜻풀이 비교

가:

의미	사전	대사전
①	어떤 표면의 끝부분 또는 그 가까이	어떤 겉면이 끝나는 부분 또는 그 가까이
②	그릇 같은 것의 아가리의 언저리.	그릇 같은 것의 아가리의 언저리.
③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주변	어떤 데를 가운데로 하여 그 둘레와 가까이 잇닿은 곳

비교 분석:

①은 '겉면'과 '표면'의 용어 선택 차이 외에는 뜻의 차이가 거의 없음. ③의 경우 사전이 '일정한 장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가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다.

가-(假-):

의미	사전	대사전
①	거짓으로 된 또는 가짜	임시적 또는 정식이 아닌
②	임시적 또는 정식이 아닌	거짓 또는 가짜

비교 분석:

뜻 자체는 같으나, 정의의 순서가 다르다. 사전은 '거짓'이 첫 번째 정의이며, 대사전은 '임시적'이라는 뜻이 우선이다.

-가' (-家):

의미	사전	대사전
①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②	능한 사람	어떤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일정한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어떤 것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일에 능한 사람
④	특성을 가진 사람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⑤		특성을 가진 사람

비교 분석:

사전은 총 4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항목이 사전에서는 삭제되었으며, 나머지는 같은 뜻을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사전은 총 5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3) 전체적 특징 및 평가

첫째, 어휘 수록에 있어서 사전에는 126개 어휘가 올림말로 실려 있고 대사전에는 364개 어휘가 실려 있다. 거의 3배에 가깝다. 이는 사전에 수록된 어휘가 15만 개인데 비해 대사전이 40여만 개인 걸 감안하면 알 수 있다.

둘째, 사전은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문 용어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보다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현 방식을 취하나 대사전은 문법적이고 학술적이며 상세한 례문과 설명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결론적으로, 두 자료는 각기 다른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상세한 학술적 이해가 필요하면 대사전이, 직관적이고 간결한 이해가 필요하면 사전이 유리하다.

4. 중국에서의 사전학 연구

사전은 한 언어의 어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와 용법을 기술하는 중요한 참고 도구로서, 언어 공동체의 지식과 문화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특히 중국 조선어 사전학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접촉 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 현상을 포착하고,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언어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조선어문』총서(24)에 수록된 사전학 관련 논문 10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조선족 사회의 사전학 연구 동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논문들은 사전 편찬 본체 연구, 학술용어 및 외래어 처리, 개별 단어의 주석 기법, 사전학 이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조선어 사전학의 연구 범위와 방법론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중국 조선어 사전학이 한국이나 서구의 사전학 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고의 분석은 중국 조선어 사전학 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동아시아 언어학적 관점에서 사전 편찬 이론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1 사전 편찬 본체 연구

사전 편찬 본체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영환의 「우리 말 사전편찬에 대한 몇가지 견소」(1987), 김철규의 「조선말사전에서의 참고설정문제」(1993), 전병선의 「국제표준 조선어사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2000) 등이 있다.

김영환은 논문에서 사전의 기본 특징은 지식성이라며 세 측면을 논한다. 첫째, 사전 성격은 편찬 목적·요구와 관련, 사회적 수요 충족이 필수다. 신조어 사전은 '신조어'를 기본 체계로 해야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주장하며, 협의·광의로 '신조어'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 『조선말사전』 등의 단어 해석을 비교 분석했다. 둘째, 완정성은 사전 편찬 특수 요건으로, 표제어 규범화·주해에 의해 결정된다. 표제어 규범성은 핵심 요소로, 중국어 영향으로 생긴 변종 단어나 규범화된 일부 단어도 과학성이 부족하므로 사전 수록 시 재차 규범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사전의 지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신조어 사전을 별도로 편찬해야 하며, 사전의 완정성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규범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김철규는 논문에서 조선말사전의 참고 설정 문제를 다룬다. 그는 참고가 주석 사전의 간접 설명으로 표제어 의미와 사용·뉘앙스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한국 『새우리말큰사전』과 조선 『현대조선말사전』(2판) 참고 방식을 비교, 한국 사전은 세밀하고 조선 사전은 간결 명확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참고 상세·간략 여부에 규칙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우리말큰사전』과 달리 일부만 참고로 제시하는 사전에는 의성어·의태어 특성 고려, 어말 받침 대응 제외, '센말' 등 관계 드러내기, 체계·순서 따라 제시, 3개 이내 제한, 모음·자음 대응 불명확 시 모두 제시, 음운 대응 단어 참고 표기 등 7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규칙으로 사전 일관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병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조선어사전편찬부호』, 『사전편찬상용조선어략어』, 『조선어사전편찬기본술어』 제1부의 제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부호"는 국제표준 ISO 1951-1973을 참조, 다종·이중언어·다국어 사전 편찬용 부호는 국제적 부호를 채택했다. "략어"는 학문 분야별·어종·문체 색채 표현 략어 대부분 국제표준을 따랐고, "기본술어" 범위도 국제표준에 맞췄다. "부호", "략어", "기본술어"는 기존 조선말사전 편찬에 없었지만 국제표준 따라 제정해 국제 의사소통과 한국어 국제화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국제표준 준수와 민족적 특성 반영을 설명했다. "부호"는 오랫동안 사용된 익숙한 부호 수용, 동의어 표시 부호 등 병용 가능하게 하였다. "략어"는 국제표준에 없는 학문 분야 략어를 새로 제정하고 전체 명칭도 조선말에 맞게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표준 제정 과정에서 남북한 언어 현실 고려를 밝혔다. 중·조·한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를 채택하였고, 조선과 한국 같은 경우 그 방식을, 중국과 조선 같은 경우 중국·조선 방식을,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 중국·한국 방식을 선택했다. 세 나라 모두 다른 경우 중국 방식 유지, 전체적으로 조선과 한국 방식 존중해 한반도 기준 통일 조선어 지향을 설명했다.

위에서 보다시피 김영환은 사전의 지식성과 규범화 강조하였고 김철규는 참고 체계의 체계적 구축 필요성 제기하였으며 전병선은 국제표준과 민족적 특성의 균형을 통한 표준화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사전 편찬의 과학성, 체계성, 사회·시대적 요구 반영이 핵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4.2 학술용어, 외래어, 준말에 관한 연구

학술용어, 외래어, 준말에 관한 논문들로는 전명길의「사전의 뜻풀이에서 준말과 동의어 처리에 대한 계선문제」(1991), 송천석의「우리 말 사전에서의 학술용어에 대하여」(1994), 장흥권의「세 사전의 대조로 본 세 나라에서의 조선말외래어」등을 들 수 있다.

전명길은 논문에서 주석 사전의 동의어와 준말 처리가 간접 뜻풀이에 속하며 활발히 활용되지만, 둘을 구분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사전은 준말과 동의어 개념 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거북'은 '거부기'의 준말로 처리된 반면, '거적'은 '거저기'와 동의어로, '거북등'은 '거부기잔등'과 동의어로 처리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는 사전 과학성을 훼손하고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

저자는 준말과 동의어 처리 구분을 위해 두 원칙을 제시한다. 형태소 축약형 준말은 말소리나 형태소가 줄어든 경우 기본 단어가 있을 때 준말로 처리하고, 단어·음절 축약형 준말도 단어나 음절이 줄어든 경우 기본 단어가 있을 때 준말로 처리한다. 이때 '기본 단어'와 '준말'은 기본 형태에서 비롯되고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사전 편찬 시 준말과 동의어 처리 경계는 이 원칙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송천석은 논문에서 현대사회 과학 발전으로 학술용어가 일상 언어생활에 빈번히 사용되면서 사전 수록 대상이 돼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학술용어를 사전에 수록해야 할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한국어 단어 구분 어려움, 외래어·한자어 특수 의미, 사전 특성, 대중 지식수준 향상에 따른 필요성 증가 등이다.

그러나 모든 학술용어를 수록할 수 없으므로 선정 원칙을 제안한다. 학문적 수준에 따라 기초, 중등전문, 심오한 전문지식으로 분류하고, 사용 빈도 조사, 수록 목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술용어 뜻풀이 방식에서 전문사전과 일반 사전 차이를 지적한다. '자기증폭' 등 용어는 내용·표현 차이로 전문사전 설명을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저자는 일반 사전에서 학술용어 비중은 작지만 사전 전체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학술용어 선정과 뜻풀이 방식에 대한 이론·실천적 검토가 필요한 연구 과제임을 강조한다.

장흥권은 1992년 출판된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조선말사전』(제1권),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조선말대사전』, 한글학회의『우리말큰사전』세 사전의 외래어 표제어를 비교 분석했다. 연변사회과학원의『조선말사전』을 기준으로 표기 방식, 뜻풀이, 원어 기원 등을 비교한 결과, 세 사전은 외래어 개념 해석과 범위 확정에 차이를 보였고, 음운 표기 방식도 다르다. 로마자어 등 자음 표기에서 북한과 중국 조선족은 된소리, 한국은 거센소리를 사용하나 한국 학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형욱은 된소리 표기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 사전은 외래어 표기와 수용, 어휘 구조, 단어 형성 방식, 다의어·동음어·동의어 체계, 표준화 작업 결과물인 다듬은말과 규범어 확정 방식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저자는 김민수의 견해를 인용, 남북 언어 연구에서 차이보다 공통점에 더 주목해야 하며, 이는 민족어 동질성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에서 보다시피 전명길은 이론적 정의와 사전 적용의 괴리 해소가 핵심이고 송천석은 일반 사전의 접근성과 전문성 균형 필요하며 장흥권은 표기 규범 통일을 위한 민족적·학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언어 규범의 과학성과 실용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탐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4.3 개별적인 단어들의 사전주석 연구

개별적인 단어들의 사전주석에 관한 논문으로는 최리화의 「접미사 '-님'에 대한 사전주석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1991)와 강미화의 「동사 '먹다'의 사전주석에 대하여」(2007)가 있다.

최리화는 논문에서 접미사 '-님'의 용법을 분석했다. 기존 사전들은 '-님'이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결합 특성과 기능 설명은 상이하다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 '-님'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 인격화된 기타 명사, 존경 의미 부여 가능한 어간에 결합하며, 존경의 의미를 추가해 새로운 명사를 파생시킨다. 최리화는 '-님' 해석을 "주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 어근에 결합해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로 통일하고, 구체적 예시 제시를 제안했다.

강미화는 논문에서 『국어대사전』 등 9종 사전에 수록된 '먹다'의 주석을 비교·분석했다.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먹다'는 다의어로 처리해야 하지만, 의미 간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 동음어로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기존 사전 주석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사전에 따라 '먹다' 동음어 구분, 의미 배열 순서, 품사 처리 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새로운 주석 방식을 제안했다. 저자는 두 개의 표제어로 구분하고, 사용 빈도 높은 의미 우선 배열, 기본 의미 최상위 위치, 품사 제약 완화, 기본·파생 의미 통합 처리 원칙에 따라 '먹다' 주석을 재구성했다. 제안된 주석 체계에는 '먹다^{1}'은 타동사·자동사·보조 용법으로, '먹다^{2}'는 자동사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되다는 뜻으로 정의했다.

결론적으로 강미화는 단어 의미 규정에 기본의미설 등을 종합 적용하고, 표제어 선정과 뜻풀이 시 사용 빈도와 의미적 위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의어 처리 시 추상적 기본 의미와 구체적 파생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위에서 보다시피 최리화의 연구는 형태론적 접근으로 '-님'의 결합 특성을 체계화했고 강미화의 연구는 의미론적 접근으로 '먹다'의 다의성과 주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사전의 과학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4 사전학에 관한 연구

사전학에 관한 연구에는 송천석의 「사전학과 사전학의 구성체계에 대하여」(1993)가 있다.

송천석은 논문에서 사전학의 학문적 위상과 범위를 논의했다. 학계는 사전학을 언어학의 분과로 보고, 사전학과 사전 편찬학을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국어대사전』 수정증보판도 '사전학'만 수록해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송천석은 『영국백과사전』 등을 근거로 사전학 연구 범위를 백과사전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전학을 단순 어문사전 학문으로 국한하면 학문적 의의가 약화된다고 경고하고, 사전학을 참고 도서 편찬의 법칙과 원칙을 연구하는 독립 학문으로 정의했다.

사전학의 체계화 연구는 핵심 과제로, 특히 사전 분류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전학을 일반 사전학과 사전 편찬학 두 분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일반 사전학은 사전 일반 이론, 분류 체계, 편찬 조직, 자료 수집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사전 편찬학은 백과사전, 전문사전, 어문사전 등 편찬 이론과 실천 문제를 연구한다.

송천석은 영국 사전 편찬가 존슨의 말을 인용해, "사전은 시계와 같아 낡은 것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고, 좋은 시계라도 완벽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는 사전학을 언어학 하위 분야나 사전 편찬 기술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송천석의 연구는 사전학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 범위를 확장해,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그의 사전학 구성 체계 분석은 이후 연구 방법론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4.5 의미주석에 관한 연구

의미주석에 관한 논문으로는 강보유의 「사전편찬의 의미주석과 관련한 몇가지 리론적문제」(1992)이 있다.

강보유는 논문에서 사전 편찬의 핵심 과제인 의미주석 체계화를 위해 네 가지 이론적 접근을 제시했다.

먼저 의미소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의어 비교에서는 공통·구별 의미소 추출 필요성을 제기했고, 동음이의어 식별에서는 구분 기준을 제안했다. 동의어 구분에서는 구별적 의미 특징 명시를 주장했고, 반의어 관계 분석에서는 본질적 의미 대립 구조를 해명했다.

다음으로 공감각과 의미 파생을 설명했다. 공감각적 의미 수록 기준을 제시하며, 일시적 정서적 의미와 전의적 의미를 구분해야 하고, 공감각 의미는 독자적 의미항으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다음 모호성 처리 원칙을 논의했다. '동쪽', '봄' 등 사례를 통해 개념적 모호성은 주석에 반영하고, 모호도 최소화 노력과 명확한 개념의 모호적 용법에도 주의해야 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의성 제어 방안을 설명했다. 주석문 간결성과 다의성 회피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의어 사용 시 기본 의미에 의존할 것을 권고했다.

강보유는 의미주석이 의미 분석의 과학성과 주석의 실용성을 조화시켜야 함을 제시했다. 정밀한 의미 기술과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 주석 방식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사전이 이론적 기반과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갖출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사전학과 언어학의 접면에서 의미 분석의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사전 편찬이라는 실천적 작업에 적용한 사례로서, 학문적 이론과 실제적 응용을 연결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5.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우선 중국에서의 조선말사전의 편찬 현황을 통하여 중국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전 단계와 공헌과 사전 편찬의 주체와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으로 1992년에 출판된『조선말사전』과 2023년에 출판된『조선말대사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주로 사전의 성격, 올림말 선택원칙, 올림말 배렬, 올림말 뜻풀이, 발음표시, 문법적 특성 표시, 용례와 출처, 략호와 부호, 자모 배렬의 비교를 진행한 다음 구체적인 단어의 올림말 비교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자료는 각기 다른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상세한 학술적 이해가 필요하면 대사전이, 직관적이고 간결한 이해가 필요하면 사전이 유리하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중국조선어문』에 게재된 사전학 관련 논문 10편을 분석하여 중국 조선어 사전학 연구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조선어 사전학은 사전 편찬의 실제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이론적 체계화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편찬 방법론 탐구 등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학술용어 처리, 외래어 표기, 준말 규정 등 언어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반면, 백과사전적 접근이나 역사적 사전 편찬 경험의 이론화와 같은 분야에서

는 연구의 공백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국 사전학 연구는 비교적 짧은 역사와 제한된 연구 인프라로 인해 독자적인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과 함께 사전 편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중국 조선어 사전학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한중 비교사전학 연구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전 이론을 정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차원적 언어 정보 처리를 시도한다면, 중국 조선어 사전학은 더욱 풍부한 학문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대 언어학의 최신 이론과 방법론을 수용하면서도 중국 조선어의 사회언어학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중국 조선어 사전학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천이 우선 순환하는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중국 조선어 사전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미화, 「동사 '먹다'의 사전주석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1호, 2007년
강보유, 「사전편찬의 의미주석과 관련한 몇가지 리론적문제」, 중국조선어문 제4호, 1992년
강보유, 『사회언어학, 문화언어학, 사전학 연구』, 민족출판사, 2017년
권승모 등,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1996년
김광수, 『조선말대사전』, 연변인민출판사, 2023년
김기종,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92-1995년
김영환, 「우리 말 사전편찬에 대한 몇가지 견소」, 중국조선어문 제4-5호, 1987년
김철규, 「조선말사전에서의 참고설정문제」, 중국조선어문 제3호, 1993년
리기원,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조선어학전서16, 사회과학출판사, 2005년
송천석, 「사전학과 사전학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4호, 1993년
송천석, 「우리 말 사전에서의 학술용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5호, 1994년
장흥권, 「세 사전의 대조로 본 세 나라에서의 조선말외래어」, 중국조선어문 제1호, 1999년
전명길, 「사전의 뜻풀이에서 준말과 동의어 처리에 대한 계선문제」, 중국조선어문 제1호, 1991년
전병선, 「국제표준 조선어사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 중국조선어문 제2호, 2000년
최리화, 「접미사 '-님'에 대한 사전주석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중국조선어문 제1호, 1991년

Compilation of Korean Dictionaries and Lexicographical Research in China

Cheol-jun Kim | Yanbian University

Abstract

The compilation of dictionaries and lexicographical research serve as cultural and academic foundational work for preserving the history of a language and facilitating its future development. Particularly in China, a multi-ethnic country, the compilation and research of Korean dictionaries carry a triple mission: language preservat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integ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dictionary compilation in China, compares the *Joseonmal Dictionary* (published in 1992) with the *Great Joseonmal Dictionary* (published in 2023), and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lexicographical research in China.

Korean dictionary compilation in China has evolved through three stages: (1) a foundational vocabulary-establishment period (1980–1991); (2) a standardization and codification phase (1992–early 2000s); and (3)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digitization (from the 2000s onward). Academic institutions such as th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of the Yanb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regional publishers have played leading roles throughout.

A comparison of the two dictionaries reveals that the *Great Joseonmal Dictionary*—with approximately 400,000 lexical entries—surpasses the *Joseonmal Dictionary* (150,000 entries) in scale, phonetic notation, grammatical labeling, example sentences, and source citations, while also reflecting timely reforms that respond to contemporary linguistic change.

The study of Chinese Korean dictionaries can be examined through th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China*, covering topics such as the core methodology of dictionary compilation, treatment of academic terms and loanwords, annotation techniques for individual entries, and the construction of lexicographic theory. Research achievements include strengthening the scientific nature of language norms, creating a balance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thnic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ing a systematized annotation framework. However, deficiencies remain in theoretical systematization and in the exploration of digital compilation methodologies.

• Keywords: Korean in China; dictionary compilation; lexicographical research; *Joseonmal Dictionary*; *Great Joseonmal Dictionary*; language standardization

발표자 약력



한 성 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현) 국립국어원 국어규범위원회 위원

전) 한국방언학회 수석부회장

-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우리 음식의 언어』, 『문화어 수업』 등 집필

발표 1

남북한 사전의 방언

한성우 | 인하대학교

1. 서론

'이 땅의 모든 말'은 방언이고 개별 언어인 '한국어'는 방언의 집합체이니 방언은 곧 한국어이다. 사전(辭典)은 개별 언어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 해설한 것이니 한국어 사전에는 한국어의 모든 방언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삼단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믿는 이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사전도 없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전에는 방언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방언이 등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등재할 수도 없다. 이렇듯 방언과 사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사전이 편찬되어 왔고 사전 이용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해 오고 있다.

이 글은 논리와 현실이 복합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답을 제시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에 '이 땅의 모든 말'을 실을 수는 없으니 잠정적으로 '표준어'를 싣지만 그렇다고 방언을 무시할 수 없으니 방언 중 일부가 실린다. 따라서 표준어와 방언의 정의와 둘 간의 관계 정립부터 문제가 된다. 사전에 방언을 싣기로 결정되었다면 그것의 '넓이와 깊이'에 관한 근본적 문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어가 남과 북으로 '분단(分斷)'되어 있고 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산(離散)'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훨씬 더 많고 복잡해진다.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갈래는 사전 일반론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전에 방언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된 것이다.[1] 두 번째 갈래는 기존의 국어사전에 실린 방언에 대해 방언 연구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 것들이다.[2] 그리고 세 번째 갈래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3]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 양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논의는 기존의 연구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방언이 반영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방언의 일반적 관계, 기존 사전에서의 방언 처리에 관한 문제점 등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전과 방언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이고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전에 방언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언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와 정리를 바탕으로 사전에 반영될 방언과 그것을 사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 편찬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도 복잡한 작업이어서 표제어 선정부터 기술까지 일관성 있게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에 포함될 방언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 비판, 개선방안 제시 등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다.

1) 홍재성(2009), 홍종선(2010, 2003), 안의정 외(2010), 김인균(2015) 등이 있다.
2) 곽충구(2007, 2008), 박경래(2012), 이준환(2015, 2022), 이길재 외(2019), 이재섭(2022) 등이 있다.
3) 방영심(2005), 한승규(2011)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하에 기존의 사전에서 방언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분단 상황에서 남북의 말이 사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특정 방언 어휘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전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차례로 제시해 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기존의 사전에서 이루어진 방언에 대한 처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방언과 사전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 본다.

2. 국어사전의 방언 관련 규정과 수록 양상

이 장에서는 주요 국어사전에 방언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방대한 규모의 사전에 다양한 유형의 방언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 편찬의 지침인 일러두기에서 방언과 관련된 조항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사전에 방언이 어떻게 실려 있고 풀이가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사전에 실려 있는 수많은 방언을 일일이 비교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언형이 나타나는 몇몇 단어를 '부추' 및 남북의 방언 차이가 드러나는 '거위 - 게사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

≪朝鮮語辭典≫은 다소 복잡한 구조의 대역사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표제어의 수나 체계에서 근대적 국어사전의 첫머리에 놓일 수 있는 사전이다. 이 사전의 표제어 선정 방침과 관련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이병근 1985, 최경봉 2017). 회의록에는 '邦語中 朝鮮에서 使用하여 朝鮮語로 되는 것'이란 단서가 확인되는데 여기에 방언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1920년의 인쇄본 간행 이전의 원고본(1914)과 인쇄본의 초고(1917) 등에서의 표제어 수 변화를 보면 방언에 대한 처리 여부를 엿볼 수 있다(최경봉 2017, 안예리 2016). 1920년의≪朝鮮語辭典≫에는 58,639개의 표제어가 실려 있는데 이는 1914년까지 수집된 표제어 126,000여 개에 비하면 반 이상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제어 선정 과정에서 '표준'이라 할 만한 표제어만 남기고 방언을 포함한 비표준적 어사를 대폭 줄인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이 사전에 방언이 별도의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표제어의 기술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사전 편찬을 위한 회의록에 '舊來語 및 俗語는 모두 網羅할 것'이란 내용이 확인되는데 '방언'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쇄본 사전의 다음과 같은 사례 및 기술에서 방언 처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최경봉 2017, 황용주 2016).

(1)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의 방언 수록 양상

ㄱ) 잣치다(대표어) : 잣기다·잣쩌리다·잣키다·잿기다·잿쩌리다·잿치다·잿키다·젓기다·젓쩌리다·젓치다·젓키다·젯기다·젯쩌리다·젯치다·젯키다

ㄴ) 머리『名』頭. (鄙語38), 대가리·대강이·대구리).

ㄷ) 가시네 名 女兒 (南鮮'地方の方言) / 갓신 名 가족신 の方言 (平安南北道地方にて用ふ) / 어드러케 副 엇더케 の方言. 어드매 代 어대 の方言.

2.2. 문세영 ≪조선어사전≫

1936년에 문세영이 간행한 ≪조선어사전≫은 사전의 표기를 1933년에 발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따르고

있으므로 표준어만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방언도 가능하면 많이 수록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1940년의 수정증보판 일러두기에서 방언 관련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ㄱ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전은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2ㄷ)과 같이 방언도 표제어로 올렸음을 밝히고 있다.

(2)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방언 관련 일러두기

ㄱ) 이 책은 순전한 조선말과 이두는 물론이요 한문으로 된 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및 학술상 용어를 ㄱㄴㄷ의 차례로 벌려 놓고 이에 대하여 낱낱이 우리말로 쉽게 주해한 것입니다.
ㄴ) 주해의 표준은 서울 중류계급에서 쓰는 말로 하고 서울에 없는 말은 그 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아 주해를 붙이었습니다.
ㄷ) 각 지방의 사투리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용하여 표준말과 비교하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ㄱ)에서 알 수 있듯이 '부추' 항목을 보면 이에 대한 뜻풀이와 함께 '부채, 난총(蘭葱), 구채((韭菜)'도 이에 대응하는 어휘로 처리했다. 그리고 이 대응어는 (3ㄴ)과 별도의 표제어로 올리되 구체적인 풀이는 하지 않고 '부추'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3ㄷ)은 '부추'의 방언형인데 '불기, 솔, 정구지, 졸' 등을 별도의 표제어로 올리되 '부추'의 '사투리'임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조선어사전≫(수정증보판)에서는 '~의 사투리'로 처리된 방언 표제어가 약 6,082개 항목이 확인된다(황용주 2014).

(3)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부추' 관련 수록 양상

ㄱ) 【부:추】 名 백합과(百合科)에 붙은 숙근초 밭에 채소로 심그기도 하고 길가에 저절로 나기도 하는데 잎은 파와 비슷하고 특이한 냄새가 나는 풀 부채 蘭葱 韭菜
ㄴ) 【부:채:】 名 植 부추 / 【난총】 (蘭葱) 名 植 부추 /【구채:】 (韭菜) 名 植 부추
ㄷ) 【불기】 名 植「부추」의 사투리 / 【솔】 名 植「부추」의 사투리 / 【정구지】名 植 「부추」의 사투리 / 【졸:】名 植 「부추」의 사투리

2.3.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에서 1947년부터 1957년 사이에 간행한 ≪우리말큰사전≫은 일러두기에서 방언 표제어와 이에 대한 뜻풀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방언 관련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4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큰사전≫은 표준어를 주된 표제어로 올리지만 그 외의 말, 특히 방언도 필요에 따라 표제어로 등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ㄴ)에서 알 수 있듯이 방언 표제어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대응 표제어를 화살표로만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표준어 대응어가 없는 경우에는 뜻풀이와 지역을 밝혀 주고 있다.

(4)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의 방언 관련 일러두기

ㄱ) 가. 올림말 2. 표준말이 아닌 말 – (1) 사투리(방언), 변말, 곁말, 잘못 적는 말 들
ㄴ) 라. 뜻풀이 (2) 한뜻말의 뜻풀이 ㅁ. 표준말과 표준말 아닌 말: 사투리는 '→'표로 그 표준말을 가리켜 주거나, 표준말이 없는 사투리는 뜻풀이를 하고 그 지역을 도 단위로 밝혀 준다. 이때 전국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투리는 지역 밝히기를 생략한다.

이러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5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큰사전≫의 처리 방식은 문세영 ≪조선어사전≫과 거의 유사하다. '부추' 항목의 뜻풀이에 동의어 '구채, 난총'을 제시한다. 그리고 (5ㄴ)과 같이 '구채, 난총'을 별도의 표제어로 올리되 별도의 뜻풀이는 하지 않고 '부추' 항목을 참조하도록 했다. (5ㄷ)의 방언 표제어 역시 문세영 ≪조선어사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도 단위의 지역 정보를 추가했다.

(5)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의 '부추' 관련 수록 양상

ㄱ) 부:추. 〈식〉 나릿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봄철에 땅속에서 30cm쯤 되는 가는 살잎이 무더기로 나고, 8~9월께 긴 꽃줄기가 나와 흰빛의 작은 여섯잎꽃들이 우산꼴로 핀다. 심어 가꾸며 잎을 먹는데, 마늘 비슷한 냄새가 난다.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터져서 까만 씨가 나오는데, 한방에서는 이것을 '구자'라 하여 이뇨의 약재로 쓴다. ≡구채. 난총.【부추 같은 양반】'연약한 사람'이라는 뜻.

ㄴ) 구채 : 〈식〉 = 부추 / 난총 〈식〉 = 부추

ㄷ) 정구지. 〈식〉→부추. < 경상. 전북. 충청 > / 쌈. 〈식〉→부추. < 충남 > / 불기. 〈식〉→부추. / 분초. 〈식〉→부추. < 강원. 경북. 충북 > / 졸. 〈식〉→부추. < 전북. 충남 > / 푸초. 〈식〉→부추. < 평북 >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에 간행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제어의 수록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였다. (6ㄱ)에서는 표준어를 근간으로 하되 방언, 옛말, 비표준어를 포용하려는 방침은 이전에 간행된 사전과 방향이 같으면서도 범위를 보다 넓혔음을 알 수 있다. (6ㄴ)에서는 표제어 범주와 전문 영역 표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며 (6ㄷ)에서는 뜻풀이 원칙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일러두기의 설명은 자세하나 기본적인 흐름은 이전의 사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북한어'이다. 북한어는 지역적으로는 방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북한'이란 국가와 그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어와 사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어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역적 변이에 따른 '방언'과 국가를 전제로 하는 규범어와 규범사전의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언 관련 일러두기

ㄱ) 1. 수록 범위 (1)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올렸다.

ㄴ) 뜻풀이 1. 표제어 범주와 전문 영역 표시 : (1) 표제어가 북한어, 방언, 옛말이면 품사 표시 다음에 각각 북, 방, 옛으로 범주를 표시하였다.

ㄴ') 2. 뜻풀이 원칙 (6) 방언 : ①대응하는 표준어가 있을 때에는 '~의 방언'으로 뜻풀이하고 괄호 속에 해당 지역을 밝혔다. ②대응하는 표준어가 없을 때에는 독자적으로 뜻풀이하고 괄호 속에 해당 지역을 밝혔다.

ㄷ) 용례 : 1. 기본 원칙 : (7) 방언, 비표준어, 어근, 속담에서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른 표제어 수록과 풀이 양상도 이전의 사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 '부추' 항목에 동의어 '구채, 난총'을 올리고 각각은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각 항목에서 풀이는 별도로 하지 않고 '부추'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언 표제어는 가능하면 많이 싣고 세분한 지역 정보도 풍부하게 제공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7ㄱ)의 동의어 정보를 (7ㄴ)에서 별도 표제어로 올리되 풀이는 '부추'를 참고하도록 한 것도 이전의 사전과 같다. (7ㄷ)은 다양한 방언형과 지역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언 수록 양상

ㄱ) 부추「명」『식』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봄에 땅속의 작은 비늘줄기로부터 길이 30cm 정도 되는 선 모양의 두툼한 잎이 무더기로 모여난다. 8~9월에 긴 꽃줄기가 나와 산형(繖形) 꽃차례로 흰색의 작은 꽃이 핀다. 열매는 삭과(蒴果)를 맺으며 익으면 저절로 터져서 까만 씨가 나온다. 비늘줄기는 건위·화상 따위에 쓰고, 잎은 식용한다. 중국과 인도가 원산지로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구채01(韭菜)·난총01(蘭葱).

ㄴ) 구채 韭菜「명」『식』 =부추. / 난총 蘭葱「명」『식』 =부추.

ㄷ) 부자「명」『방』 부추 의 방언(경북). / 부치「명」『방』 부추 의 방언(함남). / 분추「명」『방』 부추 의 방언(강원, 경북, 충북). / 불구「명」『방』「1」 부추 의 방언(강원). 「2」 상추01 의 방언(강원). / 비자「명」『방』 부추 의 방언(경북). / 세우리「명」『방』 부추 의 방언(제주). / 소풀「명」『방』『식』 부추 의 방언(경상). / 솔「명」『방』 부추 의 방언(경상, 전남). / 쉐우리「명」『방』 부추 의 방언(제주). / 염지「명」『방』 부추 의 방언(함경). / 정구지「명」『방』 부추 의 방언(경상, 전북, 충청). / 졸「명」「1」『방』 부추 의 방언(충청). / 푸초「명」『방』「1」 풀02 의 방언(경남). 「2」 부추 의 방언(평북). / 푼추「명」『방』 부추 의 방언(평북).

북한어와 관련된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 방식은 '거위'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위'는 표준어인 데 반해 '게사니'는 특정 지역의 방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거위' 대신 '게사니'를 표준어로 정했기 때문에 (8ㄴ)과 같은 풀이를 덧붙였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거위' 관련 수록 양상

ㄱ) 거위「명」『동』 오릿과의 새. 크기와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으며, 목이 길다. ≒가안(家雁)·당거위·당안(唐雁)·백아〔1〕·서안04(舒雁)·아조07(鵝鳥).

ㄴ) 게사니「명」「1」『방』 거위01 의 방언(강원, 경기, 함경). 「2」『북』 거위01 의 북한어.

ㄷ) 게사니걸음「명」『북』 거위걸음 의 북한어. / 게사니목청「명」『북』 거위가 우는 소리와 같이 목청을 높여 갑자기 꽥꽥 지르는 소리. ≒게사니청. / 게사니소리「명」『북』「1」거위가 우는 소리. / 게사니포「명」『북』거위 고기로 만든 포.

2.5.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1992년에 간행된 이래 2006년과 2017년에 중보판이 간행된 ≪조선말대사전≫ 또한 방언과 관련된 규정을 싣고 그에 따라 방언을 수록하였다. (9ㄱ)의 올림말에 대한 규정을 보면 표준어 또는 문화어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쓰이고있거나 지난날 쓰이였던'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유형의 어휘를 수록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방언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9ㄴ)의 뜻풀이 관련 항목에서는 방언에 관한 것이 따로 보이지는 않으나 방언을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전 및 남쪽의 사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부호와 관련된 (9ㄷ)의 규정에서 방언도 '비규범적인 것'과 함께 다루는 듯한 태도가 보이기도 한다.

(9)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의 방언 관련 일러두기

ㄱ) 1) 올림말 : ① 사전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쓰이고있거나 지난날 쓰이였던 단어와 공고한 단어결합, 성구와 속담, 명언들을 올리였다. 사전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력사제도어, 방언 등을 올리였다.

ㄴ) 5. 뜻풀이 2) 뜻풀이의 방식 : ① 올림말에 대한 풀이는 원칙적으로 뜻같은말로 대치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뜻의 기본표식을 잡아 직접 풀이를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이 꼭 같은 뜻같은말에 대하여서는 그중 하나에 풀이를 주고 다른 것은 -=표시를 주어 풀이한 뜻같은말을 찾아가 보도록 련계를 지어주었다.

ㄷ) 9. 략호와 부호들 2) 부호들 : → 비규범적인 것을 규범적인 것에 보내주는 경우에, 한자말이나 고유어의 표기변종에.

≪조선말대사전≫은 다른 사전과 달리 '부추'가 아닌 '푸초'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뜻풀이는 '푸초' 항목에서 하고 '부추'는 '푸초'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푸초'의 뜻풀이에서는 동의어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으나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 '부추, 구채'를 '푸초'의 동의어로 대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방언형은 '정구지' 정도만 확인된다. 남쪽의 사전에 방언으로 실려 있는 '솔, 졸' 등은 보이지 않으며 '소풀'은 '=소먹이풀'로 풀이하여 다른 말로 보고 있다. '솔, 졸'이 주로 남쪽 지역에 나타나는 방언형이라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구지'는 분포가 매우 넓고 잘 알려진 방언형이기 때문에 지역까지 명시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10)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의 방언 관련 수록 양상

ㄱ) 부추 [명] → 푸초 / 구채(韭菜) [명] → 푸초

ㄴ) 푸초 [명] 파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의 한가지. 잎은 진한 풀색인데 살이 지고 길며 만만한다. 여름부터 초가을사이에 뿌리에서 쫑이 나오고 그 끝에 꽃이 핀다. 잎은 볶음, 나물, 절임, 양념, 푸초장 등 여러가지 료리를 만드는데 쓰이며 열매는 항생물질이 들어있으므로 약으로 쓰인다. 땅을 가리지 않으나 밭갈이층이 깊고 부식질이 많으며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 잘 자란다.

ㄷ) 구채(韭菜) [명] → 푸초

ㄹ) 정구지 [명] ≪방언≫푸초. (경북)

ㅁ) 가시내 [명] (방언)계집애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간나 [명] (방언) 녀자아이(평안, 자강, 함경), / 간나년 [명] (방언) 녀자아이(평안, 자강, 함경) / 간나지 [명] (방언) 녀자(평북 / 간나이 [명] (방언) 처녀(황북)

북한에서는 '거위' 대신 '게사니'를 표준어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거위' 관련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과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비교할 때 방향이 반대이다. (11ㄱ)에서 '거위'는 '게사니'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ㄴ)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게사니'를 북한어로 처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11)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의 '거위' 관련 수록 양상

ㄱ) 거위 [명] → 게사니

ㄴ) 게사니 [명] 집에서 기르는 새의 한 가지. 오리와 비슷하나 크고 이마가 혹모양으로 두드러졌으며 목이 매우 길고 가슴이 넓다. 날지는 못하나 헤염을 잘 친다. 고기와 알은 먹는다.

ㄷ) 게사니걸음 [명] 게사니가 걷는것처럼 어기적어기적 걷는 걸음. / 게사니목 [명] 〈길게 뽑은 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게사니목청 / 게사니목호미 / 게사니불고기 / 게사니소리 / 게사니젓 / 게사니청 / 게사니포 / 게사니영장

3. 국어사전의 방언 처리에 대한 검토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국어사전 5종의 방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방언 표제어 선정과 이에 대한 뜻풀이를 비교하고 문제점도 도출해 본다. 다음으로 이 문제점은 주로 사전에 반영할 방언의 범위와 수, 그리고 정확한 기술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본다.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의 남북 방언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1. 표제어 선정과 뜻풀이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세영 ≪조선어사전≫ 이래 모든 사전에서 방언을 수록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처리 역시 문세영 ≪조선

어사전≫ 이후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표제어와 관련해서 '왜 방언을 싣는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나 '방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제시된 바 없다. 또한 뜻풀이 부분에서도 '방언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이 최초의 관행을 따르거나 부분적인 변화만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서의 방언 표제어 선정과 뜻풀이와 관련해서는 일러두기와 실제 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사전' 부류의 사전은 '표준'의 지위를 지향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표제어를 실어 '규모'의 우위를 추구하기도 한다.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위주로 표제어를 선정하고 기술해야 하지만 규모의 우위를 위해서는 표준어가 아닌 말도 수용해야 한다. 이러 두 가지 요구가 균형을 이루면서 사전의 표제어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일러두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2) 국어사전의 표준어와 방언 관련 규정

ㄱ) 문세영 ≪조선어사전≫ 순전한 조선말과 이두는 물론이요 한문으로 된 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및 학술상 용어

ㄴ)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 Ⅰ. 올림말의 범위 1. 표준말 (1) 토박이말 : 토박이의 표준말은 〈큰사전〉(1957)의 올림말을 준용하고 문교부 고시 '표준어 규정'에 따른 '어휘 목록'과 문화부 공고 '표준어 모음'의 표제어들을 참고하였다. 2. 표준말 아닌 말 (1) 사투리(방언), 변말, 곁말, 잘못 적는 말.

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1. 수록 범위 (1)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흔히 쓰는 비표준어

ㄹ)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 1)올림말 : ① 사전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쓰이고있거나 지난날 쓰이였던 단어와 공고한 단어결합,

(12ㄱ)에서는 '순전한 조선말'이란 언급만 있는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방언이 포함될 수 있다.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관련 조항에서는 표준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으나 뜻풀이에서는 표준어 규정을 준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2ㄴ)의 ≪우리말큰사전≫ 일러두기에서는 '표준어'와 '비표준어'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구별이 보인다. 비표준어의 하위항목으로 '방언'을 언급하고 있다. (12ㄷ)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어'란 용어는 쓰지만 '비표준어'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방언'과 '북한어'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ㄹ)의 ≪조선말대사전≫은 표준어에 대한 언급 없이 '인민의 언어생활에 쓰이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에 대한 언급,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전은 방언을 필요에 따라, 그리고 여건에 따라 싣고 있다. 왜 방언을 사전에 실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은 없지만 사전이 실제의 언어생활을 반영해야 하고 언어생활에서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방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정리 없이 '표준어가 아닌 듯한 말'에 대한 감각과 처리의 관행에 따라 사전에 방언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뜻풀이에서의 방언 처리는 동의어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부추'에 대한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어사전≫, ≪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의어 정보를 주된 표제어 뜻풀이 뒤에 두고 각각을 표제어로 따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동의어 표제어는 따로 뜻풀이를 하지 않고 해당 표제어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방언은 주된 표제어의 뜻풀이 부분에 별도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되 '-의 방언'임을 밝히고 가능한 한 사용 지역까지 밝히고 있다. 동의어와 방언의 뜻풀이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은 사전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나 방언의 뜻과 용법이 대응 표제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언의 사용 지역에 대한 정보는 사전마다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는 모든 사전이 안고 있다. '계집아이'의 방언형에 대한 각 사전의 지역 기술을 비교해 보면 이 문제가 잘 드러난다.

(13) '계집아이'의 방언에 대한 지역 기술

ㄱ) ≪조선어사전≫ : 가시-낭녕 / 가시-내 / 까수나 / 간나 / 넨아 / 녜아 / 넨아 / 녜아 / 비바리 / 씩간나 / 에미나 / 예시가 / 옌이 / 지집-애

ㄴ) ≪우리말큰사전≫ : 가순네 < 경남 > / 가스나 < 경남 > / 가스내 < 전라 > / 간내 < 전남. 함북 > / 갈래 < 전남 > / 게:집-아: / 게:집-애 < 전남 > / 기:집-애: / 녜아[ㄷ女兒] / 씨깐나 < 평안 > / 제:집-애 / 지즙-아 < 강원 > / 지지방치 < 경기 > / 지집-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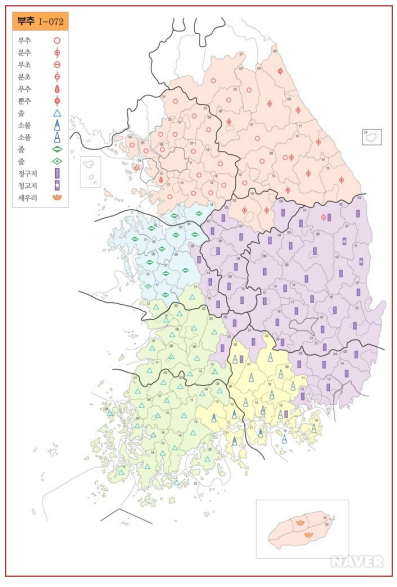
ㄷ) ≪표준국어대사전≫ : 가시나(경상, 전남). / 가시내(경상, 전라). 「2」『북』 계집아이 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간나(평북, 함경). / 갈라(함남). / 기지바(강원). / 기지배(충북) / 넨아(평북) / 딸아(강원, 경북, 평북). / 에미나이(평안, 함경). / 여석아(경남). / 까시나(경북). / 씨깐나(평안). / 엠나이(평안).

ㄹ) ≪조선말대사전≫ : 가시내 (방언)계집애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간나 (평안, 자강, 함경), / 간나년 (평안, 자강, 함경) / 간나지 (방언) / 녀자(평북 / 간나이 (방언) 처녀(황북)

(13)의 각 사전에 따라 방언형의 유형과 수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언 사용 양상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지만 사전 편찬 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언 정보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13ㄱ)의 ≪조선어사전≫에서는 방언의 지역 정보가 따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3ㄴㄷㄹ)은 개별 방언형의 지역 정보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듯 제각각인 지역 정보는 현재로서는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3.2. 방언 반영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정확도

국어사전에 방언을 반영할 때 어떤 방언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방언사전이라면 해당 지역의 방언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수록하면 되지만 전국 단위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사전에서는 수없이 많은 방언과 그 세부 분화형에 대해서 반영할 방언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추'의 방언형만 살펴보아도 매우 복잡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서는 '부추'의 방언형을 지도와 방언자료집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부추'의 방언 유형

ㄱ) 부추, 분추, 부초, 분초, 푸추 뿐추

ㄴ) 솔

ㄷ) 소불, 소풀

ㄹ) 졸, 줄

ㅁ) 정구지, 정고지

ㅂ) 세우리

(15) '부추'의 실제 방언형

덩구지, 본추, 불기, 부자, 부루쌈, 부룻쌈, 부초, 부추, 부치, 분초, 분추, 분추우, 불구, 불초, 붙이, 비자, 세우리, 소불, 소풀, 소푸, 솔, 쉐우리, 쌈, 염지, 저구자, 전구지, 정고지, 정구지, 정구치, 졸, 졸파, 줄, 증구지, 증구치, 쪼리, 쫄, 푸초, 푸추, 분추

(14)는 방언지도에서 색깔과 기호로 구별해 놓은 6가지 부류의 방언형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조사된 방언형을 종합한 (15)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고 하위 부류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언 분포와 방언형이 나타날 때 어떻게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하위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4ㄱ)은 표준어형인 '부추' 계열인데 이와 유사한 나머지 어형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고 (14ㄷㄹㅁ)은 같은 계열이지만 일부의 음운교체만 나타난 것인데 이것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어렵다.

국어사전에 방언형을 제시할 때 정확한 표기도 문제가 되는데 이는 결국 '방언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글 맞춤법이 형태음소적 표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제시되는 방언형 또한 형태음소적 표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마다 음운체계가 다르고 명확한 형태분석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사전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이 글에서 살펴보는 '계집아이'의 방언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계집아이'의 방언형의 표기

ㄱ) 씩간나≪조선어사전≫ / 씨깐나 ≪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ㄴ) 예시가≪조선어사전≫ / 여석아≪표준국어대사전≫
ㄷ) 지집애≪조선어사전≫ / 지지방치≪우리말큰사전≫ / 기지바≪표준국어대사전≫

(16ㄱ)은 기원상 '간나'가 포함된 것이므로 '씩간나' 또는 '씻간나'로 표기해야 할 것 같으나 '씩' 또는 '씨'의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씨깐나'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16ㄴ)은 '여식'에 기원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원이나 형태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두 유형의 표기가 나타난다. (16ㄷ) 또한 '계집'의 변이형인 '지집, 기집'을 감안한다면 어형을 밝히기 위해 'ㅂ'을 앞의 음절 받침으로 올려 써야 하나 '지지방치'나 '기지바'로 쓰고 있다. 표준어형의 맞춤법 설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언형은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제주도 지역의 방언형을 적을 때 'ㆍ(아래아)'가 포함된 'ᄆᆞᆯ'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것의 변화형인 '몰'을 반영할 것인가 등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

3.3. 방언과 북한어의 관계

국어사전에 '북한어'를 올리는 문제는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맞물려 일반적인 방언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특정 국가의 규범상의 언어, 즉 해당 국가의 표준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의 언어를 왜 국어사전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는 영어권의 표준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영국 밖의 영어 사용국에서 쓰이는 말을 싣는 것과는 다르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하나였고 분단된 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 혹은 나라 밖의 조금 다른 언어가 아닌 본래 지역 방언 관계의 언어를 '북한어'란 이름으로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선결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어사전의 대표 격인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미 일러두기에서는 '북한의 문화어를 폭넓게 수용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선별하여 수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전에 북한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논의는 뒤늦은 감이 있으므로 '북한어'와 '방언' 간의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추'와 '계집아이'가 남북한의 표준 사전 격인 두 사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 ‘부추’ 방언형의 남북한 사전 비교

ㄱ) ≪표준국어대사전≫

부추 「명」『식』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구채01(韭菜)·난총01(蘭葱).

푸초 「명」『방』「1」 풀02 의 방언(경남). 「2」 부추 의 방언(평북).

ㄴ) ≪조선어대사전≫

푸초 [명] 파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의 한가지.

부추 [명] → 푸초

정구지 [명] ≪방언≫푸초. (경북)

(18) ‘계집아이’의 방언형의 남북한 사전 비교

ㄱ) ≪표준국어대사전≫

계집아이 [명사] 여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가시내 「명」「1」『방』 계집아이 의 방언(경상, 전라). 「2」『북』 계집아이 를 속되게 이르는 말.

ㄴ) ≪조선어대사전≫

계집애 [명] 계집아이의 준말

계집아이 [명] 녀자아이를 홀하게 이르는 말

가시내 [명] 계집애를 속되게 이르는 말

(17ㄴ)을 보면 북한에서는 ‘푸초’를 표준어로 정하고 ‘부추’는 동의어로 처리하여 ‘푸초’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반면 ‘정구지’는 명확하게 방언임을 밝히고 사용 지역까지 명시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푸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로 풀이되어 있어야 하나 평북 방언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반면에 (18ㄴ)의 ‘가시내’ 뜻풀이를 참조해 (18ㄱ)에서는 ‘가시내’를 북한어로 풀이하고 있다. (17-18)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북한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어휘가 아닌 한 ‘북한어’는 ‘방언’과 늘 중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4. 국어사전의 방언 처리 평가와 전망

이장에서는 남북한 사전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이것을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에도 적용해 본다. 나아가 앞으로의 사전에서 방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4.1. 사전과 방언

사전에 방언을 실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에서의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특정 언어의 낱말을 모아 해설하는 사전은 낱말을 수집할 대상과 수집할 낱말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낱말을 수집할 대상은 원론적으로는 해당 언어 전체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방식으로 사전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즉, 해당 언어에서 ‘두루, 널리, 많이’ 쓰이는 단어를 선별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가 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하고 방언 중에서 '두루, 널리, 많이' 쓰이는 것을 선별해 사전에 실어 왔다.

그러나 '두루, 널리, 많이'란 기준은 추상적이고도 불명확해서 실제 적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어사전도 마찬가지여서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사전 이래 거의 모든 사전에서 방언을 실어 왔지만 어떤 방언을 어느 정도로 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사전에서 추출한 목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항목을 보태거나 사용량이 적은 것을 빼는 방식으로 방언을 다루어 왔다. 방언형의 지역 표시 또한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말'을 사전에 실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땅에서 두루, 널리, 많이 쓰이는 말'로 한정하고 '두루, 널리, 많이'의 지표를 정하는 방법이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구별 없이 지표에 따라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정한다면 적어도 작위적, 임의적인 표제어 선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면 '방언' 또는 '사투리'라는 꼬리표 없이 동의어 또는 유의어로 처리하되 사용 지역이 명시된 표제어로 대우할 수 있다.

4.2. 남북한 사전과 방언

국어사전에 '북한어'에 대한 정보가 실리는 것은 지역에 따른 변이형이 아닌 국가에 따른 변이형이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은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같은 계열의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 쓰이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사전에도 국가에 따른 변이형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비교적 최근에 분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언어와는 사정이 다르다. 체제나 정책에 따라 달리 제정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한 언어 내의 지역 방언인데 이를 다른 국가의 언어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세워지고 서로 다른 언어규범이 적용되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다. 이 현실적 상황을 사전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언어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최혜원 2000)'이라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제공이 동질성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이 정보가 지역 정보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와 북한의 ≪조선어대사전≫에 반영된 어휘만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 땅의 모든 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말이되 '조금 다른 말'에 대한 정보는 북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은 물론 한국어 전체에 대한 말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 자체가 아닌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4.3. 사전과 방언의 미래

사전에 반영되는 방언 정보가 제한되는 것은 종이 사전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땅의 모든 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방언형을 사용 지역까지 상세하게 밝혀 사전에 싣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사전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방언을 선별하고 하위 변이형과 사용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한다. 나아가 뜻풀이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대응 표준어를 제시하거나 최소한도의 뜻풀이만 한다. 이러한 제한은 종이 사전을 전제로 하는 한 풀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사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거의 사라진다. 수록하는 방언형의 수를 늘리고 뜻풀이 정보를 보완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사전이 무거워지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상호참조 기능과 계층적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해진다. 이런 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서 방언 관련 정보를 ≪우리말샘≫으로 이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방언 정보가 없어 이 사전만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한 단계를 더 밟아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말샘≫은 확대 및 보완 여부에 따라 무한히 확장할 수 있고 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과 방언과의 관련성 면에서도 다양한 방언사전과 방언자료집이 ≪우리말샘≫과 연계되면 또 다른 결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말샘≫ 또한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수록되는 다소 제한된 사전이어서 확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문적인 방언사전과의 연계 기능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방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언사전이 보다 정비되고 전산화되어야 하지만 이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전 편찬자들과 방언 연구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더 많은 방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방언 연구자들의 몫이다. 각 지역의 방언을 종합해 전국적인 차원으로 묶어내는 것 또한 방언 연구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정비된 자료를 사전 편찬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전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말'에 대한 정확하고도 풍부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5. 결론

생략.

참고 문헌

곽충구(1997), 국어사전의 방언 표제어와 그 주석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곽충구(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곽충구(2008), 국어사전의 편찬과 방언,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김봉국(2014), 소·핵방언권 방언자료집의 체재와 성과,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김영태·김형철·김정대(1994), 방언사전 편찬 방법론, 인문논총 6, 경남대인문과학연구소.

김인균(2015), 규범 사전 구축을 위한 표제어 선정 원리 및내용 구성 연구, 우리말연구 40, 우리말학회.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박보연(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방언 구축,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방영심(2005), ≪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 처리와 문제점, 한국사전학 6, 한국사전학회.

소신애(2014), 대방언권 자료집의 체재와 성과,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안예리(2016).『朝鮮辭書原稿』를 통해 본『朝鮮語辭典(1920)』의 성격 변화, 한국사전학회 제28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안의정 외(2010),『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목록 구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이병근(1985), 조선총독부편《朝鮮語辭典》의 편찬목적과 그 경위, 진단학보 59, 진단학회.

이병근(1993), 일제하에서 간행된 유일한 우리말사전: 한국 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6) - 문세영의『조선어사전』, 출판저널 127,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재섭(2022), 국립국어원 편찬 국어사전의 방언 처리에 관한 제 문제,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이준환(2015), 방언사전의 방언 어휘 수록 및 기술 현황, 성과와 한계, 코기토 77,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이준환(2022), 국어대사전 속의 방언 기술 현황과 분석적 이해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방언학 36, 한국방언학회.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한국방언학회.

정유남, 이길재(2019),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지역어의 몇 문제 -『표준국어대사전』(웹)과『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7)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4, 한국사전학회.

조남호(2014), 방언사전의 편찬 방향, 한국사전학 23, 한국사전학회.

최경봉(2017), 조선총독부편(編)《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 81, 국어학회.

최혜원 2000),『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

한승규(2011),『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홍재성(2009), 기존 한국어 사전의 성과와 과제, 새국어생활 19-4, 국립국어원.

홍종선(2003), 국어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3): 올림말(2),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홍종선(2010), 국어 사전의 성과와 과제(6), 어문논집 61, 민족어문학회.

홍종선(2010), 국어 사전의 성과와 과제(6): 용례 -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기여하는 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 , 어문논집 61, 민족어문학회.

황용주(2014), 문세영의『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제25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사전학회.

황용주(2016), ≪朝鮮語辭典≫의 편찬과 현대 한국어문학,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The Treatment of Dialects in North and South Korean Dictionaries

Han Sungwoo |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ialectal forms have been represented in Korean dictionaries published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o this end, Chapter 2 reviews the treatment of dialects in Joseon-eo Sajeon (朝鮮語辭典) compi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Joseon-eo Sajeon by Mun Se-yeong, Urimal Keunsajeon b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Pyojun Gugeo Daesajeon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Joseonmal Daesajeon by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North Korea. The analysis begins with the preface of each dictionary to identify their stated policies regarding dialects, followed by a comparison of how such policies were applied in practice. For the sake of comparison,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lexical item buchu ('garlic chives'), which appears with diverse dialectal variants, as well as to geowi ('goose') and gesani, where South and North Korea adopt different standard forms for the same referent. Based on these findings, Chapter 3 discusses the principles underlying headword selection and definition, the scope, quantity, and accuracy of dialectal entries, and how South Korean dictionaries address North Korean lexical items in the context of national division. Chapter 4 further explores desirable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dialects in dictionaries, considerations for South and North Korean lexicography,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dictionary compilation and dialect research.

• Keywords: dictionary, Korean dictionary, dialect, headword, North Korean language

토론자 약력



김 정 태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지명학회,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

전) 충청문화연구소장

토론 1

“남북한 사전의 방언”(한성우)에 대한 토론

김정태 | 충남대학교

국어가 방언의 총합인 점에서 방언을 사전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의 실상은 단순하지 않고, 특히 남한과 북한의 방언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이처럼 사전과 방언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소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이 발표도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 동안의 대표적인 국어사전들의 방언 처리를 통해, 표제어, 뜻풀이, 방언의 사용지역, 방언형의 선정, 남북의 방언 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논의이다. 즉 국어사전에서의 방언의 처리 문제와 남북한 방언 처리 방식의 문제 등이다. 국어사전에서 방언을 배제하지 않는 한, 이상의 주제들은 더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의도 앞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논의에 대부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두어 가지 궁금증을 보이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코자 한다.

1. 사전에 방언을 어떻게, 어느 정도 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 땅에서 두루, 널리, 많이 쓰이는 말’로 한정하고 ‘두루, 널리, 많이’의 지표를 정하는 방법”이라 기술하고 있다.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선정 기준의 사례가 궁금하다.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잣대로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 이 논의에서 ‘남북 방언 처리의 방식에 대한 문제’도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 판단한다.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읽어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사전 속에서, ‘북한어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만 읽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어에 대해, “국어의 지역 방언’이란 관점을 일차적인 것으로 하고, 정치 체재에 따라 달라진 부분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한다.

3. 기존의 사전 편찬이 종이 사전의 관점이었다면, 향후의 사전 편찬은 전자사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의에서 도출된 문제들도 많은 부분 종이 사전에 대한 검토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사전 편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전과 방언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도 미래의 사전 환경에 맞게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젊은 층에서는 낱말의 의미와 용법을 종이 사전에서 찾는 경향이 낮기 때문이다.

4. 사전에 방언이 담겨야 함은 사전의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필요한 방언이 사전에 실릴 수 있도록 방언 연구자들의 역할 하나가 있다. ‘대방언권부터 핵방언권에 이르는 많은 방언 자료들을 정리, 정비’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방언 연구가 사전에 얼마나, 어떻게 실릴 수 있는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도 그 외연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자 약력



변 영 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2부장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협성대학교, 건국대학교 출강

- 〈건국대학교 총장상〉, 〈국립국어원장상〉 수상

발표 2

남북한 사전의 속구조와《겨레말큰사전》

- 뜻풀이를 중심으로 -

변영수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 머리말

이 글은《표준국어대사전》과《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 적용된 기본원칙을 일러두기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겨레말큰사전》에 등재할 올림말은《표준국어대사전》과《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남북이 합의하여 선별하였고, 올림말의 뜻풀이와 용례 등 사전 속구조 역시 남북이 협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사전 속구조 중 '뜻풀이'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 적용된 일반 원리는 두 사전의 '일러두기'를 통해,《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 특징은 뜻풀이 일반, 뜻풀이 형식으로 구분하여《표준국어대사전》,《조선말대사전》과 비교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2. 남북한 사전의 뜻풀이

2.1. 일러두기

조선말대사전 증보(2017)	표대 웹(2008)[1)]
1) 뜻풀이의 기본원칙과 일반준칙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뜻을 정식화해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를 하였다. ② 모든 올림말의 뜻풀이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철저히 기초하여 주었다. ③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는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올림말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였다. ④ 뜻풀이에서는 문화어의 뜻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대사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쓰이지 않는 낡은 뜻도 일정한 전제밑에 다 밝혀주도록 하였다. ⑤ 사회정치용어와 일부 과학기술용어들은 그 본질적내용 또는 개념을 정확히 풀이한 뒤에 필요한 보충풀이를 덧붙여주었다. ⑥ 유래가 있는 한자성어와 숙어 및 성구, 속담은 그 유래와 의미적근거를 밝혀주면서 뜻을 풀이하였다.	**1. 표제어 범주와 전문 영역 표시** (1) 전문어와 고유 명사에는 해당 전문 영역을 표시하였다. (2) 한 표제어 안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고, 그 속에 범주나 영역이 다른 뜻풀이가 섞여 있으면 뜻풀이 번호 다음에 해당 전문 영역을 표시하였다. **2. 뜻풀이 원칙** (1) 기본원칙 ① 백과사전이 아닌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짧고 간결하게 뜻풀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더 주었다. ② 뜻풀이는 '정의항+부가 뜻풀이'로 나누었다. 정의항은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각 품사에 따라 그에 맞는 형식을 취하였다. 부가 뜻풀이에서는 서술형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였다. ③ 뜻풀이에서는 가능한 한 고유어와 본말을 사용하였다. ④ 다의어의 뜻풀이는 품사별로 Ⅰ Ⅱ Ⅲ…과 같이 나누고 문형 정보별로 1,2,3 …과 같이 나누며 의미별로 ①②③…과 같이 나누었다.

1) 일러두기의 예시는 지면 관계상 해당 표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⑦ 한 올림말에 여러개 뜻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적극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발전의 과정도 정확히 알수 있도록 차례로 뜻배렬을 하였다.

2) 뜻풀이의 방식

① 올림말에 대한 풀이는 원칙적으로 뜻갈은말로 대치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뜻의 기본표식을 잡아 직접 풀이를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이 꼭 같은 뜻갈은말에 대하여서는 그중 하나에 풀이를 주고 다른 것은 =표시를 주어 풀이한 뜻같은말을 찾아가 보도록 련계를 지어주었다.
② 한 단어안의 여러뜻은 수자를 부호 ○안에 넣어서 갈라주었으며 아직 옹근뜻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뜻은 같은 의미 번호안에서 부호 D로 갈라서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③ 단어의 뜻과 쓰임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올림말이나 개별적 뜻이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부문에만 한정되거나 일정한 문체론적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제 또는 특성에 대한 서술을 풀이문장의 앞과 뒤에 달아주었다.

전날에,
원시사회에서,
낡은 사회에서,
고구려에서,
조선봉건왕조때에,
유교적관념에서,
고려의학에서,
미신에서
…
《○○○》을 높여 이르는 말.
《○○》을 롱으로 이르는 말.
《○○○》을 비겨 이르는 말.
《○○○○》을 귀엽게 이르는 말.
《○○○》을 얕잡아 이르는 말.
…

④ 명사말뿌리와《하다》,《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동사가 새 뜻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구태여 다시 풀이를 주지 않았고 명사말뿌리와《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형용사는 풀이를 주고 그것의 말뿌리적 단어는《〈○○하다〉의 말뿌리적단어》라고 지적해준것으로 풀이를 대신하였다.
⑤ 여러개의 뜻을 가진 올림말에서 뜻파생의 갈래가 다르거나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는 뜻은 Ⅰ, Ⅱ, Ⅲ, Ⅳ 등으로 기둥뜻을 갈라주는 방식으로 뜻풀이를 하였다.
⑥ 올림말의 뜻풀이가 끝난 뒤에 필요한 경우에 뜻같은말 또는 뜻반대말을 주었다.
이때 그 뜻같은말이나 뜻반대말 앞에 부호 ㊀, ↔를 붙이었다.

미장쟁이 [명]《미장공》을 얕잡아 이르는 말. ㊀미쟁이.
마른눈 [명] 비나 녹은 물기가 섞이지 않고 내리는 눈. ‖ ~이 펑펑 쏟아지다. ↔진눈.

⑤ 표제어가 특정한 문맥이나 상황에서 사용될 경우 뜻풀이 앞부분에서 그것을 밝혔다. 다만 용언의 경우 정의항이 용언의 형태일 때는 괄호안에 밝혔다.
⑥ 시대나 세부적인 전문 영역은 정의항 처음에 제시하고 쉼표로 다음 부분과 구분하였다.
⑦ 명사는 명사구로, 동사·형용사는 동사구·형용사구로, 부사는 부사구로 보이는 방식으로 정의항을 보여 주었다.
(2) 전문어
국가의 수도·면적, 화학식, 동식물의 학명 따위의 부가 정보는 뜻풀이 본문 뒤에 밝혔다.

(3) 외래어
① 두 가지 형태를 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② 중국과 일본의 인명·지명은 원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형태는 '~의 잘못'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형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으로 뜻풀이하였다.

(4) 의성의태어
① 의성어일 때는 '~하는/~때 나는 소리', 의태어일 때는 '상태/모양/느낌', 의성의태어일 때는 '~하는/~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과 같이 뜻풀이하였다.
② 부표제어에서는 '-거리다'를 기본 표제어로 삼아 뜻풀이하고 '-대다'는 동의어로 보였다.
③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하되, 각 계열 간에 의미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뜻풀이를 하였다. 여린말 계열과 센말 계열은 뜻풀이 뒤에 의미 차이를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5) 유형별 뜻풀이
① 높임말/낮춤말
② 원말/변한말
③ 피동사/사동사
④ 비표준어
⑤ 동의어
⑥ 음역어
⑦ 특수어

(6) 부표제어
① '-하다, -되다, -거리다, -대다, -이다'가 결합한 형태만 쓰이는 경우에는 부표제어에서 뜻풀이를 하고 주표제어는 어근으로 처리하였다.

3. 다의어 배열 순서
(1) 〔어휘 형태〕→〔문법 형태〕
(2) 〔표준어〕→〔비표준어〕
(3) 일반어와 전문어

2.2. 특징

2.2.1. 공통적 특징

임홍빈(1993:72)에서는 북한 사전 뜻풀이의 실제적인 원칙은 대략 '정확성의 원칙', '대중성의 원칙'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북의 사전에만 국한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남의 사전에서도 정확성의 원칙, 대중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일러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이용자를 고려하여《표대》[2]에서는 '언어 사전으로서 짧고 간결하게 뜻풀이를 하고자 하였다'고 밝혔고,《조대》역시 '뜻풀이는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단순히 짧고 간결하게 뜻풀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더 주는 것으로, 또한 올림말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뜻풀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대사전이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은, 대중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대중성을 고려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사전의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은 사전으로서의 정확성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사전의 정확성을 위해 먼저 뜻풀이 기술 언어를 규정하였다.《조대》에서는 문화어의 뜻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 언어 사전으로서의 문화어의 규범성을 사전에 보이고자 하였다.《표대》에서도 표제어를 기술하는 어휘로 가능한 한 고유어와 본말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규범어로서의 체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표제어가 다의어에 해당하여 두 사전에서는 다의어의 뜻 배열 순서, 뜻파생 풀이 방식에 대해서도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여러 개의 뜻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 의미에서 파생 의미로 확장되는 순서에 따라 뜻풀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뜻풀이 사이의 체계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체계성으로 뜻풀이는 좀 더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

또한 두 사전 모두 올림말이나 개별적인 뜻의 일정한 시기, 특정 영역, 문체론적 특성, 문맥이나 상황 등을 뜻풀이 앞에 밝혀 적도록 함으로써 해당 단어의 구체적인 개념적 뜻과 쓰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사전 활용에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2.2.2. 차이점

두 사전의 편찬 원칙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사전 기술에서 사상성, 이데올로기의 반영 여부와 관련된다.《표대》와는 달리《조대》에서는 언어 사전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으로, 김일성 삼대의 뜻풀이에 대한 명제를 언급하였다. '2.1.《조대》(2017)'에서 본 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뜻을 정식화해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홍빈(1993:71)에서는, 북한 사전에서 뜻풀이의 일반 원칙을 천명하는 데 김일성의 말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하는 것은《현대조선말사전》(1968)부터임을 지적하였다.《**현대조선말사전**》**(1968)**에서는 '나. ~일부 사회 정치적 성격을 띤 올림말에는 ★표를 하고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앉히었다. 그리고 〈당성〉, 〈기업적 방법〉 등의 일부 올림말에 대해서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만을 앉히고 따로 뜻풀이하지 않았다.',《**조선문화어사전**》**(1973)**에서는 '나. 단어의 뜻풀이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성, 노동 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었다.',《**현대조선말사전**》**(1981)**에서는 '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 뜻을 정식화하여 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2) 본문에서는《겨레말큰사전》은《겨레말》,《표준국어대사전》은《표대》로,《조선말대사전》은《조대》로 칭하기로 한다.

뜻풀이를 하였다. 나. 올림말의 뜻과 개념은 영생 불멸의 주체 사상에 기초하여 사물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에 철저히 서서 풀이를 하였다.',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개념이나 본질 또는 어휘적 뜻을 정식화하여 주신 올림말의 풀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명제를 정중히 모시고 그에 기초하여 뜻풀이를 하였다. 나. 모든 올림말의 뜻풀이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원리에 철저히 기초하여 주었다.'와 같이 기술하였다. 즉,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기초하여 뜻풀이하거나 교시 자체가 표제어의 뜻풀이를 대신하기도 하고, '김정일 동지'가 정식화한 풀이가 하나의 명제로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대》에서는 올림말을 뜻풀이할 때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철저히 기초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1960~1970년대에 확립한 통치 이념에 해당한다. 언어 사전의 기본 과제는 언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이겠지만, 그에 앞서 《조대》에서는 김일성 삼부자의 세습 체제를 굳건히 하는 통치 이념이 사전 편찬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어 《표대》와는 차이를 보인다.

3. 《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3)4)]

3.1. 뜻풀이 일반

《겨레말》의 뜻풀이에 적용하는 원칙은 일반원칙, 기존 사전 뜻풀이 인용 원칙, 기본올림말 선정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원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뜻풀이를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2.1.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표대》, 《조대》가 동일한데, 《겨레말》에서도 뜻풀이는 올림말의 기본뜻을 분명히 밝혀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남북은 정치 체제, 이념 등이 서로 다른데 이러한 차이는 언중들의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사전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5)] 어느 한쪽의 뜻풀이나 쓰임을 상대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남북의 정치 경제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풀이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6)]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7)]
자본주의[8)] 「명사」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자본주의** [명] 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자본을 매개로 하여 가장 교활하고 악랄하게 진행되는 착취사회 곧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과 기본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착취하는 사회제도.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썩고 멸망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이다. ② 자본주의사회의 착취계급인 자본가들의 리해관계를 옹호대변하는 반동적인 사상.

3) 3장의 내용은 변영수(2024)에서 발췌, 수정하였음.
4) 본문의 주된 기술 방식은 기존 사전의 뜻풀이와 비교하여 《겨레말》의 뜻풀이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음. 남북이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전 완성 전 단계로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워 합의된 결론만 제시하였음.
5) 《조선말사전》(1962)에 제시된 뜻풀이 기본원칙에서는 '마. 다의어에서 개별적 의미는 아라비아 숫자를 부호 속에 넣어서 구별한다. 이때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다 파생적인 의미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 사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앞에 놓는다.'라고 하여 뜻풀이에 정치 사상성이 반영됨을 명시하였다.
6) 임홍빈(1993:87~91)에서는 북한의 국어사전 뜻풀이에 나타나는 정치성 또는 사상성의 문제를 '사람'이란 단어 풀이에서 확인하였다.
7) 《조대》 인용 시 표기, 띄어쓰기 등은 원문에 따랐음.
8) 사전 속구조는 '올림말, 품사, 뜻풀이', 필요에 따라 '용례' 정도만 제시함.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9]
공산주의 [명] 「1」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 재산의 공동 소유가 옳다고 주장하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한다. 「2」 공산주의자들이 계급 지배의 도구라고 여기는 국가가 철폐되고 생산 수단의 사회화가 실현된 사회 경제 체제.	**공산주의** [명]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에서,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류의 리상이 실현된 사회 또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따라서 《겨레말》은 쉽고 간결하게 뜻풀이한다는 원칙과 함께 남북 통합 지향 사전으로서 어휘의 개념적 의미에 기초하여 사전적 풀이를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남북 어느 한쪽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은 되도록 뜻풀이 문장에 쓰지 않기로 하였다.[10]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어버이 「명사」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버이** [명] ①《아버지》와《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이여 이르는 말.**	**어버이** [명] =부모.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표대》와 《조대》①은 뜻풀이가 같지만, 《조대》②는 남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의미이다. 따라서 《겨레말》에서는 언어 사전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사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이 함께 쓰는 ①의 의미로만 뜻풀이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느 한쪽에만 있는 올림말로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풀이로 된 올림말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어휘의 개념적 의미로만 풀이하고자 하였다. '휴전선'과 같은 올림말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휴전-선 「명사」 「1」 휴전 협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쌍방의 군사 경계선. 「2」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의 휴전에 따라서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 경계선.**	**(없음)**	**휴전선** [명] 휴전협정에 따라 정한 쌍방의 군사경계선.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인용할 때 체제나 이념이 달라 두 사전의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 올림말은 따로 정리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지주[3] 「명사」 「1」 토지의 소유자. 「2」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남에게 빌려 주고 지대(地代)를 받는 사람. 「3」 그 토지에서 사는 사람.	**지주**[1] [명] 많은 땅을 가지고있으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지대의 형태로 **농민들의 로동을 착취하면서 기생적으로 살아가는자** 또는 그러한 계급. 봉건사회에서는 물론 자본주의 시기에도 많은 나라들에 의연히 남아있는 **농촌의 기본착취계급**이다.	**지주**[2] [명] ① 토지의 소유자. ②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사람. ③ 그 토지에 사는 사람.

9) 《조대》 인용 시 표기, 띄어쓰기 등은 원문에 따랐음.

10) 홍종선(2013:306)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의의를 '둘째, 남북어 모두에서 사회 체제와 정치 이념이 배제된 순수 언어 사전을 갖게 된다.'로 규정하였다.

'지주'처럼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이념 차이 등으로 뜻풀이가 달라지는 올림말은 따로 논의하였고, 남북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풀이를 주고자 하였다.

남북은 규범 어휘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곧 뜻풀이에 사용하는 규범어에도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갈치/칼치, 겨울나기/겨울나이, 기다랗다/길다랗다, 눈썹/눈섭, 설움/설음, 손뼉/손벽, 아내/안해'[11] 등처럼 일상용어에서도 규범으로 인정하는 어휘가 서로 다른 예가 있다. 이런 유형도 기본올림말을 선정할 때 남북의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 언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기본올림말을 선정할 때 남북에서 널리 쓰이는 올림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데, 다만 이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세부 기준을 두어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부스러기 「명사」 「1」 잘게 부스러진 물건. 「2」 쓸 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3」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스러기** [명] **=부스레기.**	**부스러기** [명] ① 잘게 부스러진 물건. ② 쓸 만한것을 골라낸 뒤에 남은 물건. ③ 하찮은 일이나 사물을 비겨 이르는 말. [붙임] **〈부스레기〉라고도 한다.**
부스레기 「명사」 「1」 → **부스러기.** 「2」『**북한어**』'**부스러기**'**의 북한어.**	**부스레기** [명] (말체) ① 잘게 부스러진 물건. ② 좋고 쓸만 한것을 골라낸 뒤에 남은 물건. D 쓰다 남은 얼마 안되는 물건. ③《보잘것 없는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말.	**부스레기** [명] ① 잘게 부스러진 물건. ② 쓸 만한것을 골라낸 뒤에 남은 물건. ③ 하찮은 일이나 사물을 비겨 이르는 말. [붙임] **〈부스러기〉라고도 한다.**

남에서는 '부스러기'를 규범으로, '부스레기'는 '부스러기'의 비표준어로 규정하였다. 반면, 북에서는 '부스러기'와 '부스레기' 둘 다 문화어이고 기본올림말은 '부스레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용어에서 남의 표준어와 북의 문화어가 차이 날 때《겨레말》은 이들을 어휘별로 합의하여 양쪽의 쓰임을 모두 인정한 복수 규범 어휘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부스러기, 부스레기'처럼 복수 표기로 합의된 어휘들은 두 어휘에 똑같은 풀이를 주고, [붙임] 정보에서 '~라고도 한다.'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유형에는 '논둑/논뚝, 달걀/닭알, 소진드기/쇠진드기, 원수/원쑤', '그래프(graph)/그라프(graph(영)), 드라이버(driver)/도라이바(←driver(영)), 트랙터(tractor)/뜨락또르(трактор(로))' 등이 있다.

3.2. 뜻풀이 형식

3.2.1. 정의항

《겨레말》에서 뜻풀이는 올림말의 품사에 맞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올림말의 품사에 따라 명사면 뜻풀이도 명사로 끝맺고, 형용사면 뜻풀이도 형용사로 끝맺는 형식이다. 이것은 기존의 두 사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자배기[1] 「명사」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자배기**[1] [명] 아가리가 쩍 벌어지고 둥글넙적한 질그릇의 **한 가지.** 소랭이보다 운두가 좀 높다.	**자배기**[1] [명]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작-다랗다 「형용사」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꽤 **작다.**	**작다랗다** [형] 무던히 **작다.**	**작다랗다** [형] 어지간히 **작다.**

11) 어휘 제시 순서는 '남/북'임.

아울러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면 기본 뜻풀이 뒤에 부가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12] 부가 설명은 문장 형식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역시 기존의 두 사전과도 동일한 형식이다.[13]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운삽「명사」 발인할 때에, 영구(靈柩)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널판.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다.**	**운삽** [명] 구름모양을 그린 부채처럼 생긴 널판. 발인할 때에 령구의 앞뒤에 **세우던 것이다.**	**운삽** [명] 발인할 때 영구의 앞뒤에 세우는 널판. 부채모양의 널판에 구름무늬를 **그렸다.**

3.2.2. 같은말

같은말, 즉 동의어는 각 어휘에 같은 뜻풀이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어느 하나를 기본올림말[14]로 정하여 그 기본올림말에만 뜻풀이를 주며, 같은말은 기본올림말로 돌리는 형식을 취한다. 즉,《겨레말》에서 같은말은 '=[기본올림말].' 형식으로 뜻풀이하였다. 이것은《표대》,《조대》[15]도 동일하다. 예를 들면, '상관없이, 관계없이'에서는 기본올림말인 '관계없이'에서 기본 뜻풀이를 모두 기술하고, '상관없이'는 '=관계없이.'처럼 풀이하는 방식이다.

다만,《겨레말》에서는 기본올림말이 복수 표기로 합의된 올림말도 있는데, 이때에는 복수 표기 기본올림말을 모두 보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복수 표기 기본올림말의 순서는 자모순에 따랐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감분[1]「명사」 **=감자녹말.**	**감분**[1] [명] ⇒**감자농마. 농마.**	**감분**[1] [명] **=감자녹말. 감자농마.**[16]

'감분'은 남의 '감자녹말', 북의 '감자농마'와 같은말인데, '감자녹말'과 '감자농마'는 언중들이 널리 쓰는 일상어이므로 그 쓰임을 존중하여《겨레말》에서는 둘 다 규범으로 인정하였다. '감자녹말'과 '감자농마' 모두 기본올림말이므로 위와 같이 '=감자녹말. 감자농마' 자모순으로 제시하였다.[17]

특별한 의미 변화는 없으면서 '-우-'나 '-이-'가 덧붙은 어휘가 있다. '설레이다'와 '설레다'처럼 의미 차이는 없으면서 형태만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설레이다'는 남에서는 '설레다'의 비규범으로 처리하지만 북에서는 둘을 같은말로 본다. 이러한 유형에는 '가리우다/가리다(무엇이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게 막히거나 덮히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굼때우다/굼때다, 들레이다/들레다' 등이 있다.《표대》에서는 '가리우다'는 '가리다'의 비규범어로, '굼때우다, 들레이다'는 '굼때다, 들레다'의 북한어로 처리하였다.

---

12) 도원영(2010:124)에서는 뜻풀이 제시 방법을 "첫째, 뜻풀이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표제어의 개념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였다. 필요한 때에는 부가 설명을 그 뒤에 제시하였다. 부가 설명은 종결 어미 '-는다'를 사용하여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로 명시하였다.

13)《조대》 일러두기와는 달리,《표대》 뜻풀이 일러두기에서는 "뜻풀이는 '정의항+부가 뜻풀이'로 나누었다. 정의항은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각 품사에 따라 그에 맞는 형식을 취하였다. 부가 뜻풀이에서는 서술형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였다."와 같이 밝히고 있다.

14) '기본올림말'에 대해《겨레말》에서는 '사전에서, 같은 뜻의 여러 올림말을 대표하여 뜻을 풀이하는 올림말.'로 풀이하였다.

15)《조대》는 일러두기에서도 '뜻이 꼭같은 뜻같은말에 대하여서는 그중 하나에 풀이를 주고 다른 것은 =표시를 주어 풀이한 뜻같은말을 찾아가 보도록 련계를 지어주었다.'처럼 밝히고 있다.

16)《겨레말》에서는 '감자녹말, 감자농마'를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 **감자녹말** [감자농말] (甘-綠末) [명] 감자를 갈아서 물에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 〈**감자농마(甘---)**〉라고도 한다.
> **감자농마** (甘---) [명] 감자를 갈아서 물에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 〈**감자녹말(甘-綠末)**〉이라고도 한다.

17)《조대》에서는 '감분'을 '감자농마, 농마'로 순화하여 '⇒' 부호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을《겨레말》에서는 모두 규범어로 인정하고[18], 특별한 의미의 변화 없이 '-우-'나 '-이-'가 덧붙은 것은 같은말로 처리하였다. 이때 '-우-'나 '-이-'가 덧붙지 않은 말을 기본올림말로 삼았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설레다 「동사」 [1]【…이】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 「1」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움직이다. 「2」 물 따위가 설설 끓거나 일렁거리다.	**설레다** [동(자. 타)] **=설레이다.**	**설레다** [동](자) ①《주로 '가슴'이나 '마음' 등과 함께 쓰여》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다. ② 가만히 있지 않고 공연히 자꾸만 움직이다. ③ 설렁설렁 흔들리다. **[같은말] 설레이다.**
설레-이다 「동사」 [1] → **설레다.[2]** **「1」『북한어』'설레다[1]'의 북한어.** **「2」『북한어』'설레다[2]「1」'의 북한어.** **「3」『북한어』'설레다[2]「2」'의 북한어.**	**설레이다** [동(자. 타)] ① 안착되여있지 않고 공연히 이리저리 움직이다. ② 설렁설렁 흔들리다. ③ (물이) 설렁거리다. ④ (마음이) 들썽하여 울렁이다. (=)**설레다.**	**설레이다** [동](자) **=설레다.**

3.2.3. 본말과 준말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본말에서 기본 뜻풀이를 하고, 준말에서는 '~의 준말.'로 뜻풀이한다.[19] 본말에서 준말을 관련어로 보이는가의 여부는 사전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준말에서는 '~의 준말.'로 뜻풀이 형식이 동일하다.《표대》와《겨레말》에서는 본말에서 준말의 정보를 보여주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가을-바람 「명사」 가을에 부는 선선하고 서늘한 바람. **「준」 갈바람「1」.**	**가을바람** [명] 가을철에 부는 바람.	**가을바람** [명] 가을에 부는 선선한 바람. **[준말] 갈바람[1].**
갈-바람 「명사」 「1」 **'가을바람'의 준말.** 「2」 뱃사람들의 말로, '서풍[1]'을 이르는 말.	**갈바람[2]** [명] **《가을바람》의 준말.**	**갈바람[1]** [명] **〈가을바람〉의 준말.**
싸움 「명사」 싸우는 일. **「준」 쌈[2].**	**싸움** [명] 싸우는 일.	**싸움** [명] 싸우는 일. **[준말] 쌈[2].**
쌈[2] 「명사」 **'싸움'의 준말.**	**쌈[2]** [명] (말체) **《싸움》의 준말.**	**쌈[2]** [명] **〈싸움〉의 준말.**

《겨레말》의 준말 기준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탈락 또는 축약 현상이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이다. '시누(←시누이), 서툴다(←서투르다), 갖다(←가지다), 기닿다(←기다랗다)' 등이다. 이 외에도 둘 이상의 음절로 나뉜 두 형태소가 한 음절로 축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규칙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18) '감자녹말'과 '감자농마', '설레다'와 '설레이다' 등의 유형은 남북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중들의 어휘에 대한 인식, 사용 빈도 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겨레말》에서는 어느 하나로 무리하게 통일하려고 하지 않고, 언중들의 쓰임을 최대한 사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9)《우리말큰사전》(1992)에서도 '가을바람, 갈바람'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가을-바람 가을철에 부는 바람. **<준>갈바람02.**
갈:-바람02 '가을바람'의 준말.

수 있으면 준말로 처리하는데, '선뵈다 : 〈선보이다〉의 준말.'과 같은 예가 있다. 이 유형은 《표대》《조대》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준말에서 《겨레말》이 《표대》, 《조대》와 차이 나는 부분은 '주로 한자어에서,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가운데 각 어근에서 뒷부분 음절이 일부 탈락한 경우에는 준말로 인정한다.'이다. 기존 사전에서 흔히 '줄여 이르는 말'로 다루던 것인데, 《겨레말》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준말로 처리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의대[3] 「명사」 '의과 대학'을 **줄여 이르는 말.**	**의대**[1] [[명]] 《의학대학》의 **준말.**	**의대**[3] [명] 〈의과대학〉, 〈의학대학〉의 **준말.**
공단[1] 「명사」 '공업 단지'**를 줄여 이르는 말.**	**공단**[2] [명] 《공업단지》**를 줄여 이르는 말.**	**공단**[1] [명] 〈공업단지〉의 **준말.**

'의과 대학, 의학 대학'과 '공업 단지'에서 각 어근의 뒷부분 음절이 일부 탈락한 '의대', '공단'을 《겨레말》에서는 모두 '의과대학, 의학대학, 공업단지'의 준말로 다루었다. 《표대》는 이들을 '줄여 이르는 말'로 일관되게 처리하였고, 《조대》는 준말 또는 줄여 이르는 말 등으로 풀이하였다.

《표대》와 《조대》의 어느 한 사전에서는 '준말(귀개《조대》)'이나 '표준어/문화어(귀이개《표대》)'로 처리한 것을 다른 사전에서는 '잘못 쓴 말(귀개《표대》, 귀이개《조대》)'이나 지역어로 처리한 예가 있다. 《겨레말》에서는 이들을 '준말'이나 '표준어/문화어'로 보았다. 어느 한쪽에서든 규범으로 쓰고 있는 언중들의 언어 현실을 고려한 처리 방법으로서, 규범어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귀이개'와 '귀개'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귀-이개 「명사」 귀지를 파내는 기구	**귀이개** [명] → **귀지개.**	**귀이개** [명] 귀지를 파내는 기구. **[준말] 귀개.**
귀-개 「명사」 → **귀이개.**	**귀개** [명] 《귀이개》의 준말.	**귀개** [명] **〈귀이개〉의 준말.**

다만, 일부 형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흉내말(또는 그 파생어)은 준말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뜻 차이를 밝혀 풀이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잘가닥 「부사」 「1」 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끈기 있는 물건이 세차게 달라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3」 작은 자물쇠 따위가 잠기거나 열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4」 서로 닿으면 걸리어 붙는 단단한 물건끼리 조금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준」 잘각.**	**잘가닥** [부] 작고 단단한 물체가 좀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가닥** [부] 작고 단단한 물체가 가볍게 맞부딪치거나 달라붙을 때 끊겨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각 「부사」 「1」 **'잘가닥「1」'의 준말.** 「2」 **'잘가닥「2」'의 준말.** 「3」 **'잘가닥「3」'의 준말.** 「4」 **'잘가닥「4」'의 준말.**	**잘각** [부] 작고 단단한 물체가 가볍게 맞부딪치거나 달라붙을 때 좀 빠르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각** [부] 작고 단단한 물체가 가볍게 맞부딪치거나 달라붙을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가닥'과 '잘각'은 음절 수가 긴 '잘가닥'에서 '잘각'으로 일부 형태가 줄어든 말에 해당하고, 이러한 관점에서《표대》는 '잘각'을 '잘가닥'의 준말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흉내말은 언어의 자의성에서도 예외인 것처럼 언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같은 언어 현실이 그 어휘의 자격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잘가닥'과 '잘각'이 서로 큰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남북 어느 한쪽이라도 이들의 독자적 의미를 인정한다면, 미세한 의미 차이를 최대한 밝혀 독립된 풀이를 각각 제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20)]

아울러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띤 두 어휘 중 음절 수에서만 그 차이가 있는 어휘들도 있다. 즉, 음절 수가 적은 올림말과 비교하여, 음절 수가 긴 올림말의 구성 요소 중 어미나 접사 등의 문법형태소가 빠진 어휘들도 있는데, 이런 유형을《겨레말》에서는 본말-준말 관계로 다루지 않고 같은말 또는 각각 뜻풀이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아래의 '헤나다', '헤어나다/헤여나다'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헤-나다 「동사」 '헤어나다'의 준말.	**헤나다** [동(자)] 《헤여나다》의 준말.	**헤나다** [동](자) =헤어나다.

3.2.4. 지역어

지역어 뜻풀이는《표대》,《조대》도 지역어와 뜻이 같은 표준어/문화어로 뜻풀이를 대신하는데,《겨레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 다만,《표대》는 대응 규범어로 뜻풀이를 줄 때 '~의 방언.'과 같은 형식을 띠지만,《조대》와《겨레말》은 지역어와 대응 규범어 뜻풀이가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풀이하여 지역어도 독립된 어휘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겨레말》은 해당 지역어의 관련어 정보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기존 사전과는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서깔 「명사」『방언』 '혀[1]「1」'의 방언(황해).	**서깔** [명] 《방언》 **혀**. (황남. 황북)	**서깔**[1] [명] **혀.** (황해) **[같은말] [지] 셋대. 서. 세까닥. 쇠시.**

'서깔'은 황해 지역어이고, 다른 지역의 '셋대, 서, 세까닥, 쇠시'도 '서깔'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21)] 만약 해당 지역어와 뜻이 같은 대응 표준어/문화어가 없으면 개념적 풀이를 하는데, 이것은 기존 사전과도 같은 방식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솔-박 「명」『방언』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제주).	**(없음)**	**솔박** [명] 나무를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모양의 그릇. 곡식 등을 담아 두거나 바람에 불릴 때 쓴다. (제주)

20) '잘각'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도 준말로 처리하지 않았다.

21)《겨레말》은 기존 사전에는 없는 지역어 새어휘를 4만여 개 추가 조사·집필하였다. 아래의 '발떠구'는《표대》《조대》에는 없으나《겨레말》에서는 새로 조사 집필하였다. 관련어로 제시한 '발등거리, 발등더리'는 각각 전남, 경남 지역어로서 '발떠구'와 같은 의미이므로 [같은말][지]의 정보로 보였다.
발떠구 [명]
발등. (경상) | 늪에서 기어나온 뱀이 너 {발떠구를} 물까 봐 못 가냐.《김원일: 불의 제전》 [같은말] [지] 발등거리. 발등더리.

이 외에도 남북 분단 이후에 생겨난 말을 집필하기 위한 지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단 이후 남북 어느 한 지역에서만 쓰는 어휘이거나 뜻갈래가 남북 어느 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말들이 있다. 이러한 어휘는 남북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풀이에 보이기로 하였다. 즉, '~을 남에서 이르는 말.' 또는 '~을 북에서 이르는 말.'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상대측 용어가 존재한다면 참고어로 밝혀 남북에서 쓰고 있는 어휘 정보를 최대한 보이고자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거총 「감」「명」『군』 사격할 때 목표를 겨누기 위하여 총의 개머리판을 어깨 앞쪽에 대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없음)**	**거총** [명] [명]《군사》〈사격할 때, 목표를 겨누려고 총의 개머리판을 들어 어깨 앞쪽에 대는 동작〉**을 남에서 이르는 말.** [감]《군사》〈사격할 때, 목표를 겨누려고 총의 개머리판을 들어 어깨 앞쪽에 대라는 구령〉**을 남에서 이르는 말.**
강-행군 「명」 「1」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2」『군사』 무리함을 무릅쓰고 보통 행군보다 멀리 또는 빨리 행군함. 또는 그런 행군. 통상 시간당 4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행하는 보병의 행군을 이른다.	**강행군** 「명」 ① 목적지에 보다 빨리 가닿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속도로 진행하거나 행군시간을 늘여 진행하는 행군. ② 국방체육종목의 하나. 규정된 갖춤새를 한 일정한 인원의 대오가 정해진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최대의 능력을 내여 가장 빠른 시간안에 행군한다. ③《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면서 줄기차게 다그치는 전진운동》을 비겨 이르는 말.	**강행군** [명] ①《군사》 힘들거나 무리함을 무릅쓰고 보통 행군보다 빨리 또는 오래 행군하는 것. ②《체육》〈규정된 갖춤새를 한 일정한 인원의 대오가 정해진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행군하는 국방체육 종목〉**을 북에서 이르는 말.** ③ 어떤 일을 빨리 끝내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
주민^등록증 주민 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만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다.	**(없음)**	**주민등록증** [명]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남에서 이르는 말.** 17살 이상의 주민에게 발급된다. **[참고] 공민증.**
공민증 「명」『북』 나라의 공민임을 밝히는 법적인 증명 문건.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발급하며, 우리나라의 주민 등록증에 해당한다. ≒공민등록증.	**공민증** 「명」 나라의 공민임을 밝히는 법적인 증명문건. 우리 나라에서 공민증은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영예를 확증해주는 국가적증표로서 17살이상의 공민에게 내여준다.	**공민증** [명] 〈그 나라의 공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북에서 이르는 말.** 17살 이상의 공민에게 발급된다. **[참고] 주민등록증.**

3.2.5. 속된말과 낮잡는 말

속된말은 점잖지 못하고 저속한 말로서,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저주하는 욕과는 다르고 화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낮잡는 말'과도 다르다.《겨레말》에서는 '속된말'을 '속어(점잖지 못하고 저속한 말.)'와 같은말로 보았다. 속된말은 '~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걸레-짝 「명사」 '걸레[1]'**를 속되게 이르는 말.**	**걸레짝** [명] 《걸레》**를 속되게 이르는 말.**	**걸레짝** [명] 〈걸레[1]〉**을 속되게 이르는 말.**
감장-콩알 「명사」 '총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감장콩알** [명] 《총알》**을 곁말투로 이르는 말.**	감장콩알 [명] 〈총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속된말의 풀이 형식은 세 사전 모두 '~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동일하다. 그러나 '걸레짝'처럼 세 사전 모두 속된말로 보는 어휘와 '감장콩알'처럼 그렇지 않은 어휘들도 있다. 즉, 속된말의 여부는 사전마다 차이가 있다.

'낮잡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낮추어 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비아냥거리는 느낌을 주는 말로서, 청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속된말'과 차이가 있다. '낮잡는 말'은 '~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였다. 이 뜻풀이 형식도 세 사전 모두 같지만, 낮잡는 말의 여부 역시 사전마다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가난-뱅이 「명사」 가난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가난뱅이** [명] 《가난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가난뱅이** [명] 가난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가마니-때기 「명사」 물건을 넣는 용기로 쓸 수 없는 헌 가마니 조각.	**가마니때기** [명] 《가마니》**를 속되게 이르는 말.**	**가마니때기** [명] 〈가마니〉**를 낮잡아 이르는 말.**

3.2.6. 취음 표기

'취음'은《표대》에는 "① 본래의 뜻이나 철자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음만 취하는 일. ② 본래 한자어가 아닌 낱말에 그 음만 비슷하게 나는 한자로 적는 일. 예를 들어 '생각'을 '生覺'으로, '각시'를 '閣氏'로 적는 것 따위를 이른다."로 풀이되어 있다.《조대》 역시 '①《언어》 맞춤법이나 뜻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 소리만을 취하는 것. ② = 소리옮김①.'으로 풀이하고 있다.

《겨레말》에서 취음 표기는 어떠한 대상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표기하거나 고유어를 한자어로 맞추어 표기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자는 '~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말.'로 뜻풀이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야소-교 (耶蘇敎) 「명사」『기독교』 '예수교'**의 음역어.**	**야소교** (耶蘇敎) [명] 《예수교》**를 한자음으로 옮겨서 이르는 말.**	**야소교** (耶蘇敎) [명]《종교》 〈예수교〉**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말.**

고유어를 한자어로 맞춘 표기는 '~을 한자를 빌려 쓴 말.'로 뜻풀이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오적어 (烏賊魚) 「명사」 → **오징어. '오징어'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오적어** (烏賊魚) [명] **(낡) 오징어.**	**오적어** (烏賊魚) [명] 〈오징어〉**를 한자를 빌려 쓴 말.**
열립-군 (列立軍) 「명사」 → **여리꾼. '여리꾼'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렬립군** (列立軍) [명] → **여리군.**	**렬립군#열립군** (列立軍) [명] 〈여리군#여리꾼〉**을 한자를 빌려 쓴 말.**

'한자를 빌려 쓴 말'이라는 정보는《표대》와《겨레말》이 모두 같지만,《표대》에서는 뜻풀이 뒤에 부가 설명으로,《겨레말》에서는 정의항에 포함된 뜻풀이로 제시함으로써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조대》는 '(낡), →' 등의 기호와 규범어를 나란히 배열하는 형식이어서 세 사전 모두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

3.2.7. 원말과 변한말

'원말'은 변하기 전의 본디의 말을 뜻하고, '변한말'은 음운이 변하여 된 말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내숭'은 '내흉'의 변한말이고, '내흉'은 '내숭'의 원말이다. 이러한 원말과 변한말 관계에서《겨레말》은 원말을 기본올림말로 삼고, '~의 원말.'과 같은 부가 설명을 주었다. 그리고 변한말은 '~의 변한말.'로 뜻풀이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파루「명사」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세 번 치던 일. 오경 삼 점(五更三點)에 쳤다.	**파루** [명] 봉건사회에서, 밤에 통행을 금지했다가 그 해제를 알리는 신호로 새벽 4시에 큰 쇠북을 33번 치는 일.	**파루** [명] 조선왕조 때,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려고 새벽 네시경에 종각의 종을 서른세번 치던 일. **〈바라1〉의 원말.**
바라[1]「명사」 **'파루(罷漏)'의 변한말.**	**바라**[2] [명] =**파루.**	**바라**[1] [명] **〈파루(罷漏)〉의 변한말.**

원말인 '파루'를 기본올림말로 뜻풀이하고, 부가 설명으로 '~의 원말.'과 같은 정보를 줌으로써 무엇이 변한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풀이하였다. 변한말인 '바라'에서는 '~의 변한말.'로만 풀이를 주었다.

그러나 변한말이 더 널리 쓰이면 변한말을 기본올림말로 삼고, '~의 변한말.'로 부가 설명을 주었다. 원말은 '~의 원말.'로 뜻풀이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사천[4]「명사」 「1」 부녀자가 살림살이에 쓸 돈을 절약하여 남몰래 모아 둔 돈. 「2」 개인이 사사로이 가진 돈.	**사천**[1] [명] (낡) 여자가 살림돈에서 절약하여 남모르게 사사로이 모아둔 재물.	**사천**[1] [명] ① 살림돈을 절약하여 남몰래 모아둔 돈. **〈사전**[7]**(私錢)①〉의 변한말.** ② 개인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돈.
사전[10]「명사」 「1」 **'사천**[4]**'의 원말.** 「2」 개인이 위조한 가짜 돈.	**사전**[10] [명] (낡) 사사로이 위조하여 만든 가짜돈.	**사전**[7] [명] ① **〈사천**[2]**(私-)〉의 원말.** ② 개인이 위조하여 만든 가짜 돈.

3.2.8. 은어

은어는 '[일정한 집단]이 ~을 이르는 은어.'로 뜻풀이한다. 아래의 '부리시리, 가푸다'는 다른 사전에서도 '은어'로 다루고 있는데, 풀이하는 형식에서 세 사전은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부리시리「명사」 **심마니들의 은어**로, '산삼(山蔘)'**을 이르는 말.**	**(없음)**	**부리시리** [명] **심마니들이** 〈산삼〉**을 이르는 은어.**
(없음)	**가푸다** [동(타)] **심마니말에서,** 《말하다》**를 이르는 말.**	**가푸다** [가퍼, 가푸니] [동] **심마니들이** 〈말하다〉**를 이르는 은어.**

궁중말도 〈~을 이르던 궁중말.〉로 뜻풀이하는데, 그 형식은 세 사전이 모두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수긴「명사」 **궁중에서,** '수건'**을 이르던 말.**	**수긴** [명] **봉건사회에서, 궁안에서** 《수건》**을 달리 이르는 말.**	**수긴** [명] 〈수건〉**을 이르던 궁중말.**

3.2.9. 높임말과 낮춤말

《겨레말》에서는 높임말은 '~을 높여 이르는 말.'로, 낮춤말은 '~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높임말, 낮춤말 정보는 세 사전 모두 같지만, 사전 기술 형식은 서로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진지[1] 「명사」 '밥[1] 「2」'**의 높임말.**	**진지**[1] [명] **상대방을 높이여** 그가 먹는 《밥》을 이르는 말.	**진지**[1] [진:지] [명] 위사람이#윗사람이 먹는 밥**을 높여 이르는 말.**
가시-아비 「명사」 '장인[2](丈人)「1」'**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가시아비** [명] 《가시아버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가시아비** [명] 〈가시아버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가시애비〉라고도 한다.

3.2.10. 친족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은 '부르는 말(호칭어)'로도 많이 쓰인다. 《표대》는 주로 '~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풀이하였고, 《조대》는 주로 '~을 이르는 말.'로 풀이하였다. 반면, 《겨레말》은 해당 어휘의 개념적 풀이를 제시하고 부르는 말로도 쓰이는 용법을 부가 설명으로 기술함으로써 한 어휘의 사전 풀이와 쓰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고모[1] 「명사」 「1」 아버지**의 누이.** 「2」 아버지의 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모**[1] [명] 아버지**의 누이.** 방계혈족이며 웃항렬이다.	**고모**[1] [명] 아버지**의 누이. 부르는 말로도 쓴다.**
언니 「명사」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동성의 손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여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쓴다.	**언니** [명] ① 녀자형제들사이에서 《손우의 녀자》**를 이르는 말.** ② (녀자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얼마간 우인 녀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언니** [명] ① 자매 가운데 손위사람.#손윗사람. **부르는 말로도 쓴다.**

《표대》에서는 친족어 '고모'에 일반 명사로서의 뜻풀이를 기본 의미로 주었고, 이것에서 파생된 '이르거나 부르는 말.'의 풀이를 다의어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조대》에서는 호칭어로 쓰인다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언니'는 '고모'와는 달리 '~를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였다.

《겨레말》에서는 친족어의 개념적 의미를 기존 사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고, 정의항 뒤에 부가 설명으로 해당 어휘가 호칭어로 쓰인다는 정보를 일관되게 기술하였다. 즉, 해당 어휘의 일반 명사로서의 개념적 의미와 용법을 '정의항 + 부가 설명' 구성으로 제시하여 어휘의 쓰임을 사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친족어가 여러 개의 뜻갈래로 나뉘면서, 뜻갈래별로 모두 부르는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뜻갈래마다 부르는 말로 쓴다는 정보를 일정하게 주는 방식도 있겠으나, 《겨레말》에서는 해당 정보를 [붙임]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기술의 간결성,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누나[1] 「명사」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손위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남남끼리 나이가 적은 남자가 손위 여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누나** [명] (말체) ① 사내아이가 손우누이를 다정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 또는 그 누이. ② (젊은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우인 녀자**를 다정하게 부르는 말.**	**누나**[1] [명] ① 남매 가운데 손위 녀자#여자 형제. ② 같은 항렬의 친척들 가운데 남자의 손위 녀자#여자 형제. ③ 남남 사이에서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녀자를#여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붙임] 부르는 말로도 쓴다.**

3.2.11. 잘못 쓴 말

비규범어나 오표기어도 언중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는 단어는 사전에서 올림말로 다루는데, 기존 사전에서는 보통 '~의 잘못.'이나 화살표를 사용하여 '→규범어.' 형식으로 나타낸다.

《겨레말》에서는 이러한 어휘의 뜻풀이를 '~을 잘못 쓴 말.'로 풀이하여 해당 어휘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올림말의 품사는 제시하지만, 그 외의 발음, 원어, 용례, 형태분석, 어원 등의 속구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간사지 「명사」 → **간석지(干潟地).**	**(없음)**	**간사지** [명] 〈간석지〉**를 잘못 쓴 말.**
갈랙-질 「명사」 → **가댁질.**	**갈랙질** [명] → **가댁질.**	**갈랙질** [명] 〈가댁질〉**을 잘못 쓴 말.**

규범어와 비규범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남북이 서로 다르거나 사전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즉,《표대》와《조대》의 어느 한쪽에서는 규범어로 보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규범어로 처리하는 어휘들이 있다.《겨레말》에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규범으로 인정하는 어휘는 언중들의 언어관과 언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규범어로 풀이하였다.《겨레말》에서 적용하는 비규범어와 일반어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비규범어	비규범어	비규범어
비규범어	일 반 어	일 반 어
일 반 어	비규범어	일 반 어

4. 맺음말

이 글에서는《표대》와《조대》의 뜻풀이에 적용된 기본원칙을 두 사전의 일러두기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겨레말》의 뜻풀이 특징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두 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겨레말》의 뜻풀이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념과 체제 등이 달라도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즉, 언중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쉽고 간편해야 하며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달라 뜻풀이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겨레말》에서는 이러한 이념과 체제, 사상 등은 배제하고 어휘의 개념적 풀이에 초점을 두었다.

《겨레말》의 뜻풀이 특징을 내용상 특징과 형식상 특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상 특징〉

① 정치적·이념적 보편성: 남북의 언중을 고려하여 정치적,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올림말이나 어휘, 표현 등은 서로 협의하여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예: '자본주의, 공산주의, 어버이' 등)

② 언어사용의 일반성 존중: 반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어휘나 뜻풀이는 모두 존중하여《표대》에만 있거나《조대》에만 있는

것들을《겨레말》에는 모두 거두어 둘의 쓰임을 최대한 사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 '부스러기/부스레기, 감자녹말/감자녹마' 등 복수 규범)

③ 규범의 확장성: 규범성에서 남북 차이가 있을 때 규범으로 인정한 쪽을 따른다. (예: '귀이개/귀개, 설레다/설레이다', 비규범어와 일반어의 판정 기준 등)

④ 통합 지향: 남북이 서로 대응되거나 차이 나는 단어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언중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 통합 지향 사전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예: '강행군, 거총, 주민등록증, 공민증' 등)

〈형식상 특징〉

① 기술의 간결성: 동일한 정보가 모든 뜻갈래에 적용될 때 붙임 정보로 맨 아래에 보인다. (예: 친족어 '누나' 등)

② 기술의 통일성: 같은 유형의 올림말은 뜻풀이도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뜻풀이 형식을 통일하였다.

③ 지역어에도 일반어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어 및 용례 등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겨레말큰사전》은 체제 분단 이후 남북의 학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편찬하고 있는 사전이다. 통일이 되면,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남북이 논의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이 통일 어문규범이나 문법을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22] 또한 사회 체제와 정치 이념이 배제된 순수 언어 사전으로서《겨레말큰사전》은 남북 통합 사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22) 한용운(2018:98)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고려대학교,『한국어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과학원,『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 1962.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웹), 2008.
사회과학원,『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17.
한글학회,『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2. 논문 및 단행본

강영환,「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백록어문』15,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9.
김동언,「남북 국어 사전의 뜻풀이 비교 연구」,『어문논집』33, 민족어문학회, 1994.
도원영,「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정보」,『한국사전학』16, 한국사전학회, 2010.
변영수,「『겨레말큰사전』문헌어 새어휘 유형」,『통일인문학』68, 통일인문학, 2016.
변영수,「『겨레말큰사전』뜻풀이 특징」,『겨레어문학』73, 겨레어문학회, 2024.
이익환,「국어사전 뜻풀이와 용례」,『새국어생활』2(1), 국립국어연구원, 1992.
임홍빈,「북한 사전의 뜻풀이」,『새국어생활』3(4), 국립국어연구원, 1993.
조재수,「『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살펴보기」,『한국사전학』2, 한국사전학회, 2003.
한용운,「남북 어휘 통합과『겨레말큰사전』」,『수은북한경제』15(2), 한국수출입은행, 2018.
홍종선,「『겨레말큰사전』의 성격과 과제」,『한글』295, 한글학회, 2012.
홍종선,「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민족어의 통합 통일과『겨레말큰사전』남북 공동 편찬」,『민족문화연구』5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The inner structure of the dictionar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Gyeoremal Keunsajeon

Byun Youngsu | GYEOREMALKEUNSAJEON COMMITT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definitions in the *Gyeoremal Keunsajeon.* The section ‘General Definitions’ examines the general principles, the citation of existing dictionary definitions, a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basic headwords. The section ‘Definition Format’ categorizes and describes the features under ‘Definition Term, Synonyms, Standard and Variant Forms, Regional Dialects, Colloquial and Derogatory Terms, Pronunciation Notation, Original and Transformed Forms, Slang, Honorific and Humble Terms, Kinship Terms, and Incorrect Usages.’

The content-related characteristics of definitions in *Gyeoremal Keunsajeon*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language usage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headwords, terms, or expressions that may not be commonly used in either region were mutually agreed upon to ensure they are acceptable to both. Second, the dictionary respects vocabulary and definitions widely used in everyday life by including terms found exclusively in either the *Pyo-dae* (South Korean Standard Dictionary) or *Jo-dae* (North Korean Standard Dictionary), thereby recognizing the usage of both. Third, in cases of normativ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the definitions follow the norm recognized by either side. Fourth, words that differ or correspond between the two regions are explicitly marked, allowing users to easily recognize them,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dictionary aimed at North-South language integrati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conciseness is pursued by providing information that applies to all definitions at the bottom as an [Appendix] note when the same information pertains to multiple entries. Second, entries of the same type are presented in a uniform format, ensuring consistency in the definition structure. Third, regional dialects are presented with related terms and usage examples in the same way as standard language.

• Keywords: *Gyeoremal Keunsajeon*, definition, universality, generality, normative extensibility, integration, conciseness, uniformity

토론자 약력



김 병 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글마춤법통일안' 성립사를 통해 본 근대의 언어사상사』, 『언어적 근대의 기획』,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등 집필

토론 2

“남북한 사전의 속구조와 《겨레말큰사전》 – 뜻풀이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병문 | 연세대학교

먼저 이런 뜻깊은 행사에 토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전 편찬의 고된 길을 꿋꿋하게 걷고 계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사전 편찬의 말석에서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탰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표합니다.

변영수 선생님께서는 오늘 발표에서 《표준국어대사전》 및 《조선말대사전》 같은 남북한 국어사전과의 비교를 통해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살펴주셨습니다. 개별 사전의 특징은 겉구조(거시구조)와 속구조(미시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발표는 속구조 가운데에서도 뜻풀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편찬실의 신입 직원에게 집필 요강(지침)을 친절하게 일러 주시듯이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발음, 원어, 용례, 관련어, 다듬은 말, 형태분석, 어원, 숙어(성구), 속담 등과 같은 속구조에서 다른 사전과 차별점이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 주셨으면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발표 시간이나 공개 가능 여부와 같은 여러 제약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신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예컨대 뜻풀이 일반원칙으로 들어주신 ‘쉽고 간결하게’는 사실 모든 사전이 지향하는 바이며, 원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배제하는 것 역시 남쪽에서라면 특기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겨레말큰사전》의 핵심적인 가치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상대가 형성해 온 체제와 문화를 상호 존중한다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남북 어느 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을 남/북에서 이르는 말“이라는 메타술어를 통해 기술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잘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사회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 학문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뜻풀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예를 좀 더 풍부히 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휴전선‘이나 ’지주‘의 뜻풀이에서 《겨레말큰사전》이 취하는 방식 역시 상대를 존중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비규범어에 대한 《겨레말큰사전》의 관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셨듯이 ’감분‘은 북에서는 비규범어이지만, 남에서는 규범어인 것을 감안하여 《겨레말큰사전》에서도 일반적인 올림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분‘의 기본올림말이 남의 ’감자녹말‘과 북의 ’감자농마‘를 동시에 인정하는 복수 표기어인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수 표기어인 경우 양쪽(’감자녹말, 감자농마‘)에서 각각 동일하게 뜻풀이하고 용례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남과 북의 통합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언중들이 80년간 쌓아 온 서로의 언어 감각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처럼 남에서는 ’설레이다‘와 ’가리우다‘의 피사동 접사처럼 보이는 ’이‘나 ’우‘가 실은 문법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런 말들을 비규범어로 간주합니다만, 북에서는 이들이 모두 규범어로 인정됩니다. 실제 용례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이중 피사동 역시 남에서는 문법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비규범으로 처리하지만, 북에서는 규범 표현으로 인정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입에서 튀어나오고 마는 '삼가하다' 역시 '하다'가 붙을 환경이 아니라며 남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에서는 일반어에 해당합니다. '설레이다, 가리우다, 삼가하다' 등을 모두 비규범어로 보지 않고 일반어로 처리하는 《겨레말큰사전》은 북쪽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인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문법 이론이 아니라 언중들의 실제 언어 사용을 우선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상대의 체제와 관행, 감각을 존중하는 이러한 방식이 자칫 일관된 원칙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언어학적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실제 말을 부려 쓰는 이들의 언어 감각과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전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비규범어에 대한 《겨레말큰사전》의 태도는 자칫 비판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초 '국어사전'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의 시대정신은 단일하고 통일된 '국어'의 형성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적, 계층적 변종은 불가피하게 비표준의 딱지와 함께 배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대정신은 변이와 변종, 차이와 다양성이 꽃처럼 피어나는 사전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컨대 남의 '거위'와 북의 '게사니'가, 남의 '맷돌'과 북의 '망돌' 같은 말들이 서로 적대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레말큰사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미 품고 있는 사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부터 이 사전의 편찬자들이 상대를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로 작업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멀리서나마 《겨레말큰사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렬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발표자 약력



이 준 환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東京大學 文學部 國語研究室 외국인 연구원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전)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역주 〈신학신설〉』(공저) 집필

발표 3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이준환 | 전남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남북한 국어사전에서 전문 용어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에서 전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전문 용어는 이와 관련을 맺는 학술 용어, 일반어와 어떤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각 사전에서의 전문 분야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실제로 남한의 『우리말샘』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중심으로 용어들의 형태, 정의, 분야 분류 등에서의 구체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련어들 사이의 관계, 이전 시기의 어휘 사용 등을 고려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전문 용어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다른 한쪽에서는 일반어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는 등 남북한 국어사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어 보겠다.

근대화 이후 국어에서 쓰이는 어휘의 개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이것은 국어사전에 실리는 표제어의 개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바다. 이렇게 증가하는 어휘들의 다수는 바로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전문 용어는 현대 국어 어휘의 증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전문 용어는 사용 분야와 의미가 한정적이고, 외부 언어와의 교섭의 결과물들인 것이 많아 형태 면에서도 외래적인 것의 특성이 반영되어 국어 화자들에게 낯선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국어사전의 도움이 더 필요한 어휘들이라고 하겠다.

이런 전문 용어를 남한과 북한의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지식의 형성, 발전, 체계화 등과 관련된 용어의 생성, 증가,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 필요한 일이다. 그러한바 용어들의 차이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현대 남북한 언어의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는 언어사, 언어문화를 살피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이에 이런 지향점을 두고 남북한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에 관한 것을 사전 간의 비교와 용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전문 용어 및 학술 용어의 정의, 분야 분류의 실제

한국인의 손으로 처음 만든 국어사전에 해당하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을 보면 전문 용어가 다수 실려 있다. 이 사전의 머리말에는 전문 용어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일러두기〉에서 '학술상 용어'가 실렸음이 드러나 있다. 이 '학술상 용어'가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이 사전에 실린 관련어 표제어를 검토함으로써 어떻게 정의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1] 문세영 『조선어사전』(1940, 재판)(해방 전)의 '학술상 용어' 관련 표제어 및 분야 분류

1) 학술상 용어 관련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

(1)【전문】(專門) 명 전일한 학과 또는 사업을 오로지 연구 또는 담당하는것.
(2)【전문어】(專門語) 명 「술어」(述語)와 같음.
(3)【술어】(術語) 명 학술상에 전용하는 말. 갈말. 專門語. 學術語.
(4)【학술어】(學術語) 명 「술어」(術語)와 같음.
(5)【학술】(學術) 명 ① 학문과 기술. ② 학문의 방법.
(6)【학과】(學課) 명 학교의 과정.
(7)【학과목】(學科目) 명 학문의 과목

2) 분야 분류(총 18개)
「문법」,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의학」, 「약학」, 「수학」, 「물리학」, 「화학」, 「법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논리학」, 「경제학」, 「천문학」, 「지문학」

1)을 보면 '학술'은 학문 및 기술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 '학술'에서 전용되어 쓰이는 말은 '술어', '전문어', '학술어'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어=학술어'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을 정의하는 데 쓰인 '학과'는 표제어로는 원어가 '學科'인 것은 올라 있지 않으나 '學科目'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學科'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어=학술어'와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전문상 용어'가 있다면 이것은 학술의 세계와 직업의 세계 양쪽 모두에서 쓰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학술상의 용어는 2)와 같이 모두 18개의 분야가 설정되어 있고, 이 분야 분류에 따라 용어가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된 분야의 이름은 「문법」을 제외한 모두 '-학'으로 끝맺고 있다. 그렇지만 '문법'의 뜻풀이를 보면 "① 글을 짓는 법측. ② 글자의 음형(音形)·말의 성립·변화·결합법은 경구하는 학문."과 같다. ②의 풀이에서 '문법'의 유개념으로 '학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18개의 분야 분류는 모두 학문 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일러두기〉에서 '전문어' 또는 '전문상 용어'가 아닌 '학술상 용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을 이런 분야의 이름과 연관 지어 판단해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처음 나온 사전은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이다. 이 사전은 1929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조직되고 난 이듬해부터 사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완성은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발족된 이후로 28년이자 본격적인 편찬 실무가 시작된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1947년에 제1권이 편찬되고 이후 제2권(1949. 5. 5.), 제3권(1950. 6. 1. 이때부터는 『큰사전』으로 발간)이 나오고 1957년에는 제4권(8. 30.), 제5권(6. 30.), 제6권(10. 9.)이 연이어 나옴으로써 편찬이 완료되게 되었다. 이 사전의 제1권만이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나온 대사전이지만, 실제 1942년에 조판 교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해 10월 1일, 이른바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학회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던 것이다.(이상은 『조선말큰사전』(1947) 「머리말」, 「편찬의 경과」 및 한글학회 누리집〉자료마당〉조선말큰사전의 소개 글(https://hangeul.or.kr/homepage/custom/koreanbig)을 참고)

이렇게 편찬에 참여한 이들 중에 북한에 잔류하거나 넘어갔거나 북한으로 납치된 이들이 적지 않고 이들이 북한의 언어 정책의 수립과 국어사전의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제2권부터는 분단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미쳤을 이 사전의 영향력이 어떠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1] 조재수(1988: 100)에서 다룬 바와 같이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의 모체가 된 실제로 『조선말사전』(1962)은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1947-1957)을

1)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처음으로 편찬원의 역할을 맡은 이는 이극로, 이윤재, 한징, 이용기, 김선기였으며, 1936년에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되고 난 후 집필 위원의 역할을 맡은 이는 이극로, 이윤재, 정인승, 한징, 이중화, 권승욱, 권덕규, 정태진이었고, 해방 후 1945년 9월 8일에는 편찬원으로 정인승, 이극로, 김병제, 이중화, 정태진, 이강로, 신영철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북한에 잔류를 하였거나 넘어갔거나 납치된 이들은 이극로(잔류), 이중화(납북), 김병제(월북) 등이다. 이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큰사전〉(김영희 집필) 항목 검색 결과(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8679)를 바탕으로 한 것임.

바탕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전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조선어학회에서 나온 이『조선말큰사전』은 양쪽 모두에서 기준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 사전에서 전문 용어, 전문 분야의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2] 조선어학회『조선말큰사전』(1947-1957)(분단 전, 남한)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표제어, 분야 분류

1) 〈범례〉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1. 어휘' 1. 이 사전에 실은 어휘는 현대에 표준으로 쓰이는 순 조선 말, 한자 말(漢字語), 외래어(外來語), 숙어(熟語), 각종 전문어(專門語) 들은 물론이요, 옛말, 이두(吏讀) 말, 옛 제도어(制度語), 각 지방의 널리 쓰이는 사투리(표준어 아닌 말), 변말, 결말, 및 내외 각지의 유명한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의 이름 들까지 널리 망라하고, 필요에 따라 중요한 종합 용어(綜合用語)와, 익히 쓰이는 마디 말(慣用句語) 들도 골라 수용하였음.

2) 전문어 관련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

(1) 술어(術語)[이] "학술어(學術語)"의 준말.

(2) 전문(專門)[이] 한 가지의 학과, 또는 사업에 종사함.

(3) 전문어(專門語)[이] 전문인 부문에서만 주장으로 쓰이는 말.

(4) 학술(學術)[이] 학문의 기술.

(5) 학술어(學術語)[이] 학술의 연구상에 특별히 쓰이는 말.(준말: 술어=術語).

(6) 학과(學科)[이] ≪교≫ 교수상(敎授上) 또는 연구상(硏究上)의 편의로 구별한 학술의 과목(科目).

3) 전문 분야 분류(전문어 표시의 부호란 이름으로)(총 49개)

≪철학≫, ≪윤리≫, ≪논리≫, ≪심리≫, ≪교육≫, ≪법률≫,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천문≫, ≪지리, 지명≫, ≪물리≫, ≪화학≫, ≪동물≫, ≪식물≫, ≪광물, 광산≫, ≪수학≫, ≪생리, 생물≫, ≪의학≫, ≪한의학≫, ≪약학≫, ≪농업≫, ≪공업≫, ≪토목≫, ≪건축≫, ≪문학≫, ≪어학≫, ≪미술≫, ≪회화(그림)≫, ≪조각≫, ≪음악≫, ≪체육≫, ≪군사≫, ≪연극≫, ≪인쇄≫, ≪사람 이름≫, ≪책 이름≫, ≪종교≫, ≪불교≫, ≪예수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민속, 토속≫, ≪옛말≫, ≪이두≫, ≪고제, 고속≫, ≪일본식 제도≫

4)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 이름' 등의 기술 양상

(1) 강동군(江東郡)[이]≪지≫ 평안 남도 열 네 군의 하나. 북은 순천군(順川郡)과 성천군(成川郡), 동은 성천군, 남은 중화군(中和郡)과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서는 대동군(大同郡)에 닿았음.…….

(2) 강화도(江華島)[이]≪지≫ 경기도 스무 군의 하나. 강화도(江華島) 및 그 부근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졌는데, 면적 422.2 평방 km.…….

(3) 경복궁(景福宮)[이]≪지≫ 조선 태조(太祖)3년(서기 1394)에 세운 대궐.…….

(4) 다보탑(多寶塔)[이]≪불교≫ ① 탑(塔)의 이름.……. ② 경주 불국사(慶州佛國寺)에 있는 불탑(佛塔).…….

(5) 목민심서(牧民心書)[이]≪책≫ 순조(純祖) 때 정 약용(丁若鏞)이 지음.…….

(6) 경대승(慶大升)[이]≪사람≫ 고려 명종(明宗) 때 장군.(서기 1154-1183)…….

1)과 같이 '1. 어휘'에 이 사전에 표제어로 전문어가 실려 있음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과 관련한 표제어가 이 사전에 실려 있는 상황은 2)와 같다. 〈범례〉의 기술과 2)의 표제어들 사이의 관계로써는 판단하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2) '전문' 및 (6) '학과'의 뜻풀이를 고려할 때 (3)의 '전문어'는 (5)의 '학술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어의 외연이 학술어의 외연보다는 넓은 것으로 이해되어,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 이 둘의 외연을 같은 것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1)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내외 각지의 유명한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의 이름'이 따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전문어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격을 지니는 표제어를 찾아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3)의 전문 분야 분류에 따라 모두 전문어 표시의 부호가 붙어 뜻풀이가 되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에 제시한 것들이 이를 잘 보여 주는 예들이다.

이렇게 기술된 것을 보면 여러 이름은 그저 전문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여러 이름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뒤에 북한에서 나오는 국어사전들에서 4)에 제시한 말들이 대거 미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어 있더라도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어로 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조선말큰사전』을 편찬할 때 했던 '내외 각지의 유명한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의 이름' 등의 처리에 관한 고민이 북한의 사전을 편찬할 때에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남북한 국어사전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 눈여겨볼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표 1〉『조선말큰사전』과 북한 사전의 '땅 이름' 등의 수록 및 기술 양상 비교

『조선말큰사전』 표제어	『조선말큰사전』의 기술	『조선말사전』	『조선말대사전』
(1) 강동군(江東郡)	≪지≫	미등재	미등재
(2) 강화도(江華島)	≪지≫	미등재	미등재
(3) 경복궁(景福宮)	≪지≫	미등재	등재, 일반어로 처리
(4) 다보탑(多寶塔)	≪불교≫	미등재	등재, 일반어로 처리
(5) 목민심서(牧民心書)	≪책≫	미등재	등재, 일반어로 처리
(6) 경대승(慶大升)	≪사람≫	미등재	미등재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분야는 총 49개가 '전문어 표시의 부호'란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비교할 때 분야의 개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철학≫, ≪윤리≫, ≪논리≫, ≪심리≫, ≪교육≫, ≪법률≫, ≪경제≫, ≪천문≫, ≪지리, 지명≫, ≪물리≫, ≪화학≫, ≪동물≫, ≪식물≫, ≪광물, 광산≫, ≪수학≫, ≪의학≫, ≪약학≫, ≪어학≫과 같이 18개 분야는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야 분류이다. 따라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의 분야 분류는 충실히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말큰사전』의 분야 중에는 ≪어학≫과 같이 「문법」에서 이름이 바뀐 것들도 있고, '-학'이란 말을 떼 버린 형태로 이름이 바뀐 것들이 눈에 띈다. 이것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 '학술상 용어'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말대사전』에서 '전문어'라고 한 것과 관련지어 보면 이해되는 바라 하겠다. 그리고 '-학'이 붙은 것들도 ≪화학≫, ≪수학≫, ≪의학≫, ≪약학≫에 그치는데 이들은 'X학'에서 X가 1음절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 새로 추가된 분야 중에서 'X학'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문학≫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한의학≫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의학≫과의 관계가 고려된 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서 예외성이 이해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나온 『조선말사전』(1962)은 다음과 같이 전문 용어 관련 기술을 하고 분야 분류를 하였다. 또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3] 『조선말사전』(1962)(북한)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표제어, 분야 분류

1) 〈일러두기〉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올림말의 선택과 배렬

(1) 8·15 해방 이후 공화국 남반부에서 쓰이게 된 단어로서 공화국 북반부의 출판물에 흔히 나오는 것들도 그 일부를 수록한다.

(2)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와 관련하여,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일익으로 되는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 정치 용어는 물론 전문 기술 용어도 주석 사전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많이 수록한다.

(3) 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수록하지 않는다.

① 좁은 범위의 전문가 집단에서만 쓰이는 기술 전문 용어.

2) 전문 용어 관련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

(1) 학술(學術)[명] 과학 기술.

(2) 학술 용어(學術用語) ≪언어≫ 생산, 기술, 과학, 예술, 사회 생활 및 기타의 특수 분야에서 대상, 현상, 특성, 관계, 과정 및 기타를 정밀하게 나타내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 이것은 그 의미의 특수성, 의미론적 한계의 정밀성의 점에서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과 구별된다; 술어, 전문어, 학술어.

(3) 학술어(學術語)[명] =학술 용어.

(4) 전문 용어(專門用語) =전문어.

(5) 전문(專門)[명] (한 가지 부문에 국한하여) 힘이나 마음을 오로지 함, 또는 그 부문.

(6) 전문어(專門語)[명] 학술 부문이나 또는 그 밖의 전문 부문에서 일정한 뜻으로 통하여 쓰는 단어나 단어 결합; 전문 용어.

3) 전문 분야 분류(총 38개)

≪건설≫, ≪경제≫, ≪고고≫, ≪교통≫, ≪교육≫, ≪군사≫, ≪금속≫, ≪기계≫, ≪기상≫, ≪광산≫, ≪농학≫, ≪력사≫, ≪림학≫,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학≫, ≪섬유≫, ≪수산≫, ≪수학≫, ≪수의≫, ≪생리≫, ≪생물≫, ≪잠학≫, ≪전기≫, ≪지리≫, ≪지질≫, ≪천문≫, ≪철학≫, ≪출판≫, ≪체육≫, ≪해운≫, ≪화학≫, ≪연극≫, ≪영화≫, ≪음악≫, ≪의약≫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전에서는 전문 기술 용어 중에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싣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많지 않은 전문가 집단의 언어는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3)에서와 같이 전문 용어는 모두 38개 분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 분야를 조선어학회『조선말큰사전』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 ≪교육≫, ≪군사≫, ≪광산≫, ≪농학≫, ≪문학≫, ≪물리≫, ≪미술≫, ≪민속≫(←≪민속, 토속≫), ≪법학≫(←≪법률≫), ≪수학≫, ≪수의≫(←≪동물≫), ≪지리≫(←≪지리, 지명≫), ≪천문≫, ≪철학≫, ≪출판≫(←≪인쇄≫), ≪체육≫, ≪화학≫, ≪연극≫, ≪음악≫, ≪고고≫(←≪고제, 고속≫)는 이름이 바뀐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건설≫(←≪토목≫, ≪건축≫), ≪의약≫(←≪의학≫, ≪한의학≫, ≪약학≫)은 여러 분야가 통합된 것이다. 셋째, ≪생리≫(←≪생리, 생물≫), ≪생물≫(←≪생리, 생물≫)은 한 분야가 두 분야로 나뉘게 된 것이다. 넷째, ≪림학≫, ≪섬유≫, ≪수산≫, ≪잠학≫, ≪지질≫, ≪해운≫, ≪영화≫는 새로 설정된 분야이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조선말큰사전』과 비교할 때 총 분야의 개수는 11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4]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7)(북한)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표제어, 분야 분류

1) 〈일러두기〉의 '올림말' 부분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1) 사전에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사회정치용어와 학술용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주요서적들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력사적사변, 사건, 유물, 유적과 관련한 용어들, 포괄적인 고장이름 그리고 낡은 투의 한자말과 력사제도어, 방언과 고어 등을 올리었다.

(2) ① 각 부문 과학기술도서와 잡지 및 각급 학교 교과서들에서 쓰인 과학기술용어를 비롯한 여러 어휘부류들과 그것을 고친 다듬은말들.

② 해방전 19세기말 ~ 20세기초에 나온 국한문혼용체의 각종 자료들과 도서, 신문, 잡지들에서 쓰인 어휘들.

③ 해방후에 나온 조선말뜻풀이사전과 과학기술사전, 부문별사전들에 올라있는 올림말어휘들.

2) 전문 용어 관련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

(1) 학술(學術)[명] ① ≪학문≫을 예술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② 과학과 기술에 관한 리론.

(2) 학술용어[명] ≪언어≫ 과학, 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주로 쓰이면서 과학적개념을 나타내는 어휘. 엄밀한 과학적개념에 대응하는 대상론리적뜻만을 가지며 일반어와는 달리 감정정서적뜻빛갈을 가지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이 사람들속에 널리 쓰이게 되면 일반어로 넘어올수 있다. ㉠과학기술용어. 학술어.

(3) 학술어(學術語)[명] =학술용어.

(4) 일반어[명] =일반용어.

(5) 일반용어[명] ≪언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어휘≫를 학술용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많은 경우 다의성을 나타내며 이러저러한 감정정서적인 뜻빛갈을 가진다. ≪밥≫, ≪풀≫, ≪가다≫, ≪붉다≫, ≪빨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말들이 이에 속한다. ㉠일반어.

(6) 전문어(專門語)[명] =전문 용어①.

(7) 전문 용어[명] ≪언어≫ 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일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이는 특수한 개념을 담거나 특수한 대상을 이름지어 부르는 어휘. 학술용어와 직업어가 있다. ㉠전문어. ② ≪직업어≫를 이르는 말.

(8) 직업어(職業語)[명] ≪언어≫ 일정한 직업의 구체적인 한 분야의 로동활동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어휘. 목공, 천짜기, 사금캐기, 나무찍기, 물고기잡이, 사냥 등 일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활동에서 쓰이는 제한되어있는 특수한 어휘들이 이에 속한다. 채벌분야에서 ≪앞다리≫(앞에 높이 세운 두개의 나무대), ≪젖울개≫(베실이 마르면 물을 적시어 추기는 나무) 등과 같은것이다. 생산도구 및 일정한 직업과 관련하여 극히 세분화되어 명명되면서 대상의 특징을 하나하나 나타낸다는데 특색이 있다.

3) 학술 용어의 표시(총 47개)

≪건설≫, ≪경제≫, ≪고고≫, ≪금속≫, ≪기계≫, ≪기상≫, ≪광업≫, ≪농학≫, ≪력사≫, ≪론리≫, ≪림학≫, ≪무용≫, ≪문학≫, ≪문예≫, ≪물리≫, ≪미술≫, ≪방직≫, ≪법률≫, ≪수리≫, ≪수산≫, ≪수학≫, ≪심리≫, ≪생리≫, ≪생물≫, ≪자동화≫, ≪잠학≫, ≪전기≫, ≪전자≫, ≪정보≫, ≪지리≫, ≪지질≫, ≪천문≫, ≪철학≫, ≪축산≫, ≪출판≫, ≪체신≫, ≪체육≫, ≪해양≫, ≪화학≫, ≪화학공업≫, ≪약학≫, ≪언어≫, ≪연극≫, ≪영화≫, ≪운수≫, ≪음악≫, ≪의학≫

1)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용어'란 말은 보이지 않고 '학술 용어'로 가리키고 이에 따라 분야 분류가 되어 있다. 1)(1)을 보면 역사적 사변, 사건, 유물, 유적과 관련한 것들은 학술 용어와는 별개의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학술 용어가 아닌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2)를 보면 '전문 용어', '학술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문 용어'는 일정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학술 용어'는 이런 사용 분야에 더하여 과학적 개념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는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 용어'가 '학술 용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2)(5)에서 일반어의 상대가 되는 말을 학술 용어라고 한 것과 맞지 않는 면이 생긴다. 2)(7)에서 학술 용어가 전문 용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반어의 상대가 되는 말은 학술 용어가 아닌 전문 용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이 사전에서는 학술 용어, 전문 용어, 일반어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기에 북한의 국어학계에서 학술 용어와 전문 용어에 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술 용어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최완호·문영호(1980)를 살펴보면 어휘를 '일반어'와 '학술 용어'로 나누고 있음이 참고된다.[2] 이곳에서는 학술 용어의 과학적인 분류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용어의 부류에 나타나는 언어적특성을 깊이 고려하며 과학기술부문의 과목부류를 철저히 련관시키며 언어생활의 오랜 관습과 학술용어사용의 특성을 잘 고려하는 것이다."와 같이 과목 부류와 용어 사용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하여 ① 자연과학 용어, ② 기술과학 용어, ③ 사회정치 용어, ④ 문학예술 용어, ⑤ 전문어로 용어의 부류를 나누었다. 이곳에서 전문어가 등장하는데, 이처럼 전문어는 학술 용어의 하위 용어로 다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전문어가 학술 용어의 상위에 놓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바라 하겠다.

학술 용어와 일반어의 구별에 관하여는 어휘의 사용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 어휘의미론적 특성이 어떤지에 있다고 보았다.[3] 그러면서 '물'을 가지고서 이것을 음료수로 쓸 때에나 화학식 H_2O로 된 물질을 가리킬 때에나 모두 '물'이지만 전자는 일반어인 반면에 후자는 학술어가 되는 것으로 의미에 따라 용어의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3)에서 보듯이 학술 용어의 분류는 『조선말사전』(1962)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 ≪광업≫(←≪광산≫), ≪방직≫(←≪섬유≫), ≪법률≫(←≪법학≫), ≪해양≫(←≪해운≫)과 같이 이름이 바뀐 것과, 둘째 ≪의학≫, ≪약학≫(←≪의약≫)과 같이 분야가 분리된 것과, 셋째 ≪론리≫, ≪무용≫, ≪문예≫, ≪수리≫, ≪심리≫, ≪자동화≫, ≪전자≫, ≪정보≫, ≪축산≫, ≪체신≫, ≪화학공업≫, ≪언어≫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분야가 있다. 이런 이름은 학문 분야, 과학 분야,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이름이 적절히 이용되어 지어진 것이다.

[5] 『우리말큰사전』(1991)(남한)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표제어, 분야 분류

1) 〈일러두기〉의 '가. 올림말 Ⅰ. 올림말의 범위' 부분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특별한 말

(1) 전문 용어, 지난 시대의 사회 문화 용어, 일의 이름, 직명과 단체 이름, 민족과 신의 이름, 성씨와 일부 사람(역대 우리 임금 들)의 이름, 역사상의 나라와 땅의 이름, 국학 관계의 문헌과 문화재 이름 들

(2) 사람 이름, 땅이름 들의 홀이름씨(고유 명사)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하였으나 위에 밝힌 대로 역사 및 국학 관련의 일부 어휘는 다루기로 하였다.

2) 이와 관련된 부분의 기술을 보면 "학술용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밀하게 규정된 과학적인 개념과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어휘부류이다. 학술용어는 과학적인 개념과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있기때문에 과학기술부문이나 문학예술부분 같은데서 주로 많이 쓴다. 언어의 어휘구성을 일반어와 학술용어로 나눈다. 학술용어가 일반어와 갈아지는 주요한 표식은 바로 어휘의 뜻내용이 학술적인 내용과 관련된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휘를 쓰는 분야가 과학기술부문이나 문화예술부문과 같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있다."(148-149쪽)와 같이 되어 있다.

3) 이와 관련한 부분의 기술은 "결국 학술용어가 일반어처럼 모든 분야에 다 통하여 쓰이지 않고 일정하게 정해진 분야에서만 쓰이게 되는 리유는 용어에 담긴 학술적내용이 과학기술부문에 따라 정밀하게 규정된데 있다. 학술적내용의 정밀성만 아니면 구태여 분과와 과목마다 서로 용어를 구별해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학술용어가 일반어와 구별되는 주요한 표식이 어휘의 사용범위가 넓은가 좁은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정밀하게 규정된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하여 학술용어와 일반어의 주요한 구별적표식은 어휘의 사용범위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휘의 어휘의미론적특성에 있다."(150-151쪽)와 같이 되어 있다.

2) 전문 용어 관련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

(1) 전문어 [이] 학술 등의 전문 부문에서 일정한 뜻으로 쓰이는 말. (ㅂ) 일반어와 ~.(專門語)

(2) 전문 용어 [이] =전문어.(專門用語)

(3) 학술 [이] ① 학문의 기술. ②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學術)

(4) 학술어 [이] 학술 연구에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學術語)

(5) 학술용어 [이] =학술어.(學術用語)

3) 전문어 분류(총 57개)

≪건축≫, ≪경제≫, ≪고고학≫, ≪공업·공학≫, ≪광업·광물≫, ≪교육≫, ≪군사≫, ≪연극≫, ≪기계≫, ≪기상학≫, ≪논리≫, ≪농업≫, ≪대종교≫, ≪동물≫,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학≫, ≪사진≫, ≪생물학·생리학≫, ≪성경≫, ≪수학≫, ≪수산·어업≫, ≪식물≫, ≪신화·신학≫, ≪심리≫, ≪음악≫, ≪약학≫, ≪언어학≫, ≪역사≫, ≪영화≫, ≪예술≫, ≪예수교≫, ≪윤리≫, ≪의학≫, ≪인쇄≫, ≪전기≫, ≪전자계산≫, ≪정치≫, ≪조각≫, ≪종교≫, ≪지리·지학·땅이름(옛것)≫, ≪책이름≫, ≪천문학≫, ≪천도교≫, ≪천주교≫, ≪철학≫, ≪체육≫, ≪무용≫, ≪토목≫, ≪한의학≫, ≪항공≫, ≪해사·항해≫, ≪화학≫

[2] 조선어학회의『조선말큰사전』을 이은 한글학회의『우리말큰사전』에는 특별한 말로서 전문 용어가 실린 것임을 〈일러두기〉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땅이름은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역사적인 것이 실리게 되고 ≪지리·지학·땅이름(옛것)≫이란 전문어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용어로 실리게 되었다.

이렇게 실려 있는 전문 용어가 어떤 외연을 지니는지는 〈일러두기〉로써는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2)와 같이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의 풀이를 살펴보면 기본 용어는 전문어와 학술어, 이와 동의어인 전문 용어, 학술 용어가 실려 있는데 전문 용어가 학술 용어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어임을 알 수 있다. 각 용어들의 뜻풀이를『조선말큰사전』과 비교하여 보면『우리말큰사전』의 것이 한층 명확해졌음을 볼 수 있다.

전문어의 분류는 모두 57개로『조선말큰사전』의 것보다 늘어났다. 세부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고고학≫, ≪기계≫, ≪기상학≫, ≪성경≫, ≪수산·어업≫, ≪신화·신학≫, ≪영화≫, ≪예술≫, ≪전기≫, ≪전자계산≫, ≪무용≫, ≪항공≫과 같이 12개 분야는 새로 추가된 분야이다. 이와 약간 양상을 다르지만 ≪공업·공학≫, ≪지리·지학·땅이름(옛것)≫은 부분적으로 하위 분야가 추가되었다. 반면에 둘째, ≪회화(그림)≫, ≪옛말≫, ≪이두≫, ≪고제, 고속≫, ≪일본식 제도≫와 같이 5개 분야는『조선말큰사전』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 ≪언어학≫의 경우는 이름이 변경된 것이며, ≪광업·광물≫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조선말큰사전』의 것과 같아서 이 사전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표준국어대사전』(남한),『우리말샘』(남한)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 표제어, 분야 분류

1) 〈일러두기〉의 전문 용어 관련 기술(『표준국어대사전』(1999))

'표제어' 부분: ① 일반어뿐만 아니라 전문어, 고유 명사도 수록하였다.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뜻풀이' 부분의 전문 영역 표시: ① 전문어와 고유 명사에는 해당 전문 영역을 표시하였다.

'뜻풀이' 부분의 뜻풀이 원칙: ① 전문어: 국가의 수도·면적, 화학식, 동식물의 학명 따위의 부가 정보는 뜻풀이 본문 뒤에 밝혔다.

2) 전문 용어 관련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표준국어대사전』(1999))

(1) 전문(專門) 명 ①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1999년, 현재)

(2) 전문어(專門語) 명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전용어② 참 보통어·학술어.(1999년) //『언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전문 용어.(현재)

(3) 전문어^사전(專門語辭典) [출판]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쓰는 전문어를 수록하고 풀이한 사전.(1999년, 현재) ※ 다만, 현재의 분야는 『매체』로 변경

(4) 전문^용어(專門用語)『언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전문어.(현재)

(5) 학술(學術) 명 ①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학문의 방법이나 이론.(1999년, 현재)

(6) 학술어(學術語) 명 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 =갈말1·술어2(術語)(1999년, 현재) 참 상용어2·전문어.(1999년)

(7) 전용어(專用語) 명 ①일정한 계층이나 부문에서만 쓰는 말.(1999년, 현재) ②=전문어.(1999년) // ②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제한된 의미로 쓰는 말.(현재)

(8) 학술^용어^사전(學術用語辭典) [언어]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따위의 전문 분야에서 쓰는 용어의 개념을 풀이한 사전. 1999년, 현재)

(9) 학술^용어(學術用語)『인문 일반』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및 의미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언어.(※『우리말샘』에만 수록)

3) 전문어 분류

(1)『표준국어대사전』(1999)(총 52개 분야)

≪가톨릭≫, ≪건설≫, ≪경제≫, ≪고적≫, ≪고유 명사≫, ≪공업≫,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논리≫, ≪농업≫,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불교≫, ≪사회≫, ≪생물≫, ≪수학≫, ≪수산≫, ≪수공≫, ≪식물≫, ≪심리≫, ≪약학≫, ≪언론≫, ≪언어≫, ≪역사≫, ≪연영≫, ≪예술≫, ≪운동·오락≫, ≪음악≫, ≪의학≫, ≪인명≫, ≪전기≫, ≪정치≫, ≪종교≫,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철학≫, ≪출판≫, ≪통신≫, ≪컴퓨터≫, ≪한의학≫, ≪항공≫, ≪해양≫, ≪화학≫

(2)『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 판)·『우리말샘』(인터넷 판)(총 67개 분야)

≪가톨릭≫, ≪건설≫, ≪경영≫, ≪경제≫, ≪고유명 일반≫, ≪공업≫, ≪공예≫, ≪공학 일반≫,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농업≫, ≪동물≫, ≪매체≫, ≪무용≫,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보건 일반≫, ≪복식≫, ≪복지≫, ≪불교≫, ≪사회 일반≫, ≪산업 일반≫, ≪생명≫, ≪서비스업≫, ≪수산업≫, ≪수의≫, ≪수학≫, ≪식물≫, ≪식품≫, ≪심리≫, ≪약학≫, ≪언어≫, ≪역사≫, ≪연기≫, ≪영상≫, ≪예체능 일반≫, ≪음악≫, ≪의학≫, ≪인명≫, ≪인문 일반≫, ≪임업≫, ≪자연 일반≫,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치≫, ≪종교 일반≫, ≪지구≫,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천연자원≫, ≪철학≫, ≪체육≫, ≪한의≫, ≪해양≫, ≪행정≫, ≪화학≫, ≪환경≫

1999년에 나온『표준국어대사전』은 표제어가 509,076개인데, 여기에서 전문 용어의 개수는 225,779개로 이 중 일반어와 통용되는 9,222개를 제외한 216,557개가 순수 전문 용어의 개수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용어 중 42.5%를 차지할 정도(이운영 2002: 36-37 참고)로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 규모는 문세영의『조선어사전』(1940)에 실린 약 95,000개의 표제어 중에 7,019개에 달해 7.4%에 달하는 것(황용주 2014: 133-134)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를 겪은 것이다. 산술적으로 두 사전의 표제어 규모를 비교하면『표준국어대사전』은『조선어사전』의 5.36배의 표제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 전문 용어의 규모를 비교하

면 30.85배의 표제어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 용어는, 현재는 다수가 『우리말샘』으로 넘겨져 관리가 되고 있다. 『우리말샘』에 실린 전문 용어의 개수는 전문가 감수 정보 기준으로 약 65만 개이다. 이것은 감수 정보 기준 전체 용어 약 100만 개의 약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문 용어의 증가를 더 확연히 보여 준다. 이런 전문 용어의 증가는 전문 용어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문 분야의 분화, 새로운 전문 분야의 탄생과도 관련을 맺는다. 3)(1)과 비교할 때 3)(2)에서 전문 분야의 종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주는 바라고 하겠다.[4)]

2)를 보면 전문 용어 관련 표제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999년도에 발간된 종이 사전과 비교할 때 현재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사전에서는 약간 달라진 것도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전문'이나 '전문어', '학술 용어 사전'에 대한 정의와 '학술어'를 '전문 용어'로 풀이하고 있고, 『우리말샘』에만 실려 있지만 '학술 용어'를 전문화된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이에서 볼 수 있듯 전문 용어가 학술 용어보다는 외연이 넓고, 학술 용어가 전문 용어의 하위 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6)]

이상에서 살펴본바, 남한 사전에서는 전문 용어의 외연을 학술 용어의 것보다 넓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실제 사전 편찬에서는 전문 용어를 가지고서 일반어와 구별되는 이 특수한 어휘들을 기술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어에서는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 사이의 구별이 혼동된 양상을 보였으며, 실제 사전은 학술 용어를 기준으로 편찬된 면이 강하다. 따라서 남한 사전보다는 분야 표지가 붙어 있는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한 사전에 전문 분야 표지가 붙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용어를 추출하여 이에 대응하는 북한어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수의 북한어 어휘들은 전문 용어 및 학술 용어가 아닌 일반어로 처리된 것들이 보인다고 하겠다.

3.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처리에서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전문 용어의 정의 및 처리 방향에 따라 실제 남북한의 국어사전에서 용어들의 형태, 정의, 분야 분류 등에서의 구체적인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련어들 사이의 관계, 이전 시기의 어휘 사용 등을 고려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고찰을 하는 데 전문 용어의 특성상 한자어와 외래어가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은 원어 정보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찰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3.1. 같은 어원을 지닌 한자어의 형태 처리

3.1.1. 규범의 차이로 인한 한자어 형태의 차이

남북한 어문 규범에서 한자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ㅖ'를 'ㅔ'로 표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도 두드러진 차이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들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4)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우리말큰사전』(1991)보다 늦게 편찬된 것임에도 전문 분야의 개수가 적다. 이것은 민속·신화→민속, 기상학·지리→지리, 성경·예수교·신학→기독교, 대종교·천도교→종교, 신화·민속→민속 등과 같이 『우리말큰사전』에서는 나누었던 것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나로 제시한 데에서 말미암는다.

5) 김미형(2024: 2)에서도 학술 용어를 과학, 기술, 문학 따위의 전문 분야에서 학술 이론을 서술하는 데 쓰는 용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여기에서의 학술은 학문과 기술을 줄인 말로서 전문가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하여 이론을 만들고 축적함으로써 발달해 왔다고 하였다. 이런 학술 용어와 학술에 관한 정의는 사전에 실린 것과 합치도가 높다.

6)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학술 전문 용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결합된 '전문 학술 용어'라는 말도 쓰이기는 하지만 '학술 전문 용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7] 자음 아래에서의 / ㅖ /에 대한 남북한 국어사전의 표기 비교

용어 원어		『우리말샘』	『조선말대사전』
(1)	肺結核	폐결핵≪의학≫	페결핵≪의학≫
(2)	肺梗塞	폐경색≪의학≫	페경색≪의학≫
(3)	肺囊	폐낭≪동물≫	페낭≪생물≫
(4)	閉曲面	폐곡면≪수학≫	페곡면≪수학≫
(5)	閉經期	폐경기≪의학≫	페경기≪의학≫
(6)	連袂/聯袂	연메	련메
(7)	惠民局	혜민국≪역사≫	혜민국(※ 뜻풀이: 고려와 리조 때에…….)
(8)	檢流計	검류계≪전기·전자≫	검류계≪전기≫

[7]과 같이 / ㅍ /과 / ㅁ / 아래의 / ㅖ /는 현실음에서 / ㅖ /로 발음되는 현실을 북한어에서는 과감하게 인정하여 이에 따라 (1) ~ (6)에서와 같이 ' ㅖ '로 적도록 하였다. 이것은 남한어에서 [페], [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표기는 본래의 모음 종류에 따라 '폐', '몌'로 적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7)과 (8)에서 보듯이 / ㅎ /과 / ㄱ / 아래에서는 본음대로 적도록 하고 있어 남북한의 차이가 없다. 이처럼 '폐'를 '페'로 '몌'를 '메'로 적는 것은 이렇게 적더라도 혼동할 만한 본음이 '페', '메'인 것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7] 이것은 북한이 한글 전용을 하면서 최대한 동음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고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 표기를 채택하게 된 것도 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혼동의 여지가 없으니 충분히 타당한 표기로 간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폐'를 '페'로 적는 것은 이미 일제 강점기 때 간행된 잡지 등의 여러 매체의 언어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아래의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8] 일제 강점기 매체에서의 자음 아래에서의 / ㅖ /에 대한 표기 양상

(1) 이와 가튼 해에 「스칸듸나비앤」 천재 「니엘쓰 핀쎈」이란 사람이 해ㅅ비츠로 피부 페결핵을 고치는 법을 출판해 냇슴니다. 〈약되는 태양 광선, 건강과 미를 도읍고 의사의 친구가 되는 해ㅅ볏〉『동광』 5(19260901)

(2) 월결이 시작되여 끈는때 즉 폐경기(癈經期)까지의 년한(年限)은 갓흔 기후와 토질에 잇서셔도, 초경이 빨으게 시작된 사람은 늣게 시작된 사람보다 년한(年限)이 길고 또는 부인의 의무(義務)에 딸아서도 달은대……〈成熟期의 處女와 月經〉『삼천리 제7권 제5호: 184』(19350601)

(3) 약방긔생(藥房妓生) 상의긔생(裳衣妓生) 헤민서긔생(惠民署妓生) 활인서긔생(活人署妓生)이〈춤잘추는 西道妓生 소리잘하는 南道妓生〉『삼천리 제3권 제9호: 47』(19310901)

한자음의 원음을 잘 아는 상황인데도[8] 이처럼 현실음에서는 / ㅖ /가 / ㅖ /로 나타나는 언어 현실이 오랜 기간 있어 왔던 것을 북한의 언어학계에서는 한글 전용 시의 방향성에 비추어 보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7) 이와 같은 바는 조의성(https://www.tufs.ac.jp/ts/personal/choes/korean/nanboku/Snanboku.html)에서 아래와 같이 다루어진 바 있다. "한자어에서 '閉', '肺', '廢' 등 '폐'는 '페'로 적는다. 남한에서도 '폐'의 실지 발음은 [페]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발음대로 적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례], [게], [헤]로 발음되는 '계', '례', '혜' 등은 '게', '레', '헤'로 적지 않는다. 왜 '폐'만 '페'로 적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추측하건대, [게]로 발음되는 것은 '계'(界, 計 등)와 '게'(揭, 憩 등)이 있고, [헤]로 발음되는 것은 '혜'(惠, 慧 등)와 '헤'(日자에다 彗자를 쓰는 한자)가 있는데 반해 [폐]로 발음되는 것은 '폐'만 있고 '페'가 아예 없어 혼동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같이 '페'로 적는지도 모른다. 이 가설에 서면 '몌'(袂)를 북한에서 '메'로 적는 것도 설명된다. '례'에 관해서는 '레'로 적히는 한자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레'로 적으면 [네]로 발음될 우려가 있어 일부러 그대로 남겨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8) 이때는 지석영이 편찬한『字典釋要』(1909)와 최남선이 이끄는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한『新字典』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을 때라 한자음의 본음을 알 수 있는 참고서는 잘 갖추어져 있는 때였다.

3.1.2. 한자음의 차이로 인한 한자어 형태의 차이

개별 한자의 한자음이나, 한자어에 따라 특이성을 갖는 속음이나, 복수음자의 한자음 사용이 남북한어에서 다름으로써 남북한의 전문 용어의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첫째의 것으로 (1), 둘째의 것으로 (2) ~ (4), 셋째의 것으로 (5) ~ (7)을 들 수 있다.

[9] 한자음의 차이로 인한 남북한 용어의 형태 차이

용어 원어		『우리말샘』	『조선말대사전』
(1)	歪曲	왜곡≪경제, 영상, 정보·통신≫, 왜곡선≪수학≫	외곡≪수학≫
(2)	困難	삼킴곤란≪의학≫	삼키기곤난(미등재어)
(3)	糖度	당도	탕도[9]
(4)	糖分	당분	당분
(5)	龜州	귀주대첩≪역사≫	구주대첩, 구주대승리
(6)	標識	표지기, 표지 방류, 표지색	표식기, 표식 방류, 표식색
(7)	醸出	갹출, 거출	거출

(1) '歪'는 "외곡(歪曲)[명] ①비틀리어 구부러졌다는 뜻으로 ≪사실과 맞지 않게 그릇되게 꾸미는것 또는 그렇게 하여 말하는것≫을 이르는 말. ‖ 현실에 대한 ~. 력사를 ~서술한 어용사가. ② ≪수학≫ 이그러지는것."『조선말대사전』과 같이 '외'를 보인다. '歪'는 蟹合二平佳曉(火媧切) ‖ 蟹合二平皆影(烏乖切) ‖ 蟹合二平皆見(公懷切)의 음운 정보를 지니는데, 전승 한자음인 '왜'와는 달리 '외'를 보며 皆韻에 속하는 '怪괴', '愧괴' 등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규범음을 제시한 자전에 실린 한자음에 따라 교정된 결과라 하겠다.

이런 '歪'가 들어간 전문 용어로 ≪수학≫ 분야의 것이 있다. 남한어에서는『우리말샘』을 보면 '왜곡'에 이런 ≪수학≫ 분야의 의미는 실려 있지 않지만 '왜곡「003」≪경제≫', '왜곡「005」≪영상≫', '왜곡「005」≪정보·통신≫' 분야의 용어가 있다.[10] 그런데『우리말샘』에는 "왜곡선(歪曲線)「001」「명사」『수학』 한 평면 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간 곡선."이란 말이 실려 있다. 이 '왜곡선'은 북한어의 ≪수학≫ 분야의 '외곡'의 형태가 선행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같은 분야에서 '외곡'이란 용어가 쓰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라고 하겠다.

원어가 '困難'인 (2)의 경우 남한어의 경우 '삼킴곤란'에서와 같이 속음이 반영된 '곤란'의 형태가 쓰이고 있지만 북한어에서는 '삼키기곤난'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음을 그대로 적은 '곤난'으로 쓰이고 있다. 남한어를 보면 이 '困難'이 구성 요소로 쓰인 '계산^곤란(計算困難▽)', '조음^곤란(調音困難▽)', '호흡^곤란(呼吸困難▽)'과 같은 말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그렇기에 북한어에서도 이 '困難'이 쓰인 용어는 많이 쓰일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困難'을 '곤난'으로 적고 있지만 '곤난성[골란썽]', '곤난스럽다[골란스럽다]', '곤난하다[골란하다]', '곤란히[골란히]'와 같은『조선말큰사전』의 발음 정보를 고려하면 발음은 [골란]임을 알 수 있어서 남한어와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음에 따라서 표기를 고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속음에 따른 종래의 발음까지는 교정이 되지 않아 표기와 발음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

9)『조선말대사전』에는 "탕도(湯度)[명]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탕'에 해당하는 원어로 '湯'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오기로 보인다.『조선말사전』에는 이 말이 미등재되어 있다.

10) 이 '왜곡'은 '가격의^왜곡(價格의歪曲)', '가스^왜곡(gas歪曲)', '가청^고조파^왜곡(可聽高調波歪曲)', '감수^분열^분리비^왜곡(減數分裂分離比歪曲)', '감수^분열^분리비^왜곡', '개구^왜곡(開口歪曲)' 등과 같이 남한어에서는 'X^왜곡'과 같은 후행 요소로 구 구성에서 상당히 쓰이고 있다.

원어가 '糖度'인 (3)의 경우 북한어에서는 '탕도'로 속음 '탕'이 쓰이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는 "탕도(湯度)[명]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탕'에 해당하는 원어로 '湯'이 실려 있다. '糖'과 '湯'이 서로 통하여 쓰이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한바 이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糖度'가 원어인 이 말은 남한어와 북한어 사전 모두에서 일반어로 실려 있는 것이지만 남한어에서는 '굴절^당도(屈折糖度)≪농업≫'과 같이 전문 용어의 구성 요소로 쓰이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어에서도 이 '糖度'가 원어인 것이 구성 요소가 된 전문 용어가 있을 수 있기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원어가 '糖分'인 (4)은 남북한어 모두에서 '당분'으로 형태가 같다. 이렇게 남북한어 모두 형태가 같지만 뜻풀이가 남한어에서는 "당류(糖類)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어에서는 "≪사탕성분≫의 준말."로 되어 있어서 좀 다르다. '당류'와 '사탕'이 유사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당류'는 범주적 개념으로 지시 범위가 훨씬 넓다. 또한 북한어의 경우 '사탕성분'이 준말이 '탕분'이 아닌 '당분'이 되는 것도 주목된다. 이 점에서 '糖'의 속음 '탕'이 본말에서는 실현되나 준말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특이함이 있다고 하겠다. 이 '사탕성분'은 『조선말대사전』에는 미등재되어 있다.

(5)는 남한어와 달리 북한어에서는 '구'를 보이는데 이것은 止合三平脂B見(居追切) ‖ 流開三平尤見(居求切)의 음운 정보 중에서 남한어는 전자의 것을 취한 반면에 북한어에서는 후자의 것을 취한 결과로 차이가 생긴 것이다.

(6)은 '標識旗', '標識放流', '標識色'에 대하여 남한어의 '지'와 달리 북한어에서는 '식'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曾開三入職書(賞職切) ‖ 止開三去志章(職吏切)의 음운 정보 중에서 남한어에서는 후자의 것을 북한어에서는 전자의 것을 취한 결과로 생긴 차이이다.

(7)은 遇開三平魚羣(強魚切) ‖ 遇開三去御羣(其據切) ‖ 宕開三入藥羣(其虐切)의 음운 정보에서 북한어에서는 맨 마지막의 음운 정보를 취하지 않았으나 남한어에서는 이곳의 정보도 취하여 한 형태를 두 가지 독법으로 읽음으로써 양 언어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복수 한자음 중에 어떤 음이 용어에서 유통되고 있느냐에 따른 차이에서 생겨난 결과이다.

3.2. 같은 원어를 지니는 외래어계 전문 용어의 처리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의 원천은 서구어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으로 된 용어들의 대응어를 찾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이던 한자어를 주요 이용하거나 새로운 한자어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한글을 이용하여 음역을 하여 최대한 원어에 가까운 모양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공존하였다. 이처럼 만들어진 음역어 중에서는 남한어와 북한어에서 다른 어형을 쓰는 것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10]이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10] 외래어계 전문 용어의 형태 차이

용어 원어		『우리말샘』	『조선말대사전』
(1)	Gothic	고딕≪건설≫≪매체≫	고지크 ※ 고시크≪조선말사전≫[11]
(2)	bass	베이스≪음악≫	바스≪음악≫
(3)	cornet	코넷≪음악≫	코르네트≪음악≫
(4)	motive	모티브≪예체능일반≫≪음악≫	모찌브(мотив)≪문학≫≪음악≫
(5)	marathon	마라톤≪체육≫	마라손=마라손경기
(6)	hockey	하키≪체육≫	호케이, 호케이경기≪체육≫
(7)	kabuki	가부키≪예체능일반≫	가부끼(gabuki)

11) 『조선말사전』에서는 '고시크'가 '고시크식', '고시크체'와 더불어 표제어로 올라 있다. '고시크'의 부표제어로는 '고시크 건축', '고시크 미술'이 올라 있다. 이들 모두 전문 용어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

(1)의 경우 북한의『조선말대사전』에서는 원어에 대응하는 '-thic'의 형태가 남한어와 다를 뿐 아니라 일반어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엄태경(2024: 412-413)에서는 /θ/에 대한 표기가 남북한이 다른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말이 일본어에서 'ゴジック'와 'ゴシック'가 모두 유통되고 있고 북한어의 '고지크', '고시크'는 이와 형태적 일치도가 높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일본어식 어형이 정착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볼 수도 있다. 즉 외래어 표기 원칙에 따라 형태를 결정한 것이 아닌 관용되던 외래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7)의 경우도 같은 /θ/의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북한어에서 보이는 '마라손'은 "마라손競走의 榮冠崔元基군에게, 경성시민대운동회에서"≪동아일보≫(19200503)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 강점기 매체에서는 '마라손'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따라서 이 어형이 지금도 북한어의 형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마라손'은 일본어 'マラソン'과 음형태적 일치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어를 경유하여 받아들인 어형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쓰인 결과『조선말대사전』에서도 이 어형을 싣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2)에서 보이는 남한어와 북한어의 차이를 엄태경(2024: 414)에서는 /a/, /u/에 대해 남북한어에서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용어도 일본어에 'ベース' 이외에 'バス'가 있음을 고려할 때 후자의 형태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 (3)의 'cornet'이 북한어에서 '코르네트'인 것을 엄태경(2024: 414)에서는 북한어에서는 /ㅡ/로써 음절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어가 'コルネット'임을 고려해 본다면 촉음 'ッ'에 이은 'ト'의 연쇄를 음절의 개수를 늘려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piccolo'를 남한어에서는 '피콜로'로 적는 반면에 북한어에서는 '픽콜로'로 적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픽콜로'의 경우는 촉음 'ッ'를 후행하는 /k/에 위치 동화한 것을 반영하여 'ㄱ'으로 표기한 반면에 (3)에서는 촉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층'과 '윗층'의 표기된 것을 발음으로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한국어 화자들의 습성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것이다.

(4)의 경우 둘째 음절을 적는 방법이 남한어와 북한어에서 차이가 있다.『우리말샘』에서는 이 말의 원어를 영어인 'motive'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조선말대사전』에서는 러시아언인 'мотив'로 제시하고 있어 원어가 같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엄태경(2024)에서는 북한어의 경우 이탈리아어 또는 독일어를 원어로 하여 차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독일어의 'Motiv'와 이탈리아어의 'motivo'는 'ti'의 연쇄에서는 구개음화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어를 살펴보니 'モティーフ'도 쓰이지만 'モチーフ'도 쓰이는 것이 눈에 띈다. 'モチーフ'는 프랑스어 'motif'를 받아들인 외래어이다. 이 프랑스어의 'ti'의 연쇄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런 프랑스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モチーフ'는 잘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일본어 내에서 'モティーフ'가 구개음화가 되어 'モチーフ'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일본어의 쓰임을 고려하여 보면 북한어의 '모찌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어형은 둘째 음절이 구개음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ti'에서 자음을 격음 자모가 아닌 경음 자모로 적고 있다. 이것은 남한어에서와는 달리 북한어에서는 (7)의 '가부끼'와 같이 일본어의 어중의 청음을 격음이 아닌 경음으로 적고 있는 것과 양상이 같다.[12] 이렇게 어중의 청음을 경음으로 적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자료에서 보이는 표기 양상과 유사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찌브'는 일본어의 어형을 음역한 것을 계승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6)이 남한어와 달리 북한어에서 '호케이'로 나타나 형태가 꽤 다르다. 영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하키' 이외에도 '호키' 정도로 들리는 것은 있지만 북한어의 어형과 같은 '호케이'를 보이는 것은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은 일제 강점기 자료에서 "全歐州氷호케"≪동아일보≫(19291220), "아이스호케 日程一部變更"≪동아일보≫(19320115), "彗星가티 리그에 活躍한 延

12) 다음과 같이 김동인의 작품에서 이 말을 '가부끼'로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부끼로 말하자면 이러고 미에를 기루할 장면일세 그려. 그러치만 놈팽이 가부끼를 아나."〈결혼식(김동인)〉≪동광≫ 24(19310824)

專호케 平壤에, 朝鮮 最初의 아이스호케遠征”≪동아일보≫(19320128)과 같이 ‘호케’의 어형으로 쓰임을 보인다. 이 ‘호케’가 북한어에서 ‘호케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어 ‘ホッケー’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ホッケー’는 ‘호케’거나 ‘호케이’거나 두 쪽 모두로 대응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 ‘호케이’는 다의어인데 둘째 의미는 ‘호케이경기’와 동의어가 되는 것이다. 이 ‘호케이경기’는 ≪체육≫ 분야의 전문 용어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마라손’과 동의어인 ‘마라손경기’는 일반어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용어와 일반어의 처리에서 일관성 있는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남한어와 북한어의 음역 전문 용어가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김지혜(2023), 엄태경(2024) 등에서 다룬 바와 같이 채택 발음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지혜(2023: 25)에서 예를 들어 다룬 바와 같이 ‘Barbados’를 남한에서는 [bɑ:rbéidous]의 발음을 기준으로 ‘바베이도스’와 같이 어말에서 ‘스’로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bɑ:rbéidouz]의 발음을 기준으로 ‘바베이도즈’와 같이 어말에서 ‘즈’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것은 성문화된 외래어 표기법이 마련된 이후의 것들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표기법의 마련 이전에 들어온 오랜 사용 관습이 있는 것들은 종래의 것을 새로운 표기가 온전히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10]에서 보이고 다룬 것들은 이를 보여 주는 예들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성규·이형주(2024)에서는 관용으로 굳어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어를 통한 간접 차용의 예도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어 다루어져 있다. 북한에서는 언중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굳어서 쓰이는 말은 설령 원지음과 달라졌거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이를 존중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한선희 2003: 13, 최성규 2024: 116-119). 이런 방향에 따라 외래어 용어들의 표기를 운용한 결과, 원어와의 대응을 좀 더 중시하여 변화해 온 남한어의 외래어와는 형태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3. 같은 원어를 지니나 의미 처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전문 용어

남한어와 북한어에서는 원어가 같지만 의미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다르게 쓰이게 된 것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유술(柔術)’, ‘폭동(暴動)’을 들 수 있다.

[11] 남한어와 북한어의 ‘유술(柔術)’

(1) 유술(柔術)「명사」『체육』유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옛 무술.『우리말샘』

(2) 유술(柔術)「명사」「북한어」『체육」‘유도’의 북한어.『우리말샘』

(3) 유술(柔術)[명]≪체육≫중경기의 하나. 몸무게급이 같은 두 선수가 맨손으로 잡고 메치기, 던지기, 누르기, 팔굽관절꺾기, 목조르기 등의 전술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는것으로써 이기고짐을 가른다. 체력을 단련하여 인내성과 투지를 키운다.『조선말대사전』

(4) 유도(柔道)[명]≪유술≫을 이르던 말.『조선말대사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 종목인 judo에 대응하는 남한어는 ‘유도’이고 북한어는 ‘유술’이다. 남한어에도『우리말샘』에서 볼 수 있듯이 ‘유술’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어의 ‘유술’과는 좀 다르다. 북한어의 ‘유술’은 judo 그 자체인 반면에, 남한어의 ‘유술’은 judo의 모태가 된 일본의 옛 무술로 지시 대상이 같지 않다.

일제 강점기 자료를 보면 “米國第一의 脚戱君「알트샌텔」氏, 日本東京 大版 名古屋等地에서 柔術하는 사람과 대항하여

상당한 성적을 얻고 조선에도 온다고”≪동아일보≫(19210429≫, “유술[柔術] 도장 개시”≪부산일보≫(19160706), “만주 경관에게 유술을 가르쳐”≪신한민보≫(19331207)에서와 같이 ‘유술’의 쓰임이 보인다. 이 ‘유술’은 일본의 전통 무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북한어에서 ‘유도’보다도 ‘유술’을 쓰게 된 이유는 전자보다 후자가 무술임을 잘 드러낼 수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쓰여 왔던 말이라는 것을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폭동(暴動)’의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2] 남한어와 북한어의 ‘폭동(暴動)’

『우리말샘』	『조선말대사전』	
	표제어	표제어 및 뜻풀이
만적의 난≪역사≫	개경노비폭동	개경노비폭동(開京奴婢暴動)[명] 1232년에 개결의 노비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일으킨 폭동.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간 봉건통치배들의 번역적처사와 개경을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일어난 폭동이다.
황건적의 난≪역사≫	황건농민폭동	황건농민폭동[명] 중국에서 후한 말기인 184년 장각의 지휘밑에 일어난 큰 규모의 반봉건농민폭동. 폭동군이 누런 수건을 둘렀던데로부터 유래된 말이다. 수십만명의 폭동자들이 황하하류와 장강하류일대를 휩쓸었으며 후한왕조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촉진시켰다.
홍건적의난≪역사≫	홍건농민폭동	홍건농민폭동[명] ≪력사≫ 1351년 중국에서 한산동과 류복통의 지휘밑에 원나라(몽골)의 봉건통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폭동. 폭동자들이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렀기때문에 홍건군이라고 불렀다.

[12]를 보면 남한어에서는 ‘난(亂)’으로 끝나는 ≪역사≫ 분야의 전문 용어의 상당수가 북한어에서는 ‘폭동’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난’과 ‘폭동’의 사용 이외에도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하는 용어의 형태가 같지는 않다.

여기에서 북한어의 ‘폭동’은 얼핏 보면 ‘난’ 즉, ‘난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폭동’의 의미를 보면 남한어와 북한어가 같다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말샘』에는 ‘폭동’을 “『법률』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말사전』에서는 “(주로 지배자나 국가 정권을 반대하여 일으키는) 군중적인 폭력 행동.”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보면 남한의 사전에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북한의 사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조선말대사전』에서는 ‘폭동’을 “낡은 사회에서, 주로 피압박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이나 외래침략자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폭력으로 항거하여 나서는 대중적인 폭력행동.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이나 외래침략자들의 략탈과 폭압이 극도에 이르러 더는 그대로 살아갈수 없는 상태에서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폭발시켜 일시에 들고일어나 폭력으로 놈들을 때려부시는 투쟁으로서 태업, 파업, 시위투쟁보다 발전된 높은 형태의 계급투쟁이다.”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런 정의는 『조선말사전』과 비교할 때 계급 투쟁의 의미를 담아 긍정적인 집단 행동으로 ‘폭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어와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겠다.

이런 ‘폭동’의 의미가 달라진 것은 결과적으로 ‘개경노비폭동’, ‘황건농민폭동’, ‘홍건농민폭동’과 같은 말이 쓰일 수 있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원어를 지닌 형태가 들어 있는 용어라고 해서 남한어의 의미로써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위 『조선말대사전』의 용어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위 표제어 중에 ‘홍건농민폭동’을 ≪력사≫로 전문 분야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는 이런 분야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처리는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전문 용어로서 다루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을 맺는 것이지만 동일한 부류의 것을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므로 일관성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4. 맺음말

이 글은 남북한 국어사전에서 전문 용어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국어사전에서 전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전문 용어는 이와 관련을 맺는 학술 용어, 일반어와 어떤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각 사전에서의 전문 분야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후에 남한의 『우리말샘』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중심으로 용어들의 형태, 정의, 분야 분류 등에서의 구체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련어들 사이의 관계, 이전 시기의 어휘 사용 등을 고려하며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전문 용어의 외연에서 남한과 북한에서는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전문 용어 안에 학술 용어가 포함되는 관계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학술 용어가 전문 용어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렇게 남북한에서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의 외연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의 사전에서의 처리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사전의 기술 내용을 보면 전문 용어의 주를 이루는 한자어와 외래어의 처리에서 형태, 의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보인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살피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눈에 띄는 것 중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설정하여 다루어 보았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후의 연구로 보완해 갈 것을 다짐하며 이만 글을 맺도록 하겠다.

참고 문헌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 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

김미형(2024), 「학술용어정비사업 현황과 발전 방안」, 『우리말글』 101, 우리말글학회, 1-33.

김지완(2023), 「남북한 음향학 전문 용어 비교 분석 및 통합안 제시」, 『한국음향학회지』 42-4, 한국음향학회, 271-284.

김지혜(2023), 「남북의 외래어 표기 비교 연구-외국 국가명 표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9, 국제어문학회, 11-41.

도원영 외(2025), 「남북 감염학 용어의 언어적 분석과 향후 연구의 시사점 - 『남북감염학용어집』을 중심으로 - 」, 『인문학연구』 63, 경희대인문학연구원, 7-36.

리기원(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문금현(2004가), 「남북한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 『어문연구』 3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61.

문금현(2004나),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65-91.

부경생(1995), 「남북과학기술용어 비교사전: 분단 50년 남북한 과학기술용어 이렇게 달라졌다」, 『과학과기술』 28-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88-92.

부경생(1995), 「남북과학기술용어 비교사전: 분단 50년 남북한 과학기술용어 이렇게 달라졌다(2)」, 『과학과기술』 28-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86-89.

부경생(1995), 「남북과학기술용어 비교사전: 분단 50년 남북한 과학기술용어 이렇게 달라졌다(완)」, 『과학과기술』 28-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90-92.

엄태경(2024), 「남북 교과서의 외래어 사용 양상 분석-음악,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59, 국제언어문학회, 401-423.

연규동(2003), 「북한의 외래어」,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169-195.

오현아(2019), 「통일 대비 남북 교과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시론-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 『우리말글』 82, 우리말글학회, 59-96.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의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이정복(2014),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159-191.

이현재(2023), 「남북한 한자음 차이 연구」, 한양대 석사 논문.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 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61-293.

전수태(1988),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49-74.

정종수(2015가), 「남북한 교과서 전문 용어 통일 기준 위계 연구」, 『인문학논총』 39,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551-574.

정종수(2015나), 「남북한 전문 용어 통합 기준에 관한 연구-초,중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3,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337-358.

정한데로(2024), 「남북한 식물명의 단어 형성-표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어학』 109, 국어학회, 131-170.

조재수(1988),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국어생활』 15, 국립국어연구소, 91-106.

천자왕(2025), 「표현론적 관점에서 단어 형성의 한 특성: 남북한 경제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33-2, 한국사회언어학회, 57-84.

최성규·이형주(2024), 「『로동신문』 속 외래어의 표기 현황과 특성-2021년 기사를 중심으로-」, 『한글』 85-1, 한글학회, 93-130.

최완호·문영호(1980), 『조선어어휘론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최효정(2022), 「북한 경제 전문 용어의 특징과 남북 비교 연구-『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549-590.

허진영(2000), 「남북한 치의학용어의 비교 분석」, 연세대 석사 논문.

한선희(2003), 「새 ≪외국말적기법≫ 작성에서 견지한 원칙과 방법, 그 실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중국조선어문』 12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9-13.

민족사무위원회. 9～13쪽.

허철구(2022),『언어의 교차로 북한어 바라보기』, 박문사.
홍사만(2003),『북한 문화어 어휘 연구-『조선어문화사전』 분석-』(연구 총서 04-01),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황용주(2014),「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사전학회, 111-139.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1962),『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동광출판사(1992년) 영인].
국립국어연구원(1999),『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웹 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국어원,『우리말샘』(웹 사전)(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 근대 사료 DB』(https://db.history.go.kr/modern/main.do)
文世榮(1940),『朝鮮語辭典』(재판), 永昌書館.
사회과학출판사(2007),『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한글학회(1992),『우리말큰사전』, 어문각.

A Study on the Technical Terms in the Korean Dictionaries of South and North Korea

Yi, Junhwan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and examine how technical terms are handled in the Korean dictionaries of South and North Korea. To this end, we examined how technical terms are defined in the Korean dictionaries of the South and North, how technical terms can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academic terms and general words, and how specialized fields are classified in each dictionary. After that, focusing on the Urimalsaem in South Korea and Joseonmaldaesajeon Korean Dictionary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words and the use of vocabulary from the previous period were examined, considering the specific processing of terms in consideration of form, definition, and field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seem to be som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erms of the extension of technical terms. In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cause academic terms are included in the technical terms, but in North Korea, many academic terms are defined as concepts higher than technical terms. As such, the extension of technical terms and academic terms is viewed differently in the two Koreas, and it seem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how this relates to actual processing in the dictionary.

If you look at the description of the actual dictionary, you can se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orm and meaning in the processing of Sino-Korean words and foreign words, which are the main terms among technical terms. Although we have not progressed to categorizing and systematically examining these differences, we have set up and dealt with some things that can be categorized around what stands out. Although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 will conclude this article by pledging to supplement them with further research.

토론자 약력



최 현 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현)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IFhME) 한반도의과학지식센터(nkmedline.kr) PM

현) 북한ICT연구회, 남북표준품질연구회 회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문위원

전)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초대 회장

전) 남북 과학기술용어 비교연구 과제 책임

- 〈대통령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북한과학기술연구』(KISTI), 『북한과학기술동향조사 2024』(KICI) 등 집필

토론 3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차이와 통합 전략

최현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번 이준환 선생님의 발제,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를 통해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처리 양상을 살필 수 있었고, 사전 편찬의 원칙과 이용자의 실제 언어 생활 간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토론문은 언어 전문가가 아닌 과학기술 영역에서 남북 용어 비교 연구를 한 바 있고, 또한 사전의 이용자로서,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 논점에 대해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의 사전학적 위계 문제

사전의 용어 분류는 언어 공동체의 지식 체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전학적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환 선생님의 발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 용어', '학술 용어'의 개념 구분과 위계는 변화와 변천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북한은 상이한 접근을 했습니다. 남한의 『조선말큰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전문 용어가 학술 용어를 포괄하거나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 용어'를 '학술 용어'의 하위로 규정하는 등 개념 위계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에서 "전문 용어 〉 학술용어" 구조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일 사전 편찬에서 어느 쪽을 상위로 둘 것인가를 단정하기보다는 사전학적 위계 변천사를 함께 제시하고, 실제 사용 용례를 통해 의미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각 용어의 사용 맥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현실적 해법이라 여겨집니다.

2. 정치·이념적 개입과 사전의 실용성

사전은 한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언어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례에서 보듯 특정 이념의 과도한 개입은 사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하게 됩니다.

북한의 『조선말사전』(1962)은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용어를 적극 수록한 반면, 좁은 범위의 전문가 집단 용어를 배제하는 편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대중 중심의 사전학적 원칙"이라는 북한의 논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 지명·인명 등이 대거 미등재되거나 일반어로 격하 처리되면서, 언어와 지식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은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아니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지식 확산을 지원하는 실용적 도구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언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사전학의 기본 원칙이어야 하는데, 통일 사전 편찬이 진행되면 이를 어떻게 할지가 큰 숙제입니다.

3. 남북한 표기 차이와 언어 정보의 병기 전략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적는 표기 차이는 사전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문 용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자 본음을 중시하여 '폐결핵', '연몌'와 같이 적는 반면, 북한은 현실 발음을 반영해 '페결핵', '련메'로 표기합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표기가 동일한 개념을 가리킨다는 정보 제공입니다. 즉, 통합 사전에서는 한쪽을 배제하지 말고, 양쪽 표기를 병기하고 발음·용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언어 통합은 서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상호 이해와 학습을 지원하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사전학적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전문 용어의 폭증과 사전의 미래 역할

전문 용어는 현대 국어 어휘 확장의 주된 동력임을 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사전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합니다.

사전의 혁신적 발전 방향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층적 정보 제공입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쉬운 설명을 하고, 전문가에게는 정밀한 정의를 제공하는 이중적 설명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입니다. 의학 용어 등에 그림과 동영상, 과학 용어에 수식·실험 사례를 덧붙여 직관적 이해를 돕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능형 검색과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됩니다. 분야별 태그, 관련어 연결, AI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가 맥락 속에서 지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전은 단순한 어휘 목록이 아니라 지식을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이 되어야 하듯, 남북한 통합 사전의 구축도 이러한 역할과 방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어 : 남북한 국어사전 통합을 위한 제언

남북한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처리 차이는 단순한 언어 규범의 차이가 아니라 지식 체계·정치 이념·이용자 요구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양적 접근이 우선하겠지만, "어떻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활용을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질적 접근이 통합이라는 전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의 이용자로서, 북한 연구자로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 포용성 – 남북한의 상이한 언어 관습을 배제하지 않고 병기하는 방식
- 실용성 – 정치적 편향을 배제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 미래 지향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전 모델 구축

이번 토론이 이용자 친화적이면서도 학문적으로 균형 잡힌 우리 국어사전의 미래를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발표자 약력



김 민 수
일본 도카이대학교 어학교육센터 준교수

전) 일본 학술진흥회(JSPS) 과학연구비 위원회 전문위원

-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우수발표상〉 수상
- 『わらってわらって韓国語 - 間違いだっておもしろい！』, 『もぐもぐモゴヨ - 日本語から覚えるカンタン韓国語』 등 집필

발표 4

일본의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교육

- 학습자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

김민수 | 도카이대학교

1. 서론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기계번역의 발전은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 및 사전 이용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5년경까지만 해도 학습자들은 종이 사전, 전자사전, 인터넷 사전, 모바일 사전 앱을 중심으로 개별 단어나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였다(이은경, 2015). 그러나 2016년 Google 번역이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이버 Papago가 출시되면서 문장 단위의 보다 자연스럽고 유창한 번역이 가능해졌다. 이후 2021년의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이러한 기계번역 도구를 문어 학습에서 많이 활용하였으며, 주로 사전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았다(공태수·백재파, 2021).[1] 그러던 중 2022년 11월 ChatGPT가 등장하면서 학습자들은 단순 단어 번역을 넘어 문법적 오류를 줄이고 문장 전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이수림, 2024). 기존 기계번역이 하나의 입력에 대해 하나의 고정된 출력만 제공하던 것과 달리, ChatGPT는 문맥에 민감하고 문체에 적응하는 출력물을 생성하며(Jung·Chang, 2025),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번역을 개선하고 다양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이창수, 2023).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 학습 환경에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Papago와 Google이 제공하는 번역 소프트웨어가 한일·일한 기계번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장혜선, 2023),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과제 수행에서도 Papago(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NAVER 사전(21%)과 Google 번역(20%)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정아·안재린, 2024). 또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ChatGP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김명희, 2023), 한국어 글쓰기 과제 수행 과정(김아름·서희, 2024), 생성형 AI의 피드백을 활용한 쓰기 교육(강옥·전미화, 2025; 이선빈, 2025)등 다양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장 역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담당한 2015년도 한국어 초급 작문 과제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일본어 '実家(본가, 고향집)'를 '친정'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다수의 일한사전에서 '実家'의 제1 의미를 '친정'으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해당 어휘의 한국어 표현을 모르는 초급 학습자가 사전 검색 결과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겨울방학에 친정에 돌아갑니다.'와 같은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초급 작문 과제에서는 '친정'이라는 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예전에 비해 어휘 오류가 줄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작성하는 학습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학습자의 언어 수준 향상에서 비롯된

1) 2018년에는 Papago의 일본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이 어휘, 문법, 문체, 오탈자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윤호숙, 2018), 2024년에는 Papago에 의한 한국어에서 일본어로의 명사 번역은 정확도와 질적인 면에서 매우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신민철, 2024).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전보다 기계번역기를 참고하는 학습자가 증가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2] 실제로 학습자에게 작문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한 사전이나 기계번역 도구를 명시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이 Papago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Google 번역과 Weblio 번역을 이용하는 등 사전보다 기계번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수업에서는 기계번역 도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은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기계번역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의존은 실제 한국어 능력 향상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낮은 수준의 학습자일수록 이러한 의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3] 실제 언어 능력과 과제 결과물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여전히 사전보다 편리한 기계번역 도구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사전 및 기계번역 도구의 실질적인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사전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강현화(2023)는 바람직한 한국어 학습사전의 방향으로 '학습자 숙달도를 고려한 표제어·뜻풀이·예문 제시', '일상생활의 실제성과 시의성을 반영한 고빈도 신조어·외래어를 포함한 표제어와 예문', '대조분석 결과와 학습자 오류를 반영한 번역 정보 제공', '숙달도별 선택적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사전과 모바일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 글이 일본인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일본인의 일반적인 사전 이용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사전 이용 실태를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사전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인의 사전 이용 양상 변화

일본 문화청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로 경어 사용 실태, 일상 언어 사용, 단어 및 관용구의 의미 이해와 사용 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한다. 이 조사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일본인의 국어 의식과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일본인의 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본인의 언어 사용 환경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한자를 쓸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사전 사용 방식이 간접적으로 파악되었다(文化庁国語課, 2007). 그 결과 '종이 사전'(60.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휴대전화의 한자 변환'(35.3%),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의 한자 변환'(21.3%), '전자사전'(19.4%), '온라인 사전'(10.1%), '찾지 않음'(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사전은 남녀 모두 16~19세에서 40% 후반대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온라인 사전은 20대에서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약 20%가 이용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온라인 사전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정보 접근 방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

2) '実家'를 사전과 기계번역 도구에서 단독으로 검색한 결과(2025년 7월 1일 기준), ≪小学館 日韓辞典≫은 '친정, 생가, 고향 집', NAVER 사전은 '실가, 생가, 친정', Kpedia는 '친정', Papago는 '부모님 집', Google 번역은 '친가', Weblio 번역은 '친정'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사전에서는 여전히 '実家'의 제1 의미를 '친정'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문장 번역의 경우 '冬休みに実家に帰ります'는 Papago에서 '겨울방학에 본가로 돌아갑니다.'로, Google 번역에서는 '?겨울 방학에 친가로 돌아갑니다.'로 번역되어(2025년 7월 1일 기준), Papago의 결과가 사전 의미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박수진(2023)은 한국어 쓰기 교양 수업에서 학습자 96%가 기계번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98% 이상이 기계번역을 편리하지만 부정확하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기계번역 결과물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4) 2022년 한국문학번역상(한국문학번역원 주관) 웹툰 부문에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수상자가 AI 기능이 탑재된 Papago를 활용하여 신인상을 수상한 사실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었다. 수상자는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사전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였으나, 현재(2025년도) 응모 자격에는 '모든 부문에서 공동번역은 불가하며, 표절, 제3자 또는 기계의 번역, 감수, 수정, 편집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2009년도 조사의 '읽을 수 없는 한자가 나왔을 때 어떤 수단으로 찾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찾지 않음(34.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이 사전'(29.6%), '휴대전화의 한자 변환'(25.7%), '전자사전'(12.2%), '온라인 사전'(11.1%),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의 한자 변환'(7.0%) 등이 뒤를 이었다(文化庁国語課, 2010).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이 사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휴대전화의 한자 변환'은 16세에서 40대까지 30% 이상이 선택하였고, 특히 20대에서는 40%를 넘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찾지 않는다'는 60세 이상에서 45.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2012년도 조사에서는 '단어의 의미나 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종이 사전 찾기'(47.3%), '온라인 사전 이용'(43.1%), '누군가에게 물어보기'(39.6%), '인터넷 검색'(23.2%), '전자사전 찾기'(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文化庁国語課, 2013). 연령대별로는 종이 사전을 찾는 비율이 60세 이상에서는 60% 초반, 50대에서는 50% 초반, 40대에서는 40% 초반이었으나, 30대와 16～19세에서는 20% 전반, 20대에서는 20% 미만으로 낮았다. 반대로 온라인 사전은 20대에서 80% 전반, 30대에서는 70% 중반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도 조사의 '단어의 의미나 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인터넷 검색'(63.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전 소프트웨어 및 사전앱 이용'(39.8%), '누군가에게 물어보기'(34.6%), '종이 사전 찾기'(26.7%), '온라인 사전 찾기'(23.9%), '전자사전 찾기'(10.5%),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음성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검색'(7.5%), '사전 이외의 종이책을 찾아보기'(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文化庁国語課, 2023). 연령별로 보면,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사전 사이트 이용'은 50대 이하에서 높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는 20대 이하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40%대였다. 반면, '종이 사전 찾기'는 70세 이상에서 62.9%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6년도와 2009년도의 조사에서는 '한자 대처 방식'을 통해 사전 이용 경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종이 사전이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기반의 정보 탐색은 제한적이었다는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다. 한편, 2012년도와 2022년도 조사에서는 '단어의 의미나 용법을 모를 때'라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 탐색 수단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2년도 조사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음성 어시스턴트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응답 비율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전 찾기'는 2006년도 10.1%에서 2012년도 43.1%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2년도에는 23.9%로 감소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사전 소프트웨어 및 사전 앱 이용률(39.8%)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도 조사에서는 전자사전 이용률이 10.5%에 그쳤으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전 소프트웨어 및 사전 앱 이용'(39.8%)은 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음성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검색'이라는 항목도 7.5%로 나타났다. 이는 Siri, Google 어시스턴트 등 음성 기반 기술의 일상화와 스마트폰 보급, 검색 엔진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정보 접근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200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인의 사전 이용 방식이 '종이 기반(종이 사전, 인쇄물) → 전자기반(전자사전 전용기기) → 온라인 기반(온라인 사전, 모바일 사전 앱, 검색 엔진)'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반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고령층은 여전히 종이 사전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의 사전 이용 방식이 연령과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외국어 학습 시 사전 선택과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3. 일본의 한국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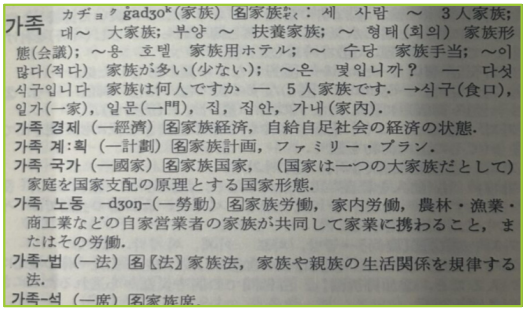
3.1. 일반적인 한국어 사전 유형

일본인 학습자가 이용하는 사전 종류는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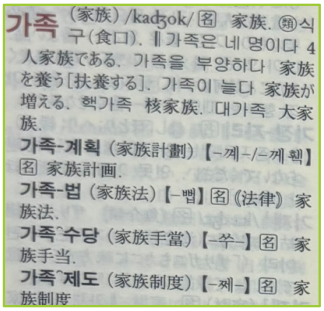
[표 1] 일본인 학습자가 이용하는 사전 종류

종이 사전 (종이에 인쇄된 책 형태)	『朝鮮語大辞典』(角川書店), 『朝鮮語辞典』(小学館),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日韓辞典』(三省堂), 『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5] (小学館) 등
전자사전 (전용 단말기 이용)	CASIO EX-word, SHARP Brain 등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 이용)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NAVER 사전, Kpedia 한국어 사전[6], Weblio 일한·한일 사전 등
모바일 사전 앱 (모바일 앱 이용)	표준국어대사전 앱, NAVER 사전 앱, DAUM 사전 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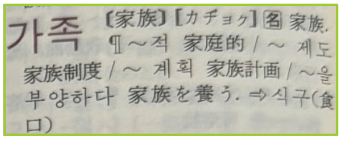
온라인 사전과 모바일 사전 앱은 종이 사전과 전자사전과 달리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활용성이 높다. 특히 모바일 사전 앱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성, 편의성, 휴대성의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학습자들의 모바일 중심의 학습 환경과 잘 부합하며, 실제로 다수의 학습자들이 전통적인 종이 사전보다 디지털 사전 도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사전의 검색 예는 [그림 1]~[그림 8]에 제시하였다.


가족 カヂョク gadʒoᵏ(家族) 名家族; : 세 사람 ～ 3人家族; 대～ 大家族; 부양 ～ 扶養家族; ～ 형태(희의) 家族形態(会議); ～용 호텔 家族用ホテル; ～ 수당 家族手当; ～이 많다(적다) 家族が多い(少ない); ～은 몇입니까? — 다섯 식구입니다 家族は何人ですか — 5人家族です. →식구(食口), 일가(一家), 일문(一門), 집, 집안, 가내(家内).
가족 경제 (一經濟) 名家族経済, 自給自足社会の経済の状態.
가족 계:획 (一計劃) 名家族計画, ファミリー・プラン.
가족 국가 (一國家) 名家族国家, (国家は一つの大家族だとして)家庭を国家支配の原理とする国家形態.
가족 노동 -dʒoŋ-(一勞動) 名家族労働, 家内労働, 農林・漁業・商工業などの自家営業者の家族が共同して家業に携わること, またはその労働.
가족-법 (一法) 名〔法〕家族法, 家族や親族の生活関係を規律する法.
가족-석 (一席) 名家族席.

[그림 1] 《朝鮮語大辞典》의 '가족' 일부


가족 (家族) /kadʒok/ 名 家族. 類식구(食口). ‖ 가족은 네 명이다 4人家族である. 가족을 부양하다 家族を養う[扶養する]. 가족이 늘다 家族が増える. 핵가족 核家族. 대가족 大家族.
가족-계획 (家族計劃) 【-계-/-게획】 名 家族計画.
가족-법 (家族法) 【-뻡】 名《法律》家族法.
가족 수당 (家族手當) 【-쑤-】 名 家族手当.
가족 제도 (家族制度) 【-제-】 名 家族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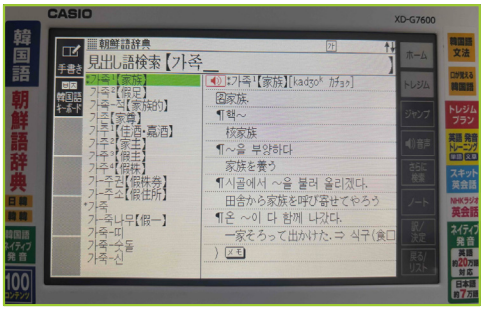
[그림 2]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辞典》의 '가족' 일부


가족 【家族】【カヂョク】名 家族. ¶～적 家庭的 / ～ 제도 家族制度 / ～ 계획 家族計画 / ～을 부양하다 家族を養う. ⇨식구(食口)

[그림 3] 《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의 '가족' 일부

5) 종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음성 지원이 없으나, 『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 第2版 新装版』에서는 웹사이트(https://kotobanomado.jp/PPK2N)를 통해 컬러 페이지에 수록된 테마별 단어(여행, 음식, 미용, K-POP, 드라마 등)에 대해 음성을 제공하고 있다.

6)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사전인 Kpedia 한국어 사전와 Weblio 일한・한일사전은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가독성과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있다. Kpedia 한일사전은 대부분의 단어에 대해 음성 발음을 지원하지 않으며, 매큔 라이샤워(McCune-Reischauer)식 로마자 표기와 일본어 가나를 이용한 발음 표기를 제공한다. 일부 어휘와 회화 표현에 대해서는 음성 발음과 동영상 자료가 제공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반면, Weblio 일한・한일 사전은 한국어의 발음 음성을 지원하고 재생 속도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으나, 기계 합성 방식이므로 실제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발음과는 거리가 있다.



[그림 4] CASIO EX-word 전자사전《朝鮮語辞典》의 '가족'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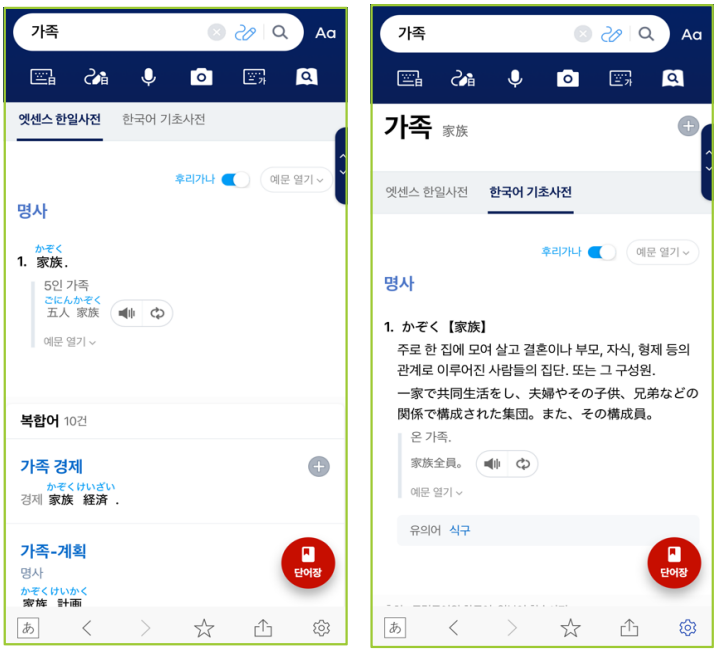


[그림 5] Kpedia 한국어사전의 '가족' 일부





[그림 6] Weblio 일한·한일사전의 '가족'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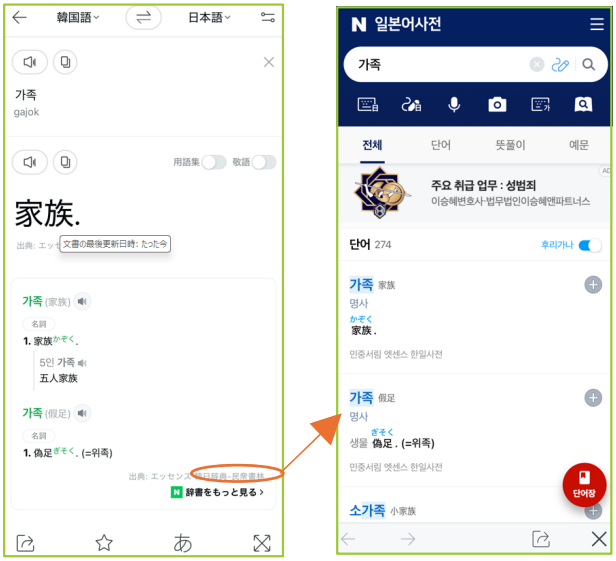


[그림 7] NAVER 사전(모바일 앱)의 '가족' 일부



[그림 8] DAUM 사전(모바일 앱)의 '가족' 일부

한편, 사전류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컴퓨터나 모바일 기계번역 서비스(Papago, Google 번역, LINE 한국어 번역, Weblio 번역, DeepL, ChatGPT 등)를 사전으로 이용하는 일본인 학습자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Papago는 번역 결과 하단에 각 단어의 의미, 품사, 예문, 발음 정보를 제공하며 NAVER 사전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전처럼 이용하는 학습자가 적지 않다([그림 9]).



[그림 9] ≪Papago≫(모바일 앱)의 '가족' 일부



[그림 10] ≪Google 번역≫(모바일 앱)의 '가족' 일부

3.2. 일본 대학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한국어 사전 유형

일본의 수도권 소재 24개 대학의 2025년도 한국어 과목 강의계획서를 조사한 결과, 12개 대학의 강의계획서에서 참고 서적으로 한국어 사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일부 대학은 동일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동일 대학 내 동일 과목의 경우에도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참고 사전의 선정이 상이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7] [표 2]는 해당 12개 대학에서 제시한 참고 한국어사전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일본 대학 강의계획서의 참고 한국어사전 유형

대학	과목	사전 유형	사전명
(1)	한국어1	종이	『小学館 日韓辞典』(小学館), 『コスモス朝和辞典』(白水社), 『朝鮮語辞典』(小学館) , 『韓国語文法語尾·助詞辞典』(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한국어2	종이	『小学館 日韓辞典』(小学館)
(2)	기초(문법)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기초(작문)	종이	『広辞苑日韓辞典』(図書出版語文学社),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日韓辞典』(三省堂)
	응용(문법)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韓国語文法辞典』(三修社)
(3)	기초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コスモス朝和辞典』(白水社)
		앱	NAVER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https://krdict.korean.go.kr/m/jpn)
	중급	종이	『コスモス朝和辞典』(白水社), 『韓日辞典』(民衆書林／三修社), 『ポータブル日韓·韓日辞典』(小学館),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日韓辞典』(三省堂)
		전자	한국어가 들어 있는 전자사전
		앱	NAVER사전, DAUM사전
	상급		사전 필수, 수업 시 제시
	종합	종이	『韓日辞典』(民衆書林／三修社), 『コスモス朝和辞典』(白水社)
		앱	NAVER辞書
(4)	입문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종이 사전은 어휘 수가 적을 경우, 학습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사전 선택이 어려울 경우, 구입 전에 담당 교원에게 상담할 것.
		전자	여행회화용은 사용 불가
	한국어1·2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회화1·2	종이	『朝鮮語辞典』(小学館)
		전자	전자사전 사용 가능
	회화3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종합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5)	한국어1·2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
(6)	한국어1·2	종이	『朝鮮語辞典』(小学館)
(7)	한국어1	전자	『朝鮮語辞典』(小学館)과 『小学館 日韓辞典』(小学館)이 모두 수록된 사전으로 CASIO가 있음.
(8)	기초	종이	『小学館 韓日辞典』(民衆書林／三修社), 『ポータブル日韓·韓日辞典』(小学館)
(9)	한국어1·2·3·4	종이	『小学館 日韓辞典』(小学館)
(10)	종합	종이	『朝鮮語辞典』(小学館)
(11)	초급	종이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日韓辞典』(三省堂), 『身につく韓日·日韓辞典』(三省堂)
	중급	종이	『身につく韓日·日韓辞典』(三省堂)
	상급	종이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日韓辞典』(三省堂), 『身につく韓日·日韓辞典』(三省堂)
(12)	초급	종이	『プログレッシブ 韓日·日韓辞典』(小学館)
	중급	종이	사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구입할 경우에는 『朝鮮語辞典』(小学館)을 적극 권장함.
	상급	종이	『朝鮮語辞典』(小学館) ※사전은 필수이며. 특별히 지정된 종류는 없으나 사용을 적극 권장함.

7)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과 (2)이며, 그 외의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고 있다.

[표2]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로 종이 사전이 추천되었으며, 특히『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朝鮮語辞典』(小学館)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었다. 반면, 전자사전과 모바일 사전 앱은 일부 대학에서 보조적으로 언급되었으며, NAVER 사전이나 국립국어원의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등 신뢰도 높은 플랫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부 강의에서는 여행회화용 전자사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전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과의 상담을 권장하는 등, 학습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종이 사전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디지털 사전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해석된다.[8)]

4.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전 이용 실태

이 장에서는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9)]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10)]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
-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학습자 229명[11)]
- 일본 수도권 소재 대학교 한국어 (부)전공자 160명[12)]

■ 조사 시기
- 세종학당: 2025년 5월 13일부터 5월 25일
- 대학생: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

■ 조사 방법: Google 폼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1)응답자의 기본 정보, (2)사전 이용 실태, (3)사전 이용의 만족도 및 개선점

8) 熊谷(2000)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125종 중 75종에서 모음자의 제시 순서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나타나, 전통적인 반절표의 자모 배열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川越, 2015). 이안구(2015)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20종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7종이 전통적 반절표의 자모 순서를, 9종은 단모음부터 제시하는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의 순서를, 나머지 4종은 일본어의 사전 배열 방식 '아이우에오(あいうえお)'에 해당하는 'ㅏ, ㅣ, ㅜ, ㅡ, ㅐ, ㅔ, ㅗ, ㅓ'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자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16종의 자모 제시 순서를 살펴본 결과, 5종([2], [4], [8], 13), [14])은 'ㅏ, ㅑ, ㅓ, ㅕ…'의 순서를, 6종([5], [6], [7], [10], [11])은 'ㅏ, ㅓ, ㅗ, ㅜ, ㅡ…'의 순서를, 나머지 5종([1], [3], [9], [12], [15])은 'ㅏ, ㅣ, ㅜ, ㅡ, ㅐ, ㅔ…'의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전통적인 반절표의 자모 배열보다는 일본어 모어 화자의 인지적 친숙함을 고려하여 단모음부터 제시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학습자가 종이 사전을 활용하여 자모를 찾는 데 익숙한 순서로 자모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을 높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사전이나 모바일 사전 앱의 보급으로 종이 사전의 활용 빈도가 감소하면서, 자모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한 음성학적 접근 방식이 교재 구성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국외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index.do)이 지원하는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 보급의 중심 기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 최신 교육 경향을 반영한 교재와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민정·송은정·이민우, 2024). 그 결과, 2025년 6월 현재 전 세계 87개국, 252개소에 개설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10) 응답자 수는 연령대별과 학습 숙달도별로 상이하며, 일부 연령대의 표본 수가 적어 본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1) 본 설문 조사는 일본 주일한국대사관 동경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협력하에 한국어강좌(입문, 초급, 중급, 중고생 강좌) 수강생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229명이었다.

12) 본 설문 조사는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2명의 협력하에 수도권 4개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중 (부)전공자 160명의 응답 결과를 보고한다. 한편, 해당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원의 강의계획서에는 참고 한국어사전에 대한 기재가 명시되지 않았다.

세종학당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및 학습 숙달도(자기 평가)는 [표 3]과 같다.[13] 전체 응답자 229명 중 초급 학습자가 127명(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급은 81명(35.4%), 상급은 21명(9.1%)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0대, 30대의 응답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10대에서는 상급자가 없었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초급 학습자의 비율이 높았고, 그중 40대는 초급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중급(44.3%)과 상급(12.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는 장기 학습자의 누적 결과이자 고령층의 지속 학습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 분포 및 학습 숙달도

연령대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10대(7명, 3.1%)	3명(42.9%)	4명(57.1%)	0명(0.0%)
20대(11명, 4.8%)	6명(54.5%)	3명(27.3%)	2명(18.2%)
30대(16명, 7.0%)	10명(62.5%)	4명(25.0%)	2명(12.5%)
40대(46명, 20.1%)	34명(73.9%)	9명(19.6%)	3명(6.5%)
50대(79명, 34.5%)	44명(55.7%)	30명(38.0%)	5명(6.3%)
60대 이상(70명, 30.6%)	30명(42.9%)	31명(44.3%)	9명(12.8%)
합계(229명, 100.0%)	127명(55.5%)	81명(35.4%)	21명(9.1%)

한편, 대학생 설문 응답자의 학습 숙달도(자기 평가)는 전체 160명 중 초급 학습자가 124명(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급은 35명(21.9%), 상급은 1명(0.6%)이었다.

4.1. 한국어 학습 동기

4.1.1. 세종학당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표 4]와 같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학습 동기는 '(1)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특히 30대 이상에서는 71%이상이 이에 응답하였다([표 5]). '(2)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20대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학습 동기로 나타났다. '(3)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10대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43%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4)여행 목적' 동기 또한 42%이상으로 나타나 주요 학습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학습 동기(복수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57.1%(4명)	45.5%(5명)	75.0%(12명)	71.7%(33명)	77.2%(61명)	61.4%(43명)
(2)	14.3%(1명)	45.5%(5명)	62.5%(10명)	52.5%(24명)	59.5%(47명)	57.1%(40명)
(3)	0.0%(0명)	45.5%(5명)	43.8%(7명)	28.3%(13명)	44.3%(35명)	34.3%(24명)
(4)	42.9%(3명)	36.4%(4명)	37.5%(6명)	26.1%(12명)	35.4%(28명)	48.6%(34명)

13)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과 TOPIK에서는 학습 숙달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동경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에서는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며, 정규 과정(세종1~세종8) 이후에는 고급 강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학습 숙달도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자기 평가)을 취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수강생들이 '상급'과 '고급'을 혼동하지 않도록 '상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동일하게 '상급'을 사용한다. 또한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숙달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조사의 자기 평가 결과는 실제 숙달도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	14.3%(1명)	27.3%(3명)	25.0%(4명)	32.6%(15명)	16.5%(13명)	20.0%(14명)
(6)	0.0%(0명)	18.2%(2명)	6.2%(1명)	15.2%(7명)	5.1%(4명)	2.9%(2명)
(7)	0.0%(0명)	0.0%(0명)	6.2%(1명)	2.2%(1명)	0.0%(0명)	1.4%(1명)
(8)	14.3%(1명)	9.1%(1명)	0.0%(0명)	6.5%(3명)	5.1%(4명)	4.3%(3명)
(9)	0.0%(0명)	9.1%(1명)	0.0%(0명)	4.3%(2명)	1.3%(1명)	2.9%(2명)
(10)	28.6%(2명)	9.1%(1명)	6.2%(1명)	2.2%(1명)	2.5%(2명)	2.9%(2명)

※ (1)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2)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관심 (3)언어적 관심·흥미 (4)여행 목적
(5)가족·지인과의 교류 (6)장래 업무 활용 (7)전공·학업상 필요 (8)자격 시험 (9)한국 유학·취업 (10)기타

학습 숙달도별 분석에서도, '(1)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요 학습 동기로 나타났다([표 5]). '(2)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관심' 또한 숙달도와 관계없이 고르게 유지되어,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교양 차원의 접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상급 학습자일수록 언어학적,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지속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8)시험 목적'과 '(6)직업 목적'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이들은 주요 학습 동기라기보다 부차적인 동기로 해석된다. 또한 '(4)여행 목적'과 '(5)한국인과의 교류'는 초급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초기 동기는 생활적, 실용적인 목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학습 동기(복수 응답)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1)	75.6%(96명)	60.5%(49명)	61.9%(13명)	69%(158명)
(2)	54.3%(69명)	56.8%(46명)	57.1%(12명)	55.5%(127명)
(3)	30.7%(39명)	42.0%(34명)	52.4%(11명)	36.7%(84명)
(4)	40.2%(51명)	37.0%(30명)	28.6%(6명)	38.0%(87명)
(5)	18.9%(24명)	25.9%(21명)	23.8%(5명)	21.8%(50명)
(6)	7.1%(9명)	6.2%(5명)	9.5%(2명)	7.0%(16명)
(7)	0.8%(1명)	0.0%(0명)	9.5%(2명)	1.3%(3명)
(8)	6.3%(8명)	4.9%(4명)	0.0%(0명)	5.2%(12명)
(9)	2.4%(3명)	2.5%(2명)	4.8%(1명)	2.6%(6명)
(10)	3.9%(5명)	4.9%(4명)	0.0%(0명)	3.9%(9명)

※ (1)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2)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관심 (3)언어적 관심·흥미 (4)여행 목적
(5)가족·지인과의 교류 (6)장래 업무 활용 (7)전공·학업상 필요 (8)자격 시험 (9)한국 유학·취업 (10)기타

4.1.2. 대학생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일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부)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표 6]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1)한류 콘텐츠'(82.5%)를 계기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답하여, 문화 매체가 일본 대학생의 학습 유입 경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2)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관심'(27.5%), '(3)언어적 관심·흥미'(25.0%), '(4)여행 목적'(24.4%) 등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여, 대학생 학습자 다수는 문화적 흥미 또는 개인적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대학생 학습자의 학습 동기(복수 응답)

학습 동기	응답 비율(명)
(1)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82.5%(132명)
(2)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관심	27.5%(44명)
(3)언어적 관심·흥미	25.0%(40명)
(4)여행 목적	24.4%(39명)
(5)가족·지인과의 교류	8.8%(14명)
(6)장래 업무 활용	13.1%(21명)
(7)전공·학업상 필요	13.8%(22명)
(8)자격 시험	8.1%(13명)
(9)한국 유학·취업	11.9%(19명)
(10)기타	1.9%(3명)

4.1.3.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비교

두 집단 모두 최우선 학습 동기는 '한류 콘텐츠'이지만, 세종학당 학습자는 연령대와 숙달도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여행이나 교류 등 실용적 목적이 중심이지만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언어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대학생 학습자는 '한류 콘텐츠'에 편중된 학습 동기를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집단 모두 한류를 학습의 핵심 동기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 사전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윤미(2023)는 '먹방', '치맥' 등 한류 관련 신조어가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용 기초 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국어 확산이 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습자들이 기대하는 문화 관련 어휘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조어의 생명력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재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타당하다(윤효승, 2002). 따라서 어휘의 사용 빈도와 지속성, 교육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어휘는 시의성 있게 반영하되 장기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수록하는 균형 잡힌 등재 기준이 요구된다.

[표 7] 세종학당 학습자와 일본 대학생 학습 동기 비교

구분	세종학당	대학생
주요 상위 동기	1위: 한류 콘텐츠(69%) 2위: 한국 문화·사회 관심(55.5%) 3위: 여행 목적(38.0%) 4위: 언어적 관심 (36.7%) 5위: 한국인과의 교류(21.8%)	1위: 한류 콘텐츠(82.5%) 2위: 한국 문화·사회 관심(27.5%) 3위: 언어적 관심(25.0%) 4위: 여행 목적(24.4%) 5위: 전공·학업상 필요(각 13.8%)

4.2.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

4.2.1. 세종학당 학습자의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

학습 중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2)인터넷 검색'이 8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표 8]), 이는 연령과 관계없이 디지털 기반 정보 탐색이 학습자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1)사전 찾기'는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모두 44% 이상이 선택하였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높은 68.6%로 나타났는데, 이는

30대 이상 연령층이 사전을 이용한 학습 방식에 비교적 익숙하고,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경향을 보여 준다. 한편, '(5)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가 언어 학습 시 타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종이 사전처럼 정형화된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3)시판 단어장 활용'과 '(4)교과서 말미 단어장 활용'은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정보 탐색이 주된 흐름이며, 보완적으로 다양한 학습 전략이 병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8]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복수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28.6%(2명)	18.2%(2명)	50.5%(8명)	45.7%(21명)	44.3%(35명)	68.6%(48명)
(2)	85.7%(6명)	90.9%(10명)	100%(16명)	95.7%(44명)	88.6%(70명)	91.4%(64명)
(3)	0.0%(0명)	0.0%(0명)	0.0%(0명)	4.3%(2명)	10.1%(8명)	2.9%(2명)
(4)	0.0%(0명)	0.0%(0명)	12.5%(2명)	0.0%(0명)	6.3%(5명)	2.9%(2명)
(5)	14.3%(1명)	9.1%(1명)	25.0%(4명)	23.9%(11명)	11.4%(9명)	11.4%(8명)
(6)	0.0%(0명)	9.1%(1명)	0.0%(0명)	0.0%(0명)	2.5%(2명)	0.0%(0명)
(7)	0.0%(0명)	0.0%(0명)	0.0%(0명)	4.3%(2명)	5.1%(4명)	0.0%(0명)

※ (1)사전 찾기 (2)인터넷 검색 (3)시판 단어장 활용 (4)교과서 말미 단어장 활용 (5)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 (6)아무것도 안 함 (7)기타

한편, 학습 숙달도별 분석에서도 전 학습 수준에서 '(2)인터넷 검색'이 90% 이상 선택되어, 가장 보편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적 정보 탐색 능력이 학습 단계와 관계없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표 9]). 반면, '(1)사전 사용'은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선택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급 학습자일수록 정확한 의미 확인 및 문맥 분석을 위해 사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9]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복수 응답)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1)	37.0%(47명)	64.2%(52명)	81.0%(17명)	50.7%(116명)
(2)	90.6%(115명)	93.8%(76명)	90.5%(19명)	91.7%(210명)
(3)	5.5%(7명)	6.2%(5명)	0.0%(0명)	5.2%(12명)
(4)	4.7%(6명)	2.5%(2명)	4.8%(1명)	3.9%(9명)
(5)	15.0%(19명)	14.8%(12명)	14.3%(3명)	14.8%(34명)
(6)	1.6%(2명)	0.0%(0명)	4.8%(1명)	1.3%(3명)
(7)	3.9%(5명)	0.0%(0명)	4.8%(1명)	2.6%(6명)

※ (1)사전 찾기 (2)인터넷 검색 (3)시판 단어장 활용 (4)교과서 말미 단어장 활용 (5)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 (6)아무것도 안 함 (7)기타

이러한 결과는 전 학습자층에서 인터넷 검색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 주며,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자주 사용하는 검색 자원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전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초급 학습자에게는 사전 활용법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는 보다 심화된 활용 전략 중심의 지도가 필요하다.

4.2.2. 대학생 학습자의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

학습 중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2)인터넷 검색'(97.5%)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데([표10]), 이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의 학습 습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5)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36.2%), '(1)사전 찾기'(15.6%)가 뒤를 이었다. 또한 대학생 학습자들은 '(7)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36.2%)와 '(4)교과서 말미 단어장 활용'(11.2%)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0] 대학생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복수 응답)

	초급(n=124)	중급(n=35)	상급(n=1)	전체(n=160)
(1)사전 찾기	12.9%(16명)	22.9%(8명)	100.0%(1명)	15.6%(25명)
(2)인터넷 검색	97.6%(121명)	100.0%(35명)	0.0%(0명)	97.5%(156명)
(3)시판 단어장 활용	2.4%(3명)	11.4%(4명)	0.0%(0명)	4.4%(7명)
(4)교과서 말미 단어장 활용	12.1%(15명)	8.6%(3명)	0.0%(0명)	11.2%(18명)
(5)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	38.7%(48명)	25.7%(9명)	100.0%(1명)	36.2%(58명)
(6)아무것도 안 함	1.6%(2명)	2.9%(1명)	0.0%(0명)	1.9%(3명)
(7)기타	0.8%(1명)	2.9%(1명)	0.0%(0명)	1.2%(2명)

4.2.3. 세종학당과 대학생 학습자의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

세종학당과 대학생 학습자 모두에서 '인터넷 검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학생 학습자(97.5%)는 세종학당 학습자(91.7%)보다 더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두 집단 모두 디지털 기반 정보 탐색을 주된 어휘 처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 전략의 선택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세종학당 학습자는 '사전 찾기'(50.7%)를 두 번째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전통적인 어휘 탐색 방식을 유지하는 반면, 대학생 학습자는 '교사나 주변 사람에게 묻기'(36.2%)와 '교과서 말미 단어장 활용'(11.2%)의 비율이 세종학당 학습자(각 14.8%, 3.9%)보다 높았다. 이는 대학생 학습자가 교실 내 상호작용과 교재 중심의 수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비해, 세종학당 학습자는 교재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 사전을 활용해 폭넓은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전은 정의, 품사, 발음, 예문 등 언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단어 의미를 파악할 때 인터넷 검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나 속어를 찾기 위함이거나 단순한 편리성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은 경우에 따라 정보가 불충분하고 단편적일 수 있으며, 특히 블로그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는 출처와 신뢰성이 불분명하며, 비표준어나 은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대한 검색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사전 활용법을 지도하고, 인터넷 자료 사용 시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습 목적에 따라 사전과 인터넷 검색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정확성과 실제 사용 맥락을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4.3. 어휘 검색 도구 이용 양상

4.3.1. 세종학당 학습자의 어휘 검색 도구 이용 양상

모든 연령대에서 '(5)모바일 번역 앱'이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여 기계번역 도구의 전 연령대 확산을 보여 주며, 편의성과 접근성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표 11]).

[표 11]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어휘 검색 도구 이용 양상(복수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0.0% (0명)	18.2%(2명)	18.8%(3명)	23.9%(11명)	31.6%(25명)	34.3%(24명)
(2)	14.3%(1명)	9.1%(1명)	25.0%(4명)	4.3%(2명)	10.1%(8명)	40.0%(28명)
(3)	14.3%(1명)	45.5%(5명)	43.8%(7명)	34.8%(16명)	32.9%(26명)	48.6%(34명)
(4)	28.6%(2명)	36.4%(4명)	43.8%(7명)	34.8%(16명)	38.0%(30명)	45.7%(32명)
(5)	71.4%(5명)	54.5%(6명)	68.8%(11명)	73.9%(34명)	74.7%(59명)	75.7%(53명)
(6)	0.0%(0명)	9.1%(1명)	0.0%(0명)	6.5%(3명)	2.5%(2명)	2.9%(2명)
(7)	14.3%(1명)	9.1%(1명)	6.2%(1명)	13.0%(6명)	7.6%(6명)	0.0%(0명)

※ (1)종이 사전(예: 朝鮮語辞典、コスモス朝和辞典、小学館 日韓辞典) (2)전자사전(예: CASIO Ex-word)
(3)온라인 사전(예: NAVER 사전, Kpedia, Weblio) (4)모바일 사전 앱(예: NAVER 사전)
(5)모바일 번역 앱(예: Papago, Google번역) (6)기타 (7)사용하지 않음

10대는 '(4)모바일 사전 앱'(28.6%), '(2)전자사전'(14.3%), '(3)온라인 사전'(14.3%)보다 '(5)모바일 번역 앱'(71.4%)의 의존도가 높았으며, 종이 사전 사용자는 없었다. 이는 학습 경력이 짧거나 편리성을 중시하는 학습 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대 역시 '(5)모바일 번역 앱'(54.5%)이 가장 높았으나, '(3)온라인 사전'(45.5%)과 '(4)모바일 사전 앱'(36.4%)도 고르게 이용되었다. 30대는 '(5)모바일 번역 앱'(68.8%)과 함께 '(3)온라인 사전'(43.8%), '(4)모바일 사전 앱'(43.8%), '(2)전자사전'(25.0%) 등 다양한 도구를 병행하였다. 40대도 '(5)모바일 번역 앱'(73.9%) 사용이 가장 높았으며, '(3)온라인 사전'(34.8%)과 '(4)모바일 사전 앱'(34.8%)도 고르게 이용되었다. 50대는 '(5)모바일 번역 앱'(74.7%)과 '(4)모바일 사전 앱'(38.0%), '(3)온라인 사전'(32.9%), '(1)종이 사전(31.6%)을 고르게 사용하여 디지털과 전통적인 도구를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5)모바일 번역 앱'(75.7%) 이용률이 전 연령 중 가장 높았고, '(2)온라인 사전'(48.6%), '(4)모바일 사전 앱'(45.7%), '(2)전자사전'(40.0%), '(1)종이 사전(34.3%) 모두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사전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없었다.

학습 숙달도별 분석에서도 전 학습 수준에서 '모바일 번역 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초급(74.8%)과 중급(75.3%)에 비해 상급(57.1%)은 이용률이 낮아졌다([표 12]). 반면, '전자사전', 온라인 사전', '모바일 사전 앱'은 초급에서 중급, 상급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여, 학습이 진행될수록 번역 도구보다는 보다 정확한 언어 정보 탐색을 위한 사전 활용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이 사전'은 중급(34.6%)에서 가장 높고 상급(19.0%)에서 감소하여, 고급 학습자는 디지털 자원과 다른 수단을 병행하거나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급 11.0%에서 상급 0%로 줄어, 학습 심화와 함께 사전 활용 전략이 점차 정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사전 이용 유형(복수 응답)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1)	26.0% (33명)	34.6%(28명)	19.0%(4명)	28.4%(65명)
(2)	4.7%(6명)	35.8%(29명)	42.9%(9명)	19.2%(44명)
(3)	25.2%(32명)	54.3%(44명)	61.9%(13명)	38.9%(89명)
(4)	30.7%(39명)	48.1%(39명)	61.9%(13명)	39.7%(91명)
(5)	74.8%(95명)	75.3%(61명)	57.1%(12명)	73.4%(168명)
(6)	5.5%(7명)	1.2%(1명)	0.0%(0명)	3.5%(8명)
(7)	11.0%(14명)	1.2%(1명)	0.0%(0명)	6.6%(15명)

※ (1)종이 사전 (2)전자사전 (3)온라인 사전 (4)모바일 사전 앱 (5)모바일 번역 앱 (6)기타 (7)사용하지 않음

한편, 연령대별 복수 사전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복수 사전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4] 특히 60대 이상은 8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20대(63.6%), 40대(63.0%), 30대(62.5%), 50대(62.0%)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10대는 28.6%로 현저히 낮았다. 숙달도별로는 초급 학습자가 59.1%였으나, 중급은 80.2%, 상급은 90.5%로 나타나 숙달도가 높을수록 복수 사전 사용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언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나의 사전만으로는 학습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복수 사전을 병행하여 언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사전 활용 방식이 단순 확인 중심에서 정교한 비교·분석 중심으로 변화함을 시사하며, 사전 개발과 학습 지도 시 숙달도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안내와 도구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한편, 온라인 사전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사전인≪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이용률은 낮아, 전체 연령대의 81% 이상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표 13]). 특히 20대·30대·40대에서는 이 비율이 90%를 넘어, 해당 사전에 대한 이용 경험 부족이 두드러졌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일부 이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13]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국립국어원 사전 이용 경험(복수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	0.0%(0명)	0.0%(0명)	0.0%(0명)	4.3%(2명)	10.1%(8명)	14.3%(10명)
(2)	0.0%(0명)	9.1%(1명)	0.0%(0명)	6.5%(3명)	8.9%(7명)	7.1%(5명)
(3)	14.3%(1명)	9.1%(1명)	6.2%(1명)	2.2%(1명)	7.6%(6명)	5.7%(4명)
(4)	0.0%(0명)	0.0%(0명)	0.0%(0명)	0.0%(0명)	1.3%(1명)	2.9%(2명)
(5)	85.7%(6명)	90.9%(10명)	93.8%(15명)	91.3%(42명)	81.0%(64명)	81.4%(57명)

※(1)≪표준국어대사전≫ (2)≪우리말샘≫ (3)≪한국어기초사전≫ (4)≪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5)모두 미사용

전 연령대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이었으며,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은 주로 40대 이상에서 이용되어 중장년층 학습자가 보다 전통적인 사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해당 집단이 학습 기간이 길고 모바일 사전 앱이나 번역 앱의 등장 이전부터 이러한 사전에 익숙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이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매우 낮았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사용률이 높은 Papago가 어휘 데이터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과 일부 연계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일차적인 초기 번역 결과에 만족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사전 검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시사한다.

학습 숙달도별 분석에서는 초급 학습자의 96.9%, 중급 학습자의 74.1%가 이들 사전의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표 14]). 상급 학습자는 ≪표준국어대사전≫(33.3%)과 ≪우리말샘≫(14.3%)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52.4%로 가장 낮아 절반 이상이 최소 하나 이상의 사전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어기초사전≫은 숙달도와 무관하게 일부 학습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다.

14) 복수 사용된 사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모바일 사전 앱(예: NAVER 사전 등)'과 '모바일 번역 앱(예: Papago, Google 번역 등)'을 병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10대와 20대는 이러한 모바일 기반 사전과 번역기의 병용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동일한 조합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한편, 30대에서 50대에 걸쳐서는 '온라인 사전(예: NAVER 사전, Kpedia, Weblio 등)'과 종이 사전 또는 전자사전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60대 이상은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아진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 'NAVER 사전 앱'과 'Papago 번역 앱'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표 14]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련도별 국립국어원 사전 이용 경험(복수 응답)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1)	0.0%(0명)	16.0%(13명)	33.3%(7명)	8.7%(20명)
(2)	0.8%(1명)	14.8%(12명)	14.3%(3명)	7.0%(16명)
(3)	3.1%(4명)	7.4%(6명)	19.0%(4명)	6.1%(14명)
(4)	0.0%(0명)	2.5%(2명)	4.8%(1명)	1.3%(3명)
(5)	96.9%(123명)	74.1%(60명)	52.4%(11명)	84.7%(194명)

※ (1)≪표준국어대사전≫ (2)≪우리말샘≫ (3)≪한국어기초사전≫ (4)≪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5)모두 미사용

이러한 결과는 공신력 있는 온라인 사전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학습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은 모든 표제어와 뜻풀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외국인 학습자에게 언어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들 사전의 이용자는 소수에 그쳤으며, 이는 의미 이해 과정에서 추가 번역이 필요하거나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을 직접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와 일본어 뜻풀이를 병기하지만, 표제어마다 뜻풀이 항목이 많고 예문에는 일본어 번역이 제공되지 않아, 이러한 특성이 학습자의 이용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3.2. 대학생 학습자의 어휘 검색 도구 이용 양상

대학생 학습자의 어휘 검색 도구의 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3.1%(초급 71.8%, 중급 80.0%)가 Papago, Google 번역 등 '(5)모바일 번역 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15)]

[표 15] 대학생 학습자의 어휘 검색 도구 이용 양상(복수 응답)

	초급(n=124)	중급(n=35)	상급(n=1)	전체(n=160)
(1)종이 사전	2.4% (3명)	2.9%(1명)	0.0%(0명)	2.5% (4명)
(2)전자사전	1.6%(2명)	2.9%(1명)	0.0%(0명)	1.9%(3명)
(3)온라인 사전	16.1%(20명)	17.1%(6명)	0.0%(0명)	16.2%(26명)
(4)모바일 사전 앱	22.6%(28명)	48.6%(17명)	100.0%(1명)	28.7%(46명)
(5)모바일 번역 앱	71.8%(89명)	80.0%(28명)	0.0%(0명)	73.1%(117명)
(6)기타	0.8%(1명)	2.9%(1명)	0.0%(0명)	1.3%(2명)
(7)사용하지 않음	25.0%(31명)	14.3%(5명)	0.0%(0명)	22.5%(36명)

한편 대학생 학습자의 경우 '(3)온라인 사전'(16.2%)과 '(4) 모바일 사전 앱'(28.7%)의 이용률은 비교적 낮았으며, 전통적 사전 매체인 '(1)종이 사전'(2.5%)과 '(2)전자사전'(1.9%)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 초급 학습자는 '(7)사전 미사용' 비율(25.0%)이 중급(14.3%)보다 높게 나타나 학습 초기 단계에서 번역 도구 의존도가 크고 사전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 주었다. 중급 단계에서는 '(4)모바일 사전 앱'의 이용률(48.6%)이 증가하고 '(7)사전 미사용' 비율이 감소하여, 학습이 진전됨에 따라 사전 이용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15) 대학생 학습자의 경우 복수 검색 도구 활용자는 36.2%(5명), 단일 검색 도구 활용자는 63.7%(102명)로 나타났다. 세종학당 수강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전 앱'과 '모바일 번역 앱'을 병용(17.5%, 28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모바일 번역 앱+온라인 사전'(7.5%, 7명), '모바일 사전 앱+온라인 사전'(5.6%, 9명), '모바일 번역 앱+종이 사전'(2.5%, 4명) 등의 조합이 확인되었다. 반면, 종이 사전과 전자사전은 복수 사용 조합에서도 매우 낮은 빈도를 보여, 이는 현대 학습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다.

수 있었다. 상급 학습자는 표본 수가 1명으로 해석에는 제한이 있으나, 번역 앱은 사용하지 않고 사전 앱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사전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중급 학습자가 번역 앱과 더불어 '(4)모바일 사전 앱'(48.6%)을 절반 가까이 이용하고, '(3)온라인 사전'(17.1%)도 병행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어휘 학습의 필요성 증가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숙달도별 사전 및 번역 앱 활용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번역 앱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중급 단계 이후에는 사전 검색 능력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학습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해 '(5)모두 사용한 적 없음'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6]). 초급과 중급 모두 특정 사전을 사용한 경험이 1~2명에 불과하여, 학습 초기와 중간 단계 모두에서 해당 사전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 상급 학습자는 표본 수가 1명으로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상급 단계에서 학습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전을 참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6] 대학생 학습자의 국립국어원 사전 이용 경험(복수 응답)

	초급(n=124)	중급(n=35)	상급(n=1)	전체(n=160)
(1)≪표준국어대사전≫	1.6%(2명)	2.9%(1명)	0.0%(0명)	1.9%(3명)
(2)≪우리말샘≫	0.8%(1명)	2.9%(1명)	0.0%(0명)	1.3%(2명)
(3)≪한국어기초사전≫	0.8%(1명)	2.9%(1명)	100.0%(1명)	1.9%(3명)
(4)≪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0.0%(0명)	0.0%(0명)	100.0%(1명)	0.6%(1명)
(5)모두 미사용	97.6%(121명)	94.3%(33명)	0.0%(0명)	96.2%(154명)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를 (부)전공하는 대부분의 대학생 학습자가 NAVER 사전이나 Papago와 같은 상업적 온라인 사전 플랫폼에는 익숙하지만,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공공 웹 사전에는 거의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 사전은 신뢰도 높은 언어 정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매우 낮았으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공공 사전의 존재와 장점을 학습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4.3.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사전은 모든 뜻풀이가 한국어로 제시되거나 예문 번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며, 그 결과 학습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친화성이 부족하여 접근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3.3.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의 어휘 검색 도구 이용 향상 비교

두 집단 모두 어휘 검색 시 '모바일 번역 앱'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학당 학습자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모바일 사전 앱'과 '온라인 사전'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상급 각 61.9%), 60대 이상 학습자에서는 '종이 사전'(34.3%)과 '전자사전'(40.0%)의 이용률도 높아 디지털과·전통 매체를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학생 학습자는 전체의 73.1%가 '모바일 번역 앱'에 의존하였으며, 중급 단계에서 그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 학습자는 '모바일 사전 앱'과 '온라인 사전' 이용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종이 사전'(2.5%)과 '전자사전'(1.9%) 사용은 거의 없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사전의 이용 경험 역시 세종학당 학습자에 비해 대학생 학습자에서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apago, Google 번역 등 기계번역 도구가 세대를 초월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기계번역은 번역

오류나 직역 문제 등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자에게는 비판적 활용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16] 종이 사전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증가하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율이며, 전자사전은 20대, 40대, 50대에서 사용률이 낮아 현재는 소수 학습자만 사용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 도구는 모든 연령대와 숙달도 전반에서 공통된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두 집단의 비교 결과, 학습 배경과 환경에 따라 어휘 검색 도구 활용 방식이 뚜렷이 달랐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에 따라 적합한 어휘 검색 도구 선택과 활용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급 학습자에게는 번역 앱 의존도를 줄이고 사전 활용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나아가 모바일·온라인 사전의 검색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4. 사전 이용 목적

4.4.1. 세종학당 학습자의 사전 이용 목적

연령대별 사전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17], '(1)의미 확인'이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7]).

[표 17]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사전 이용 목적(복수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	71.4%(5명)	90.9%(10명)	100%(16명)	100%(46명)	89.9%(71명)	98.6%(69명)
(2)	28.6%(2명)	63.6%(7명)	50.0%(8명)	56.5%(26명)	59.5%(47명)	68.6%(48명)
(3)	57.1%(4명)	36.4%(4명)	56.2%(9명)	47.8%(22명)	60.8%(48명)	71.4%(50명)
(4)	42.9%(3명)	36.4%(4명)	18.8%(3명)	4.3%(2명)	19.0%(15명)	30.0%(21명)
(5)	14.3%(1명)	9.1%(1명)	18.8%(3명)	8.7%(4명)	22.8%(18명)	25.7%(18명)
(6)	28.6%(2명)	63.6%(7명)	50.0%(8명)	43.5%(20명)	51.9%(41명)	70.0%(49명)
(7)	28.6%(2명)	36.4%(4명)	31.2%(5명)	30.4%(14명)	34.2%(27명)	48.6%(34명)
(8)	42.9%(3명)	18.2%(2명)	25.0%(4명)	54.3%(25명)	49.4%(39명)	58.6%(41명)
(9)	28.6%(2명)	27.3%(3명)	25.0%(4명)	56.5%(26명)	45.6%(36명)	54.3%(38명)
(10)	0.0%(0명)	0.0%(0명)	0.0%(0명)	4.3%(2명)	1.3%(1명)	0.0%(0명)

※ (1)의미 확인 (2)발음 확인 (3)철자 확인 (4)한자 확인 (5)유의어·반의어 확인 (6)예문이나 사용례 확인
(7)문법 정보 확인 (8)한일 번역 목적 (9)일한 번역·작문 목적 (10)기타

'(2)발음 확인'은 10대(2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대 이상에서는 50%~68.6% 사이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68.6%에 달하였다. '(3)철자 확인'은 36.4%~71.4%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60대 이상(71.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한자 확인'은 10대 42.9%, 20대 36.4%, 60대 이상에서 30.0%로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5)유의어·반의어 확인'은 50대(22.8%)와 60대 이상(25.7%)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용률이 다소 높았고, 10대와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6)예문이나 사용례 확인'(10대 28.6% → 60대 이상 70.0%)과

16) 기계번역의 경우, 오타로 입력된 단어에 대해서도 번역 결과가 출력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Papago에서는 '춥다'의 오타인 '츶다'를 입력하면 '摘む(뜯다)'라는 번역이 제시되었으며, 동일한 오타를 반복 입력할 경우 처음과는 다른 번역인 '推す(밀다)'가 출력되기도 하였다(2025년 8월 15일 검색 결과). 이러한 오타 입력에 따른 번역 결과의 불안정성은 Google 번역에서도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오타 '츶다'에 대해 '仰ぐ(우러러보다)'와 '止める(멈추다)'라는 상이한 번역이 제시되었다(각각 2025년 8월 15일, 20일 검색 결과). 또한 Papago에서 '먹다'를 번역할 경우 가장 먼저 '遠くなる、つんぼになる(귀가 멀다)'가 제시되는 등(2025년 8월 20일 검색 결과), 학습자가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17) 사전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사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을 상정한 경우도 포함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7)문법 정보 확인’(10대 28.6%→60대 이상48.6%)은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8)한일 번역 목적’은 10대와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서, ‘(9)일한 번역·작문 목적’은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해당 기능의 이용률이 높았다.

연령대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숙달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1)의미 확인’은 모든 수준에서 90%를 넘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18]).

[표 18]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사전 이용 목적(복수 응답)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1)	94.5% (120명)	96.3%(78명)	90.5%(19명)	94.8%(217명)
(2)	59.8%(76명)	60.5%(49명)	61.9%(13명)	60.3%(138명)
(3)	59.1%(75명)	63.0%(51명)	52.4%(11명)	59.8%(137명)
(4)	11.0%(14명)	33.3%(27명)	33.3%(7명)	21.0%(48명)
(5)	13.4%(17명)	28.4%(23명)	23.8%(5명)	19.7%(45명)
(6)	42.5%(54명)	67.9%(55명)	85.7%(18명)	55.5%(127명)
(7)	29.9%(38명)	49.4%(40명)	38.1%(8명)	37.6%(86명)
(8)	44.1%(56명)	60.5%(49명)	42.9%(9명)	49.8%(114명)
(9)	42.5%(54명)	58.0%(47명)	38.1%(8명)	47.6%(109명)
(10)	2.4%(3명)	0.0%(0명)	0.0%(0명)	1.3%(3명)

※ (1)의미 확인 (2)발음 확인 (3)철자 확인 (4)한자 확인 (5)유의어·반의어 확인 (6)예문이나 사용례 확인
(7)문법 정보 확인 (8)한일 번역 목적 (9)일한 번역·작문 목적 (10)기타

‘(2)발음 확인’은 중급과 상급에서 높았고, 초급은 59.8%로 보통 수준이었다. ‘(3)철자 확인’은 중급이 가장 높았으며, 초급과 상급은 중간 수준이었다. ‘(6)예문이나 사용례 확인’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중급과 상급에서는 ‘의미 확인’과 함께 핵심적인 이용 목적이었다. 반면, ‘(4)한자 확인’, ‘(5)유의어·반의어 확인’은 모든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7)문법 정보 확인’은 중급(49.4%)이 초급과 상급보다 비교적 높았다. 번역 관련 목적에서는 ‘(8)한일 번역’은 중급이 가장 높았고, 초급과 상급은 중간 수준이었다. ‘(9)일한 번역·작문’은 초급과 중급이 보통, 상급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장년층은 의미, 발음, 철자 등의 언어 형식적 요소뿐 아니라 품사, 문법, 번역 등 심화된 언어 정보 탐색의 비중이 크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발음 확인의 이용률이 한자 확인보다 높았으나 10대에서는 한자 확인이 발음 확인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습 숙달도별로는 초급 단계에서 발음과 철자 확인에 집중하는 반면, 중급 단계에서는 발음, 철자 확인뿐 아니라 예문이나 사용례, 번역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상급 단계에서는 번역보다는 발음, 철자 확인, 예문이나 사용례 등 정밀한 표현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즉, 초급 학습자는 정확한 발음과 쓰기 위주의 학습 경향이 강하지만,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발음과 쓰기뿐만 아니라 문법과 예문 정보 활용이 증가하여 자연스러운 문장 생산과 정확한 문법 사용을 중시하는 학습 양상이 나타난다.

4.4.2.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이용 목적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1)의미 확인’이 모든 숙달도에서 82% 이상을 차지하며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19]). 그 뒤를 이어 ‘(3)철자 확인’은 전체의 65.0%, ‘(2)발음 확인’은 전체의 59.4%가 선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의 형태적 정확성뿐 아니라 음운 정보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문자-소리 대응이 복잡한 한국어 학습에서 표기와 발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습자들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철자 확인과 발음 확인 모두 초급보다 중급에서 비율이 높아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9]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이용 목적(복수 응답)

	초급(n=124)	중급(n=35)	상급(n=1)	전체(n=160)
(1)의미 확인	91.9%(114명)	82.9%(29명)	100.0%(1명)	90.0%(144명)
(2)발음 확인	58.9%(73명)	60.0%(21명)	100.0%(1명)	59.4%(95명)
(3)철자 확인	62.1%(77명)	74.3%(26명)	100.0%(1명)	65.0%(104명)
(4)한자 확인	8.9%(11명)	8.6%(3명)	0.0%(0명)	8.8%(14명)
(5)유의어·반의어 확인	12.1%(15명)	11.4%(4명)	0.0%(0명)	11.9%(19명)
(6)예문이나 사용례 확인	28.2%(35명)	34.3%(12명)	0.0%(0명)	29.4%(47명)
(7)문법 정보 확인	14.5%(18명)	22.9%(8명)	100.0%(1명)	16.9%(27명)
(8)한일 번역 목적	41.9%(52명)	28.6%(10명)	0.0%(0명)	38.8%(62명)
(9)일한 번역·작문 목적	37.9%(47명)	40.0%(14명)	0.0%(0명)	38.1%(61명)
(10)기타	2.4%(3명)	2.9%(1명)	0.0%(0명)	2.5%(4명)

한편, '(8)한일 번역 목적'으로 사전을 이용하는 비율은 초급이 더 높았으나, '(9)'일한 번역·작문 목적'은 중급이 더 높게 나타났다.[18] '(6)예문이나 사용례 확인'과 '(7)문법 정보 확인' 역시 초급보다 중급이 높게 나타나, 중급 단계에서부터 표현 생성이나 작문을 위한 사전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급 학습자는 표본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해당 응답자는 의미, 발음, 철자, 문법 정보 확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4)한자 확인'과 '(5)유의어·반의어 확인'은 전 숙달도에서 모두 10% 안팎의 낮은 비율을 보여, 어휘 확장을 위한 사전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생 학습자가 주로 단어의 의미 확인을 위해 사전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단순한 의미 확인을 넘어 의미 항목 내의 다양한 예문과 문맥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자의 숙련도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사전 활용 목적이 기초 언어 형식에 집중되다가 중급 단계에서는 문법, 사용례, 일한 번역·작문 등 심화된 언어 활용 영역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에게는 의미, 발음, 표기 중심의 정보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는 문법 정보, 용례, 번역 활용 등 고차원적인 정보 탐색 전략을 병행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사전을 번역이나 작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문장 작성 중심의 과제 설계가 효과적일 것이다.

4.4.3.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의 사전 이용 목적 비교

세종학당 학습자는 전 연령·숙달도에서 '의미 확인'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19], 중장년층과 중·상급 학습자는 발음·철자뿐 아니라 예문, 문법, 번역 등 복합적 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에서는 '예문·사용례 확인'(85.7%) 비율이 높아, 문장 생성과 표현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활용이 두드러졌다. 대학생 학습자 역시 '의미 확인'이 최상위 항목이었으나, 그다음으로 철자·발음 확인이 뒤를 이었고, 한자·유의어·반의어 확인은 10% 이하로 낮았다. 또한 초급에서는 번역 활용 비율이 높았으나, 중급에서는 예문·문법·작문 목적이 증가하여 기초 언어 형식 중심에서 생산 중심 활용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숙달도 상승에 따라 사전 활용 범위가 확장됨을 보여 주며, 단계별 학습 특성에 맞춘 사전 기능 설계와 활용 안내가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두 집단 모두에서 '의미 확인'이 사전 활용의 핵심 동기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8) 박수진(2023)은 한국어 쓰기 교양 수업에서 초급 학습자는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고급 학습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할 때 주로 기계번역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19) 이은경(2015)에서는 학습자가 사전을 검색하는 주된 이유가 '의미 확인'(45.5%)이었으며, 박정아·안재린(2024)에서도 온라인 도구 활용 이유 가운데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찾기 위해서'(25.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찾는 의미가 사전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4.7절 참조). 이러한 한계는 '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선 요구에서도 확인되며(4.6절 참조), 학습자가 사전에서 기대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보여 준다. 이는 곧 사전이 현대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변화 속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용자 중심의 어휘 수록과 의미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5. 사전 만족도[20)]

4.5.1. 세종학당 학습자의 사전 만족도

연령대별 사전 만족도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보통'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20]). 10대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보통'(42.9%)과 '사전 미사용'(42.9%)으로 응답하였으며, 만족 또는 불만족을 명확히 표현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는 해당 10대 학습자가 사전보다 다른 정보 검색 도구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대와 30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각각 45.5%, 50.0%로 가장 높았고, '다소 만족'도 각각 27.3%, 31.2%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보통'(각각 30.4%, 41.8%)과 '다소 만족'(각각 21.7%, 25.3%) 외에도 '사전 미사용' 비율이 각각 26.1%, 20.3%로 높게 나타나, 중년층의 사전 이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60대 이상에서는 '보통'(34.3%)과 '다소 만족'(27.1%) 비율이 높았으며, '매우 만족'(10.0%) 응답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나, '다소 불만'(15.7%)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만족도 분포의 양극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제적으로 '매우 불만' 응답은 거의 없었으며(10대, 20대, 30대, 60대 이상은 0%),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부정 평가는 드물게 나타났다.

[표 20]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사전 만족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매우 만족	0.0%(0명)	9.1%(1명)	0.0%(0명)	6.5%(3명)	3.8%(3명)	10.0%(7명)
다소 만족	14.3%(1명)	27.3%(3명)	31.2%(5명)	21.7%(10명)	25.3%(20명)	27.1%(19명)
보통	42.9%(3명)	45.5%(5명)	50.0%(8명)	30.4%(14명)	41.8%(33명)	34.3%(24명)
다소 불만	0.0%(0명)	9.1%(1명)	12.5%(2명)	13.0%(6명)	7.6%(6명)	15.7%(11명)
매우 불만	0.0%(0명)	0.0%(0명)	0.0%(0명)	2.2%(1명)	1.3%(1명)	0.0%(0명)
사전 미사용	42.9%(3명)	9.1%(1명)	6.2%(1명)	26.1%(12명)	20.3%(16명)	12.9%(9명)

학습 숙달도별로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는 '보통'(40.9%)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사전 미사용' 비율이 27.6%로 상급(4.7%)과 중급(7.4%)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표 21]). 이는 초급 학습자의 사전 이용 경험 부족, 또는 사전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의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급 학습자는 '다소 만족'(35.8%)과 '매우 만족'(11.1%)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 경향을 보였다. 상급 학습자는 '보통'(52.4%)과 '다소 만족'(28.6%)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불만' 응답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급 학습자가 사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초급 학습자는 사전 이용률과 만족도가 비교적 낮아 사전 활용 교육을 통한 기초 활용 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급 학습자는 사전 이용이 일상화되어 특별한 만족이나 불만을 느끼기보다, 사전 외의 다양한 참고 자료를 병행 활용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0) 본 조사에서는 사전 만족도가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은경(2015)에 따르면, 사전 사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찾고자 하는 단어가 없다'(15.7%), '적절한 뜻을 고르기 어렵다'(9.7%),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8.5%),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7.0%), '예문이 적다'(6.8%),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6.7%) 등이 보고되었다.

[표 21]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사전 만족도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매우 만족	3.1%(4명)	11.1%(9명)	4.8%(1명)	6.1%(14명)
다소 만족	18.1%(23명)	35.8%(29명)	28.6%(6명)	25.3%(58명)
보통	40.9%(52명)	29.6%(24명)	52.4%(11명)	38.0%(87명)
다소 불만	9.4%(12명)	14.8%(12명)	9.5%(2명)	11.4%(26명)
매우 불만	0.8%(1명)	1.2%(1명)	0.0%(0명)	0.9%(2명)
사전 미사용	27.6%(35명)	7.4%(6명)	4.8%(1명)	18.3%(42명)

4.5.2.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만족도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만족도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8%(70명)는 사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상당수의 학습자가 일상적인 학습에서 사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표 22]). 특히 초급 학습자는 사전 미사용 비율이 48.4%에 달해 사전 이용 경험이 부족함을 보여 주었다. 나머지는 '보통'(26.6%), '다소 만족'(13.7%), '매우 만족'(9.7%)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중립적인 평가가 혼재하였다.

중급 학습자는 '매우 만족'(31.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소 만족'(22.9%)과 '보통'(17.1%)이 뒤를 이었다.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8.6%로 적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상급 학습자는 표본 수가 1명에 불과하지만, '매우 만족' 응답을 보여 사전 이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이용자들이 현재 이용 중인 사전의 품질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초급과 일부 중급 학습자의 낮은 사전 이용률은 사용법 안내 부족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사전 이용 기회를 늘리고, 중급 단계 이후에는 다양한 사전 자원의 장단점을 비교·이해하도록 지도하여 학습자의 사전 활용 역량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

[표 22]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만족도

	초급(n=124)	중급(n=35)	상급(n=1)	전체(n=160)
매우 만족	9.7%(12명)	31.4%(11명)	100.0%(1명)	15.0%(24명)
다소 만족	13.7%(17명)	22.9%(8명)	0.0%(0명)	15.6%(25명)
보통	26.6%(33명)	17.1%(6명)	0.0%(0명)	24.4%(39명)
다소 불만	1.6%(2명)	0.0%(0명)	0.0%(0명)	1.3%(2명)
매우 불만	0.0%(0명)	0.0%(0명)	0.0%(0명)	0.0%(0명)
사전 미사용	48.4%(60명)	28.6%(10명)	0.0%(0명)	43.8%(70명)

4.5.3.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만족도 비교

두 집단 모두 '매우 불만'은 없었으며, '보통'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종학당 학습자의 경우, 중급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급에서는 '보통'과 '다소 만족'이 주를 이루었다. 초급 학습자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27.6%)는 사전 사용 경험이 없어 만족도를 평가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세종학당 학습자는 숙달도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였다.

대학생 학습자의 경우는 초급에서 사전 미사용 비율이 절반(48.4%)에 달했으나, 사전 이용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서 사전 이용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만족도 응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며, 이들에게는 사전 활용 방법에 대한 기초적 안내와 이용 경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6. 사전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

4.6.1. 세종학당 학습자의 사전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

사전 기능 개선 및 편의성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한 기능은 '(3)예문의 다양화'였다([표 23]).

[표 23]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별 사전 기능 개선 요구(복수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	14.3%(1명)	27.3%(3명)	25.0%(4명)	17.4%(8명)	16.5%(13명)	15.7%(11명)
(2)	14.3%(1명)	36.4%(4명)	18.8%(3명)	21.7%(10명)	24.1%(19명)	32.9%(23명)
(3)	42.9%(7명)	45.5%(5명)	68.8%(11명)	54.3%(25명)	46.8%(37명)	62.9%(44명)
(4)	14.3%(1명)	27.3%(3명)	25.0%(4명)	24.9%(11명)	26.6%(21명)	14.3%(10명)
(5)	14.3%(1명)	45.5%(5명)	25.0%(4명)	26.1%(12명)	27.8%(22명)	41.4%(29명)
(6)	28.6%(2명)	45.5%(5명)	50.0%(8명)	54.3%(25명)	43.0%(34명)	44.3%(31명)
(7)	71.4%(7명)	18.2%(2명)	50.0%(8명)	45.7%(21명)	36.7%(29명)	28.6%(20명)
(8)	14.3%(1명)	18.2%(2명)	43.8%(7명)	17.4%(8명)	38.0%(30명)	30.0%(21명)
(9)	14.3%(1명)	0.0%(0명)	31.2%(5명)	10.9%(5명)	2.5%(2명)	10.0%(7명)
(10)	0.0%(0명)	18.2%(2명)	12.5%(2명)	19.6%(9명)	17.7%(14명)	18.6%(13명)
(11)	0.0%(0명)	9.1%(1명)	25.0%(4명)	17.4%(8명)	21.5%(17명)	17.1%(12명)
(12)	0.0%(0명)	18.2%(2명)	25.0%(4명)	19.6%(9명)	13.9%(11명)	17.1%(12명)
(13)	0.0%(0명)	0.0%(0명)	0.0%(0명)	0.0%(0명)	7.6%(6명)	8.6%(6명)

※ (1)어휘 수준 제시 (2)발음 기호 표시 (3)예문의 다양화 (4)간결하고 명쾌한 어휘 해설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
(6)문법 정보 추가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 (8)복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9)남녀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10)발음 음성의 재생 속도 조절 기능 (11)자신의 발음과 비교할 수 있는 녹음 및 재생 기능(발음 연습 기능)
(12)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조작 화면 및 배치 등) (13)기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71.4%)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3)예문의 다양화'(42.9%)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는 '(3)예문의 다양화'(45.5%), '(6)문법 정보 추가'(45.5%),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45.5%)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30대는 '(3)예문의 다양화'(68.8%), '(6)문법 정보 추가'(50.0%),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50.0%) 비율이 높았다. 40대는 '(3)예문의 다양화'(54.3%)와 '(6)문법 정보 추가'(54.3%)가 동일 비율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45.7%)이 뒤를 이었다. 50대는 '(3)예문의 다양화'(46.8%), '(6)문법 정보 추가'(43.0%) 외에도 '(8)복수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38.0%)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3)예문의 다양화'(62.9%), '(6)문법 정보 추가'(44.3%)뿐 아니라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41.4%)와 '(2)발음 기호 표시'(32.9%), '(8)복수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30.0%) 등 발음, 음성 지원 등의 청각 정보 관련의 개선 요구도 나타났다.

학습 숙달도별로 살펴보면, 초급은 '(6)문법 정보 추가'(46.5%)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예문의 다양화'(45.7%),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35.4%)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이는 기초 학습에 필요한 예문, 문법, 번역 기능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급은 '(3)예문의 다양화'(61.7%)가 가장 많았고, '(6)문법 정보 추가'(46.5%),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43.2%) 외에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42.0%) 요구도 강해, 심화 학습을 위한 정보 수요가 다른 수준보다 높았다. 상급은 '(3)예문의 다양화'(81.0%)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57.1%)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6)문법 정보 추가'(28.6%)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2)발음 기호 표시'(38.1%)에 대한 요구는 초급과 중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4] 세종학당 학습자의 학습 숙달도별 사전 기능 개선 요구(복수 응답)

	초급(n=127)	중급(n=81)	상급(n=21)	전체(n=229)
(1)	19.7%(25명)	16.0%(13명)	9.5%(2명)	17.5%(40명)
(2)	21.3%(27명)	30.9%(25명)	38.1%(8명)	26.2%(60명)
(3)	45.7%(58명)	61.7%(50명)	81.0%(17명)	56.3%(129명)
(4)	21.3%(27명)	25.9%(21명)	9.5%(2명)	21.8%(50명)
(5)	21.3%(27명)	42.0%(34명)	57.1%(12명)	31.9%(73명)
(6)	46.5%(59명)	49.4%(40명)	28.6%(6명)	45.9%(105명)
(7)	35.4%(45명)	43.2%(35명)	23.8%(5명)	38.0%(87명)
(8)	29.1%(37명)	32.1%(26명)	28.6%(6명)	30.1%(69명)
(9)	8.7%(11명)	9.9%(8명)	4.8%(1명)	8.7%(20명)
(10)	18.1%(23명)	18.5%(15명)	9.5%(2명)	17.5%(40명)
(11)	18.9%(324명)	19.8%(16명)	9.5%(2명)	18.3%(42명)
(12)	12.6%(16명)	23.5%(19명)	14.3%(3명)	16.6%(38명)
(13)	7.1%(9명)	3.7%(3명)	0.0%(0명)	5.2%(12명)

※ (1)어휘 수준 제시 (2)발음 기호 표시 (3)예문의 다양화 (4)간결하고 명쾌한 어휘 해설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
(6)문법 정보 추가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 (8)복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9)남녀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10)발음 음성의 재생 속도 조절 기능 (11)자신의 발음과 비교할 수 있는 녹음 및 재생 기능(발음 연습 기능)
(12)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조작 화면 및 배치 등) (13)기타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연령대와 숙달도에서 '(3)예문의 다양화'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6)문법 정보 추가'와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 등도 주요 개선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과 상급 학습자는 발음·음성 등 청각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초급 학습자는 기초 학습을 지원하는 문법·예문 기능을, 중급 학습자는 심화 학습을 위한 다양한 언어 정보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설계 시 학습자의 연령과 숙달도에 따른 맞춤형 기능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예문 다양화와 심화 정보 및 청각 정보 제공의 균형이 향후 사전 개선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 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9명[21]은 사전 개선점과 추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25]). 이를 숙달도별로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들은 발음 정확성, 활용형 변환, 기본 어휘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었고, 중급 학습자들은 발음 연습과 확인, 활용형 제공, 예문과 뉘앙스 정보의 보강을 요구하였다. 상급 학습자들은 실제 사용 예문, 신조어 및 속어, 유의어 간 차이 등 어휘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다.[22] 공통적으로는 실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인지 여부를 중시하는 학습자가 숙달도와 관계없이 나타났으며, 이는 사전 어휘 선정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표제어 자체보다는 예문에 포함된 문학 작품의 표현이나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표현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언어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사전 구성 시 예문의 어휘 또한 사용 빈도와 실제성에 기반하여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1) 일부 응답자는 복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응답자 수와 의견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22) 자유 응답 중에는 '의미 차이 설명, 검색 강화 기능, 사전의 무게' 등과 같이 개선 요구와 사전 사용 시 불편 사항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가 응답을 작성한 문항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표 25]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 및 학습 숙달도별 사전 기능 개선 요구

범주	사전 개선점과 추가 기능에 대한 의견
어휘·의미 용례	•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일상회화 어휘인지 알고 싶다.(40대 초급) • 어원이나 접두사 • 접미사가 포함된 단어의 경우, 해당 접두사 • 접미사를 포함하는 다른 단어의 예도 함께 제시되면 좋겠다.(50대 초급) • 유의어·반의어 등 관련 어휘가 확인되는 기능, 어원 해설(50대,초급) • 예문이 단어에 따라 적은 경우가 있다. 예문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50대 초급) •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옛날 표현일까 봐 걱정된다.(60대 이상 초급) • 유의어 간 사용 차이를 알 수 있는 예문과 해설(40대 중급) • 동음다의어의 경우, 속어를 포함한 의미와 예문 수록(50대 중급) • 자주 사용되는 일상회화용 어휘인지, 문어체인지 알고 싶다.(50대 중급) • 의태어 등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한국어로 알고 싶다.(60대 이상 중급) • 등재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60대 이상 중급) • 자주 사용되는 일상 회화 어휘인지 알고 싶다.(30대 상급) • 온라인 사전은 속어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30대 상급) • 신조어나 인터넷 용어 추가(50대 상급) • 한국인이 실제 자주 쓰는 예문 수록(50대 상급) • 유의어 간 의미 차이를 자세히 설명(50대 중급, 60대 이상 상급) • 유의어 차이 설명(60대 이상 상급)
문법	• 모든 단어의 원형과 활용형을 제공(40대 초급) • 해요체, 합니다체, 경어 등을 표시(40대 초급) • 예문에 동사 원형 표시(60대 이상 초급) • 품사 표시(60대 이상, 중급 2명) • 활용형 변환 기능(해요체·합니다체 등)(50대 중급)
발음·억양	• 사전 발음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50대 초급) • 음성 입력(60대 이상 초급) • 표준어와 방언의 발음 차이, 남녀 발음 음성이 있으면 좋겠다.(30대 중급) • 예문 발음 제공(50대 중급) • 발음 확인(50대 중급) • 발음 연습 기능, 오류 수정 기능, 노래 가사 번역 기능(50대 중급) • 활용형의 발음 표시(60대 이상 중급) • 발음 기호 표기를 늘렸으면 좋겠다.(60대 이상 중급) • 발음 음성의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60대 이상 중급)
검색 기능	• 해요체로 찾을 수 있는 기능(60대 이상 초급) • 같은 의미의 일본어가 한국어에서 여러 단어로 구분될 때, 쓰임 차이를 예문으로 보여 주는 기능(60대 이상 중급) • 철자를 모를 때 발음 기반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개선(40대 중급) • 발음이 어떤 단어로 인식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40대 상급)
휴대성	• 가벼우면 좋겠다.(50대 초급) • 전자사전의 키보드가 작고 무겁다.(60대 이상 상급)
가독성	• 글자 확대 기능(60대 이상 중급)
기타	• 정확한 번역(40대 초급) • 자신의 메모를 기입할 수 있는 기능(60대 이상 초급) • 특별히 없음.(50대 상급, 60대 이상 초급) • 첨삭 기능(50대 중급) • 오류 수정 기능(50대 중급) • 노래 가사 번역 기능(50대 중급) • 단어장 기능(60대 이상 상급)

4.6.2.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

사전 기능 개선 및 편의성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대학생 학습자의 49.4%가 가장 많이 개선이 필요한 기능으로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초급 49.2%, 중급 51.4%)을 꼽았다([표 26]). 이는 기존 사전의 번역 결과가 어색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다음으로는 '(3)예문의 다양화'(33.8%)와 '(1)어휘 수준 제시'(25.6%)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4)간결하고 명쾌한 어휘 해설'(23.1%), '(2)발음 기호 표시'(22.5%), '문법 정보 추가'(19.4%), '(8)복수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17.5%) 등 발음 및 문법 관련 기능 보강 요구도 나타났다. 일부 학습자는 '(10)발음 음성 재생 속도 조절'(12.5%), '(11)자신의 발음과 비교 가능한 녹음·재생 기능'(7.5%)과 같은 발음 연습 지원 기능을 제안해, 사전이 단순한 검색 도구를 넘어 학습 도구로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2)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3.8%)를 요구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 풍부한 예문과 난이도 정보, 발음 및 문법 지원 기능을 통해 사전의 학습 효용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기능 개선 요구(복수 응답)

	초급(n=124)	중급(n=35)	상급(n=1)	전체(n=160)
(1)어휘 수준 제시	28.2%(35명)	17.1%(6명)	0.%(0명)	25.6%(41명)
(2)발음 기호 표시	26.6%(33명)	8.6%(3명)	0.%(0명)	22.5%(36명)
(3)예문의 다양화	29.0%(36명)	51.4%(18명)	0.%(0명)	33.8%(54명)
(4)간결하고 명쾌한 어휘 해설	26.6%(33명)	11.4%(4명)	0.%(0명)	23.1%(37명)
(5)신조어·속어·방언 등에 관한 정보	10.5%(13명)	20.0%(7명)	100.0%(1명)	13.1%(21명)
(6)문법 정보 추가	20.2%(25명)	17.1%(6명)	0.%(0명)	19.4%(31명)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	49.2%(61명)	51.4%(18명)	0.%(0명)	49.4%(79명)
(8)복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16.1%(20명)	20.0%(7명)	100.0%(1명)	17.5%(28명)
(9)남녀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8.1%(10명)	8.6%(3명)	100.0%(1명)	8.8%(14명)
(10)발음 음성의 재생 속도 조절 기능	13.7%(17명)	8.6%(3명)	0.%(0명)	12.5%(20명)
(11)자신의 발음과 비교할 수 있는 녹음 및 재생 기능 (발음 연습 기능)	7.3%(9명)	8.6%(3명)	0.%(0명)	7.5%(12명)
(12)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조작 화면 및 배치 등)	3.2%(4명)	5.7%(2명)	0.%(0명)	3.8%(6명)
(13) 기타	10.5%(13명)	8.6%(3명)	0.0%(0명)	10.0%(16명)

숙달도별로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는 '(7)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49.2%), '(3)예문의 다양화'(29.0%), '(1)어휘 수준 제시'(28.2%), '(2)발음 기호 표시'(26.6%) 등 기본 학습 지원 기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초급 학습자가 학습 초기에 단어 의미, 난이도, 발음과 같은 핵심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급 학습자는 '(3)예문의 다양화'(51.4%)와 '(5)신조어·방언·속어 정보'(20.0%), '(8)복수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20.0%) 등 언어 활용 능력을 넓히기 위한 기능 요구가 눈에 띄며, 이는 학습 수준이 올라가면서 번역 중심에서 실제 맥락 활용 중심으로 요구가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급 학습자(1명)는 '(5)신조어·방언·속어 정보', '(8)복수의 모어 화자의 발음 음성', '(9)남녀 모어 화자의 음성'과 같이 비표준어 및 새로운 어휘, 세분화된 발음·음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이는 상급 단계에서 사전이 단순한 어휘 확인 도구를 넘어 실제 사용 맥락까지 학습을 확장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길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명은 자유 응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일본인 학습자에게 친화적인 사전이면 좋겠다.(초급 1명)

- 알기 어려운 발음 기호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23](초급 1명)
- 이전에 검색한 단어를 퀴즈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초급 1명)
- 특별히 없음.(초급 1명, 중급 1명)

4.6.3.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 비교

세종학당 학습자는 전 연령·숙달도에서 '예문 다양화'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10대 학습자의 경우 '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71.4%)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와 숙달도가 높을수록 발음·음성 등 청각 정보 수요가 증가하였고, 예문과 문법, 다양한 언어 정보 기능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학생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일본어 번역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숙달도별로는 초급에서 번역·난이도·발음·예문 등 기초 학습 지원 기능, 중급에서는 예문·신조어·음성 등 심화 기능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의 연령 구성과 학습 환경, 학습 목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학생은 주로 학업 성과와 직결된 실용성·정확성 중심의 요구가 강하고, 세종학당 학습자는 다양한 연령과 학습 목적을 반영한 폭넓은 기능 개선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전 설계 시 학습자의 연령과 숙달도에 따른 맞춤형 기능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예문 다양화와 심화 정보, 청각 정보 제공의 균형이 향후 사전 개선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 준다.

4.7. 사전 이용 불편 사항

4.7.1. 세종학당 학습자의 사전 이용 불편 사항

전체 응답자 중 55명[24]이 사전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27]).

[표 27] 세종학당 학습자의 연령대 및 학습 숙달도별 사전 이용 시 불편 사항

범주	주요 불편 사항
어휘·의미·용례	• 실제로 활용할 예문이 없고, 단어 의미는 알아도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맞는지(뉘앙스 차이, 표현 차이) 확신할 수 없다.(40대 초급) •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부자연스럽다.(40대 초급) • 실제로 활용할 예문이 없고, 단어 의미는 알아도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맞는지(뉘앙스 차이, 표현 차이) 확신할 수 없다.(40대 초급) • 의미가 여러 개 있을 때 헷갈리므로 예문이 더 많으면 좋겠다.(40대 초급) • 경어, 해요체, 합니다체의 말투가 표시되면 좋겠고, 일본어 번역이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40대 초급) • 한국어의 구어체 표현이나 일상적인 말투가 사전에 나오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50대 초급) •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쓰임 구분(50대 초급) • 신조어가 실려 있지 않다.(60대 이상 초급)

23)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종이 사전의 발음 표기 방식은 다양하다. 『朝鮮語辞典』(小学館), 『コスモス朝和辞典』(白水社), 『デイリーコンサイス韓日・日韓辞典』(三省堂) 등은 국제 음성 기호(IPA)와 일본어 가나 표기를 병행하며, 『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小学館)은 일본어의 가나만,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은 국제 음성 기호(IPA)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로마자 기반의 IPA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낯설고, 이를 익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배주채, 2009). 이는 종이 사전에서 발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IPA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일본어 가나 표기 등 직관적인 보조 표기가 도움이 되지만, 지면 제약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종이 사전은 음성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QR 코드, 출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발음 음원 제공이나 디지털 사전 연계 등 혼합형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현재 『身につく韓日・日韓辞典』(三省堂)과 『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 第2版 新装版』(小学館)(일부 음성 제공)은 사전 홈페이지에서 무료 웹 음성 서비스를, 『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유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24) 일부 응답자는 복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응답자 수와 의견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범주	주요 불편 사항
	• 찾고 싶은 단어가 없을 경우가 있다.(40대 중급) • 사전에 단어의 다양한 의미나 뉘앙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50대 중급) • 유행어, 약어 등의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다.(50대 중급) • 사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현재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50대 중급) • 수록되지 않은 단어가 자주 있다.(60대 이상 중급) • 신조어가 실려 있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한다.(60대 이상 중급) • 어휘 부족, 특이한 표현이나 관용 표현의 번역 부족(60대 이상 중급) • 단어 의미만 그대로 옮겨서는 표현의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50대 상급) • 이른바 속어가 이해하기 어렵다. 외래어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도 필요하다.(60대 이상 중급) • 한 단어라도 뉘앙스가 다양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문이 많으면 좋겠다.(60대 이상 중급) • 예문이 풍부한 대형 종이 사전(예: 프랑스어의 ≪Petit Robert≫)이 있으면 사용해 보고 싶다.(60대 이상 중급) • 예문이 적다.(60대 이상 상급) • 신조어·외래어와 그 용례가 적다.(60대 이상 상급)
문법	• 활용 변화 등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전 사용 자체가 어렵다.(60대 이상 초급) • 문법 설명에 관련 항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으면 좋겠다.(60대 이상 초급) • 품사 정보가 없는 경우는 매우 불편했다.(50대 중급) • 활용형 정보도 함께 제공되면 좋겠다(50대 중급) • 활용형이 없는 사전이 많아서 불편하다.(50대 중급) • 품사가 불명확하다.(60대 이상 중급)
발음·억양	• 가타카나 대신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싶지만 사전마다 표기가 다르다.[25](60대 이상 초급) • 예문이 있어도 억양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다.(50대 중급) • 발음 기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60대 이상 중급)
검색 기능	• 철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영어 사전처럼 여러 후보를 제시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40대 초급) • 사전을 찾을 때 원형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역 소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0대 초급) • 초보자는 기본형을 알지 못해 사전을 찾을 수 없다.(50대 초급) • 원형, 어간을 알지 못하고, 사전의 글자 배열 순서를 모른다.(50대 초급) • 찾고 있는 정보에 도달하지 못해, 사용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고 느껴진다.(50대 초급) • 조사,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렵다.(50대 초급) • 표제어를 해요체로 하고, 원형도 알게 해 주면 좋겠다.(60대 이상 초급) • 문장 속 한국어를 기본형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문으로 검색하면 기본형과 사용된 문법 정보가 한 번에 제시되면 좋겠다.(60대 이상 초급) • 종이 사전은 익숙하지 않으면 단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결국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된다.(60대 이상 중급) • 일본어를 입력해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나 단어를 찾기 어렵다.(60대 이상 중급) • 발음은 알아도 단어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60대 이상 중급)
휴대성	• 종이 사전은 무겁고 휴대가 불편하다.(40대 초급, 50대 초급, 30대 중급, 50대 중급) • 종이 사전은 무겁고 휴대가 불편해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전자사전은 기능적 불만은 없었으나,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40대 중급) • 종이 사전을 좋아하지만, 무거워서 집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서는 전자사전을 쓴다.(60대 이상 상급)
가독성	• 글자가 작다.(50대 초급, 60대 초급 2명, 60대 이상 초급, 60대 이상 중급) • 수록 단어 수가 많은 사전은 글자 크기가 작아 읽기 어려워 사용하지 않게 된다.(50대 초급) • 사이즈가 작은 종이 사전은 좋지만, 글자가 작아서 보기 어렵다.(60대 이상 초급)
기타	• 단어 발음 확인 외에는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다.(40대 초급) • 특별히 없음(50대 상급, 60대 이상 중급)

본 문항의 자유 서술 응답을 종합하면, 불편 사항은 크게 어휘 의미·용례(예문 부족, 의미나 뉘앙스 설명 부족, 신조어·속어·외래어·관용 표현 부족, 미등재 단어), 문법(활용형 정보 부족, 품사 파악 곤란), 발음 및 억양, 검색 기능(단어 검색의 제한, 원형·어간에 인지 부족으로 인한 검색 어려움), 종이 사전의 휴대성 및 가독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어휘, 의미, 용례에 대한 불만은

25)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사전의 발음 표기 방식은 사전마다 상이하게 제시된다([그림 1]~[그림 4] 참조).

숙달도와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검색 기능에 대한 불편은 초급 학습자에서 두드러졌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활용형이나 발음을 알고 있어도 단어를 찾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는 원형·어간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검색 어려움으로 해석된다. 중급 학습자는 품사, 활용, 발음, 신조어, 자연스러운 한·일 대응 표현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상급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불편 응답이 적었으나, 예문의 실제성, 신조어·외래어의 용례 추가 등 어휘 정보의 정확성과 심화 정보의 확충을 요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에서 예문 보강, 글자 크기와 가독성 문제, 신조어 미등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개발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의 깊이와 유형이 상이하므로 수준별 맞춤형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초급 학습자에게는 활용형 인식 지원, 발음 기반 검색 기능, 기본 어휘 중심의 예문 제공이 요구되며, 중급 학습자에게는 품사 및 활용 정보 강화, 자연스러운 번역 예문, 신조어와 일상 표현의 반영이 필요하다. 상급 학습자에게는 정확한 의미 구분과 예문 확충, 실제 용례 등 심화된 어휘 정보가 필요하며, 사전 콘텐츠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검색 기능의 직관성과 접근성 개선도 시급하며, 특히 초급 학습자는 원형이나 어간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도 발음이나 활용형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연령대 측면에서는 50~60대 사용자에게 글자 크기 조절, 가독성 높은 디자인, 신조어 등 최신 어휘의 반영이 중요한 개선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숙달도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표현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는 표제어 자체보다 예문에 포함된 문학적 표현이나 일상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어휘나 표현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사전 구성 시 예문에 포함되는 어휘 역시 사용 빈도와 실제성을 기준으로 선별되어야 하며, 코퍼스 기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필요와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어휘 선정, 연령·숙달도·학습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 제공과 검색 편의성 향상이 사전 설계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4.7.2.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사용 불편 사항

대학생 학습자는 사전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자유 서술 응답으로 '종이 사전은 무겁다(초급1명), 특별히 없음(중급 1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일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사전 사용 과정에서 큰 불편을 호소하는 학습자는 소수임을 시사한다.

4.7.3.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의 사전 이용 불편 사항

세종학당 학습자는 가독성, 표기, 등재 어휘 및 내용, 예문 부족, 검색 기능 등 사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제기하였다. 특히 숙련도와 연령대에 따라 요구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 사용자 특성에 맞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대학생 학습자는 자유 서술 응답에서 '종이 사전은 무겁다', '특별히 없음' 등의 간단한 의견만을 제시해, 전반적으로 불편 호소 비율이 낮았다. 이는 사용 중인 사전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거나 기대 수준이 낮은 결과일 수 있으며, 일부 학습자는 설문 응답 자체를 번거롭게 느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종이 사전은 무겁다'는 의견은 세종학당 학습자에게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종이 사전의 물리적 한계와 직결된다. 이러한 불편은 모바일 및 온라인 사전의 보급 확대와 맞물려 종이 사전의 사용 감소 경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 학습자에게는 등재 어휘의 확충 및 최신화, 문법·발음 등 심화 정보 제공, 검색 기능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적 콘텐츠 보완이 필요하며, 대학생 학습자에게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선택 가이드 제공이나, 학습 환경에 맞춘 디지털 사전 활용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검색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세종학당의 초급에서 중급에 이르는 많은 학습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사전 이용의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소현·강현화(2024)는 한국어 사전의 문제점으로 용언의 활용형으로 검색이 어렵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등재되지 못한 어휘, 비규범적인 표기, 속어, 다양한 발음이 가능한 외래어의 변이형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사전 검색의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검색 편의성 향상, 비한글 표기형과의 연계, 가표제어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심현주·막시모바(2025)는 온라인 사전이 내용어 중심의 단어 의미만을 제공함으로써 덩어리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찾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검색 실패'가 사전 활용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웹기반의 한국어 검색 사전('친절한 한국어 검색 사전(https://shimhyunju.github.io)')을 구축하였으며, 이 사전은 학습자가 문장이나 활용형을 입력해도 형태소 분석을 통해 기본형 표제어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검색 실패율을 낮추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재는 시험 단계로, 일부 단어의 미검색, 번역의 정확성, 검색 속도 등의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사용자 중심의 사전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검색 기능과 학습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나오며

이 글에서는 일본의 한국어 사전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세종학당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숙달도·학습 환경에 따라 사전 사용 목적, 이용 방식, 개선 요구, 불편 사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개발과 교육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집단 모두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전 이용 범위가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단계별 학습 특성에 맞춘 사전 기능 설계와 활용 안내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모든 집단에서 어휘 검색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는 모바일 번역 앱이었으며, 특히 초급 학습자일수록 번역 의존도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온라인 사전의 이용은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교육 현장에서는 기계번역 도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학습자의 숙달도, 관심사, 연령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전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숙달도와 관계없이 사전 예문에 포함된 비일상적인 어휘에 대한 불만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는 예문 어휘 역시 사용 빈도와 실제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코퍼스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갱신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예문 어휘 선정, 숙달도와 연령, 학습 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 제공, 그리고 검색 편의성 강화를 사전 설계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에는 사전뿐 아니라 기계번역기와 AI 챗봇을 활용하여 문장 전체를 번역·수정하고, 이를 통해 어휘와 표현, 문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학습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선택·조합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특히 번역 앱은 단순한 번역 기능을 넘어 사전 기능과 연계되면서 사실상 사전을 대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 도구 이용 방식의 전환을 보여 주며,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전 개발을 요구한다. 전통적 사전에 대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극복하고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사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옥·전미화(2025), 생성형 AI의 한국어 쓰기 피드백 제공 양상 및 활용 방안 연구-Deepseek와 ChatGPT-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7(4), 75-94.

강현화(2023), 사용자 기반 한국어 학습사전의 쟁점, 『한국사전학』42, 7-32.

공태수·백재파(2021), 한국어 학습자의 기계번역 활용 실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1(5), 859-871.

김명희(2023), ChatGPT를 활용한 한국어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22(2), 55-86.

김민정·송은정·이민우(2024), FGI 분석을 통한 세종학당 한국어교원의 역량에 대한 요구 분석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3), 1-30.

김아름·서희(2024), 한국어 학습자의 ChatGPT 활용 방식-글쓰기 과제에서의 프롬프트 리터리시 분석, 『멀티미디어 언어교육』27(4), 1-18.

남소현·강현화(2024), 사용자 중심 한국어 학습사전에서의 가표제어 연구, 『어문론총』(100), 7-40.

박수진, 2023, 기계번역 활용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자 인식과 번역문의 특징, 『교양교육연구』17(3), 139-153.

박정아, 안재린, 2024, 쓰기 과제 수행에서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온라인 도구 사용 현황 연구 -기계번역과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78, 177-210.

신민철(2024), 인공지능(AI) 번역기의 한일 번역 양상에 관한 고찰-파파고(papago)에서의 명사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100, 407-422.

심현주·막시모바 알렉산드라(202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웹기반 한국어기초사전의 검색 방식 개선 연구-형태소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언어와 정보』29(1), 한국언어정보학회, 1-20.

윤호숙(2018), 일한기계번역의 오류유형에 관한 고찰-일본소설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107(1), 3-25.

윤효승(2022),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어휘의 분석: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문화와 융합』44(2), 127-146.

이선빈(2025), 한국어 쓰기 피드백을 위한 ChatGPT의 활용 가능성 연구, 『새국어교육』142, 527-562.

이수림(2024), 과정 중심 영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ChatGPT 활용 가능성 연구ㅡ학습자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18(6), 367-384.

이안구(2015),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한글 자모 도입에 대하여-일본 대학교 초급 교재의 경우-, 국어교육, 150, 377-401.

이윤미(2023), 한국어 학습사전의 현황과 과제-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41, 238-263.

이은경(2015),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국어국문학』171, 146-178.

이지민(2023), 통번역대학원 번역 전공 학습자의 기계번역 활용 양상 및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번역학언구』24(3), 249-283.

이진은(2016),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연구 동향 분석, 『언어과학연구』77, 245-287.

이창수(2023), 챗GPT 출현 이후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 간의 번역 문체 차이 변화 연구, 『번역학연구』24(3), 539-561.

임지선(2024), 수동, 자동 평가 비교를 통한 기계번역 품질 평가ㅡPapago, Google, Baidu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연구』100, 127-145.

장혜선(2023), 유의어 한일 번역을 통해 알아본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의 의미 관계성 인지 능력 연구, 『일본어문학』100, 153-174.

Clifford, J., Merschel, L., Munné, J., & Reisinger, D.(2013). The elephant in the room: machine translat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Duke CIT Center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Retrieved August 31, 2021

Jung, I. H.·Chang, K. C.(2025), Evaluating AI in Poetry Trans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ChatGPT, Google Translate, Papago, and DeepL, Lingua Humanitatis, 27(1), 13-49.

O'Neill, E. M.(2019). Online translator, dictionary, and search engine use among L2 students. CALL-EJ, 20(1), 154-177.

川越 菜穂子, 2015, 韓国語の「文字と発音」導入の問題について-日本語母語話者のための韓国語教科書の分析を通して-, 『帝塚山学院大学研究論集』50, 1-37.

熊谷明泰(2000)「朝鮮語教育と学習書の現状について - 母音解説で見られる問題点を中心として - 」『関西大学研究センター報』26, 96-124.

文化庁国語課(2007), 『平成18年度「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日本文化庁.

文化庁国語課(2010),『平成21年度「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日本文化庁.
文化庁国語課(2013),『平成24年度「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日本文化庁.
文化庁国語課(2023),『令和4年度「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日本文化庁.
弥永啓子(2022), 日本人大学生の機械翻訳使用の実態調査と今後の英語教育への導入に関する考察,『京都橘大学研究紀要』48, 1-19.

[인터넷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세종학당 9개국, 11개소 신규 지정 [보도 자료], https://www.ksif.or.kr/index.do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https://www.ksif.or.kr/index.do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kor/mainAction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https://krdict.korean.go.kr/jpn/mainAction
≪Kpedia≫ https://www.kpedia.jp/
≪Weblio 일한·한일 사전≫ https://kjjk.weblio.jp/

[교재]
[1] 中島仁·金珉秀·吉本一(2019), 新みんなの韓国語, 白帝社.
[2] 厳基珠·金三順·金天鶴·申鉉竣·吉川友丈(2019), 韓国語の初歩(三訂版), 白水社.
[3] 高木丈也·金泰仁(2020), ハングル ハングルⅠ, 朝日出版社.
[4] 松﨑真日·丁仁京·熊木勉·金昺京·李秀炅(2020), 韓国語教本 ハングルマダン 改訂版, 朝日出版社.
[5] 金昌九(2020), 新装版 テーマで学ぶ韓国語(入門～初級), 駿河台出版社
[6] 金京子·喜多恵美子(2021), 三訂版 パランセ韓国語 初級, 朝日出版社.
[7] 内山政春(2022), しくみで学ぶ初級朝鮮語 改訂版, 白水社.
[8] 河正一(2022), ワンステップ韓国語, 朝日出版社.
[9] 金珍娥·野間秀樹·村田寛(2022), はばたけ！韓国語ライト版Ⅰ, 朝日出版社
[10] 山崎玲美奈(2022), キムチ1 韓国語入門, 朝日出版社.
[11] 生越直樹·生越まり子·池玟京(2022), 根と幹(改訂版), 朝日出版社.
[12] 金庚芬·丁仁京(2023), チンチャ！チョアヘヨ！！韓国語Ⅰ(改訂版), 朝日出版社.
[13] 朴庾卿·仲島淳子·金美順·徐明煥(2023), ワンアクション韓国語, 朝日出版社.
[14] 金智賢(2023), 改訂版 教養韓国語初級, 朝日出版社.
[15] 稲川石樹·金玄謹·池成林·田聖実(2024), 123！韓国語 入門～初級, HANA.
[16] 鄭鍾熙(2025), Kスタート！-できる·つなが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入門-, 白水社.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A Study on Learners' Usage

Kim, Min soo | Tokai University

Abstract

Recent advancements in AI and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ies have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the ways in which foreign language learners use dictionaries and translation tools. The introduction of services such as Google Translate, Papago, and ChatGPT has contributed to more natural sentence translations and the reduction of grammatical errors, thereby improving the accuracy of learners' wri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xts in Japan. However, excessive reliance on machine translation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actual Korean proficiency, highlighting the need for systematic guidance on the appropriate use of machine translation tools and dictionaries.

In Japan, there has been a transition from print dictionaries to electronic dictionaries and further to online and mobile dictionaries, with younger generations showing a preference for digital tools, while older generations remain dependent on print dictionaries.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both Sejong Institute learners and university students identified "interest in Korean Wave (Hallyu) content" as a major motivation for their learning, and they most often looked up unknown vocabulary through "internet searches." In particular, across all age groups and proficiency levels, the use rate of "mobile translation apps" was the highest. Among Sejong Institute learners, the use of online and mobile dictionaries increased with proficiency, whereas university students showed a marked dependence on mobile translation apps. The primary purpose of dictionary use was "meaning confirmation," and as proficiency increased, learners made greater use of multiple types of information, including example sentences, grammar, and transla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dictionaries was at a moderate level. As for improvements, both groups prioritized "diversification of example sentences." While Sejong Institute learners emphasized the inclusion of grammatical information, newly coined words, and natural translations, university students highlighted the need for natural translations, vocabulary level indicators, and concise explanations. Regarding inconveniences, Sejong Institute learners pointed out a wide range of functional and content-related limitations, whereas university students, apart from the physical weight of print dictionaries, reported few significant difficulties.

In conclusion, as dictionary usage patterns and needs vary according to learners' age, proficiency, and learning environment, it is essential for educational settings to promote the active use of authoritative online dictionaries. Furthermore, the selection of vocabulary and example sentences that reflect learners' needs and actual usage contexts, the provision of differentiated information tailored to learners' proficiency levels and learning purposes, and the enhancement of search convenience must be established as core directions in dictionary design.

토론자 약력



강 남 욱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부회장

전)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 『몽골어-한국어 학습 소사전』(공편), 『국어의미교육론』(공저),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학 개론』(공저) 등 집필

토론 4

“일본의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교육 – 학습자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강남욱 | 성균관대학교

김민수 선생님의 발표문을 흥미롭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사전 및 기계번역 활용 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령대와 숙달도에 따른 학습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습자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세부적인 분석은 향후 한국어 사전 편찬 및 교육 방안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리라 여겨집니다.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토론자로서 질의를 드리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꼼꼼한 논의를 읽어나가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자잘하게 많았지만, 토론의 말씀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돈해 보았습니다.

1. 사전 활용 현황에 대한 분류와 수치에 대한 질문

단순한 사실 확인에 대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설문의 항목으로 두신 두 가지 사항에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4.3.에서 언급하신 “어휘 검색 도구 이용 양상”에서는 복수 응답으로 (3) 온라인 사전과 (4) 모바일 사전 앱은 대체로 접근 방식이 구분되는 것 같은데 4.2.의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선택 문항으로 두신 (1) 사전 찾기와 (2) 인터넷 검색은 어떤 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1)의 경우 종이 사전을 찾는 것만을 제한하시는 것이고, (2)의 경우는 ① 인터넷 사전 사이트 검색(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등), ② 인터넷 검색창에서 바로 단어 검색, ③ 인터넷 기반 번역 사이트(PAPAGO, Google Translate 등) 검색, ④ 생성형 AI(ChatGPT, Gemini 등) 검색 등 인터넷으로 단어를 찾는 행위의 모든 것을 다 열어 두신 것인지요? 발표문을 보면 ‘디지털 기반의 검색’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자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양상은 구분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많고, 선생님께서도 다른 항목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하시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두셨는지 궁금했습니다.

2. 국립국어원 학습 사전에 대한 질문

발표문에서는 대학의 강의계획서에서는『小学館 韓日辞典』(小学館),『朝鮮語辞典』(小学館)과 같은 종이 사전이 추천됨에도 학생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기반의 사전은 네이버(NAVER) 사전 정도가 제안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용 현황에서도 〈우리말샘〉이나 〈한국어기초사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네이버 한국어 사전의 데이터베이스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세 가지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찾음으로 해서 국립국어원의 사전 정보에 도달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전으로서 〈한국어기초사전〉에 기반한 〈한국어-외국어 학습 사전(그 중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은 선생님께서 향후 학습자용 한국어 사전의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적절하고

정확한 의미 제시, 쉬운 풀이, 발음 정보 제공과 같은 측면에서 사용의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일본의 한국어교육 안에서 이 사전이 그리 인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사전이 '한국'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 확대가 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미 온라인 기반이나 AI 기반 번역기의 확대가 기정 사실이 된 지금, 온라인 기반이라도 사전을 보는 양상 자체에 변화는 세대를 넘어 대세가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어교육 연구와 한국어 어휘교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 사전은 내용이 실용적이고 알차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이 확장되기도 전에 AI와 같은 방식에 잠식이 된 것 같다는 판단도 듭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 한국어 학습 사전의 미래에 대한 전망 및 제언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제가 깊이 공감한 부분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전의 필요성'입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학습자들은 단순한 의미 확인을 넘어 다양한 예문, 자연스러운 번역, 신조어·속어, 발음·음성 정보 등 실용적이고 풍부한 언어 정보를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습 관행이나 문화에서도 사전 활용에 대한 교수-학습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는 사전 편찬의 핵심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한국어 학습 사전은 전통적인 사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기계번역기와 AI 기술의 강점인 즉시성, 편의성, 상호작용성을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번역 앱에서 특정 문장을 검색했을 때, 그 문장에 포함된 핵심 어휘나 표현에 대한 심화 정보(뜻풀이, 다양한 예문, 뉘앙스 차이 등)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사전 시스템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한국어 학습 사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이번 결과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제6회
유네스코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03

2부

토착어의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

노지영 | 문학평론가

기조강연 3

- **소설에서의 토착어 사용**

최시한 |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기조강연 4

- **현대시에 쓰인 토착어의 의미와 가치**

이경수 | 중앙대학교 교수

작가와 대화

- **토착어로 문학하기**

도종환 | 시인

사랑방 아주머니

깊은 가을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정지아 | 소설가

『아버지의 해방일지』 부분

기조강연 연사 약력



최 시 한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명예교수

현) 부천스토리텔링아카데미 원장

전)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장, 역사관장

- 『소설분석방법』, 『콘텐츠 창작과 스토리텔링 교육』, 『별빛 사윌 때』 등 집필

기조강연 3

소설에서의 토착어 사용

최시한 | 숙명여자대학교

1. 머리말 – 표준어와 문학어

한글이 비교적 일찍 널리 쓰인 갈래의 하나가 (고)소설이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소설의 담화양식이 이야기(서사)이기 때문이다. 입말에 가깝게 적는 소리글자 한글은 익히기 쉬울 뿐 아니라 삶 자체에 밀착되어 그것을 재현하기에, 소설에서 일찍이 이른바 '한글 전용'이 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사물의 세부 서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기법과 근대소설 형식이 완성되던 20세기 초이다.

그런데 근대적 국민국가의 표준어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때였기에, 당시의 작가들은 그것을 완성하고 또 알리는 사업에 나서야 했다. 한글 맞춤법 제정과 보급에 앞장섰던 신명균이 지은 『노동독본』(1928)을 읽고 소설가 이광수가 "옳지, 이렇게 써야만 해!"라고 감탄했다는 사실은,[1] 당시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당대에 흔히 쓴 용어로 '언문일치'가 된 근대적 '국어'를 정립하는 일, 언문불일치 상태로 방치돼온 국민의 '언(言)'을 정리하고 그것을 적는 '문(文)'의 표기법을 확립하는 일이 나라의 존립을 위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당시의 소설가들은 '표준(이라고 여기는) 언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품기 어려웠다. 그리고 계속된 근대사의 여러 혼란은, 작가로 하여금 국가의 표준적 어법에 관한 그 공적(公的) 책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 근대소설의 언어와 문체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빈약한 면이 있는 것은, 표준어 정립이 근대화운동이자 독립운동이었던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책무와 관념에 뿌리가 있다고 본다. 초기에 형성된 그 규범적 관습이 100여 년 동안 면면히 이어지면서, 언어의 '표준과 통일을 지향하는 집단적 태도'가 그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도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징표를 붙여, 소설의 언어예술다운 실험을 구속한 것이다. 일종의 '표준어 권위주의' 혹은 우월주의가 언어의 문학적 사용 가능성을 억제해온 셈이다.

어느 문화권에서든, 근대화 과정에서 작가들은 표준적 언어의 정립과 보급에 앞장섰다. 하지만 근대문학에서 문학적으로 사용된 언어는 규범 언어에 저항하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문예비평론에서는 그것을 일반의 표준적 언어와 대조시켜 '비규범적 언어' 혹은 '문학적 언어'라고 일컫는다. 한국 근대소설의 언어 사용 관습에 대한 앞의 진술이 일리 있다면, 물론 작가,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능 측면에서 그 '문학어'는 문학성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표준어 권위주의에 빠져 소설어를 일반어 같이만 다룰 경우, 작가들의 창조적 노력은 눈여겨보지 않고 드물게 쓰는 낱말 따위를 채집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삶의 진실을 재현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언어의 규범적 사용'이라는 것 자체를 의문시하는 게 근대문학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을 '토착어'라든가 그와 비슷한 계열의 무엇이라고 부르든, 한국 소설의 언어에서 '현대 표준어와 거리가 있는 표현'을 다루려면 어떤 도전 혹은 초월이 필요해 보인다.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도 따지고 보면 '서울 사투리'라는 정도에서 나아가, 창조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규범적 어법을 뛰어넘는 차원까지 대상을 넓히고 긍정적으로 바라봄이

1) 최시한 외 2인, 『항일문화운동가 신명균』(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89쪽.

바람직한 것이다. 표준어와 '다르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언어를 차별하지 않음은 물론, 그것으로 '문학하기'를 부추겨 공동체의 말을 보다 풍부하고 세련되게 만들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한국 근대소설에서 토착어는 '언어의 문학적 사용'에 많이 활용되었기에 이는 중요한 점이다. 근래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들도 사전에 용례까지 많이 수록되고 검색 또한 매우 쉬워졌기에, 앞서 언급한 그 도전의 여건은 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주최 측의 설정에 준하여, 이 글에서는 주된 용어로 '토착어'를 쓰되 그 개념은 유엔이 정한 '토착어의 해'라는 명칭에 바탕을 둔다.[2] 그것의 일차적인 뜻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끼리 사용해 온 언어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표준적·규범적 언어의 주변부에 놓이게 된 전통적인 말을 가리키는 용어로 쓴다. 따라서 그것은 이 글에서 대체로 토박이어, 모어(母語), 토속어, 고유어 등과 통하며 방언, 사투리, 지역어는 물론 속어, 고어(古語) 등도 싸잡는다. 토착어는 표준어와 비교할 때 주변적이 되었지만 공간성과 시간성이 강하므로 분단(으로 '표준어' 자체가 나뉘기 이전의) 겨레의 전통을 되살리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 개념을 어휘에서 관용구, 화법, 문체 등까지 넓고 유연하게 잡는다면, 앞서 지적한 표준어 권위주의 관습 극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더 커질 것이다.

이 글은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통해 그것을 계승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한국 근대소설에서의 토착어 사용 경향을 개괄한다. 그리고 토착어의 지역 위주로 나누어 작가와 작품을 살핀다. 소설을 통해 토착어를 발전시키려면 이제까지의 사용 양상, 특히 그 문학적 사용 양상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의 끝에서는 살핀 바를 바탕으로, 다중매체 시대에 맞도록 범위를 소설에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전반으로 넓혀, 앞으로 해봄 직한 일들의 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소설이 이야기 양식의 왕좌에 앉아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러나 문학이 힘을 잃어가도 언어는 사라질 리 없고, 이야기 또한 영원할 것이다. 따라서 토착어를 중심으로 소설 언어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작업은, 언어의 '미적(美的)' 사용에 대한 관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웹툰 따위가 주도하는 매체혁명 시대의 이야기 예술 및 '이야기 산업'에서 한국어가 보다 세련되고 풍부한 언어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2. 근대소설의 토착어 사용 경향

앞에서 한국 소설의 언어 사용 관습 중 하나가 일찍부터 한글만 사용한 점이라고 했다. 한문의 시대부터 신문, 학술 서적 등에 한자가 섞어 쓰인 얼마 전까지, 계속 그러했다. 이는 소설 언어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뜻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언문일치를 선도하여 '한글로 쓰기'의 길을 닦았고 표준어의 정립과 확산에 기여한, 한국 언어 공동체의 삶이 갈무리된 보고이다.

근대로 접어들어 표기법과 장르의 관습이 바뀌면서, 소설의 언어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토착어 중심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착어가 주로 대화에서 사용된다. 이는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토착어가 주로 '소설 속의 입말'에서 사용됨을 뜻한다. 《태평천하》(채만식)처럼 '전라도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 비슷하게 주권적으로 서술할 경우나, 《관촌수필》(이문구)처럼 '충청도 서술자'가 일인칭으로 자유로이 서술할 경우에는 토착어가 바탕글(지문)에서도 쓰이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편이다.

2) 유엔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토착어(indigenous languages)를 보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자 2019년을 토착어의 해로 선포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소멸해 가는 언어를 지키기 위해 매년 2월 21일을 '세계 모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지정, 언어 보존을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소설은 일단 글말인데, 대화는 '실감을 돋우기 위해' 입말대로 적는 예외를 허용하고 바탕글은 철저하게 표준어법에 따라 적는 이러한 관습은, 따져볼 연구거리이나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이는 (인물이 사적(私的) 화자라면) 바탕글의 서술자는 공적(公的) 화자여야 한다는 표준어 권위주의, 또 입말에 비해 글말을 상위에 놓는 '글말 우선주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입)말보다 글(말)을 숭상한 한문의 시대, 언문일치가 불가능했던 그 시대의 사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을 터이다. 대화는 생활에 밀착되어 실감을 돋울수록 좋지만, 바탕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공적 태도'의 산물로 보인다.

입말은 삶 자체를 재현하는 '행동' 자체이나 환경, 화자의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원을 밝혀' 표기하는 게 현행 맞춤법 규칙이다. 이는 표기를 통일시키고 뜻도 살리지만 글말을 소리 또는 발화와 달라지게 한다. 사고가 주로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사고 자체로부터 멀어지게도 한다. 그래서 '입말 살리는 문체'를 주장한 이들이 비판해온 바인데,[3] 토착어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깊이 고려할 문제이다. 구어체에 가까울수록 토착어가 많이, 토착어답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설과 달리 순전히 입말로만 된 이야기 양식, 곧 '대사의 예술'인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등에 주목하게 된다. 매체혁명에 힘입어 근래 주도적 갈래로 부상한 그런 장르들에서 토착어를 적극 활용한다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황산벌》(감독 이준익)과《친구》(감독 곽경택), 그리고《응답하라》시리즈(연출 신원호 외),《폭싹 속았수다》(연출 김원석) 같은 세태 위주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이 관심을 끌 뿐, 본격적인 시도는 그리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한편 토착어가 대화에서 주로 사용됨은, 그것이 주로 인물형상화(characterization)와 사회적·문화적 배경 제시에 쓰임을 뜻한다. 토착어가 기질, 신분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고 인물의 '성격적 특질'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기법에 활용되는 것이다.[4] 그런데 여기에도 차별과 한계가 엿보인다. 같은 말도 남성한테는 무겁게 쓰이고 여성한테는 가볍게 쓰이며, 폭력배, 하층민 등과 같은 예외적·부정적 인물들이 자주 써서 편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표준어/토착어의 구별은 글말/입말, 바탕글/대화와 함께, 일반인/주변인, 남성/여성 등 사이의 차별과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다음은 농부들의 물싸움을 다룬 짧은 서술이지만, 인물의 기질과 환경은 물론 계층, 이념 등이 반영되어 있다. 화자 개인에서 나아가 그가 속한 '집단의 성격'과 갈등을, 바흐친의 용어로 담화의 '카니발'처럼 그려낸다.

> 김은 유의 말을 참다못해 같이 엇먹어 들어갔다.
> "옛말에두 있데. 강은 가로누워 움직이지 않더냐구. 군자는 논어 맹자 속에 수백 명 모여 있더라니 게 가서 찾으야지. 우리게는 가물에 빚 보인 슨 늠만 스두룩허니께 관광헐 건데기가 없어."
> "우리가 지금 놀기 힘힘해서 예까장 와가지구 먹다 냉긴 사이닷병 같은 집이허구 앉어서, 오늘 죽어 어제 장사지냈다는 소리나 씨부렁대구 있는 중 아남? 물 도둑늠 잡어다가 장터 법관(지서 순경) 일거리 맹글어주러 온 겨. 잠깐 댕겨올 각오 허라구."
> 유가 본심을 내보이며 공갈했다. 김은 역시 묵 쑤는 데 비지 찾는 소리로만 에워나가야 될 것 같이 딴 전 보듯 응수했다.
> "또랑물 좀 가로치기했다구 고발소 가면,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선달이가 지하에서 무슨 소리 허라구."
> 유가 말 못 알아들어하는 틈에 김은 말끝을 맺었다.
>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잖어. 고전 유모아 극장……아마 그 중에서 자기 후배 얘기가 기중 저질이라고 노여워할 거라."

3) 최배은, 「이오덕의 우리말 살리는 문체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6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5, 153쪽 참고.
4) 그 사용이 일관되지 않아서, 한 인물이 토착어를 쓰다가 쓰지 않거나, 여기서는 쓰는데 저기서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그러자 울근불근하던 유의 얼굴이 굳음살로 덮이며 뻣성 석인 말로 발끈했다.
> "장마 때야 논물을 쏟아간들 끄려 허겄나. 그러나 사람 목마른 건 견뎌두 곡식 타는 건 눈으루 못 보는 게 농투산인디, 비싼 물 옆치기해가는 주제에 대이구 유식헌 소리만 무식하게 짓까부르면 다여?"
> 하고는 금방 걷어찰 듯이 양수기를 노려보았다.
>
> – 이문구, 《우리 동네》, 랜덤하우스중앙, 2005, 23쪽.

둘째, 소설을 재출간하는 과정에서 토착어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출판 기술이 나아진 해방 후에, 그리고 한자 및 한자어가 퇴조하고 토착어와 거리가 먼 세대가 늘어감에 따라, 예전의 소설책들이 꾸준히 새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현대 표준어'로 표기 및 표현을 바꾸고 '주'를 달 때 토착어를 훼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 형태를 알려면 적어도 해방 전 작품은 원전을 자료로 삼아야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삼대》(염상섭, 1931)의 경우, 거기 많이 사용된 일제 강점기 서울말을 마구 현대어로 바꾸어, 토착어 보존을 위한 원칙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지문은 표준말을 기준 삼되 표준말에 없는 방언이나 속어는 그대로 살린"[5]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의 원전비평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셋째 토착어가 주로 (대하) 역사소설에서 쓰인다.

앞에서 소설가들이 표준어의 확립과 활용에 공적 의무를 졌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근대소설 장르의 특성을 추구하면서, 소설어의 창조적 자유 또한 누리고자 모색하였다. 점차 표준적 언어 규범이 자리 잡고 소설에서 리얼리즘 정신이 중시되자, 언어의 표준적·일반적 사용과 문학적 사용을 구별하는 의식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일제에 억눌리고 분단으로 상실된 언어와 문화를 회복하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결합하여, 표준어로 인해 주변으로 몰린 '전통적 토착어', 전문 용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특히 과거를 배경 삼는 역사소설 분야에서 자연스럽고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소설 언어의 문학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토착어의 발굴과 활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작가와 작품 명단은 다음 절에 따로 적는다.

여기서 지적할 점이 있다. 그 역사소설들이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에 이바지한 바는 매우 크지만, 거기서 토착어가 오랜 세월 공식 문어(文語)였던 한문과 뒤얽히며 일어난 언문불일치의 언어 현실에 대한 천착은 깊지 않은 편이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중앙과 지역, 공식어와 생활어 등의 대립을 '언어적 사건'의 갈등과 착종을 통해 그림으로써, 한국어의 내적 역사를 드러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사용된 토착어들이 배경과 인물에 따라 시대, 계층, 지역 따위의 특징을 다소 띠고 있지만, 대체로 언어적 사회성이 약하고 어휘의 백과사전적 나열 수준에 멈추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작가들한테 역사소설도 언어 예술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결과로 보인다. 역사소설가들은 언어의 문학적 사용을 토착어로써 추구했으나, 그것은 표준어 권위주의와는 다른, 또 하나의 '공적 역할'이었던 것이다.

한편 매체의 발달로 소설이 더 이상 공동체 문화의 저장고나 전달체가 될 수 없고, 작가 역시 '한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흐려진 시대가 되었다. 외국 언어와 문물의 홍수 속에서 토착어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 역사물에 특화된 징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토착어를 특정 시대나 장르에 가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5) 창작사, 《채만식전집》(1987) 5쪽.

3. 토착어를 사용한 작가와 작품

앞에서 소설 언어의 문학적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근대소설 작가들이 그 방면에서 창조적 자유를 충분히 또 합리적으로 누리지 못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런 맥락에서, 한국 근대소설을 언어 면에서 다룰 때, 사전을 만들든 문체를 연구하든, 앞서 '표준어 권위주의'라고 부른 관습을 과감히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표준어 권위주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근대화 과정에서 너무 당위로만 추구되면서, 언어의 미적 가능성을 질식시켜 왔다는 점이다. 분명히 이문구, 박상륭, 서정인 등의 작품에서 토착어는 표준어와 구별 없이, 그와 '동등한 언어'로서 삶의 본질을 표현하고 형성한다. 토착어가 표현 매체는 물론 살아 움직이는 삶의 요소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따로 구분할 만큼 '실험성'이 두드러진 토착어 사용의 흐름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설어의 문학적 사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드는 데 그친다.

다음은 표준어는 물론이고 글의 표준 형식(단락 나누기, 대화 표시 등)마저 무시한 서술로서, 읽는 동안 독자가 그 지시적 의미를 '앎'과 함께 아이러니, 세계관 뒤틀림 따위의 '문학적 체험'을 하도록 한다.

> 철벽 같은 옥문을 열고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을 만나게 해 준 것이 예삿 일이랍디요? 알아주니 고맙군. 사례를 하고 싶어? 십만 원도 좋고 백만 원도 좋고, 형편 닿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어디 정가가 있나.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수롭지 않다고 할 때 우물우물 넘어가 버릴 것을 공연히 미주알고주알 따지다가 긁어 부시럼이 되었으니, 이 노릇을 어쩐다? 돈보다 술을 한 잔 줬으면 더 좋겠구만. 돌 잔치 술 말이야. 사례가 아니더라도,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술 한잔 대접한 것이 무슨 흉이 될라드냐. 나는 애들을 데리고 얼른 방을 나왔다. 거, 정말 한잔 줄텐가? 내가 그 등덜미에 대고 소리쳤다. 야, 그 말 어디 말 본새냐? 서울 말이냐, 강원도 말이냐, 군대 말이냐? 겁짐에 부엌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이 난감했다. 김치 콩나물에 막걸리를 내놓을 수도 없고, 돼지 비계에 소주를 들여놓는다 해도 잘사는 사람들 식성에 맞을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다 형편이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 숭들을 서로 주고받음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갑다. 부자들이 게딱지 같은 오두막에 와서 입맛 쓰기나, 가난뱅이가 고대광실 높은 집에 가서 제꾸락질 헐 것 없기나 평야 마찬가지였다. 가난뱅이가 왔다고 부자들이 평소 먹던 음식 감추며, 부자가 왔다고 가난뱅이가 듣도 보도 못한 음식 내 놓겄느냐. 남의 집에 왔으면 남의 집 음식 맛 좀 봐라. 한 끼 달리 먹었다고 배탈 날라드냐. 나는 돼지고기 반 근하고 계란 한 줄에 소주 작은 병 한 개를 사 왔다. 계란은 튀겼으면 쓰겄는디, 근천을 떠니라고, 콩 지름이 바닥이 났는지 바닥에 남은 것이 오래 되어 구셨는지, 병을 꺼구로 세우고 아무리 털어도 기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
> – 서정인, 《달궁》 둘째권, 민음사, 1988, 260쪽.

한편 표준어와 토착어, 그리고 토착어 서로 간의 두드러진 구별점은 지역성이다. 아래에서는 이른바 지역 '사투리' 중심으로 나누어, 그것의 문학적 사용을 추구한 작가와 작품을 나열한다. 뽑는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조사도 미흡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편 아래 작가나 작품의 '소설어 사전'들이 있다. 편찬자가 일반 사전만 가지고는 읽기 어렵다고 판단한 특유의 어휘나 표현을 따로 모아 풀이한 책들인데, 토착어를 담고 있어 참고가 된다. 새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작품 뒤에 붙인 '어휘 풀이'[6]도 그렇다.

6) 한 예로, 이문구의 『관촌수필』 결정본(문학과지성사, 2018)의 뒤에는 그 소설에 사용된 토착어를 풀이한 40쪽 분량의 어휘 풀이가 붙어 있다. 거기서는 "표제어를 정하고 풀이를 함에 있어, 이른바 사투리일 경우에도 구태여 그와 표준어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은 작가의 뜻을 고려하여, 그들을 대등한 자격으로 함께 적었다."(442쪽)

(작가의 이름을 적되 대표적 장편소설을 괄호 안에, 기호 없이 병기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함)

〈역사소설〉

홍명희(임꺽정), 황석영(장길산), 김주영(객주)

경상도 – 박경리(토지)

전라도 – 최명희(혼불), 송기숙(녹두장군)

황해도 – 박완서(미망)

〈일반 소설〉

서울 – 염상섭, 박태원

강원도 – 김유정

함경도 – 안수길(북간도)

평안도 – 김남천(대하)

충청도 – 이기영(고향), 이문구

전라도 – 채만식, 조정래(태백산맥), 서정인(달궁), 한승원, 문순태, 박상륭

경상도 – 김원일, 성석제

제주도 – 현기영

4. 토착어의 창조적 발전 방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토착어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방안을 이야기 문학 위주로 모색해 본다.

첫째, 계획적인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하다.

사실 주최 측이 내세운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걷잡기 어렵도록 전 세계의 문화와 언어가 뒤섞이고 융합되어 '토착적인 것'을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안에서만 보아도 국민 대다수가 서울 경기 지역에 모여 사는 데다, 영상물과 방송 언어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은 '한자어 지식과 감각'마저 부족하여 세대 간의 일상적 소통도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토착어의 경우, 더욱 조직적이고 계획된 노력이 필요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안정효의 오역사전》[7] 같은 기획을 토착어 대상으로 하여 정기간행물에 연재한다면 각성 효과가 있을 터이다.

둘째, 앞에서 표준어 권위주의 혹은 우선주의라고 부른 관념을 약화시킴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언어 전통은 문학 영역에서마저 언어유희, 패러디, 풍자 따위가 드물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쓸 공간을 마련하고 말에 대해 유연한 기풍을 북돋워야 한다. 이를 위해 가령 지자체가 지역 사투리로 하는 연극, 연설회 따위를 후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경상도 방언으로 번역한 책[8]이 있는데, 그런 일도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즐기는 랩 음악 가사 가운데 토착어를 잘 사용한 것에 상을 준다면 권위주의 청산에 효과가 클지 모른다.

---

7) 열린책들, 2013.

8) 최현애 옮김. 《애린 왕자》, 이팝, 2021.

셋째, 글말 중심에서 벗어나 입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매체의 발달로 유튜브 방송이 종이신문을 압도하고, 책을 구매하지 않고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책 혹은 글말만 중시하고 입말에 무관심했던 인습에서 벗어날 때이다. 글 중심적 태도는 생활 자체와 멀어지게 하며, 입말에는 토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에 그러하다. 글말 위주에서 벗어나 입말에도 같은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이야기인데, 입말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그것은 결국 토착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해질 터이다.

입말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음법, 표기 기준, 단어 사전 등을 지역별로, 또 실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언사전' 같은 것에서 나아간, '충청도 지역어 화법 사전' 따위를 말한다. 쉬운 대로 가령 박경리의《토지》를 경상도 말투로 '읽는 책'을 만들어도 좋다. 전라도 토착어를 능숙하게 쓰는 노인과의 흥미로운 대화로 일관하는 '전라도 사투리 유튜브 방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매체와 언어들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체혁명이 일어나 사진과 동영상의 시각 이미지가 문자와 대등하게 쓰이고 있다. 여러 매체의 인공언어가 자연언어와 융합되어 복합 텍스트를 창출하기도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주듯이, 무당, 까치, 호랑이 등과 같은 한국의 '토착적인' 사물들이 보편적인 '악마 퇴치 스토리' 텍스트를 형성하는 언어로 쓰이고 있다. 토착성 또는 원형성을 살리되, 다중매체 시대답게 다양한 이야기 '서술언어'를 활용하여 창작을 해야 효과를 본다.

여기서 교육이나 산업 분야에서 '담화 바꿔 짓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령 판소리《흥보가》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전용(轉用)하되, 스토리 전달이 아니라 그 사설에 사용된 토착어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다섯째, '대사의 예술'에 대한 체계적 육성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

앞에서 다중매체 시대를 맞아 대사의 예술로 불리는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종합예술이 지배적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소설에서 대화에 토착어를 많이 써온 것은 그것이 성격과 행동 제시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표준어 및 글말 우선주의는 토박이 생활어, 입말(의 실행) 등을 외면하여 관련 교육까지 소홀하게 만들었다. 말하기와 듣기, 극으로 모방·재현하기 등이 초·중등교육에서 얼마나 무시되었는가를 돌아보면 얼른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영상매체 시대에 토착어를 발전시키려면 대화(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콘텐츠'의 대본 창작에 필요함은 물론, 문화적 전통과 삶의 실상에 충실한 언어 능력 신장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독립된 영화 학교나 연극 학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말하기가 동반된 행동까지가 아니라 말하기 하나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조차 찾기 어렵다. 토착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의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흥미로운 책과 행사가 필요하다.

토착어는 사용하기에 따라 해학성을 띠며, 전통문화의 고갱이를 담고 있어 특히 청소년 교육에 가치가 있다. 지역별로 관련 걸작 소설 선집을 만들면 독자가 있을 것이다. 전국 국어교사모임에서 주최하던 '이야기 대회'의 사투리 부문을 코미디 형식으로 되살리고 유튜브로 중계한다면 호응이 크리라 예상한다.

일곱째, 소설의 재출판 과정에서 원전의 토착어를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

5. 맺음말

한국 근대소설은 표준어의 확립과 전파에 공이 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자가 '표준어 권위주의'라고 일컬은 관습이 뿌리박혀, 언어의 문학적 기능이 위축되고 토착어의 사용도 제한되었다. 그 결과 문체가 단조롭고 언어의 문학적 실험성이 약해졌다.

그런 환경에서도 말의 문학적 사용에 관심을 가진 작가들은, 국권의 상실과 남북 분단으로 훼손된 토착어를 찾고 보존하는 데 힘썼다. 그 노력은 여러 걸작 역사소설들을 낳았으나, 한자어와 토착어의 뒤얽힘을 파고들어 소설 언어의 문학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소설에서 토착어는 주로 대화에만 사용되며 인물형상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그것이 삶 자체를 언어예술답게 그려냄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표준어를 토착어 위에 놓는 권위주의가 글말과 입말, 바탕글과 대화, 일반인과 주변인 등의 차별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착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어, 글말, 자연어 중심의 기존 관념과 교육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문학적 사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이제까지 소홀히 해온 토착어, 입말 등을 격상시켜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중매체 시대에 맞추어 여러 인공어들을 함께 스토리텔링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Use of Indigenous Language in Modern Korean Novels

Choi Si Han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Modern Korean novel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the standard language. In the process, however, a custom that the author refers to as "standard language authoritarianism" took root, leading to a decline in the literary function of language and restricting the use of indigenous expressions. As a result, writing styles became monotonous, and the potential for literary experimentation with language weakened.

Even in such an environment, some writers who were interested in the literary use of language made efforts to discover and preserve indigenous expressions that had been damaged b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division of Korea. These efforts gave rise to numerous outstanding historical novels. However, there were shortcomings in fully exploring the entanglement between Sino-Korean words and indigenous terms to elevate the literary and social dimensions of novelistic language.

In novels, indigenous expressions are mainly used in dialogue and contribute to characterization. Thus, they show limitations in depicting life itself as a form of linguistic art. Upon closer examinatio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standard language over indigenous expressions is closely tied to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such as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narrative text and dialogue, and central versus marginal figures.

Therefore, in order to preserve and develop indigenous languag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existing concepts and educational practices centered on standard, written and natural language. There is a need to broaden awareness of the literary use of language, and to elevate and actively incorporate indigenous words and spoken language that have been previously neglected. Furthermore, in line with the era of multimedia, it is desirable to actively utilize various artificial languages in storytelling.

기조강연 연사 약력



이 경 수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장

현) 한국시학회 부회장, 한국여성문학학회 회장

전) 《문학인》 편집위원, 《서정시학》 편집주간

- 〈젊은평론가상〉, 〈김달진문학상〉, 〈난정학술상 우수상〉 등 수상
- 『바벨의 후예들 폐허를 걷다』, 『춤추는 그림자』, 『백석 시를 읽는 시간』 등 집필

기조강연 4

현대시에 쓰인 토착어의 의미와 가치

– 정지용·백석·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

이경수 | 중앙대학교

1. 서론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와 소설을 쓰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머잖아 대부분의 분야를 대체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었고 처음의 예측과는 달리 언어와 관련된 전문 분야를 먼저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가 상용화될 당시만 해도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리고 글쓰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문자를 최소화하고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SNS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문해력의 위기를 넘어 초비상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말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위기의식 또한 커지고 있다.

일찍이 유종호는 "우리 겨레의 체취가 고스란히 서려 있는 토착어"를 "한자어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한자에서 나오지 않고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을 토착어로 정의하였다.[1] 아울러 "한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되 과거 몇십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일상용어로 사용되어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토착화되어 한자로의 복원이 도리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류의 말도 일단 준토착어로서 토착어 속에 분류해 넣을 수 있"[2]다고 덧붙였다. 토착어에 무한한 애착을 느꼈던 유종호는 우리 토박이말인 토착어와 "사투리, 속어를 비롯해서 개발이 가능한 옛말의 광범위한 수집"[3]과 활용이 모국어와 모국어 문학의 발전에 기여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유종호의 글은 1960년대의 것이지만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시인들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찾을 수 있다.

요즘 대두하고 있는 문해력의 위기와 AI가 인간의 창조적 능력, 특히 시를 쓰는 예술적 활동까지 대체하려는 위기에 직면한 시대에 납작해진 표준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시의 언어의 가능성을 확장·심화하기 위해서는 사라져 가는 토착어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텍스트힙'의 유행 속에서 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뜨겁다. 이 열기가 얼마나 갈지 알 수는 없지만 '텍스트힙'을 대표하는 일부 시의 납작한 언어를 비판하기에 앞서 시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을 시의 심오한 즐거움의 세계로 이끌고 풍성한 시어의 맛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토착어를 활용한 좋은 시를 널리 읽히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 유종호, 「시와 토착어 지향」, 『유종호 전집』2, 민음사, 1995, 23쪽.
2) 위의 곳.
3) 유종호, 「한글만으로의 글 하편」, 『창작과비평』 14, 1969.6, 401쪽.

2. 충북 옥천 방언과 정지용 시

1902년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 40번지에서 태어난 정지용은 1914년 3월 옥천공립보통학교[4]를 졸업할 때까지 옥천에서 살았다. 옥천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1913년에 송재숙과 결혼했다. 1915년에 고향을 떠나 처가의 친척인 서울에 있는 송지헌의 집에서 하숙하다가 휘문고보에 진학해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3년 휘문고보 5년제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도시샤대학 예과에 입학했으며, 1926년 동 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해 1929년에 졸업했다. 귀국 후 같은 해 9월에 휘문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했다. 정지용의 일본 유학 시절은 1923~1929년까지 6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이때 방학이면 고향인 충북 옥천에 다녀가곤 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발표한 시에 창작 시기와 장소가 부기되곤 했는데 '옥천'으로 창작 장소를 밝힌 시들이 여럿 눈에 띈다. 옥천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지용의 시와 산문에는 고향인 충북 옥천의 토착어가 종종 활용되었다.

舖道로 나리는 밤안개에
어깨가 저윽이 무거웁다.

이마에 觸하는 쌍그란 季節의 입술
거리에 燈불이 함폭! 눈물 겹구나.

제비도 가고 薔薇도 숨고
마음은 안으로 喪章을 차다.

걸음은 절로 드딜데 드디는 三十적 分別
咏嘆도 아닌 不吉한 그림자가 길게 누이다.

밤이면 으레 홀로 돌아오는
붉은 술도 부르지않는 寂寞한 習慣이여!

— 정지용, 「歸路」, 『鄭芝溶詩集』(시문학사, 1935), 27쪽.

우리 시에 현대의 호흡과 맥박을 불어넣은 시로 김기림에 의해 고평을 받은 정지용의 시는 도시적이고 모던한 감각을 드러낸 시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지만, 충북 옥천의 토착어를 활용해 시어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인용한 시는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의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과 불안감을 그리고 있다. "舖道", "거리에 燈불", "薔薇" 같은 시어가 근대 도시의 감각을 드러내고 '觸하다', "喪章", "三十적 分別", "咏嘆", '不吉' 같은 한자어가 눈에 띄게 쓰였지만 '쌍그란', '함폭' 같은 충북 옥천 방언이 쓰여서 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쌍그랗다'는 '쌍그렇다'의 충청 방언으로 서늘한 기운이 있다는 뜻이다. 이마에 닿는 서늘한 계절의 기운을 "이마에 觸하는 쌍그란 季節의 입술"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마에 와닿는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쌍그랗다'라는 토착어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쌍그란 계절'의 느낌이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될 것이다. 이어지는 행에 등장하는 '함폭'도 그런 점에서 토착어가 시어로 쓰였을 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거리에 등불은 가로등을 가리킬 텐데 늦은 밤길 거리를 가득 비추는 가로등 불빛은 외롭고 쓸쓸한 도시인들에게 묘한 위안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리에 등불이 함폭!" 뒤에 "눈물 겹구나"가

4) 1910년 4월 6일 정지용은 옥천사립창명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7월에 옥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되었다. 지금의 죽향초등학교이다. 소재지는 옥천 구읍으로 생가에서 5분 거리에 있다.

바로 이어지는 까닭은 바로 그런 정서에서 연유한 것이겠다.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거리에 등불이 함폭!" 비추는 모습에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를 느끼며 눈물겹다는 감정에 순간 사로잡힌 것이 아닐까 싶다. 이때 "함폭!"이라는 충청 지역의 토착어가 가져오는 감각은 표준어나 한자어로 대체되기는 힘들 것이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러치도 않고 여쁠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ㅅ살을 등에지고 이삭 줏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鄕愁」, 『鄭芝溶詩集』(시문학사, 1935), 39~41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이 시에도 충북 옥천의 토착어가 쓰였다. '지줄대다'는 '재잘대다'의 충북 방언으로 낮게 빠른 목소리로 자꾸 재깔인다는 뜻의 동사이다. 표준어 '재잘대다'로 대체되어도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회돌아 나가"는 "실개천"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옛이야기 재잘대는 실개천'보다 어감상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에 쓰인 토착어는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고향의 말이자 모국어를 찾아 주는 역할을 한다. 적확한 토착어가 시어로 쓰였을 때 그 말을 대신할 말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의미상 비슷한 말은 많이 있지만 바로 그 토착어여야만 그려지는 고향의 풍경화가 있는 셈이다. 「향수」에 그려진 고향의 풍경을 완성하는 말들도 결국 그런 토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정지용이 일본 유학을 하던 때인 1927년 3월에 『조선지광』 65호에 먼저 발표되었다가 1935년에 출간된 그의 첫 시집 『정지용 시집』에 수록되었다.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부관연락선으로 일본과 고향을 오갔던 정지용은 모국어로 시를 쓰는 식민지 조선 청년 시인으로서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며 근대 학문을 접하는 신세였다.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 느끼는 비애감이 이 시기 정지용 시에 여러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이 시에 그려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일어나는 것이었다. 시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지용의 옥천 고향집 옆에 흐르던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는 이미지에 더해 토종 칡소를 의미하는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으로 형상화된다. 해 질 무렵 햇빛이 옅거나 약한 모양을 가리키는 '해설피'도 충청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정지용이 고향인 옥천에서 듣거나 쓰던 토착어일 것이다. 이 시에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인 고향의 풍경을 완성하는 말들도 고향의 토착어가 지닌 힘에 기대고 있다. "지줄대는", "얼룩백이 황소", "해설피", "참하", "짚벼개", "함추름", "누의", "여쁜", "안해", "석근", "서리 까마귀" 같은 토착어들이 없었다면 이 시가 그린 고향의 풍경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정지용의 시에 즐겨 쓰인 '조찰하다', '솔쳐나다' 같은 옥천의 토착어라든가 「무서운 시계」에 쓰인 '서마서마'(평북 방언), 「백록담」에 쓰인 '도체비꽃'(제주 방언)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지용의 시와 산문에는 사실 충북 옥천의 토착어 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방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기행 산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지용은 특정 지역을 여행하며 기행 산문을 쓸 때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 지역의 토착어를 적극 활용해 산문을 쓰곤 했다. 모국어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던 일제 강점기에 정지용이 토착어를 사용해 기행 산문을 썼다는 것은 토착어의 기록과 보존을 통해 모국어를 망각 속에 빠뜨리지 않고 풍성하게 기억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3. 평북 정주 방언과 백석 시

1912년 평북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1013번지에서 수원 백씨 백용삼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백석은 오산소학교와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1930년 『조선일보』 신년현상문예에 「그 母와 아들」로 당선된 뒤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青山) 학원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고향인 정주에서 지냈다. 1934년 아오야마 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 조선일보사에 취직하면서 그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는데, 1935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처음 발표한 백석의 시는 「定州城」이었다. 1936년에 출간한 백석의 첫 시집 『사슴』에는 평북 정주 지역의 방언을 비롯해 사라져 가는 옛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시가 수록되었다. 조선어학회 사람들과도 교류했던 백석은 고향의 정서에 바탕을 둔 시를 통해 평북 정주 지역의 토착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오야마 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근대 지식의 세례를 받은 백석이 평북 정주 방언을 적극 활용한 시를 쓴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슴』 이후에 발표한 시에서 평북 정주 방언의 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보아도 백석의 시어 선택이 매우 의식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냥이가새끼를치는 전에는쇠메듣도적이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 고개밑의
山넘어마을서 도야지를 잃는밤 즘생을쫓는 깽제미소리가 무서웁게들려오는집
닭개즘생을 못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춘을지나는집

예순이넘은 아들없는가즈랑집할머니는 중같이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가면 긴담배대에 독하다는막써레기를 멜대라도 붙이라고하며

간밤엔 셤돌아레 승냥이가왔었다는이야기
어느메山곬에선간 곰이 아이를본다는이야기

나는 돌나물김치에 백설기를먹으며
녯말의구신집에있는듯이
가즈랑집할머니
내가날때 죽은누이도날때
무명필에 이름을써서 백지달어서 구신간시렁의 당즈깨에넣어 대감님께 수영을들였다는 가즈랑집할머니
언제나병을앓을때면
신장님달련이라고하는 가즈랑집할머니
구신의딸이라고생각하면 슳버젔다

토끼도살이올은다는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山나물을
하는 가즈랑집할머니를딸으며
나는벌서 달디단물구지우림 둥글네우림을 생각하고
아직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뒤우란 살구나무아레서 광살구를찾다가
살구벼락을맞고 울다가웃는나를보고
미꾸멍에 털이멜자나났나보자고한것은 가즈랑집할머니다

찰복숭아를먹다가 씨를삼키고는 죽는것만같어 하로종일 놀지도못하고 밥도안먹은것도
가즈랑집에 마을을가서
당세먹은강아지같이 좋아라고집오래를 설레다가였다

— 백석, 「기즈랑집」, 『사슴』(선광인쇄주식회사, 1936), 1~5쪽.

1936년에 출간된 백석의 첫 시집 『사슴』의 첫 시로 수록된 「가즈랑집」은 이 시집의 세계가 위치한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이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마을의 누군가 아프거나 할 때마다 찾아가는 가즈랑집할머니는 마을의 무(巫)이자 의사와도 같은 치유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 가즈랑집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즈랑고개를 넘어 고개 밑의 가즈랑집에 가야 한다. 가즈랑고

개는 승냥이가 새끼를 치고 전에는 쇠메 든 도적이 났다고 하는 곳이고, 가즈랑집은 산 너머 마을에서 "도야지를 잃는밤"이면 "즘생을쫓는 깽제미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집"이자 언제 짐승이 출몰할지 몰라서 "닭개즘생을 못놓"고 "멧도야지와 이웃사춘을" 지내는 집이다.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과는 동떨어진 으슥한 곳에 홀로 살고 있는 가즈랑집할머니에 대한 묘사는 이 시에 신화적 색채를 불어넣는다.

백석의 시에는 아이와 어른 같은 인간은 물론, 동물과 식물, 사물과 귀신이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모계적 공동체가 그려져 연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 또한 마을의 치유자이자 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즈랑집할머니를 통해 백석이 그리는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시에 적극적으로 쓰인 평북 정주 지역의 토착어가 『사슴』의 첫 시를 통해 어떤 세계로 진입해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깽제미', '당즈깨', '신장님달련', '아르대즘퍼리', '당세' 등 평북 방언이 가즈랑집할머니와 얽힌 유년의 시간을 불러내 독자들에게도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 방언이 아니어도 '돌나물김치', '백설기',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山나물", '물구지우림', '둥굴네우림', '도토리묵', '도토리범벅' 등의 음식 이름 또한 지역성을 강하게 환기하면서 백석 시에서 토착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집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보여주는 첫 시는 평북 정주에서 시인이 경험한 유년의 시간으로 독자들을 훌쩍 데려간다.

명절날나는 엄매아배따라 우리집개는 나를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있는 큰집으로가면

얼굴에별자국이솜솜난 말수와같이눈도껌벅걸이는 하로에베한필을짠다는 벌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新里고무 고무의딸李女 작은李女
열여섯에 四十이넘은홀아비의 후처가된 포족족하니 성이잘나는 살빛이매감탕같은 입술과 젓꼭지는더깜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土山고무 고무의딸承女 아를承동이
六十里라고해서 파랗게뵈이는山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이빩안 언제나힌옷이정하든 말끝에 설게 눈물을짤때가많은 큰곬고무 고무의딸洪女 아들洪동이작은洪동이
배나무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볕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디젓닮으려가기를좋아하는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이그득히들 할머니할아버지가있는 안간에들몰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내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두부와 콩나물과 볶운잔디와고사리와 도야지비게는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달린 배나무동산에서
쥐잡이를하고 숨굴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하고 이렇개 밤이어둡도록 북적하니논다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매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웋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멫번이나독구고 홍게닭이멫번이나울어서 조름이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그림자가치는아츰 시누이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

-백석, 「여우난곬族」, 『사슴』(선광인쇄주식회사, 1936), 6~11쪽.

지금은 사라지고 잊힌 공동체를 백석의 시는 끊임없이 환기한다.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우난골족'이라는 공동체성을 불러오는 이름이 붙는다. 백석의 대표시 중 하나인 이 시는 1935년 12월『조광』1권 2호에 발표했다가『사슴』에 수록된다. 이 시의 화자는 명절날 모인 혈족들의 외양과 사연은 물론 명절 음식과 민속놀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흥성거리는 명절날 풍경을 재현해낸다. 명절날 모이는 일가친척의 면면과 그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음식과 놀이와 이야기가 '여우난골족'의 공동체를 완성하고 있다.

'여우난골'이라는 마을 이름부터 '진할머니', '진할아버지'처럼 친척을 이르는 말, '오리치' 같은 도구, '반디젓', '송구떡', '볶운잔디', '무이징게국' 같은 음식 이름, '숨굴막질', '조아질', '쌈방이', '바리깨돌림', '호박떼기', '제비손이구손이' 같은 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북 지방의 토착어들이 쓰인 이 시는 마치 풍물 사전처럼 지금은 사라진 명절날 풍경을 복원해 보여준다. 그 지역의 살아 있는 토착어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생생한 명절날 풍경이 재생될 리 없었을 것이다.

이승훈이 설립하고, 조만식, 홍명희 등이 교장으로 있었던 오산고보를 졸업한 백석은 오산고보 시절 김억에게 배웠고 김소월을 사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산고보에서의 배움은 모국어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갖도록 백석을 이끌었을 것이다. 일찍이 김소월의 시를 탐독했고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며 근대교육의 세례를 받은 백석이 평북 정주 지역의 방언과 사라져가는 옛말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첫 시집『사슴』을 출간한 것을 보면 그의 언어 사용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으로서 모국어와 일본어의 위계는 물론 평북 정주의 토착어인 고향의 말과 표준어로서의 조선어 사이의 위계 또한 백석은 의식하면서 자신의 첫 시집에 수록될 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치밀하게 기획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백석에게 평북 정주의 토착어는 사라져 가는 민족의 역사와 풍속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시어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4. 경남 진주 방언과 허수경 시

허수경은 196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고향에 머물렀다. 1988년 첫 시집『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실천문학사에서 출간하면서 서울을 자주 왕래했고, 대학 졸업 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방송작가 및 스크립터로 일하며 시를 썼다. 병환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의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다. 고단한 서울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두 번째 시집『혼자 가는 먼 집』(1992)을 내고 나서 시인은 훌쩍 독일로 떠난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의 일이었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고대 동방문헌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세계 각지의 발굴지를 다녔고 마침내 뮌스터대학교에서 고대근동고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사이『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2001),『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2005),『빌어먹을, 차가운 심장』(2011),『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2016) 등 네 권의 시집을 더 출간해 총 여섯 권의 시집과『모래도시』,『아틀란티스야, 잘가』,『박하』 등 세 권의 소설, 여러 권의 에세이집과 파울 첼란의 번역 시집 등을 출간했다.

허수경은 첫 시집『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경남 진주 방언을 절절하게 사용해 시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에서는 서울말로 시를 썼다. 다시 진주 방언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네 번째 시집『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 와서다.

> 기다림이사 천년 같제 날이 저물셰라 강바람 눈에 그리메지며 귓불 불콰하게 망경산 오르면 잇몸 드러내고
> 휘모리로 감겨가는 물결아 지겹도록 정이 든 고향 찾아올 이 없는 고향
> 문디 같아 반푼이 같아서 기다림으로 너른 강에 불씨 재우는 남녘 가시나
> 주막이라도 차릴거나
> 승냥이와 싸우다 온 이녁들 살붙이보다 헌칠한 이녁들

거두어나지고
밤꽃처럼 후두둑 피어나지고
-허수경, 「진주 저물녘」,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실천문학사, 1988) 전문

백석이 지면에 발표한 첫 시가 「정주성」이었던 것처럼 허수경의 첫 시집 1부의 제목이기도 하고 첫 수록 시이기도 한 시가 바로 「진주 저물녘」이다. 허수경의 진주 방언은 어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어미와 어투까지 재현하고 있다. 진주의 토착어가 진주 방언의 말맛을 살려 재현된 것은 물론이고 진주 지역의 장소성이 허수경의 시에는 살아 있다. 망경산 언덕에서 고향인 진주를 내려다보며 이녁들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펼쳐진 것이다.

"기다림이사 천년 같제"라는 첫 문장부터 진주 방언 특유의 억양을 동반하며 진주 저물녘의 정서를 보여주기 위한 시동을 건다. "문디 같아 반푼이 같아서 기다림으로 너른 강에 불씨 재우는 남녘 가시나"의 이미지는 진주 토착어의 정서에 기대어 완성된다. "승냥이와 싸우다 온 이녁들 살붙이보다 헌칠한 이녁들"도 허수경의 첫 시집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진주 저물녘의 슬픔으로 감겨드는 기다림의 정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허수경의 첫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는 진주 방언이 전방위적으로 사용된다. 이때 진주 방언은 진주의 역사와 장소성에 기반한 깊은 슬픔을 형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진주 토착어로 표현되는 짙은 슬픔의 정서는 허수경의 첫 시집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에서 허수경은 표준어에 가까운 서울말을 구사하며 네 번째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이 출간되기까지 오랫동안 허수경의 시에서 진주 방언은 모습을 감춘다.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의 1부 '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에는 10편의 시가 두 편씩 짝을 지어 한 편은 표준어로, 다른 한 편은 진주 방언으로 쓰여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진주 방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꽃 든 자리
꽃 나간 자리

아득한
어두운

여보세요
불 좀 꺼주세요

환해서
잠 안 오네요
-허수경, 「언덕 잠(봄)」,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문학과지성사, 2005) 전문

꽃 든 고시
꽃 나간 고시

아드커데
검등하데

자, 녘에 선 손님예
불 좀 꺼주이소예

훤등코해
멧잠 안 오네예
-허수경, 「언덕 잠(봄)-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문학과지성사, 2005) 전문

'표준어 시-방언 시'가 짝을 이루는 10편의 시 중 처음 두 편의 시이다. 1부에는 이 시 앞에 「거울 들판」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집의 목차에 '거울 들판'으로 제목이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제목이 없는 시이다. 7개의 연이 가운데 정렬로 배치되어 있는 이 시는 '거울 들판'으로 시작해서 '거울 들판'으로 끝나는데 마치 거울처럼 너른 들판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데칼코마니 구조를 띠고 있다. "거울 속으로 새 신 신고 들어간다/거울 속에서 헌 신 신고 나온다"라는 3연을 구성하는 두 개의 행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고 거울 속에서 나오는 짝을 이루는 행위와 '새 신'과 '헌 신'의 대구를 통해 이후 이어지는 두 편씩 짝지어진 10편의 시를 예비하고 있다.

인용한 시는 그중 첫 번째 짝을 이루는 시들이다. 짧은 시이지만 표준어로 쓰인 「언덕 잠(봄)」과 진주 방언으로 쓰인 「언덕 잠(봄)」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주 방언으로 쓰인 시에 '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진주 방언을 전격적으로 사용하며 냈던 첫 시집 이후에 『혼자 가는 먼 집』(1992)과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2001)라는 두 권의 시집을 거의 10년 정도의 간극을 두고 서울과 독일에서 출간하면서 허수경은 진주 방언 대신 표준어에 가까운 서울말로 시를 쓴다. 서울을 거쳐 독일로, 발굴지로 "어디 먼 데"(「대구 저녁국」)를 찾아 떠돌았던 시인은 서울말과 독일말을 쓰면서 진주 방언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네 번째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 이르러 비로소 진주 방언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첫 시집으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이제 허수경은 '진주 말'을 '내 말'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진주 말'과 '내 말'이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진주 말'이 구축하는 언어공동체 속에 '내 말'도 개별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표준어로 쓰인 납작한 시어와 달리 진주 방언으로 쓰인 시는 진주 말이 환기하는 특별한 정서를 풍부한 질감으로 전달한다. 진주 토착어와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시인으로서 '내 말'을 찾는 시적 여정은 허수경의 산문 「글쓰기, 라는 것의 시작」에서 '할머니의 바다'[5]를 표현하려는 허수경의 시도와 실패,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찾게 된 것이기도 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정지용, 백석, 허수경의 시에 쓰인 토착어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밝혀 보았다. 정지용은 충북 옥천의 시인이고 백석은 평북 정주의 시인이며 허수경은 경남 진주의 시인이다. 정지용과 백석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주로 활동한 시인이고, 허수경은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다. 충북 옥천, 평북 정주, 경남 진주로 고향이 달랐던 세 시인이 사용한 토착어도 당연히 달랐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 고향에 한평생 머물며 시를 쓴 시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정지용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옥천에서 보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옥천을 자주 다녀갔지만 휘문고보에 진학하기 전에 서울에 올라가 휘문고보를 마칠 때까지 서울에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교토 도시샤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서울 휘문고보에 직장을 얻었다. 이후 서울 은평구 녹번리는 정지용의 주거주지가 된다. 다시 말해 옥천, 서울,

5) "니 그, 바다 때깔, 보나, 니가 글을 쓸 줄 알게 되몬, 그 때깔 이바구 먼저 써다고."(허수경, 「글쓰기, 라는 것의 시작」,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45쪽.)

일본 교토를 오가며 정지용의 옥천 토착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향의 시인으로 흔히 알려진 백석의 경우에도 알려진 만큼 고향인 평북 정주에 머문 시기가 길지는 않았다. 일본 유학을 가기 전까지 정주에 머물렀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는 서울, 함흥, 만주를 오갔다. 해방 후에는 평양에 머무르다 삼수 관평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방 전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조선과 일본, 도쿄와 평북 정주와 서울과 함흥을 오가며 백석의 언어관은 형성되었다.

허수경은 앞서 두 시인과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후대의 시인이지만, 고향인 경남 진주에 그가 머문 시기는 대학 졸업 때까지였다. 이후 서울, 독일, 각종 발굴지로 이어진 허수경의 행보는 경남 진주의 토착어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분명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경남 진주 방언을 진하게 구사하며 출간해 화제가 된 첫 시집으로 인해 경남 진주의 토착어가 허수경의 시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지만 진주의 토착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먼 데"를 지향하는 과정이 결국 '진주 말'이자 '내 말'을 찾는 과정이었으며 허수경의 시적 여정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The Meaning and Value of Indigenous Language Used in Modern Poetry: Focusing on the Poems of Jeong Ji-yong, Baek Seok, and Heo Soo-kyung

Lee, Kyungsoo |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In an era where AI writes poetry and 'text-hip'(a recent trend in Korean society in which reading is viewed as a "hip" activity) is trending,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ndigenous language can still exert its power as a poetic element. Before criticizing poetry, which is deemed flat and synonymous with 'text-hip', it is essential to explore the beauty of poems utilizing indigenous language and recognize how richly it can infuse our mother tongue with texture. It is necessary for us to widely promote its meaning and valu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ndigenous language used in the poems of Jeong Ji-yong, Baek Seok, and Heo Soo-kyung, revealing their significance and worth.

Jeong Ji-yong was a poet from Okcheon, Chungbuk, where he spent his youth. Even after graduating from Whimoon High School in Seoul and studying abroad in Japan, he frequently visited his hometown of Okcheon during vacations. Although he did not spend an extensive amount of time in Okcheon, his poetry and prose often incorporate the indigenous language of his hometown. His poem "Return," included in the Collected Poems of Jeong Ji-yong, expresses the speaker's feelings of loneliness and anxiety while returning home after finishing work in the city. Words from the Okcheon dialect, like "ssanggeuran" and "hampok," are interspersed among Chinese characters that reveal the modern urban sensibility, enriching the poem with the chill of autumn and comforting the speaker's sense of loneliness and unease. Additionally, in his poem "Nostalgia," published during his study in Japan, many indigenous words from Okcheon, such as "jijuldeda," "eollukbaegi hwangso," and "haeseolpi," contribute to completing the imagery of his hometown.

The poet Baek Seok, from Jeongju in North Pyeongan, stayed in his hometown until he went to study in Japan. His first published poem in print is "Jeongju Fortress," and his first collection, Deer, published in 1936, includes poems that actively use dialects from the Jeongju region and words that are fading away. Baek Seok expressed his desire to preserve the indigenous language of the Jeongju area through poetry rooted in the sentiments of his hometown. His intentional use of the dialect in his poems, despite receiving a modern education in English literature in Japan, reflects a deliberate choice. The first poem in Deer, "Gajeurang House," uses the local dialect to evoke childhood memories associated with his grandmother's house, allowing readers to experience that time for themselves. The indigenous words used in "The Fox's Tale" encompass various aspects like village names, food names, and games, almost like a cultural dictionary, restoring the scenery of traditional festivals

that have now disappeared.

The poet Heo Soo-kyung from Jinju, Gyeongnam, stayed in her hometown until she graduated from university. She gained attention for her first poetry collection, Where Is There Only Sadness, in which she passionately used the Gyeongnam Jinju dialect. However, in her second and third collections, she wrote in standard Korean. It was not until her fourth collection, The Time of Bronze, the Time of Potatoes, that the Jinju dialect reappeared. The Jinju dialect used in poems like "The Evening of Jinju" goes beyond the inclusion of mere vocabulary and reproduces the endings and tones of the language. The deep sorrow expressed in the local dialect intensely captivates readers in her first collection. After wandering to distant places, including Seoul and Germany, the poet finally returns to using the Jinju dialect in her fourth collection, The Time of Bronze, the Time of Potatoes. Now, Heo Soo-kyung has come to accept the "Jinju language" as "my language." Although the "Jinju language" and "my language" are not identical, she realizes that for her, "my language" can also gain individuality within the linguistic community constructed by the "Jinju language."

작가 약력



도 종 환
시인

전)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

- 〈정지용문학상〉, 〈윤동주상〉, 〈백석문학상〉 등 수상
- 『접시꽃당신』, 『해인으로 가는 길』, 『부드러운 직선』 등 집필

시

사랑방 아주머니

죽으믄 잊혀지까 안 잊혀지는겨
남덜이사 허기 좋은 말로
날이 가고 달이 가믄 잊혀진다 허지만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생각나는겨
살믄서야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새끼 낳고 살던 첫 사람인디
그게 그리 쉽게 잊혀지는감
나도 서른둘에 혼자 되야서
오 남매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읎서
세상은 달라져서 이전처럼
정절을 쳐주는 사람도읎지만
바라는 게 있어서 이십 년 홀로 산 건 아녀
남이사 속맴을 어찌 다 알겄는가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는겨
암 쓸쓸하지 사는 게 본래 조금은 쓸쓸한 일인겨
그래도 어쩌겄는가 새끼들 땜시도 살어야지
남들헌티사 잊은 듯 씻은 듯 그렇게 허고
그냥 사는겨
죽으믄 잊혀지까 안 잊혀지는겨

깊은 가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멈추어 있는 가을을 한 잎 두 잎 봅아내며 저도 고요히 떨고 있는 바람의 손길을 보았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꼭 한 번 이렇게 아름답게 불타는 날이 있다는 걸 알려 주며 천천히 고로쇠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만추의 불꽃을 보았어요

억새의 머릿결에 볼을 부비다 강물로 내려와 몸을 담그고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깔깔댈 때마다 튀어 오르는 햇살의 비늘을 만져 보았어요

알곡을 다 내주고 편안히 서로 몸을 베고 누운 볏짚과 그루터기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향기로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장 많은 것들과 헤어지면서 헤어질 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살며시 돌아눕는 산의 쿨럭이는 구릿빛 등을 보았어요

어쩌면 이런 가을 날 다시 오지 않으리란 예감에 까치발을 띠며 종종대는 저녁노울의 복숭아빛 볼을 보았어요

깊은 가을,

마애불의 흔적을 좇아 휘어져 내려가다 바위 속으로 스미는 가을 햇살을 따라가며 그대는 어느 산기슭 어느 벼랑에서 또 혼자 깊어가고 있는지요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산벚나무 잎 한쪽이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의 열두시에서 한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의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은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작가 약력



정 지 아
소설가

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전)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초빙교수

- 〈만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5.18문학상〉 등 수상
- 『고욤나무』, 『봄빛』, 『아버지의 해방일지』 등 집필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부분

1974년 여름, 그러니까 내가 열 살 되던 해였다. 방학 중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부채질을 해줘도 땀이 식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 견디다 못한 우리 식구는 찐 감자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아 다리 밑으로 나갔다. 물가는 한결 시원해 다리 그늘 아래는 어지간한 더위도 견딜 만했기 때문이다. 다리 밑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미 만원이었다. 진작 나와 있던 할머니가 어머니와 나를 잡아끈 덕분에 우리는 햇살이 비켜나고 있던 일곱시 방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남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으나 그래도 그늘은 아이와 여자들의 차지였다. 그늘에 간신히 몸을 걸치고 다리에는 땡볕을 맞고 있던 한씨 아저씨가 연신 부채질을 하며 한마디 했다.

"미국도 어지간히 더운갑서이."

물에 뛰어들려고 훌렁훌렁 옷을 벗던 아버지가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보았다.

"못 들었능가? 퍼벅인가 머신가, 유명한 여류작가가 카메라 앞에서 지 머리에 총을 쏴가꼬 죽어뿌렀다등마. 하도 더웅게 미쳐부렀능갑제."

가만히나 있지. 틀린 것 못 참는 아버지는 퍼벅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들었다.

"먼 소리여? 퍼벅은 작년에 늙어서 죽었는디."

돌이켜보니 그 시절엔 낭만도 있었다. 시골 무지렁이들 입에서 펄벅의 죽음이 오가다니. 아무튼 할머니 옆에서 삶은 감자를 먹고 있던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늘 밑이었는데도 나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막 농약 친 고춧잎처럼 반짝거린다고 생각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가 봤그마."

그 시절 자전거 탄 우체부가 신문을 배달하는 반내골에서 오늘 신문이란 당연히 전날 신문이었다. 아버지가 물속으로 텀벙텀벙 걸어가며 무심히 비수를 던졌다.

"잘못 봤겄제."

고기 잡는 솜씨라고는 일곱살 먹은 조카보다 못한 주제에 아버지는 어설프게 투망을 던지며 이내 물놀이에 심취했다. 나는 작은아버지가 입술을 자근자근 깨무는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다. 작은아버지는 손에 쥔 감자를 집어던지고는 냅다 집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틀렸구나, 어린 나도 짐작했다.

다음 날 첫새벽, 고함소리에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지는 마루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니는 그리 잘나서 집안 말아묵었냐? 집안 다 말아묵고 넘의 인생 망친 놈이 가마니로 가만히나 있제 멋이 잘났다고 멀쩡한 사램을 벵신 맹글고 지랄이여 지랄이! 동상 벵신 만들고 잠이 처오드냐?"

작은아버지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삿대질을 할 때마다 맑은 소주가 출렁거리며 쏟아졌다. 어느 순간 우리 집 작은

마당에 아침의 첫 햇살이 쏟아져내렸다. 마당으로 쿨렁쿨렁 쏟아지는 소주에도 햇살은 어김없이 내리꽂혔다. 소주병이 튕겨낸 찬란한 빛이 술에 절여진 작은아버지의 몸을 에워싸는 듯했다. 그 빛에 쏘이기라도 한 양 작은아버지는 순식간에 뒤로 쾅하고 넘어져 마당에 대자로 뻗었다.

그날 나는 이장 집에 가서 조선일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작은 단신 하나를 찾아냈다.

"지난 7월 15일 미국의 유명 아나운서 크리스틴 처벅이 방송 도중 권총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쏴서 자살했다."

처벅은 퍼벅이 되고 퍼벅은 펄벅이 되었다. 작은아버지가 처벅이라고 했는지 퍼벅이라고 했는지 펄벅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명한 작가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사실이다. 한글도 모르는 한씨 아저씨가 펄벅이 유명한 작가라는 것을 알 리는 만무하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형을 향해 삿대질을 하게 만든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인가? 열 살의 나는 미간에 주름이 잡히도록 신문을 쏘아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런 날이 있었다.

비매품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발 행 일 2025년 10월 23일

발 행 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
https://www.gyeoremal.or.kr

제 작 ㈜잇츠마이스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는 아래 주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포럼 공식 누리집 http://www.gyeoremalforum.com

겨레말TV(유튜브 채널) http://www.youtube.com/@gyeoremaltv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The 6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ies and Literature Activities in Indigenous Languages

